

Regime Integration and Linguistic Issues International Conference

체제 통합과 언어 문제 국제 학술 대회



2011. 11. 23. | 수 | 9:00~18:00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Seoul

차례



제1부

체제 통합과 언어 문제	19
김하수 (연세대학교)	
다양성 사이의 주체성: 사회 경제 개혁과 중국의 언어 정책	39
저우칭성 (중국 사회과학원)	
통일 이후 베트남어 표준화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	93
응우옌반히에우 (베트남국립대학, 하노이)	

제2부

남한에서의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그동안의 성과	117
조남호 (국립국어원)	
타이완의 국어에 대한 신화 해체: 여럿으로 이루어진 하나	145
장상관 (타이완 국립정치대학)	

제3부

다중 언어 사회에서의 언어 묶음 – 마카오의 예	171
수제 (마카오대학)	
통합과 차이 간의 세심한 균형	187
(미국 국방외국어대학교에서의 고급 북한 언어 자료 개발 경험을 토대로)	
강사희 (미국 국방외국어대학교)	

Session 1

Regime Integration and Linguistic Issues 28

KIM Hasoo (Yonsei University)

Subjectivity and Diversity: Development of Language Policy in China 66

ZHOU Qingsheng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Some Issues of Vietnamese Standardization after the National Unification 102

NGUYEN Van Hieu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

Session 2

Achievements in South Korean Efforts toward the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Language 128

CHO Namho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E Pluribus Unum: Deconstructing the Myth of National Language in Taiwan 156

CHANG Shang-Kuan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Session 3

Language Packaging in a Multiple Lingual Society –The Case of Macao 178

XU Jie (The University of Macau)

Delicate Balancing between Unity and Differences: (Based on Advanced North Korean Dialect Material Development Experience in Defense Language Institute) 198

KANG Sahie (Defense Language Institute)

일정



사회 정희원 (국립국어원)

09:00~09:30	○ 참가자 등록
09:30~09:50	○ 개회
09:50~10:50	○ 기조연설 김하수 (연세대학교)
10:50~11:00	○ 휴식
11:00~11:45	○ 중국 저우칭성 (사회과학원)
11:45~12:30	○ 베트남 응우옌반히에우 (베트남국립대학, 하노이)
12:30~14:00	○ 점심 식사

사회 이승재 (국립국어원)

14:00~14:45	○ 한국 조남호 (국립국어원)
14:45~15:30	○ 타이완 장상관 (국립정치대학)
15:30~16:00	○ 휴식

사회 이운영 (국립국어원)

16:00~16:45	○ 마카오 쉬제 (마카오대학)
16:45~17:30	○ 미국 강사희 (국방외국어대학교)
17:30~18:00	○ 정리 및 폐회

SCHEDULE

presenter **JUNG Heewon** (NIKL)

09:00~09:30	○ Registration for the Conference
09:30~09:50	○ Opening
09:50~10:50	○ Keynote Address KIM Hasoo (Yonsei University)
10:50~11:00	○ Recess
11:00~11:45	○ China ZHOU Qingsheng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11:45~12:30	○ Vietnam NGUYEN Van Hieu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
12:30~14:00	○ Lunch

presenter **LEE Seungjae** (NIKL)

14:00~14:45	○ Korea CHO Namho (NIKL)
14:45~15:30	○ Taiwan CHANG Shang-Kuan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15:30~16:00	○ Recess

presenter **LEE Woonyoung** (NIKL)

16:00~16:45	○ Macau XU Jie (The University of Macau)
16:45~17:30	○ The US KANG Sahie (Defense Language Institute)
17:30~18:00	○ Close




가을이 깊어 가는 계절에 우리나라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이곳 경복궁에서 국내외 여러 전문가 분을 모시고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국제 학술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꺼이 기조연설을 맡아 주신 김하수 교수님과, 이 자리를 위해 멀리서 오셔서 발표를 맡아 주신 다섯 분 교수님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학술 대회 주제에 공감하시고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된 후 6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면서 남과 북은 사회 전반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통일이라는 민족의 숙원을 이루어 내기 위해 각 분야에서 많은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분단에 따른 언어 이질화 문제는 성공적인 통일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언어학자, 국어학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 기관인 저희 국립국어원은 그중에서도 가장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연구해야 할 주체일 것입니다.

국립국어원은 그동안 남북 언어 통합을 대비하여 여러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북측의 학자와 함께하는 남북 공동 학술 대회를 1996년부터 7차에 걸쳐 개최하였고, 북한어 조사 연구 사업도 꾸준히 벌여 왔습니다.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가 최근 일련의 사태로 주춤해짐에 따라 직접적인 교류는 어려워졌지만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9년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최한



국제 학술회의나 사회언어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 대회, 그리고 2010년 오사카에서 개최한 재일 동포 언어 국제 학술 대회는 모두 이러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다시금 ‘체제 통합과 언어 문제’라는 주제로 국제 학술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언어 통합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번 학술 대회는 주제에 나타난 것과 같이, 체제 통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험을 한 여러 나라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각 나라에서 겪고 있는 언어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듣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비슷한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 분들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앞으로 통일을 대비하는 데에 도움을 얻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전해 주시는 말씀이 앞으로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방향을 잡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발표를 맡아 주신 교수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늦가을에 이루어진 오늘의 만남이 모든 분들께 귀하고 좋은 인연으로 기억되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1년 11월 23일

국립국어원 원장 권재일

Greetings

It is a great honor and pleasure for me to be hosting thi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integration of the North and South Korean languages here at *Gyeongbokgung* Palace along with experts from home and abroad.


I would like to welcome and extend my heartfelt gratitude to all the esteemed professors who are here to offer their invaluable insight, especially Professor Kim Hasoo, who will be delivering the keynote address. I would also like to thank everyone who expressed an interest in the theme of this conference and made it here even though I am sure you are all very busy.

Unfortunately, Korea remains the only divided country in the world. More than 60 years of division has led to the societies of South and North Korea being very different in many respects. Despite these differences, there are many who work hard in a number of fields to achieve our long-cherished dream of reunification.

In particular, we believe the differences in our shared language must be resolved for the successful integration of the two societies. This is a task of linguists, or Korean linguists to be more specific, and no one else. In this sense,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undoubtedly has to play a leading role in addressing this issue.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has been carrying out a wide variety of projects in preparation for the integration of the Korean langua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re have been seven joint conferences attended by scholars from both countries since 1996. We have also continued to study and research the Korean language as it is spoken in North Korea. Over that time, we have not stopped moving forward with this initiative even when tensions have risen between the two nations due to a recent series of events which has made dealing directly with the North somewhat difficult.

This includes an international conference in Uzbekistan in 2009, the academic conference jointly host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and the Sociolinguistic Society of Korea, and a 2010 international conference held in Japan on how Koreans in Japan speak Korean. This year, we are hosting a conference on the integration of social systems and languages.

This conference aims to discuss language problems and solutions with experts from around the world who have a similar experience as the Korean language as it relates to social integration. It is our sincere hope that this will offer us a chance to listen to others who have the same concerns in order to help us better prepare for reunification. We firmly believe that your invaluable opinions will be beneficial to allow for the language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Once again, I would like to thank all the professors who will be making presentations and everyone else for attending this conference.

I trust this conference will provide a wonderful opportunity for all of you. Thank you.

November 23, 2011

Director General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Kwon Jaeil

축 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광식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이 겸허한 자세로 겨울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분주한 일상을 차분한 마음으로 대하게 해주는 이 계절에 국립국어원이 남북 언어 통합 문제에 대한 국제 학술 대회를 마련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여러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언어는 존재의 거처라는 철학자의 말이 아니라도 말과 글이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입니다. 국가와 민족이라는 공동체의 정체성도 언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5000년의 세월을 면면히 이어 온 우리 민족은 고유의 말과 글을 통해 독창적인 문화를 창조해 왔습니다. 더욱이 백성들이 자유롭고 편하게 뜻을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글은 창제 정신과 그 과학성으로 인해, 현대 민주주의사회와 디지털 문명 시대를 맞아 그 가치를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언어는 공동체와 문화의 정체성을 이루는 고갱이이지만, 현실에서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굴곡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20세기에 들어서 한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 모국어를 잃은 채 살아야 했던 적도 있습니다. 독립 이후 다행히 말과 글을 되찾았지만 남북이 분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의 현실은 60년 넘게 남과 북이 다른 체제를 형성한 채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탓에 본래는 같은 말을 사용해 온 한 겨레이지만 지금은 남과 북의 언어가 상당히 달라져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정치적 이유로 인해 인위적으로 분단된 민족과 국가들이 결국에는 다시 통합되는 것이 순리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남과 북이 다시 하나로 되는 그 날을 대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최근 들어 체제의 통합과 언어의 역할을 숙고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래를 대비하여 합리적인 언어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전문가 여러분들의 조언이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체제 독립과 분단, 통합의 과정을 먼저 겪었거나 그것에 대비한 연구 경험이 풍부한 학자들이 모이신 만큼 심도 있는 토론과 정보 교류를 통해 좋은 결실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합니다.

학문적 성과도 중요하지만, 전통과 현대 문명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시 서울에서 소중한 추억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회의 장소는 조선 왕조의 정궁이었던 경복궁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복궁은 우리 민족의 숨결과 넋이 살아 숨쉬는 소중한 문화 공간입니다. 토론하는 틈틈이 고궁의 낙엽길을 산책하시면서 한국의 늦가을 정취와 고궁의 아름다움을 흠뻑 느껴 보시길 권합니다.

국립국어원 권재일 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분들, 발표자 여러분, 그리고 이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학술 대회의 성공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 광 식

Congratulatory Address



Distinguished Guests,


My name is Choe Kwang-shik, and I am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t a time when many are preparing for the long winter ahead of us, it is my pleasure to be here at this international conference being host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I would like to extend my welcome to everyone who took time out of their busy schedule to be here.

The German philosopher Martin Heidegger once said that "Language is the house of being." It is true that language is more important than almost anything else in the life of an individual or a community. Indeed, the identity of a nation and its people is often a result of their language.

Koreans have a history dating back 5,000 years and over that time have created a unique culture through both the written and spoken elements of the language. One example of this is *Hangeul*, the Korean alphabet, which was created to help the masses communicate more easily. In fact, *Hangeul's* ideology and scientific structure have been given more attention with the advent of democracy and today's digital culture.

Although language is the essence of a community and a culture, it does go through a series of vicissitudes depending on the political situation of the day. In our case, Koreans were once actually forbidden from speaking our own languag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the 20th century.

While independence in 1945 literally gave Koreans back their words and characters, the country was divided in the years afterwards and has remained divided since then. As many of you are aware,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ve had two very different social systems for more than 60 years. This tragic situation has led to profound differences in the Korean language between the two nations, even though it is the "same" langu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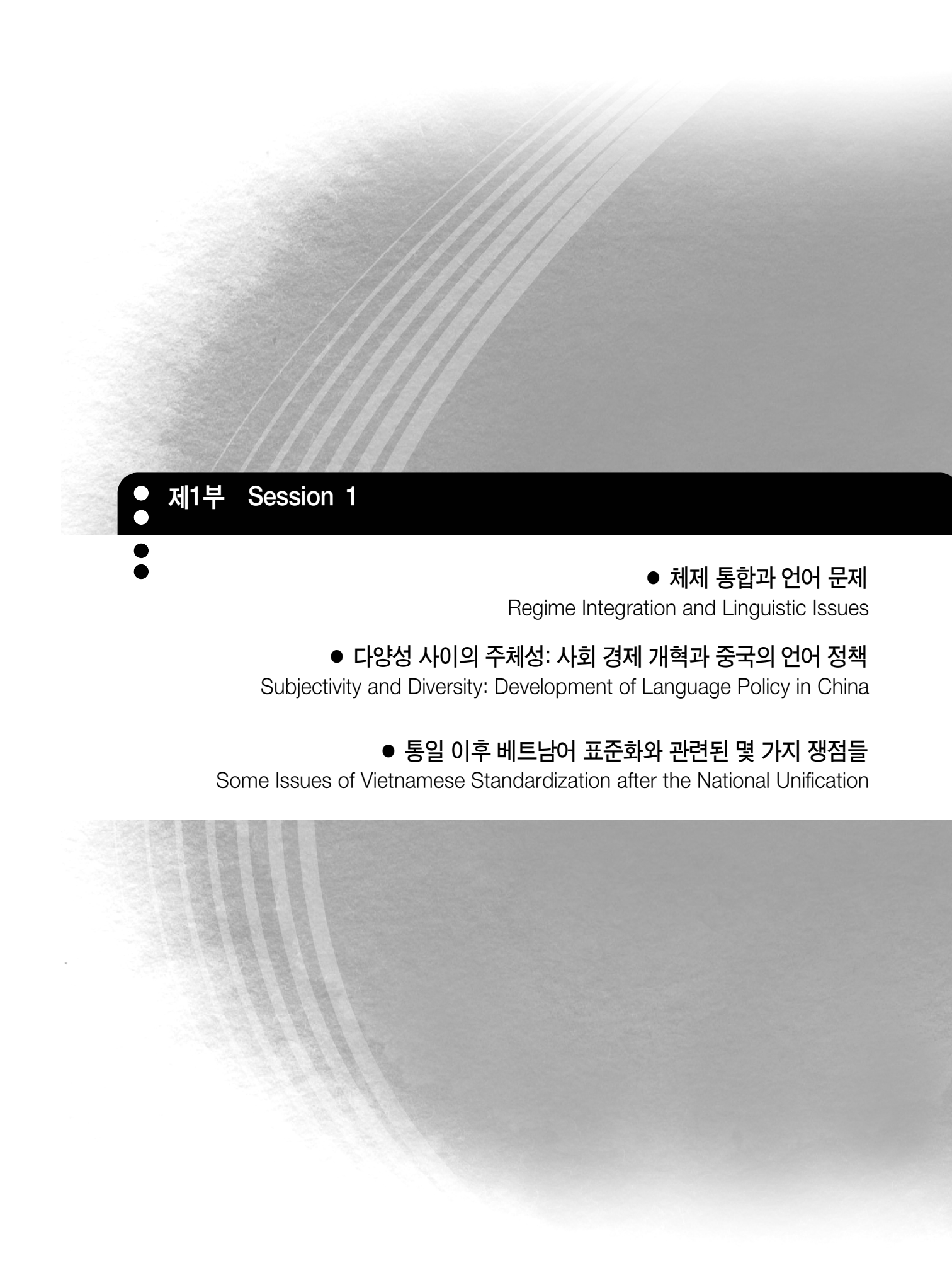
Still, history has proven that nations which are divided for political reasons are ultimately reunified. Korean government has been making many efforts to prepare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and recently there has been a growing need to consider the role of language in social integration.

I firmly believe that the advice which will be offered by the experts gathered here today will be immensely beneficial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establish a sound language policy. Given that there are a number of attendees who have experienced something similar when it comes to independence, division, and reunification, I expect there will be nothing less than an in-depth discussion and exchange of information, which, in the end, will bring about positive results.

On top of this academic achievement, I hope you will have a memorable time in this beautiful city of Seoul, a unique capital that combines tradition and modernity. Today, we are gathered here in *Gyeongbokgung* Palace, the main palace for the royal family during the *Joseon* dynasty. This palace is a very special piece of architecture where the spirits of many Koreans still dwell. I urge you to take the time to walk around the grounds in between sessions and soak in the beauty of this spectacular palace.

In conclusion, I'd like to extend my gratitude once again to all those who have worked so hard to arrange the event, including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General Director Kwon Jaeil, to all of the speakers, and to all of the attendees. I wish you all the best for the success of this event. Thank you.

November 23, 2011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Choe Kwang-shik



● 제1부 Session 1



● 체제 통합과 언어 문제

Regime Integration and Linguistic Issues

● 다양성 사이의 주체성: 사회 경제 개혁과 중국의 언어 정책

Subjectivity and Diversity: Development of Language Policy in China

● 통일 이후 베트남어 표준화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

Some Issues of Vietnamese Standardization after the National Unification

기조연설

Keynote address

김하수 KIM Hasoo



- 연세대학교 교수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원장
- 전 사회언어학회 회장
- Professor, Yonsei University
- Director, Institute of Language Information Studies, Yonsei University
- Former President, The Sociolinguistic Society of Korea

체제 통합과 언어 문제

김하수
연세대학교

1. 개념과 논의의 방향

과거에 익숙하게 사용하던 ‘통일’이라는 추상적인 개념 대신 ‘체제 통합’이라는 구체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게 된 것은 일정한 진전된 시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칫 지난날의 많은 요소를 함축하고 있던 통일 문제를 오로지 간명하게 ‘체제’만을 중심으로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분단 지역이 재통일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체제야말로 가장 극적으로, 단호하게, 그리고 동시에 격렬하게 변화를 이끌어 내는 동력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재통일의 전 과정은 대단히 폭이 넓고 역동적이어서 체제의 변화는 어찌 보면 격동적 변화 가운데 하나의 국면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재통일을 하나의 체제 통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태도는 아마도 독일의 통일에서 깊은 인상을 얻지 않았는가 싶다. 한국처럼 멀리 떨어져 있고, 현지 사정이 오로지 몇몇 매체에 의해서 선정적으로 전해지는 형편에서는 1989년 11월부터 벌어진 독일 재통일 과정이 일사분란하고 꽤 도난마와 같은 통쾌한 역사의 전복이었던 것으로 추억하기 쉬울 터이고, 그러다 보니 당시의 독일인들이 겪은, 그리고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반성, 그리고 회한에서 찾을 수 있는 귀한 ‘교훈’을 한두 가지의 무용담 속에 묻어 버릴 위험도 적지 않다고 본다.

어떻든 독일의 통일은 역시 정치와 경제 체제의 통합 정도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일상생활의

통합, 소비 행태의 통합, 지식의 통합, 더 나아가 감성의 통합까지 수많은 까다로운 통합 작업들을 복합적으로 이루어야 했다. 이 복잡한 과정을 오로지 체제의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단순화시켰던 당시의 서독 정부의 단순한 계산법과 당시 서독 총선거 전략이 맞물리면서 대단히 무리한 통일을 밀어붙였다는 것이 많은 독일 지식인들의 아쉬움과 자기비판이었다.

더구나 이 주제에서 체제 문제와 함께 다루어야 할 언어 문제는 체제 문제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으나 오히려 체제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는 문화와 역사의 주요 동력이기도 하다. 설사 체제 내에서의 언어 문제라 하더라도 정치 체제에 비해서 대단히 예민한 ‘디테일한 문제’들을 많이 품고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체제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언어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는 것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체제 변화를 언어의 변화가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인지, 어떻게 지속화시킬 것인지, 더 나아가 체제 자체는 새롭게 재구조화될 필요는 없는지 하는 문제들에 대한 논의의 가능성을 짚어 보도록 하겠다.

2. 통합과 분리에 대한 역사적 이해

사람들의 역사를 국가의 단위로 볼 때, 국가의 물리적 기초에 해당하는 영토는 그 위치와 크기가 끊임없이 변해 왔다. 추상적인 의미의 국가를 좀 구체적으로, 현대 국가를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의 ‘주권 단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역사적 바탕 위에 현재의 세계는 통일되고 통합된 주권 단위가 있는가 하면, 적잖은 ‘분할된 주권 단위’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재통합될 것인지, 영구히 나뉜 상태에 있을 것인지, 전혀 다른 주권 단위와 통합될 것인지를 쉽게 예측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한국이나 중국, 또는 키프로스처럼 ‘정치적으로’ 재통합 문제와 방법이 항상 예민한 쟁점이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많은 아랍계 국가들처럼 신앙적, 종파적 문제가 더 뜨거워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할 혹은 분단이 재통일의 과정에 성공하기도 했다. 베트남은 대단히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데 성공했다. 또 내전으로 말미암아 분단되었다가 재통일을 이룬 경우는 예멘이 해당한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는 상당히 다른 처지라고 해야 할 것 같다. 독일은 전쟁에 패배함으로써 승리자들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훗날 승전국 사이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순간 다시 재통일의 기회를 맞게 된 경우이다.

대개의 경우 내부 구성원들의 소망과 관계없이 외부 세력(외세)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통합에 실패하거나 분리된 지역에서의 재통합 열기가 심리적으로 더욱 강해 보인다. 위에 든 한국과 중국, 그리고 키프로스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나라들 가운데, 한국, 중국, 그리고 이미 재통일에 성공한 베트남의 경우는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미완의 독립 전쟁 혹은 미완의 내전’, 그리고 잇단 외세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통합에 실패를 하고 분단되었던 공통된 경험이 있다.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아라비아 반도의 서남쪽 모서리에 있는 예멘 역시 분리와 재통일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일찍 독립한 북부 예멘은 부족들이 지배하는 사회였고, 뒤늦게 독립한 남부 예멘은 탈부족화된 지역인 관계로 서로 사회 통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 결국은 내전으로 비화했었다. 결국은 북부 예멘의 승리로 일단 재통일이 이루어졌으나, 사회적 통합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는 아직 이렇다 할 자료를 접하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어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로는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의 경우와 인도와 파키스탄에 의해 분단 점유된 카슈미르의 경우가 있다. 이 역시 오늘 우리가 다룰 체제의 문제를 거론할 만한 처지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분단 및 재통일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의 종류를 범주에 따라 나누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첫째, 영토와 체제가 분리되었다가 재통합에 성공한 곳으로, 베트남과 독일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영토의 분리와 재통합은 있었지만 체제는 별다른 문제가 아니었던 곳으로, 예멘이 해당한다. 셋째, 영토와 체제가 분리되어 있으며, 재통합의 문제는 항상 뜨거운 현안이 되어 있는 곳으로, 남북한과 중국의 양안 문제이다. 체제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 카슈미르의 문제도 꼽아 볼 수 있다. 또한 유럽의 키프로스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 그러나 만일 터키가 유럽 연합에 순탄하게 가입이 된다면 키프로스 문제는 비교적 자동적으로 원활한 정치 경제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곳도 꽤 많다. 분명히 분할된 것은 사실이지만 재통합의 논의가 그리 강하지 않은 지역들이 있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독일과 오스트리아,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방글라데시, 루마니아와 몰도바 공화국 등의 경우는 분할된 연유가 대단히 복잡한 곡절들을 품고 있다. 따라서 굳이 시끄러운 재통합 이야기를 하느니 그대로 나뉜 채 사는 것이 속 편하다고 보는 주도 집단들이 있는 곳이다.

더 나아가서 둘러보면, 분리된 당사자들은 재통합을 원할지 모르지만 국제 사회에서는 예상되는 매우 위험한 충돌 때문에 재통합 논의를 뜯어 말리고 싶어 할 만한 지역도 있다. 몽골 공화국과 중국의 내몽골, 알바니아와 코소보, 그리고 마케도니아의 서부,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 등에서 분리된 채 살아가는 쿠르드인들이 그러한 사정에 놓여 있다.

그런가 하면 전혀 분리되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지역적으로 거대한 정치적 경제적 단위를 키우는 곳도 나타난다. 유럽의 유럽 연합이 대표적인 것이다. 한때 소 지역 단위로 연합을 꾀한 적이 있던 베네룩스와 스칸디나비아 그룹도 이 속에 포함돼 버렸다. 지난 날에는 아랍권에서도 아랍 연맹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다가 결국은 실패하였고, 지금도 아프리카, 중남미 등을 한 단위로 묶고 싶어 하는 움직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기만 하다. 소비에트가 해체되던 때에 한때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페르소-투르크 그룹도 지역 연합 기운을 보이다가 이제는 없던 일이 되어 버린 것 같다.

결국 분단과 재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종족적, 혈통적 당위론에 바탕을 두었다기보다는 사회 집단

들 간의 이해관계가 역사적 조건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역사적인 동일체임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와 미래의 이익을 담보할 수 있는 내적인 구성을 가지도록 하지 않으면 재통일, 혹은 재통합의 문제는 오로지 심리적 현상의 한 부분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3. 독일의 재통일과 체제 변화(Wende) 과정에서 독일어는 무슨 일을 겪었는가?

독일이 체제 변화를 겪은 1989년 이후 독일어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조사와 연구가 있었으나, 워낙에 체제의 변화가 급격하고 빨랐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뒤쫓아 가면서 제대로 주위 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다. 게다가 방법론적으로도 체계적인 말뭉치 기반의 연구가 있는가 하면, 아직 일화 중심으로 기이한 현상을 찾아다니는 다분히 저널리즘에 가까운 방식의 보고도 눈에 띈다.

그러나 여러 자료에서 보이는 분명한 현상은 언어 구조 전반에 걸친 변화라기보다는 주로 어휘 부문에서의 변화가 심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보고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구조적이라기보다는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변화에 지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 체제 내에서 사용하게 된 새로운 어휘에 대한 어색함이나 비효율성은 많이 지적되고 있으나, 문법적인 현상으로 말미암아 겪은 소통의 어려움에 관해 보고하는 내용은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구동독인들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어휘의 지배 속에서 ‘모어 속에서의 소외’를 처절하게 맛보아야 했다. 일상생활에서 새롭게 ‘구청(Kommunalverwaltung)’에 가서 과거에 ‘구역 평의회(Rat des Bezirks)’에서 하던 일들을 처리하거나, 기업의 인사과(Personalbüro)에서는 과거에 임원 사무실(Kaderabteilung)에서 맡았던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체제 변화 이후에 나타난 구동독 언어에 대한 여러 가지 실증적 연구에서는 동독 사회가 가졌던 언어에 대한 특수한 정치적, 사회적 압박의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해서 구동독에서는 ‘언어적 이중생활(Doppelsprachigkeit)’이 불가피했었다는 지적이다. 일종의 문체와 관련된 문제인데, 그 이중생활이란, 한편으로는 ‘국가와 당의 언어’를 엄격히 사용해야 하는 공적 세계와, 비교적 (서독과 비슷한 형태의) 평이한 언어를 사용하는 일상적, 사적 세계와 언어적으로 갈아타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관찰되기도 하였다. 단지 이 이중적 언어 사용이 얼마나 엄격했는지의 문제는 그리 단정적이지 못하다. ‘국가와 당의 언어’는 일상의 언어에 비해 훨씬 명사형 및 명사구와 명사절이 많은 딱딱한 구조의 문장이었고, 이런 관료적인 행태가 일반 시민들의 일상적 언어생활에 자꾸 비집고 들어왔다는 것이다.

구동독에서의 문체와 관련하여 1970년에 룹에(Runge)가 조사한 내용이 Auer(2000)에 실려 있다. 위에서 말한 명사구 혹은 명사절의 광범위한 사용이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나타나는 ‘우리의’라는 표현 역시 매우 빈번했음을 보여 주었다. 특이한 것은 독일어의 문법 규칙에 따라 여성 명사에 붙이는 ‘-in’이라는 접미사가 종종 생략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작업 현장에서의 직책 명칭에서 눈에 띄게 드

러났다고 한다. 예를 들어 독일어의 전통적인 문법에서는 “Meine Frau ist Wirtschaftsleiterin bei m……(내 아내는……에서 운영관리자로 일한다.)”라는 문장에서 여성임을 뜻하는 ‘-in’이 탈락되어 그냥 ‘Wirtschaftsleiter’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분업과 공동 작업 구조의 영향이기도 하면서 구동독의 직업 세계에서 그게 누구인지(여성인지 남성인지)보다 해당 ‘사물(Sache)’과 ‘주제(Thema)’들이 중점적으로 표현되던 현상에서 비롯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무척 다양한 문체적 특색들이 보였으나, 이러한 항목들이 체제 변화 이후인 1992년과 1995년의 조사에서 큰 변화가 생긴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곧 일인칭 복수 ‘우리’를 많이 쓰던 1970년 조사 결과가 1992년에는 매우 드물어졌고, 1995년에는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 다시 말해 과거 서독식의 표현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러한 어휘 변화와 문체의 변화는 다시 말해서 새로운 수렴(Konvergenzen) 과정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렴은 상호적이고 쌍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상 ‘서독화’라는 것을 굳이 망설이거나 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곧 체제 변화 이후의 언어 변화는 ‘동화’가 아닌 ‘수렴’이라는 완곡한 개념으로 설명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4. 독일의 특수한 성격

일반적으로 분단이나 재통일의 모델을 언급하면서, 독일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거론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를 일단 되물어 보고 싶다. 피상적으로 보면 분단과 재통일의 성공 사례로 손색이 없어 보이지만,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독일이야말로 매우 희귀한 특수 사례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한국이나 중국과 달리 독일에는 분단을 일으킨 내전이 없었다. 오로지 외부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결정적 원인이 되어 점령지별로 나뉘었던 것이다. 따라서 내부적인 적대감 같은 것은 그리 크지 않았던 반면, 중국은 그리 심하지 않았으나, 한국과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증오를 불태우는 기간이 길었으니만큼 이에 대한 고려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따라서 독일은 국제적인 ‘냉전’이 사라지자 이 이상 분단을 공고히 할 요인이 거의 동시에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다음으로 독일이 재통일하게 된 것은 동유럽 전반의 사회주의권 및 그 권력 집단의 퇴조와 맞물려 있다. 따라서 동독만이 아닌 동유럽 전반이 서유럽 세력권에 포섭되는 거대한 흐름의 일부로 재통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럴 경우 정치적 비용은 크게 절감될 수 있다. 그러나 아시아의 중국이나 한국이 이렇게 손쉬운 흐름을 타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우선 중국은 아직 ‘사회주의 체제’를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세력이 전혀 재편되어 있지 않았다. 당연히 남북한도 마찬가지이다. 또 동아시아와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 미국의 세력도 예나 마찬가지이다. 표면적으로는 매우 세련되고 부드러워졌지만 과거의 냉전 세력들과 그 후예들의 세력이 그대로 온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동아시아에서 체제 변화를 겪은 곳은 홍콩과 몽골 정도인데, 이 흐름에 전혀

영향을 끼칠 변수들은 못된다.

이러한 사회·역사적 조건 위에서 독일의 언어 문제는 다시 한 번 동아시아와 직접적인 대조를 어렵게 만든다. 독일은 언어의 규범을 20세기 초에 완성한다.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꽤 늦은 편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늦둥이 한국은 그보다 훨씬 더 늦다. 1933년과 1936년에 각각 표기 규범과 어휘 규범의 안을 만들었다. 당시는 식민지 시대였던 만큼, 이 규범의 실질적인 사회적 성취를 이루지 못하다가, 1945년 그 체제에서 벗어났으나, 또 동시에 분단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한국(남북한)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통일된 언어 규범’을 전 영토에 관철시킨 적이 없다는 것이 정확한 평가라고 본다. 따라서 현재 남북한 언어 규범의 ‘큰 틀’은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진 규범의 기본 형식을 유지하고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받은 계층에서의 글말 소통에 큰 지장은 없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처럼 ‘제도와 어휘’의 문제에 지나지 않은 경우와 달리 한국은 아직 공통 어휘 선정, 문장 구조의 설명, 발음 문제 등에 상충되는 규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일과의 직접적인 대조는 불가능하다. 더구나 독일어 규범의 모체가 되는 방언은 구동독 지역에 있는 마이젠 지방이었다.

곧, 독일은 제도 변화에서 말미암은 어휘적 어려움은 많았으나, 언어 규범과 관련된 큰 혼란은 겪지 않은 편이다. 만일 한국에서 유사한 일이 생긴다면, 독일보다는 언어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더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독일의 경우는 ‘민족’이라는 단위가 ‘현대 국가’ 체제 안에서 적어도 한번은 완전히 녹아 융합되어 본 경험이 있는 것이고, 한국의 경우는 전근대적 통합에서 현대적 민족 국가로의 통합에 실패한 경우라는 것이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조건에서의 급격한 체제 변화는 급격한 규범의 통합을 불가피하게 불러올 것이다. 주도적으로 통합을 이룩한 세력의 언어 규범이 자연스럽게 지배적 규범이 될 것이고, 통합당한 측의 언어는 수렴되든지 ‘방언화’될 것이다.

5. 체제 변화와 예상되는 언어 문제

정치적 체제 변화는 당연히 언어 문제의 통합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언어 사용자들의 분화 역시 촉진될 것이다. 통합당한 측은 사회적으로 소외될 위험이 더 높을 것이고, 그들의 언어는 ‘낙인찍힌 기호’가 될 것이다. 과거로 기억을 되돌린다면, 광복 직후 월남한 사람들을 ‘삼팔따라지’라든지 ‘이북 것들’이라고 폄하했던 현상이 형식만 달리하여 되풀이될 것이다. 비교적 최근에 많이 관찰되는 ‘중국의 연변 변이형’ 사용자들에 대한 태도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그리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급격한 체제 변화로 말미암아 한쪽이 다른 쪽에 아무런 배려 없이 통합되며, 자신들의 언어 및 언어 변이가 하루아침에 낙인찍힌 언어가 된다면, 서로 상반된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는 맥없이 통합된 규범을 따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언어 전환의 성공률은 그리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자신들 나름대로의 지역성과 방언화를 향유하

면서 스스로의 이익을 지키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 후자 역시 큰 성공을 거두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해당 지역 안에서는 기본적인 이익을 지킬 수는 있다. 그러나 자잘한 갈등은 대단히 오래 지속될 것이다.

이와 같은 언어 변이 혹은 언어 변종과 자신들의 정체성 문제는 여러 경우에 매우 긴밀히 작동되는 현상이다. 다시 말해 억압받거나 소외당하는 언어, 혹은 언어 변이는 자신들의 이익 집단의 상징이 된다는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그 오랜 세월 핍박당한 유대인들이나 흑인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며, 비교적 실증적인 사회언어학적 연구로는 라보브(Labov)의 마스스비니아드(Martha's Vineyard) 섬에 대한 연구의 결과였다. 아무리 초라해 보이는 언어 집단도 자신들의 이익이 걸린 문제에는 자신들의 방언이나 특이한 언어 변이로 방어적인 무장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지난날처럼 종족 청소가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던 시절이 아니라 합리적인 지배 구조(governance)가 전제된 사회에서는 특정한 언어 규범이 일방적으로 관철될 때 대중적으로 일어날 문화적 불평등과 부작용을 예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대인들 역시 이스라엘을 건국하면서 고대 히브리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이스라엘어를 그들의 공용어로 삼았지만, 시온주의를 거부하는 유대교 경건파들은 과거의 이디시어를 고수하며 그들의 신앙을 옹호해 지키노라 강한 자부심을 자랑하는 것을 어느 누가 금지할 수 있겠는가? 언어 변이의 단일화는 생각처럼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뿐만 아니라 근간에 다언어 사회와 교육 문제를 다루는 연구에서도 다언어가 다정체성을 가져 오는지 아니면 통합된 더 큰 정체성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다. 지구화가 진행되면서, 한편으로는 탄 언어나 언어까지 인정을 해 주면서 동일한 언어의 특정 변이 사용자들의 언어생활을 배척하거나 백안시할 때 예견할 수 있는 사회 심리적 반응은 매우 걱정스럽다. 따라서 이제는 하나의 언어 사용권 안에서도 다양한 언어의 사용을 보장하는 시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한 체제 변화와 함께 발생하는 언어적 소수자의 문제를 각자의 운명으로 방치하기보다는 시대적 책임을 품은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일단 정치적 통합 앞에 언어적 통합은 필연적이겠지만, 단 하나의 규범으로 통합할 것인지 아니면 적어도 당분간은 복수의 규범을 인정할 것인지 하는 것은 통합된 사회의 미래상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또 더 나아가 통합된 사회에서 언어 규범의 입법권을 누가 장악할 것인가 하는 문제 역시 소홀하게 지나칠 수 없는 문제이다. 특정한 언어 변이의 사용을 장려할 수는 있으나 금지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결국은 서서히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고, 이 불이익은 해당 집단의 지역적, 계급적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6. 한국의 길

한국의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 재통일이나 체제 변화가 그리 쉬운 조건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내부적으로는 내부 전쟁(내전)을 벌였고, 대외적으로는 외국의 세력을 불러들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화해를 하든 협상을 하든 '세력'의 문제에 합의를 해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여러 참여 세력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되도록 무력을 피해야 한다. 따라서 독일이나 베트남의 경우보다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더욱 활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체제 변화를 전제하지 말고 언어 문제에 대한 협상을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급격한 체제 변화가 온다면 어차피 언어는 피동적으로 말려 들어갈 공산이 가장 크다.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기기 이전에 언어 교육, 문헌 기록, 번역, 정보 기술, 학술 교류, 언어 예술(문학)의 교류, 사회적 통신망 등을 위한 기초 작업이 필요하다. 독일도 어찌 보면 1970년대부터 끊임없이 동방 정책을 실천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급격한 체제 변화를 그나마 그렇게 감당해 내지 않았을까 한다.

급격한 체제 변화는 말할 것도 없이 한쪽 체제의 붕괴에서 올 가능성이 제일 높다. 만일 그럴 경우에도 정치 경제적인 통합은 서두르되,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는 서서히 자율적인 통합과 수렴 과정에 들어가게 할 수는 없겠는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양측이 협상을 통해 서서히 체제 통합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것 역시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보지만, 문화적 정체성의 통합은 훨씬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결국 한국 사회의 재통합과 체제 변화의 문제는 수많은 세계적 사례의 종합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굳이 서둘러야 할 것도 아니면서 굳이 늦추어야 할 것도 아닌 체제의 통합과 변화, 역사적이고 세계적인 모든 시행착오의 최종 수정판이 되길 바란다.

참고 문헌

- Auer, Peter(2000), Was sich ändert und was bleibt; Vorläufiges zu stilistischen Konvergenzen Ost→West am Beispiel von Interview, (in; Auer, Peter/Hausendorf, Heiko(Hgg)(2000), pp. 151~176).
- Auer, Peter/Hausendorf, Heiko(Hgg)(2000), Kommunikation in gesellschaftlichen Umbruchsituationen, Max Niemeyer Verlag; Tübingen.
- Auer, Peter/Hausendorf, Heiko(2000), 10 Jahre Wiedervereinigung, (In; Auer, Peter/Hausendorf, Heiko(Hgg)(2000), pp. 3~17).
- Dittmar, Nobert(2000), Sozialer Umbruch und Sprachwandel am Beispiel der Modalpartikeln *halt* und *eben* in der Berliner Kommunikationsgemeinschaft nach der 'Wende', (In; Auer, Peter/Hausendorf, Heiko(Hgg)(2000), pp. 199~234).
- Florio-Hansen, Inez de & Hu, Adelheid(Hrsg.)(2007), Plurilingualität und Identität, Stauffenburg; Tübingen.
- Hellmann, Manfred W.(2008), Das einigende Band? Gunter Narr Verlag; Tübingen.
- Kühn, Ingrid(2002), Vom *Kaderleiter* zum *Personalchef* mit *Arbeitszeugnis* statt *Beurteilung* - Sprachgebrauchsveränderung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In; Kühn, Ingrid, Schlosser, Horst Dieter, Solms, Hans-Joachim, Fix, Ula, Stichel, Gerhard, & Albersman, Ute(2002), pp. 97~117).

Kühn, Ingrid, Schlosser, Horst Dieter, Solms, Hans-Joachim, Fix, Ula, Stickel, Gerhard, & Albersman, Ute(2002),
Ost-West-Sprachgebrauch - zehn Jahre nach der Wende, Lske+Budrich; Opladen.
Labov, William(1972), Sociolinguistic Pattern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Spolsky, Bernard(2004), Language Poli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gime Integration and Linguistic Issues

Kim Hasoo
Yonsei University

1. Concepts and Discussion Framework

The approach that uses the concrete concept of "system integration" in place of the abstract "unification" concept commonly applied in the past could be said to represent something of a step forward. It also demands some measure of caution, given the greater possibility of focusing simply on "systems" when addressing the issue of unification, which encompassed a wide array of elements in the past. It goes without saying that when a divided region is reunified, the "system" provides a driving force for change in the most dramatic, firmest, and at the same time most intense of ways. But because of the extremely broad-ranging and dynamic nature of the reunification process as a whole, system change may end up as nothing more than one among many turbulent transformations.

The idea of approaching reunification in terms of system integration may have been deeply informed by the reunification experience of Germany. From the standpoint of a distant country like South Korea that heard only selective reports of the situation through a handful of news outlets, the German reunification process that began in November 1989 is easily remembered as a tidy, satisfying reversal, a kind of slashing of the Gordian knot. For this reason, there seems to be a substantial danger that a few heroic accounts may end up overshadowing the various difficulties experienced then (and now)

by Germans, the reflections of the participants, and the valuable lessons to be gleaned from their regrets.

In any case, the German reunification was not simply about integrating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it involved a complex and demanding range of efforts to integrate the everyday lives of ordinary citizens, consumption patterns, knowledge, and, moreover, sentiments. Many German intellectuals reacted with disappointment and self-criticism to the rashness of the process, which occurred as the West German government's simple calculus---one that reduced the complexities of the process into an integration of systems---combined with the country's general election strategy.

Also, while language (which, for this topic, must be addressed alongside the system issue) may be seen as one aspect of that issue, it is also a major driving force in culture and history that ensures systemic stability and continuity. Even linguistic issues within a single system are certain to be laden with many "details" that are particularly sensitive in comparison with the political system. Rather than addressing language in terms of a passive response to system change, then, the focus here will be on the possibilities for discussing how language change can more actively function to stabilize system change, how it can lend continuity to the process, and whether there is a need to completely restructure the system itself.

2. Historical Understandings of Integration and Division

An examination of human history in terms of the unit of the state shows national territory---the physical foundation of the state---to have undergone continued changes in position and size. If the abstract idea of the state is discussed more specifically, with a focus on the modern state, it may be described as a kind of "unit of sovereignty." While there are unified and integrated units of sovereignty existing upon this historical basis in the modern world, there are also a number of divided units of sovereignty. It is impossible to make any simple predictions about whether they will ultimately succeed in reintegration, remain forever divided, or integrate with completely different units of sovereignty. In some places---Korea, China, and Cyprus among them---the issue and methods of political reintegration are forever a sensitive issue, and we also find instances of regions where issues of faith and divisions between sects are particularly contentious, as in the countries of the Arab world.

Such separations and divisions have often met with successful reunification. Vietnam succeeded in overcoming all the obstacles, albeit at the very great cost. We also see the example of Yemen, which was reunified after a division stemming from its civil war. But the German example, it seems, should be taken as representing a rather different case. That country had been divided and occupied at the hands of the victors following its wartime defeat, gaining its chance for reunification later on at a moment when the interests of the victorious countries coincided.

In most cases, the passion for reintegration appears to be psychologically stronger in regions that

previously failed at integration or were divided through the influence of outside forces, irrespective of the desires of residents. This includes the aforementioned examples of Korea, China, and Cyprus. Korea, China, and Vietnam (which has succeeded at reunification) share the experience of having failed at integration with their arrival into modern society and being divided due to incomplete wars of independence or civil wars and successive interventions by outside forces.

The relatively little-known country of Yemen, located on the southwestern corner of the Arabian Peninsula, has experience with both division and reunification. North Yemen, which was a British colony before achieving independence early on, was dominated by tribes, while the belatedly independent South Yemen was a post-tribal region. Because of this, social integration between the two did not occur readily, and the situation finally escalated into civil war. In the end, reunification was achieved through a victory by North Yemen, although I have been unable to find any real data on how social integration is transpiring. Other examples that are not widely known (since few people are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e areas) include that of Ethiopia and Eritrea and that of Kashmir, which is divided between India and Pakistan. These do not appear to represent suitable cases for discussion of the system issue, which is our focus today.

A discussion of division and reunification does seem to demand a classification of countries according to their situation. First, there are those where territory and system were divided only to be successfully reintegrated later; Vietnam and Germany can be cited as examples. Second, there are cases like Yemen where division and reunification of territory did occur, but where the political system was not a significant issue. Third, there are countries where both territory and system are divided, and the issue of reunification is a consistent and contentious issue; this includes North and South Korea and cross-strait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aiwan. If we do not concern ourselves with system issues, we might also point to the cases of Ethiopia/Eritrea and Kashmir. Another similar case is that of Cyprus in Europe. But if Turkey does succeed in a smooth integration with the European Union, it will be possible to devise a comfortable political and economic solution on the Cyprus issue relatively automatically.

In many cases, however, it is highly uncertain whether the countries should be included in this discussion. Some regions are unquestionably divided, yet reunification discussions there are not especially intense. For instance, in the cases of Ireland/Northern Ireland, Germany/Austria, Indonesia/East Timor, Malaysia/Singapore, India/Pakistan/Bangladesh, and Romania/Moldova, the reasons for the divisions are extremely complex and convoluted. As such, ruling groups in those regions believe the most comfortable option to be continuing on in their divided state rather than insisting on an obstreperous reintegration debate.

If we look further, we find regions where reintegration might or might not proceed smoothly, but where the divided parties may wish to put an end to the reunification debate because of the highly dangerous clashes predict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consequence. Among those in this

situation are Mongolia and the Chinese province of Inner Mongolia; Albania, Kosovo, and western Macedonia; and the Kurds, who are divided among Turkey, Syria, Iraq, and Iran.

In addition, we also find places that are in no sense divided regions, but have nevertheless developed massive regional political and economic units for the sake of their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Perhaps the most representative example is the European Union. The Benelux countries and Scandinavian nations, which at one point sought unification into subregional units, also found themselves included in this area. Recently, the Arab world experienced the partial establishment, and ultimate failure, of an Arab League, and movements are afoot today to integrate Africa and South/Central America into single units, but in all cases the movements are proceeding very slowly. When the Soviet Union was disintegrating, Perso-Turkish groups in Western and Central Asia showed hints of a campaign to integrate their regions, but this has been more or less totally forgotten.

In the final analysis, division and reunification appear less to be based in any view of tribal and ethnic necessity and more to vary with the operation of social group interests in conjunction with historical circumstance. So while it is important to examine whether a region constitutes a unitary historical presence, there appears to be a significant likelihood that the issues of reunification and reintegration will remain merely part of a psychological phenomenon unless they are endowed with an internal framework to ensure present and future gains.

3. What Happened to the German Language during the Reunification and System Change (Wende) Process?

A number of examinations and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changes to the German language since the system change of 1989. So abrupt and fast-paced was the process, however, that experts appear to have had difficulty properly tracking and capturing everything. Moreover, while the methods have included systematic corpus studies, there has also been a continued and conspicuous use of the somewhat journalistic approach of traveling around in search of odd, anecdotal phenomena.

The general report, however, is that various sources showed a clear phenomenon of substantial changes being primarily confined to the area of vocabulary, rather than extending across all areas of linguistic structure. In a sense, it could be argued that the changes were less structural than merely superficial. As a consequence, much has been made of the awkwardness and inefficiency of the new vocabulary used in the new social system, but it has been difficult to find reports of communication difficulties stemming from grammatical phenomena. Nevertheless, the people of the former East Germany were dealt a bitter taste of alienation within their own mother tongue under the rule of the new vocabulary. In their daily life, for example, they had to travel to the new Kommunalverwaltung (district office) to handle affairs they had previously conducted at their Rat des Bezirks (regional council), or to visit a

company's Personalbüro (personnel office) to resolve matters they had once addressed at the Kaderabteilung (employee office).

But a number of empirical studies on the East German language in the wake of the system change point to particular political and social pressures on the language previously used in that community. In other words, a phenomenon of Doppelsprachigkeit--"dual linguistic life"---became an inevitability in the former East Germany. This has been a matter of style: the double life was observed as a frequent switching of language codes between a public world that rigorously demanded use of the "language of state and party" and an everyday, private world of relatively simple language (similar in form to West Germany's). The question of how rigorous this dual linguistic use was has not been so clear-cut. The "language of state and party" was characterized by an exacting structure with far more nouns, noun phrases, and noun clauses than ordinary language, and this bureaucratic form continually intruded upon the everyday language life of ordinary citizens.

A study on East German style conducted by Runge in 1970 was printed in Auer (2000). In it, mention was made of the previously noted widespread use of noun phrases and clauses, and it was found that use of the expression "our" was accordingly very frequent. One particularity of the East German was the frequent omission of the feminine suffix "-in," which German grammar rules dictate should be attached to personal nouns to form feminine versions. This was reported to be particularly salient with job titles at workplaces. For instance, while traditional German grammar might have the sentence "Meine Frau ist Wirtschaftsleiterin beim..." ("My wife is a manager at..."), East Germans would often drop the ending "-in" indicating femininity on "Wirtschaftsleiterin," giving the neutral form of "Wirtschaftsleiter." While this was attributable to the socialist society's structure of division and sharing of labor, the argument was also made that it could be viewed as originating in the phenomenon of focusing on a particular object ("Sache") or theme ("Thema") rather than who a person was (i.e., female or male) in the professional world of East Germany.

A large number of stylistic particularities were observed besides these, but studies conducted after the system change in 1992 and 1995 showed a major shift. Whereas the 1970 study had found frequent use of the third person plural "Wir" form, this had become much less common by 1992 and disappeared completely by 1995. In other words, the expression used by East Germans changed to that of the old West Germany.

These changes in vocabulary and style are viewed as a process of "convergence" (Konvergenzen). But this convergence, rather than being mutual or bidirectional, can be viewed as amounting to a kind of reticence or avoidance toward "Westernization." Here, we see an attempt to explain language change following system change through the euphemistic concept of "convergence," rather than "assimilation."

4. The Particular Character of Germany

The question I would like to ask is whether it is really desirable for Germany to be discussed as a paradigm when referring to models for division and reunification. In superficial terms, it would seem to want for nothing as a success story in division and subsequent reunification. As mentioned at the outset, however, it appears that Germany should really be viewed as an exceedingly rare and specific example. In contrast with Korea and China, no civil war occurred in Germany to cause division. The determining factor was simply defeat in a war with outside forces, resulting in division of the territory according to the victors' occupation of it. So while internal antagonisms were not especially strong there, the longstanding nature of the enmity in a case like Korea's (the situation is not as extreme in China) naturally demands appropriate consideration. When the international Cold War disappeared, the factor holding the aforementioned division in place evaporated almost instantaneously.

Next,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was closely linked with the decline of socialism and its rulers all over Eastern Europe. It occurred as part of a larger current in which not only East Germany but all of Eastern Europe was incorporated into the Western European sphere of influence. In such cases, it is possible to greatly reduce the political costs. In contrast, it appears exceedingly unlikely that it will be possible to "ride the tide" in such a way with the Asian countries of China and Korea. To begin with, China still adheres to a socialist regime; the forces of the past have not been reorganized at all. The same applies, of course, to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situation is the same as ever with Japan and the United States, which have major interests in East Asia. However polished and gentle they may have become on the surface, the old Cold War forces and their descendants remain as much of a presence as ever. The only places in East Asia to have experienced system changes are Hong Kong and Mongolia, and neither of these is in a position to have any impact on the overall current.

In addition to these social and historic circumstances, the issue of the German language further confounds a direct comparison with East Asia. Germany finished establishing its linguistic norms in the early 20th century---rather later than other European countries. But Korea, a late starter in East Asia, was far tardier still: spelling and vocabulary norms were formulated in 1933 and 1936, respectively. As this was the era of colonial rule, no substantive social achievement was realized with these norms; the country escaped that particular regime in 1945, but it was also divided at the same time. In other words, it would be accurate to say that Korea (North and South) has never had a single unified linguistic standard applied across its territory. As a result, the "broader framework" of linguistic norms presently applied in North and South Korea maintains the basic form of the rules formulated during the colonial period. One result of this is that there is no major difficulty in written or spoken communication among the educated segments of the respective populations. But in contrast with a situation like Germany's where the issue is confined to institutions and vocabulary, the Koreans still have conflicting standards in terms

of vocabulary choice, explanations of sentence structure, and pronunciation, preventing any direct comparison with Germany. Moreover, the dialect from which the German standard derived was that of the Meissen region, which was part of East Germany.

So while Germany had to wrestle with vocabulary issues stemming from institutional changes, it did not really experience any major confusion in terms of linguistic standards. If something similar happens in Korea, the probability of greater linguistic difficulties appears to be substantial. In more basic terms, Germany was an instance where the "people" unit had at least one prior experience of incorporation into the system of the modern state. In contrast, the Korean situation would be accurately characterized as an instance of failure to achieve unification as a modern nation state in its pre-modern integration. A rapid system change under these circumstances is certain to bring about a rapid integration of norms. The linguistic standards of those who lead the integration will naturally become the prevailing standards, while those of the side on the receiving end will either converge or become "dialects."

5. System Change and Anticipated Language Issues

When a political system changes, integration of language matters is pursued as a matter of course, and divisions among language users are fostered accordingly. The side that is incorporated will face a greater danger of social alienation, and their language will become a "stigmatized code." Judging from memories of past experience, we are likely to see a repeat, altered only in form, of the way in which North Koreans who traveled south after independence were disparaged as "the dwarfs from above the 38th parallel" or "those creatures from the North." It is likely to be more severe, not less, than the attitude shown toward Korean-Chinese speakers of the Yanbian variety of the language, which has observed with considerable frequency in recent years.

If a sudden system change results in integration of one side into the other without any consideration of its situation, and the former's language and its differences become stigmatized overnight, we can expect to see two conflicting outcomes. One is a dispirited attempt to follow the integrated norms. There is a possibility, however, that this language shift will not be very successful. Another possibility is that the population will attempt to preserve its own interests, enjoying some degree of locality and dialectization. This latter possibility is also unlikely to meet with great success, but it may at least be possible to guard basic interests within the region in question. Minor conflicts, however, are likely to persist for a very long time.

In many cases, these language variants and transformations and the identity of their speakers are very closely connected. In other words, a suppressed or alienated language or language variant becomes a symbol for the interest group. The obligation that Jews and African-Americans felt to preserve their language over centuries of persecution can be understood as a result of this. (A relatively empirical

sociolinguistic study is Labov's examination of Martha's Vineyard.) However minor a linguistic group may appear to be, its members defend themselves with a particular dialect or linguistic variation on issues where their interests are at stake.

These examples can be said to presage cultural inequalities and side effects in a population when a particular set of linguistic norms is unilaterally enforced---and this in a society predicated on rational government, not the society of yesteryear where "ethnic cleansing" was perpetrated without great concern. The Jews adopted a new language modeled on ancient Hebrew as a lingua franca when they founded Israel, but who could presume to forbid pietists who reject Zionism from priding themselves on their adherence to the Yiddish of the past and preserving their faith in that way? Unifying language variants is not as simple as it may appear.

In addition, recent studies on multilingual societies and education have been accompanied by increased interest in the question of whether multilingualism leads to a plurality of identities or some greater, integrated identity. As globalization proceeds, a subject of great concern in the sociopsychological reaction that may be expected when a kind of recognition is extended to another language while users of a particular variant of the same language are excluded or subjected to prejudice in their linguistic life. As we enter an era where the ability to use different languages within a single language sphere is guaranteed, we will need to take steps to assume historical responsibility for the linguistic minority issues that arise with rapid system change, rather than leaving them to their respective fates.

Linguistic integration may be a necessity in the face of political integration. But the question of whether to integrate variants under a single set of standards or to acknowledge multiple standards (at least temporarily) is a crucial variable determining the future that awaits the integrated society. Furthermore, the question of who will hold legislative authority for linguistic standards in the integrated society is another matter that cannot be overlooked. We may be able to encourage use of a particular variant, but it is a different matter entirely to prohibit use of another. Ultimately, this will gradually serve to place one side at a disadvantage, and that disadvantage will function to increase local and class-based solidarity among members of the group.

6. Korea's Path

In contrast with other regions, Korea's circumstances do not lend themselves readily to reunification or system change. Internally, we have experienced (civil) war, and externally we have introduced forces from abroad. For this reason, we must reach an agreement internally on the issue of "forces"---whether through reconciliation or negotiation---and seek "understanding" externally from the various participating parties. As much as possible, we must avoid the use of military force. For this reason, we will need more time than Germany or Vietnam did. Also for this reason, we will need to make more active use

of the greater amount of time we have at our disposal.

Most of all, I believe we need to hold negotiations on linguistic issues without them being premised upon system change. If such an abrupt change occurs, the likeliest scenario is that the language will be drawn unwittingly into the maelstrom. Before that happens, we need to engage in foundational work for language education, bibliographic records, translation, information technology, academic exchange, language arts exchange, and a social communication network. In a sense, East and West Germany were engaged in partnership policies continuously from the 1970s, and this appears to have spared it the experience of such an abrupt system change.

Needless to say, rapid system change is most likely to occur due to the collapse of one of the regimes. Even if it is necessary to effect a hasty political and economic integration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at all possible to bring issues of cultural identity slowly into a process of autonomous integration and convergence is something we will need to examine with great attention going ahead. But if the two sides ease themselves into a systemic integration through negotiations---however difficult this may appear---the integration of cultural identity will take place in a far more desirable fashion.

In the final analysis, Korea's reintegration and system change will most probably take the form of a comprehensive amalgam of innumerable examples from all over the world. Hopefully, this integration and transformation of systems---a process that should not be rushed, but should not be put off unnecessarily, either---will serve as a final, authoritative version reflecting all the trial and error of history and the world.

References

- Auer, Peter (2000) "Was sich ändert und was bleibt; Vorläufiges zu stilistischen Konvergenzen Ost→West am Beispiel von Interview" in Auer, Peter & Hausendorf, Heiko (Hgg) (2000), pp. 151--176.
- Auer, Peter & Hausendorf, Heiko (Hgg) (2000) Kommunikation in gesellschaftlichen Umbruchsituationen. Max Niemeyer Verlag: Tübingen.
- Auer, Peter & Hausendorf, Heiko (2000) "10 Jahre Wiedervereinigung" in Auer, Peter & Hausendorf, Heiko (Hgg) (2000), pp. 3--17.
- Dittmar, Nobert (2000) "Sozialer Umbruch und Sprachwandel am Beispiel der Modalpartikeln halt und eben in der Berliner Kommunikationsgemeinschaft nach der 'Wende'" in Auer, Peter & Hausendorf, Heiko (Hgg) (2000), pp. 199--234.
- Florio-Hansen, Inez de & Hu, Adelheid (Hrsg.) (2007) Plurilingualität und Identität. Stauffenburg: Tübingen.
- Hellmann, Manfred W. (2008) Das einigende Band? Gunter Narr Verlag: Tübingen.
- Kühn, Ingrid (2002) "Vom Kaderleiter zum Personalchef mit Arbeitszeugnis statt Beurteilung — Sprachgebrauchsveränderung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in Kühn, Ingrid, Schlosser, Horst Dieter, Solms, Hans-Joachim, Fix, Ula, Stöckel, Gerhard & Albersman, Ute (2002), pp. 97--117.
- Kühn, Ingrid, Schlosser, Horst Dieter, Solms, Hans-Joachim, Fix, Ula, Stöckel, Gerhard & Albersman, Ute (2002) Ost-West-Sprachgebrauch — zehn Jahre nach der Wende. Lske+Budrich: Opladen.
- Labov, William (1972) Sociolinguistic Pattern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Spolsky, Bernard (2004) Language Poli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주제 발표

Topic Address

저우칭성 ZHOU Qingsheng



- 중국 사회과학원 교수
- 중국 사회과학원 민족학 · 인류학 연구소 남방 민족 언어 연구실 책임연구원
 - Professor, the Graduate School of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 Senior Research Fellow and Director, Department of Southern China Minority Languages & Institute of Ethnology and Anthropology,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다양성 사이의 주체성: 사회 경제 개혁과 중국의 언어 정책

저우칭성
중국 사회과학원

1. 도입

“각 민족은 모두 자신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다.”¹⁾, “국가는 전국 통용의 표준 중국어를 널리 보급한다.”²⁾라고 쓰인 헌법의 두 규정은 중국의 언어 문자 정책을 총괄하는 원칙으로 흔히 간주된다.³⁾ 이러한 총괄 원칙은 언어 평등과 민족 평등의 사상을 구현하므로 다양성 원칙으로 요약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 통일과 언어 통일의 정신을 반영하므로 주체성 원칙으로 요약될 수도 있다. 표준 중국어가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전제로 소수 민족의 언어 문자, 방언, 변체 자, 외국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는 문제를 잘 처리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1949년) 이후 지금까지 중국 언어 정책이 추진 중인 주요 목표이면서 발전 과정에 있는 중심 흐름이다.

본문은 60년이 넘는 중국의 언어 정책을 네 시기로 나누어 기술한다. 첫째, 건국 및 “주체적이고 다양한” 언어 정책의 확립 시기, 둘째, “좌” 편향 사상 노선이 “주체적이고 다양한” 언어 정책에 영향을 미친 시기, 셋째, 현대화 추진과 “주체적이고 다양한” 언어 정책의 발전 시기, 넷째, 초보적 시장 경제 건설과 『언어법』의 공포 및 실시 시기이다.

1) 1954년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3조

2) 1982년 『헌법』 제4조

3) 周慶生, 『語言與人類: 中華民族社會語言透視』,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00年版: 第242-243頁)

1.1. 언어 사용 중의 주체성과 다양성

2010년 제6차 전국 인구 조사 자료에 따르면⁴⁾ 중국 전국의 인구는 1,370,536,875명(13.7억 명)이고 그중 한족이 1,225,932,641명(12.3억 명)으로 91.51%를 점하고 있으며, 여러 소수 민족의 인구는 113,792,211명(1.1억 명)으로 8.49%를 점하고 있다.

중국에서 언어 사용의 통일성이 가리키는 것은 주로 다음과 같다. 중국 인구 중에서 중국어가 모어인 인구가 이미 전체 인구의 95%를 넘고, 중국어의 10대 방언(표 1 참조) 중에서 관화 방언(북방 방언이라고도 한다)이 가장 넓게 분포하는데, 이 경우에도 장쑤 성의 난징 시에서 신장성의 우루무치 시까지와 윈난 성의 쿤밍 시에서 헤이룽장 성의 하얼빈 시까지 서로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지만 상호 의사소통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는 점이다. 중국어에서 관화 지역의 인구는 중국어를 말하는 전체 인구의 67.75%이고 중국 전체 인구의 64.51%⁵⁾이다. 표준 중국어는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언어이고 유엔 공용어의 하나이다. 표준 중국어 또는 관화는 여전히 전국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민족의 주요 교류 언어이고, 규범 한자는 전국에서 통용되는 문자이다.

표 1. 중국의 언어 사용 인구*

(단위: 만명)

사용 언어	사용자 수	백분율	사용 언어	사용자 수	백분율
중국어 각 방언	97,744	100.00	소수 민족 언어	4,621	100.00
관화 지역	66,224	67.75			
진 방언 지역	4,570	4.68	몽골어족 6종	339	7.34
오 방언 지역	6,992	7.15	알타이어족: 튀르크어파 8종	703	15.21
후이 방언 지역	312	0.32	만주통구스어파 5종	5	0.10
간 방언 지역	3,127	3.20	창둥어파 14종	1,600	34.63
상 방언 지역	3,085	3.16	중국티베트어족: 마오야오어파 4종	499	10.80
민 방언 지역	5,507	5.63	티베트버마어파 23종	1,230	26.62
위에 방언 지역	4,021	4.11	남아시아어족 3종	37	0.80
핑화 지역	200	0.20	오스트로네시아어족 고산족 12종**	27	0.59
커자어 지역	3,500	3.59	인도유럽어족 2종	3	0.06
미분류 지역	206	0.21	어족 불분명 언어 3종: 조선어, 징어, 후이후이어	178	3.85

* 이 표는 1982년 전국 인구 조사의 수치를 근거로 추산한 근사치이다. 추산 총수를 인구통계 총수 10.265억 명과 비교하면 285만 명이 적은데 이것은 추산 오차이다.

** 모두 타이완의 고산족 언어이다.

4) 중화인민공화국통계국: 『2010년 제6차 전국 인구 조사 주요수치 공보1(제1호)』, 중국인구정보망(China popin), http://www.cpdrc.org.cn/tjsj/tjsj_gb_detail.asp?id=15463

5) 李榮, 「中國的語言和方言」, 『方言』 1989年 第3期: 第161頁)

중국의 언어 사용 다양성은 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동남 지역 각 성의 중국어는 방언의 차이가 커서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 중국 소수 민족의 인구 대략 6,000만 명 정도가 그 민족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소수 민족 총 인구수의 60% 이상이고 약 3,000만 명은 그 민족의 문자를 사용한다⁶⁾. 중국에는 55개 소수 민족이 있는데 회족과 만주족이 중국어를 널리 사용한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53개 소수 민족이 80여 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언어들은 대부분 5개의 어족에 속한다. 그 중 22개 민족이 28종의 문자를 사용한다. 즉 다민족, 다언어, 다문자가 중국의 언어 상황을 나타내는 큰 특징이다.

1.2. 통일된 다민족 국가와 통일된 언어 정책

1.2.1. 통일된 다민족 국가

예로부터 중국은 통일된 다민족 국가였다. 진나라가 세워진 이후 2천여 년 동안 중국은 통일되었던 시기가 6/7이었고 분열되었던 시기가 1/7이었기 때문에 통일은 중국 역사 발전의 기초이다. 오랜 시간 동안의 대통합 과정과 경제, 문화의 교류는 56개 민족을 밀접하게 연결하여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내가 있는 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각 민족 관계에 적합한 것은 상호 의존하고 협력하는 관계였고 서로 분리적인 관계는 아니었다. 한족과 소수 민족은 중국의 영토, 중국의 역사, 중화 문명을 함께 창조·발전시킨 것이다.

1.2.2. 자치 보장 및 통일된 민족 지역 자치 제도의 유지

민족 지역 자치 제도는 중국의 정치 제도의 중요한 항목일 뿐 아니라 중국이 소수 민족 언어 정책을 제정하는 중요한 근거도 된다. 현재 중국에는 이미 다섯 개의 민족 자치구, 30개의 자치주, 120개의 자치현(기)이 있다. 전국 55개 소수 민족 중 44개 소수 민족이 이미 지역 자치를 실시하고 있어서 자치 지역은 총 국토 면적의 64%를 점하고 있고 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민족의 인구는 전국 소수 민족 인구의 78%에 이른다.

중국의 민족 지역 자치는 국가의 통일된 지도 아래에 있는 자치이다. 각 민족의 자치 지역은 모두 중국과 쪼개질 수 없는 부분이며, 중앙 정부의 지도 아래에 있는 1급 지방 권력이다. 이 제도는 '통일'과 '자치'의 연결점 중 가장 적합한 균형점을 찾아낸 것이다. 이 제도는, 크게 뒤섞여 살고 적게 모여 사는 중국 민족의 분포 특징을 고려한 것일 뿐만 아니라 중화 민족 다원일체의 정치 구조를 유지하고 공고히 하는 것이어서 민족적 자치와 국가적 통일을 완벽하게 결합한다.

6)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民族政策與各民族共同繁榮發展』, 中央政府門戶網站, 2009年09月27日, http://www.gov.cn/zwgc/2009-09/27/content_1427930.htm.

1.2.3. 통일성과 다양성이 서로 결합한 언어 문자 정책

표준 중국어는 여러 한족 방언의 공통어이면서 중국 내 여러 민족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언어이기도 하다. 중국어 방언 지역에 표준 중국어를 널리 보급하는 것은 중국어의 방언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언 구역 사이의 거리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소수 민족 지역에 표준 중국어를 널리 보급하는 것도 소수 민족 자신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표준 중국어로 소수 민족 언어를 대체하려는 것은 더욱 아니다. 소수 민족의 지도자, 학생, 주민에게 자신의 민족 언어와 문자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 통용되는 민족 간 의사소통 도구까지 제대로 익히게 하여, 그들이 더욱 큰 발전 공간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형제 민족 사이에 서로 단결하고 서로를 배우고 익히는 데 유의할 것이고 각 민족의 공통적 이익에도 부합할 것이다.

앞에서 말한 언어 문자 원칙은 각 민족이 자기 민족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한족의 공통어 보급을 촉진시켜 국가의 통일과 사회의 안정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다양성’과 ‘통일성’이라는 서로 다른 성질의 원칙 안에서 적절한 ‘정도’를 찾아낸 것이기 때문에 다양성과 통일성의 유기적 결합이 실현된다.

2. 국가 건설과 “주체적이고 다양한” 언어 정책의 확립

문자와 사회 정치의 관계는 아주 밀접하다. 근대에 이르러 많은 국가에서는 사회 제도의 중대한 변화 후에 중대한 문자 개혁이 뒤따랐다. 예를 들면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서면어가 한자 전용에서 한자와 가나의 혼용으로 바뀌었고, 구소련은 10월 혁명 이후에 많은 수의 문자 체계가 로마자로 바뀌었는데, 여기에는 소수 민족을 위해 만든 로마자화 문자도 포함되어 있다. 터키에서는 부르주아 계급 혁명이 성공한 이후에 오래된 아랍 자모가 새로운 로마자 자모로 바뀌었다. 베트남도 베트남민주공화국이 건국된 후 바로 로마자 자모의 베트남 문자를 ‘꾸옥응으’로 선포하여 전통 사회에서 오랫동안 사용해 온 한자와 쓰놈을 완전히 폐지하였다. 북한도 독립한 후에 전통 사회에서 오랫동안 사용해 온 한자를 완전히 폐지하고 한글을 재정비하여 현재의 문자가 되었다.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기 전부터 마오쩌둥은 이미 건국 이후의 언어 정책에 대한 구상을 제기하였다. 그 구상은 (1) “문자는 반드시 일정한 원칙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언어는 반드시 민중에 접근해 있어야 하며, 민중이 바로 혁명의 무한하고 풍부한 원천임을 숙지하여야 한다.”⁷⁾ (2) “여러 소수 민족의 문화, 종교, 관습에 대하여서는 소수 민족에게 한족의 글과 언어를 강요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소수 민족이 각 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한 지식 문화 교육을 발전시키도록 지지하여야 한다.”⁸⁾

7) 毛澤東, 『新民主主義論』[1940], 『毛澤東選集』第2卷, 人民出版社 1952年版: 第680頁.

8) 毛澤東, 『論新階段』[1938], 載 中共中央統戰部 編, 『民族問題文獻彙編』(1921年7月—1949年9月),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1年版: 第595頁.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이후에 공산당 중앙국무원은 공화국의 건국자 마오쩌둥의 이와 같은 생각을 근거로 문자 개혁 정책과 소수 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바로 제정하였다. 문자 개혁 정책은 심각할 정도로 다른 중국어의 방언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어 공통어가 보급되지 못한 문제와 지식 문화 교육이 확산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서 실제로 중국어의 통일성 과제를 해결하는 것도 되었다. 소수 민족의 언어 문자를 발전시키는 것은 바로 민족 평등과 언어 평등 정책의 구체화이고, 소수 민족을 도와 자기 민족의 언어 지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어서 실제로 소수 민족 언어를 다양하게 발전시키는 과제를 해결하는 것도 된다. 중국 정부는 중국어의 통일성 과제를 해결한다는 이유로 소수 민족 언어의 다양한 발전을 제한하지는 않았고, 소수 민족 언어를 다양하게 발전시킨다는 이유로 중국어의 통일성을 저해하지도 않았다. 즉, 한쪽으로는 주요 민족 언어의 통일성과 소수 민족 언어의 다양성이라는 모순적인 관계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쪽으로는 양자 간의 유기적 결합 또는 통일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 세계에 성공적이고 본보기가 될 만한 이론과 실천을 보여준다.

2.1. 주체성: 지식 문화 교육의 촉진과 문자 개혁 정책

중화인민공화국 초기, 정치적 통일과 경제적 통일이라는 막중한 임무에 직면하여 국가는 지식 문화 교육을 널리 실시하여 국민 경제를 빠르게 발전시켜 농업과 공업의 생산력과 과학 기술이 심하게 낙후된 상황을 바꾸는 것이 절실하였다. 그때는 중국어의 공통어가 보급되지 않았고 전국적으로 80% 이상이 문맹이었다. 한자는 배우기 어렵고 쓰기 어렵고 알아보기도 어려워 지식 문화 교육의 보급과 발전을 제약하였기 때문에 공산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문자 개혁 정책을 제정하고⁹⁾ 관련 업무 기구를 만들어 문자 개혁을 중국 지식 문화 혁명과 지식 문화 건설의 중요한 부분이 되도록 하였다.

2.1.1. 업무 기구

1954년 12월 국무원은 '중국문자개혁위원회'라는 직속 기구를 만들었는데 주요 업무는 전국에 문자 개혁 정책을 널리 시행하는 것이었다. 정책의 주된 요지는 한자의 간략화, 표준 중국어의 보급, 『중국어 표음 방안』의 제정과 시행이었다. 1985년 12월 16일에는 '국가언어문자업무위원회'¹⁰⁾로 이름을 바꾸었고, 1956년 1월에는 국무원에 '중앙표준중국어보급업무위원회'도 만들었는데 업무 기관은 국가문자개혁위원회에 두었다. 전국에 걸쳐 일부 성과 시에는 문자 개혁과 표준 중국어 보급 기관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다.

9) 國家語言文字工作委員會政策法規室編, 『國家語言文字政策法規彙編』(1949—1995), 語文出版社, 1996年版: 第7-9頁.

10) 이 위원회는 문화 대혁명 기간 없어진 후 지금까지 설치되지 않고 있다.

2.1.2. 업무 방침과 임무

2.1.2.1. 중국어 문자 개혁 방침

한자는 반드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자의 개혁은 세계 공통인 표음문자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표음문자화의 실현 전에 반드시 한자의 간략화를 수행하여 지금 응용하는 데 유리하게 하는 동시에 표음문자화까지의 여러 준비 과정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¹¹⁾ 다시 말하면 표음문자화는 문자 개혁의 목표이고 그 과정에 한자의 간략화가 있다. 동시에 주로 표준 중국어의 보급과 중국어 표음 방안의 제정 등의 표음문자화를 위한 준비를 한다.

이러한 정부 방침을 근거로 하여 저우언라이 총리는 1958년에 문자 개혁의 구체적 작업을 “한자 간략화, 표준 중국어 보급, 중국어 표음 방안의 제정과 시행”의 세 가지 대원칙으로 개괄하였다.¹²⁾

2.1.2.2. 한자 간략화

전통 봉건 사회에서 번체자는 종종 한자의 정체자로 여겨졌고 간체자는 속자로 여겨졌다. 한자의 필획과 글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국무원은 1959년 1월 28일 중국문자개혁위원회가 입안한 『한자 간략화 방안』을 통과시켰다. 그 뒤 1986년 개별적인 조정을 거친 후 국가가 법으로 정한 간략화 글자의 총 글자 수는 2,235자가 되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미 간략화 글자를 널리 사용하고 있고 유엔 문서의 중국어판도 간략화 글자를 채택하고 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타이의 화교 사회에서도 모두 간략화 글자를 규범 글자로 사용하고 있다.

2.1.2.3. 표준 중국어 보급

1956년 2월 6일, 『국무원의 표준 중국어 보급에 관한 지시』에서는 표준 중국어의 정의와 표준을 전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베이징의 말소리를 표준음으로 하고, 중국 북방의 말을 기초 방언으로 하며, 모범적인 현대 백화문 저술 작품을 문법의 규범으로 한다.”¹³⁾이다. 1957년 6월, 교육부 부부장 웨이취에는 전국 표준 중국어 보급 업무 보고 회의의 총 결과 보고에서 표준 중국어 문자 보급 방침을 제의하였는데 바로 “대대적 제창, 중점적 시행, 점진적 보급”¹⁴⁾이었다.

1956년 중국은 중앙 표준 중국어 보급 업무 위원회를 설치하여 천이를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귀모뤄와 우위장 등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1958년부터 1979년까지는 전국적으로 표준 중국어 교육성과 경연대회를 다섯 차례 실시하였고, 1956년부터 1960년까지에는 전국적으로 표준 중국어 연구반과 연수반을 열어 1,666명의 핵심 인력을 양성하였으며, 1957년에서 1958년까지는 전국 1,800

11) 吳玉章, 『文字改革文集』,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78年版: 第129頁.

12) 周恩來, 「當前文字改革的任務」[1958], 『周恩來選集』(下卷), 人民出版社 1985年版: 第280頁.

13) 國家語言文字工作委員會政策法規室編, 『國家語言文字政策法規彙編』(1949—1995), 語文出版社 1996年版: 第12頁.

14) 王均 主編, 『當代中國的文字改革』, 當代中國出版社 1995年版: 第279頁.

여 개의 중국어 지역을 조사하여 방언 지역 주민용 표준 중국어 학습 소책자 320종이 편저되었다.

당연한 말이지만 표준 중국어를 보급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방언을 없애려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 화자에게 표준 중국어를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방언 화자가 모든 상황에서 표준 중국어를 말하게 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라 학교, 기관, 서비스 장소와 같은 공식적인 상황에서 표준 중국어를 말하게 하는 것이다. 표준 중국어를 보급하는 것과 함께 방언도 특정 분야와 지역에서 여전히 오랫동안 존재할 것이다.

2.1.2.4. 『중국어 표음 방안』의 제정과 실시

『중국어 표음 방안』은 중국어 법으로 정한 표음문자 방안으로 한자를 대체하는 표음문자는 아니었다. 1952년부터 1954년까지 중국문자개혁연구위원회는 한자 초서의 필획을 자모 형식으로 하는 민족 고유 형식의 표음문자를 입안하였다. 마오쩌둥 주석과 저우언라이 총리의 로마자 자모 채택에 관한 지시에 근거하여 1955년부터 1957년까지 중국문자개혁위원회는 로마자 자모 형식의 『중국어 표음 방안』을 개발하여 1958년 2월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승인하여 공포하게 된다. 국제표준화기구는 1982년 이 방안을 중국어의 표음문자 표기로 하였다. 『중국어 표음 방안』은 주로 발음으로 글자 익히기, 색인 편집, 중국 인명과 지명의 표음 표기, 제품 코드 작성, 수기 신호와 불빛 신호의 설계, 농아용 중국어 수화 자모 제정, 중국어 표음 신문의 초안 쓰기에 사용된다. 또한 중국 소수 민족의 문자 제정 및 개혁을 위한 공통의 기초를 제공한다.

2.2. 다양성: 민족 지역 자치 제도 건설 및 소수 민족 언어 문자 정책의 사용과 발전

중국의 민족 지역 자치는 국가의 통일된 지도하에 각 소수 민족 거주 지역에서 실시하는 지역 자치인데, 자치 기관을 설립하고 자치권을 행사하고 소수 민족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자치 지역의 내부 업무를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다. 1954년의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3조는 “각 민족은 모두 자신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¹⁵⁾ 1982년의 『헌법』 제4조도 근본 원칙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소수 민족의 언어는 흔히 소수 민족 사회의 주요 의사소통 도구와 사유의 도구가 되고 소수 민족의 문자는 소수 민족 전통문화의 운반체가 된다. 민족 동일성, 민족의식 또는 민족 감정은 흔히 민족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다. 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없다면 사회의 불안정 요소가 늘어날 수 있고 단결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헌법』의 이 규정은 각 민족의 언어와 문자가 예외 없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유지하여 민족 평등을 실현한 규정이고, 소수 민족의 자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표지가 되는 규정이다.

15) 董雲虎, 劉武萍 編, 『世界人權約法總覽』, 四川人民出版社 1991年版: 第820頁.

2.2.1. 소수 민족 언어와 문자의 사용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초기에 이미 많은 법률과 법규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었다. 1952년 『중화인민공화국 민족 지역 자치 실시 요강』의 제15조에는 “각 민족 자치구의 자치 기관은 자치구 내에서 통용되는 민족 문자를 채택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주요 도구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자가 적용되지 않는 민족이 직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민족의 문자를 동시에 채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¹⁶⁾ 제16조는 “각 민족 자치 기관은 각 민족 스스로의 언어 문자를 채택하여 각 민족의 지식 문화 교육 사업을 발전시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52년에는 『정무원의 흠어져 있는 소수 민족 구성원이 민족 평등권 향유의 모든 권리 보장에 관한 결정』의 제5조에서 “흠어져 거주하는 소수 민족 구성원이 그 민족의 언어와 문자가 있으면 법원에서는 그 민족의 언어와 문자로 소송을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¹⁷⁾ 이 조항의 내용은 1954년 중국이 정식으로 반포한 첫 번째 『헌법』(제77조)에 포함되어 있다. 국가의 정치 과정에서도 중국은 1954년 중국 최초로 인민대표 대회가 시작되었을 때 이미 소수 민족 언어의 동시통역 시설을 설치하였다. 또한 소수 민족 자치구의 법원, 검찰청, 민족 교육, 뉴스 출판, 라디오, 텔레비전 등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 이상의 민족 언어와 문자가 사용되고 있다.

2.2.2. 소수 민족 언어와 문자의 발전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초기에 중앙 정부는 소수 민족을 도와 자신의 언어를 나타낼 수 있는 문자를 제정하도록 하면 소수 민족의 교육, 과학 기술의 효과적인 학습, 지식 문화 수준의 제고에 유리하여 사회주의 경제 건설과 지식 문화 건설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하였다.

2.2.2.1. 문자의 제정

1951년 2월 5일 『정무원의 민족 업무에 관한 몇 가지 결정』의 제5항은 “아직 문자가 없는 민족에게는 문자를 제정하도록 도움을 주고 문자가 아직 완전하지 못한 민족에게는 문자를 점차적으로 갖춰 나가도록 도움을 준다.”라고 제의하고 있다¹⁸⁾. 이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50년에서 1955년까지와 1956년에서 1959년까지 두 차례의 조사 조직을 꾸렸다. 우선 조사한 지역은 장족, 부이족, 수이족, 먀오족, 야오족, 이족, 다이족, 리쭈족, 징포족, 하니족, 외족, 몽골족, 위구르족, 둥족, 리족, 마오난족, 무라오족, 티베트족, 창족, 라후족, 나시족, 바이족, 아창족, 투자족, 다위얼족, 둥샹족, 바오안족, 투족, 카자흐족, 키르기스족, 타타얼족, 우즈베키족, 싸라족, 위구족, 시보족, 허저족, 어원커족, 어룬춘족, 징족, 타지커족, 서족, 조선족 등 43개 민족의 언어이다.

16) 國家民委辦公廳, 政法司, 政策研究室 編, 『中華人民共和國民族政策法規選編』, 中國民航出版社 1997年版: 第2-3頁.

17) 國家民委辦公廳, 政法司, 政策研究室 編, 『中華人民共和國民族政策法規選編』, 中國民航出版社 1997年版: 第95頁.

18) 史筠, 『民族法律法規概述』, 民族出版社 1988年版: 第247頁.

언어 조사 내용을 기초로 하여 민족 어문 작업과 연구 기관을 설립하고 스스로 희망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중국 정부는 남쪽의 좡족, 부이족, 이족, 먀오족, 하니족, 리쑤족, 나시족, 둥족, 와족, 리족 등 10개 민족이 14종의 로마자 자모 형식의 문자를 제정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중 먀오족은 4종, 하니족은 2종의 문자를 제정하였다.

2.2.2.2. 문자의 개혁과 개량

윈난 성의 다이족, 라후족, 징포족은 문자 개량 방안을 계획하였고,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과 카자흐족은 문자 개혁 방안을 계획하였다.

새로 제정한 문자 중에서 리족은 새 리족 문자를 계속 사용하지 않고 한자를 사용하였고 하니족은 2종의 문자 중 1종만 사용하고(하야하니 문자) 다른 1종은 사용하지 않았다. 이족은 새로 제정한 이족 문자가 잘 쓰이지 않아서 옛 이족 문자를 정리하고 규범화하여 사용하였다.

개혁하고 개량한 문자 중에서 징포족 문자, 라후족 문자, 더홍 지역의 다이족 문자는 기본적으로 원래 있었던 문자의 형태와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받아들이기 쉬웠고 비교적 효과적으로 보급할 수 있었다. 시황반나 지역의 다이족 문자와, 로마자 자모 형식을 갖춘 새로운 위구르족 문자, 그리고 카자흐족 문자는 비교적 변화가 컸다. 그 때문에 일정 기간 사용한 후 옛 문자로 복귀하였는데 신장 자치구 정부는 1982년 신장 지역의 옛 위구르족 문자와 옛 카자흐족 문자로 복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윈난 성의 시황반나 자치주 정부는 1986년 시황반나 지역의 옛 다이족 문자로 복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3. “좌” 편향¹⁹⁾ 사상 노선의 “주체적이고 다양한” 언어 정책에 대한 영향

3.1. “좌” 편향 사상의 소수 민족 언어 정책에 대한 영향

1958년 대약진 운동 시기에 공산당 내 “좌” 편향 사상이 우세를 점하고 있을 때 제11차 전국통일 전선업무회의는 중국의 민족 지역의 상황에 대하여 적합하지 않게 예측하였다. 즉, “중국의 사회주의 민족 관계는 아주 빠르게 형성되고 발전하고 있다. 각 민족 간 공통점은 점점 많아지고 차이점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민족 융합의 요소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고 인식하였다.²⁰⁾ 소수 민족 지역에서는 지역 민족주의 사상에 반대하고 바로잡는 투쟁이 전개되어 상당히 많은 민족 언어 관련자들이 연루되었다.

1958년 3월, 4월에 개최된 전국 ‘제2차 소수 민족 어문과학 토론회’에서는 민족 어문 작업의 ‘세 가지 단절(즉 정치로부터의 단절, 실질로부터의 단절, 대중으로부터 단절)’ 현상을 먼저 비판하였고,

19) “좌” 편향이라는 것은 정치사상적으로 객관의 선을 넘어서서 사회 현실 조건을 벗어나고 공상적, 맹목적, 모험적으로 되는 경향을 가리킨다.

20) 黃光學 主編, 『當代中國的民族工作』(上), 當代中國出版社, 1993年版: 第131頁.

민족 언어를 연구할 때 나타나는 ‘차이, 분리, 순수’의 경향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소위 ‘차이’라는 것은 다른 언어 및 같은 언어의 지역적 차이를 과장하고 공통성을 말살하는 것으로, 언어적 차이를 점점 좋은 것으로, 언어 및 문자 종류가 많은 것을 점점 좋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소위 ‘분리’라는 것은 문자가 한 민족 안의 여러 민족 간의 단결에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한 민족 안의 여러 방언이 서로 다른 문자를 사용하는 곤란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민족 언어의 발전과 새로운 낱말, 전문용어 문제를 보면 민족 언어의 ‘순수’를 강조한다. 중국어에서 온 차용어 사용을 거부하고 배척하면서 언중이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는 옛 어휘를 찾아내어 언중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원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도 없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²¹⁾

이러한 “좌” 편향 사상이 전개되면서 민족 언어 작업은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었다. 윈난 성 징포족의 짜이외족 문자와 신하니족의 비카 방언의 문자 제정이 취소되었다. 그 이유는 한 민족이 두 종류의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민족 단결에 이롭지 않다는 것이었다. 1959년 이후 윈난 성 각 지역은 새로 제정한 문자의 사용을 시범적으로 실행하였으나 이 역시 연달아 사용이 중지되었다. 1960년에는 구이저우민족출판사가 문을 닫게 되기까지 하였다. 이 외에도 많은 성과 자치구의 민족 학교 역시 문을 닫거나 합병되었고 민족 교사는 노동 현장에 보내지고, 민족 어문 교육 과정은 줄어들거나 없어졌다.

3.2. 문화 대혁명과 “주체적이고 다양한” 어문 정책의 중지

문화 대혁명 기간에 름바오와 ‘사인방’은 문화전제주의를 실시하였다. 그들은 민족 자치구 또는 자치 이론을 ‘분열’을 조장하는 이론으로 모독하였고 소수 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무용”하고 “구제도를 복고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장춘차오는 “문자를 가진 몽골족, 티베트족, 위구르족, 카자흐족, 조선족은 우선 사용하지만 다른 소수 민족은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였다.²²⁾ 이렇게 되면서 위의 다섯 종류의 민족 문자를 제외하고는 기타 수십 종의 소수 민족 문자의 사용권이 박탈되었다.

문화 대혁명 기간 동안 중국의 문자 개혁 작업과 소수 민족의 언어 문자 작업은 모두 심하게 손상되었다. 중국문자개혁위원회는 어쩔 수 없이 업무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많은 위원과 전문가들이 박해를 받았으며 지방의 표준 중국어 보급 기관도 대부분 문들 닫게 되었다. 학교에서 표준 중국어를 교육하는 것은 ‘교육지상주의’를 나타낸 것으로 보여서 마찬가지로 비판을 받았다. 사회적으로 언어와 문자의 운용이 심하게 혼란스러워지게 되어 언어가 은어, 반말, 상투적인 말, 욕설 등으로

21) 中華人民共和國民族事務委員會文教司, 「爲正確貫徹執行黨的民族語文工作方針而奮鬥」, 『民族研究』 1958年 第3期: 第3頁.

22) 馬學良, 「爲實現新時期的總任務多作貢獻」, 『民族語文』 1979年 第1期: 第10頁.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마찬가지로 소수 민족 어문 기관도 강제로 문을 닫게 되었다. 민족 어문의 출판, 방송 사업 역시 강제로 정지되었고 민족 어문의 문맹 퇴치 작업 역시 강제로 중단되었다. 신장 지역, 내몽골 지역, 옌뱌 지역 등 일부 민족 학교를 제외하고는 다른 대부분의 학교와 기타 성(자치구)의 모든 민족 학교의 민족 어문 교육 과정이 거의 완전히 폐지되었다.²³⁾

3.3. 문화 대혁명 후기의 “주체적이고 다양한” 어문 정책의 복잡한 발전

1972년 저우언라이 총리의 관심으로 중국의 문자 개혁 작업 및 소수 민족의 어문 작업이 약간 회복되었는데 대체로 아래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3.3.1. 초안 작업 착수 『제2차 한자 간략화 방안(초안)』

1972년 11월 중국과학원 문자 개혁 부서에서 한자의 새로운 간략화 방안을 초보적으로 정리한 『초고』를 내었다. 1975년 5월 중국문자개혁위원회는 『제2차 한자 간략화 방안(초안)』(이하 “2간”)을 제안하였고, 또 1977년 5월에는 수정판을 입안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거친 후 같은 해 12월에 공표하였다. “2간”의 초안이 발표된 후 여러 부분에서 비판을 받아 1986년 6월 1일 국무원은 “2간”의 초안을 폐지하기에 이른다.

저우여우광(周有光)은 “2간”의 초안이 실패한 원인을 다음 세 가지로 보았다. 첫째는 기술적인 오류이다. “2간” 초안에 있는 많은 글자들이 민간에서 유래된 것이었지만 이 글자들은 “언중에게 널리 인정된 것이 아니”었고, 대량으로 도입된 후 원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게 되어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 두 번째는 언중의 심리적 변화이다. 20세기 50년대에 “1간”을 공포하였을 때는 혁명적인 정서가 고조되어 있어 언중이 변화를 갈구하였지만, “2간”의 초안은 문화 대혁명 이후에 발표된 것으로 이 시기의 언중은 안정을 희망하여 한자가 끊임없이 간략화하고 개혁되는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다. 세 번째는 “2간” 초안의 공포 과정에 잘못이 있었는데 그것은 중국문자개혁위원회의 “위원들”의 회의 통과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상부에 보고하여 발표한 것이다.²⁴⁾

3.3.2. 헌법의 언어 관련 조항 수정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1954년 『헌법』 제3조 “각 민족은 모두 자신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다.”라는 조항은 1975년의 『헌법』 제4조에서 “각 민족은 모두 자신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할 자유가 있다.”로 바뀌어²⁵⁾ 1954년 『헌법』의 “~고 발전시킬”이라는 말이 삭제되었다. 또

23) 周慶生, 『語言與人類: 中華民族社會語言透視』,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00年版: 第340頁.

24) 周有光, 「中國的漢字改革和漢字教學」[1986], 載 周有光, 『新語文的建設』, 語文出版社 1992年版: 第219頁.

25) 董雲虎, 劉武萍 編, 『世界人權約法總覽』, 四川人民出版社 1991年版.

한 문화 대혁명 후기에 소수 민족의 언어와 문자 사용은 용인되었으나 언어와 문자를 더 이상 발전시킬 수는 없었다. 이것은 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오랫동안 지켜온 민족 평등과 언어 평등의 대원칙을 위반한 것이었다.

3.3.3. 민족 어문 번역국 설립

문화 대혁명 후기에 마르크스의 저작과 마오쩌둥의 저작을 소수 민족의 문자로 번역하여 출판하는 작업이 중시되었다. 1974년 저우언라이 총리의 비준을 거쳐 ‘중앙 마르크스 저작 마오쩌둥 저작 민족 어문 번역국’이 설립되어 1978년 번역국을 기반으로 한 ‘중국 민족 어문 번역 센터’를 설립하였다. 이것은 중국 유일의 국립 민족 어문 번역 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몽골족, 티베트족, 위구르족, 카자흐족, 조선족, 이족, 장족 등 7개 소수 민족의 문자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고전 저작, 공산당과 국가 지도자의 저작, 공산당과 국가의 중요한 문헌, 국가의 법률과 법규 및 중국공산당전국대표대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정치협상회의대회의 문건을 번역하여 출판하고 이와 같은 전국 규모의 중요한 정치회의의 동시통역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당과 국가의 중요한 정치회의에서 동시에 7개의 소수 민족 언어로 번역과 동시통역을 진행하는 것은 중국과 전 세계는 물론 역사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것이다.

3.3.4. 위구르족과 카자흐족 새로운 문자에 대한 신장 자치구의 전면적 사용 결정

문화 대혁명 기간에 전국 각지의 소수 민족의 문자 개혁 작업은 모두 중단되었다. 그러나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과 카자흐족의 로마자를 이용한 신문자(新文字) 개혁 작업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1973년 6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혁명위원회는 우루무치에서 위구르, 카자흐의 신문자 보급 업무 회의를 개최하여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위구르족과 카자흐족의 새로운 문자를 보급할 것을 결정하였다.²⁶⁾ 1976년 8월 신장 위구르 자치구 혁명위원회는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과 카자흐족의 새로운 문자를 전면적으로 사용하고 옛 문자 사용을 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사인방이 축출된 이후에 새로운 문자는 일부 사람들에게 극좌노선과 대한족주의의 산물로 간주되어 부정되기에 이른 다.”²⁷⁾ 1982년 9월 신장 위구르 자치구 제5회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위구르족, 카자흐족의 옛 문자를 전면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결의』가 통과된 이후 위의 새 문자 두 종은 로마자 표기 부호로만 남겨지게 되었다.

4. 현대화 건설 과정과 “주체적이고 다양한” 언어 정책의 발전

제11회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전체회의(1978년 12월) 이후 중국은 대외적으로 개방 정책을, 대내

26) 『新疆日報』社論, 「加速推行維吾爾, 哈薩克新文字」, 『新疆日報』1973年6月15日 1版.

27) 戴慶慶, 賈捷華, 「對民族文字“創, 改, 選”經驗教訓的一些認識」, 『民族研究』1993年 第6期: 第17頁.

적으로는 경제 활성화 정책을 실시한다. 사회 경제의 발전은 “계급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것에서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경제 건설, 사회 문화 교육 사업 및 정보 과학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여 언어 문자의 규범화와 표준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긴급해졌다. 사회 발전과 사회 환경 변화의 요구에 적응하기 위하여 중국은 바로 언어 정책을 조정하여 새로운 시기(1986년 이후)의 언어 문자 업무 지침 및 주요 임무를 규정하였다.²⁸⁾

4.1. 언어 정책의 조정

중국의 언어 문자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더 이상 문자 개혁이 아니라²⁹⁾ “표준 중국어를 열심히 전파하고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것”이다.³⁰⁾ 개혁 개방에 적응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건설하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중국은 표준 중국어 보급과 한자 규범화 실현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았다. 현행 『중국어 표음 방안』은 중국어와 한자를 학습하고 표준 중국어를 보급하는 주요 도구이지만 한자를 대체하는 로마자 문자는 아니다. 한자 사용이 불편하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나 중국어 표음 기호가 사용된다. 앞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한자는 중국의 법정 문자일 것이며 계속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게 될 것이다.

4.2. 주체성: 중국의 표준 중국어와 규범 한자 보급

4.2.1. 새로운 시기의 언어 문자 업무 방침

새로운 시기의 언어 문자 업무 방침은 다음과 같다. 언어 문자 업무에 대한 국가의 정책과 법령을 관철하고 집행하여 언어 문자의 규범화, 표준화를 촉진시키고 문자 개혁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언어 문자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더 나은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³¹⁾

4.2.1.1. 국가의 표준 중국어 보급

표준 중국어의 보급은 주로 장벽을 없애서 사회적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인위적으로 방언을 없애려 하는 것이 아니다. 20세기 50년대의 확고한 표준 중국어 보급 방침은 “대대적 제

28) 劉導生, 『新時期的語言文字工作』, 載 『新時期的語言文字工作——全國語言文字工作會議文件彙編』(1986年1月), 語文出版社 1987年版.

29) 1997년 12월 열린 제2차 전국언어문자업무회의에서 제기된 21세기 언어 문자 업무 방침 및 임무에서 “문자 개혁” 내용은 이미 없었다.

30) 許嘉璐, 「開拓語言文字工作新局面, 爲把社會主義現代化建設事業全面推向21世紀服務——在全國語言文字工作會議上的報告」, 『語文建設』1998年 第2期: 第4頁.

31) 劉導生, 『新時期的語言文字工作』, 載 『新時期的語言文字工作——全國語言文字工作會議文件彙編』(1986年1月), 語文出版社 1987年版: 第23頁.

창, 중점적 시행, 점진적 보급”이었다³²⁾. 사회 환경의 발전에 따라 20세기 90년대의 표준 중국어 보급 업무의 방침은 “대대적 시행, 적극적 보급, 점진적 제고”로 조정되었다.³³⁾ 이와 같은 조정은 원래 방침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방침이 새로운 사회 환경과 새로운 임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이다.

20세기 50년대의 업무 방침을 90년대와 서로 비교해 보면 주요한 변화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50년대에는 표준 중국어가 주로 중국의 남방 방언 지역에 보급되었다면, 90년대에는 북방 방언에도 보급된 것이다. 50년대 보급 업무가 학교 중심의 보급이라면 90년대는 학교 및 사회 중심의 보급이 병행되어서, 표준 중국어가 과학 언어, 업무 언어, 매체 언어, 서비스 언어 및 교류 언어가 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³⁴⁾ 50년대에는 표준 중국어를 핵심으로 한 언어 규범이었다면 90년대에는 언어 및 어휘 부분을 중심으로 한 규범이 된다.

4.2.1.2. 표준 중국어의 등급 표준화

실제 생활에서는 여러 지역, 여러 부문, 여러 업종, 여러 학교, 여러 연령층의 집단에서 표준 중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표준 중국어를 3개의 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 1급은 상당히 표준적인 표준 중국어로 볼 수 있다. 발음, 어휘, 문법에서 거의 실수가 없는 수준이다. 2급은 비교적 표준적인 표준 중국어로 볼 수 있다. 방언 발음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고 어휘와 문법의 잘못도 비교적 적다. 3급은 일반적인 표준 중국어로 볼 수 있다. 다른 방언 지역의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 것은 남방 방언 지역뿐 아니라 북방 방언 지역에도 활용된다.

4.2.1.3. 규범 한자의 국가적 시행

규범 한자는 1986년 국가언어문자업무위원회에서 새롭게 발표한 『간략 한자 총표』에 수록된 간략 한자와 1988년 국가 언어문자업무위원회와 뉴스출판부서에서 발표한 『현대 중국어 통용 한자표』에 수록된 한자를 주로 가리킨다. 1992년 이후 중국언어문자업무위원회에서 공포한 통지문 규정은 정부 기관, 학교 교육, 대중 매체, 공공장소, 정보 처리 및 정보 기술 상품에서 모두 규범 한자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32) 王均 主編, 『當代中國的文字改革』, 當代中國出版社 1995年版: 第279頁.

33) 國家語言文字工作委員會政策法規室編, 『國家語言文字政策法規彙編』(1949—1995), 語文出版社 1996年版: 第320頁.

34)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각급 각 부문의 학교에서 표준 중국어로 수업을 진행하여 교육 언어 역할을 한다. 두 번째, 각급 각 부문의 기관 업무 시 보편적으로 표준 중국어를 사용하여 업무 언어 역할을 한다. 세 번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연극에서 표준 중국어를 사용하여 매체 언어 역할을 한다. 네 번째, 여러 언어 지역의 사람이 공적인 상황에서 서로 교류할 때 기본적으로 표준 중국어를 사용하여 교제 언어 역할을 한다. “劉導生, 『新時期的語言文字工作』, 載 『新時期的語言文字工作——全國語言文字工作會議文件彙編』(1986年1月), 語文出版社 1987年版: 第25頁.” 를 보라.

4.2.1.4. 아주 신중을 기해야 하는 한자 간략화

한자의 자형은 한 시기 안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되게 유지되어야 한다. 『제2차 한자 간략화 방안(초안)』은 1977년에 발표된 후 중국 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켜서 1986년 국무원은 정식으로 그 초안의 폐지를 선포하였다.

4.2.1.5. 중국어와 한자의 정보 처리

중국어와 한자의 정보 처리는 새롭게 출현한 학제 과학으로 전망이 밝은 분야이므로 이 분야의 연구가 강화되면 경제, 문화, 과학 기술의 발전에 원대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당면하고 있는 언어 문자 업무와 임무는 반드시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4.2.1.6. 『중국어 표음 방안』

『중국어 표음 방안』은 국가에서 제정하고 공포한 법정 표준이므로 반드시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하고 상관없는 부문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4.2.2. 언어 문자 업무 기구

‘국가언어문자업무위원회’는 간단히 ‘국가어위’라고도 하는데 그 전신은 ‘중국문자개혁위원회’이다. 1985년 12월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주요 업무로는 국가의 언어 문자 업무의 방침과 정책 입안, 언어 문자 업무의 중장기 계획 수립, 중국어와 소수 민족 언어 문자의 규범과 표준 제정 및 협력과 감사 업무 조직, 표준 중국어 보급 업무 지도, 언어 문자의 규범화와 표준화 촉진 등이 있다. 1998년 ‘국가언어문자업무위원회’는 교육부에 편입되었는데(부부장급),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국가언어문자업무위원회’의 이름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위원장은 교육부 부부장인 리웨이홍이 겸임하고 있다.

4.3. 다양성: 소수 민족 언어 문자의 사용과 발전

제11회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전체회의 이후 해방 사상, 실사구시 노선의 지도 아래 소수 민족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키는 정책은 점점 회복되었고 구체화되었다. 1991년 4월 국가민족사무위원회는 국무원에 『소수 민족 언어 문자 업무를 더욱 잘 완성하는 것에 대한 보고』를 문서로 상신하였다. 같은 해 6월 국무원은 이 보고서에 대하여 지시를 내리고 국발[1991]32호 문서로 하달하였다.³⁵⁾ 이 문서는 중국의 민족 어문 업무의 방침, 임무, 조치를 체계적으로 제기하였다.

35) 國家民委辦公廳, 政法司, 政策研究室編, 『中華人民共和國民族政策法規選編』, 中國民航出版社 1997年版: 第390-392頁.

4.3.1. 지도 사상과 주요 임무

32호 문서의 규정에 의하면 새로운 시기의 민족 어문 업무의 지도 사상과 기본 방침은 다음과 같다. 언어 문자 평등의 원칙을 견지하고, 소수 민족의 언어 문자 사용 및 발전을 보장하며, 각 민족의 단결, 진보 및 공통 번영의 이익에서 출발하여 실사구시와 개별적 지도 방침 아래 적극적이고 신중하고 타당하게 민족 어문 업무를 전개하며, 소수 민족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사업의 전면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서비스를 촉진시키는 것이다.³⁶⁾

새로운 시기의 민족 어문 업무의 주요 임무는 국가 민족 어문 정책의 관철, 민족 어문 법제 제정의 강화, 민족 어문의 규범화·표준화 및 정보 처리의 해결, 민족 어문의 번역·출판·교육·뉴스·라디오·영화·텔레비전, 고적 정리 사업 발전 촉진, 민족 어문의 학술 연구, 협력 교류 및 인재 양성 촉진, 각 민족 상호 간 언어 문자 학습 독려 등이다.³⁷⁾

지금까지 기술한 방침과 임무를 관철시켜 현실화하기 위해서 다음 몇 항목의 조치가 주요하게 채택되었다.

첫 번째, 실제적인 것에서 출발하여 개별적으로 지도하고 소수 민족 문자의 사용과 보급 업무를 실제에 맞게 수행한다.

두 번째, 각 민족 상호 간의 언어 문자 학습을 독려한다.

세 번째, 소수 민족 학생을 주로 모집하는 학교에는 소수 민족 문자로 된 교과서를 제한적으로 반드시 채택하도록 하고 소수 민족 언어로 강의하게 한다. 적당한 학년이 되면 중국어 과정을 늘려 이중 어문 교육을 실시하고 전국 통용의 표준 중국어를 보급한다. 여러 경로와 여러 층위로 민족 어문 교사, 이중 어문 교사를 늘리고 번역, 편집 및 연구 인력을 양성하여, 민족 문자 교재 및 각종 읽을거리의 수를 늘리고 그 수준도 높인다.³⁸⁾

4.3.2. 민족 어문의 사용과 발전

20세기 50년대와 비교해 보면 80년대 이후 민족 어문의 사용 영역은 이미 뚜렷하게 확대되었다.

4.3.2.1. 정치 생활 영역

중국공산당대표회의, 전국인민대표회의,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최와 같은 중요 회의 및 전국 규모의 중요 행사에는 몽골족, 티베트족, 위구르족, 조선족, 이족, 장족 등의 민족 언어와 문자로 된 번역 문서를 모두 제공하는 동시에 이상 7종 언어로 동시통역을 실시한다. 많은 자치 지방의 자치 기관은 업무를 집행할 때 자치 기관의 공문과 인감, 인민 단체, 공장과 광산, 학교의 인장, 간판,

36) 國家民委辦公廳, 政法司, 政策研究室編, 『中華人民共和國民族政策法規選編』, 中國民航出版社 1997年版: 第391頁.

37) 國家民委辦公廳, 政法司, 政策研究室編, 『中華人民共和國民族政策法規選編』, 中國民航出版社 1997年版: 第391頁.

38) 國家民委辦公廳, 政法司, 政策研究室編, 『中華人民共和國民族政策法規選編』, 中國民航出版社 1997年版: 第392頁.

상표, 광고, 장표 등은 모두 민족 문자를 사용한다.

4.3.2.2. 교육 영역

새로 만들어진 문자나 개량된 문자는 주로 민족 문자 저학년의 이중 언어 교육에 사용되어 중국어를 모르는 학생을 중국어 학습으로 이행하도록 돕는다. 몽골문자, 티베트문자, 위구르문자, 카자흐문자, 한글 등 만들어진 지 오래된 문자는 이미 중고등학교와 높은 수준의 대학에까지 진입하였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비교적 완전하게 민족 어문을 중심으로 하고 중국어를 부차적으로 유지하는 형태의 이중 언어 교육 체제가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전국 13개 성과 자치구, 21개 민족의 만여 곳의 학교에서는 민족어 또는 이중 언어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민족 어문이 정식으로 초·중고등학교 교과 과정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민족은 몽골족, 티베트족, 위구르족, 카자흐족, 조선족, 이족, 장족, 키르기스족, 시보족, 다이족, 징포족, 러시아족 등 12개 민족이다. 초등학교에서 민족 어문의 실험적 교육 또는 문맹 퇴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민족은 바이족, 먀오족, 부이족, 나시족, 동족, 와족, 하니족, 리쑤족, 라후족 등 9개 민족이다. 600여만에 달하는 사람이 학교에서 60여 종에 달하는 민족 언어와 29종의 민족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10개의 성과 자치구는 이에 상응하는 민족어와 민족 문자 교재를 편역하는 기구를 만들기 시작하였는데 매년 편역 출판되는 초·중고등학교용 여러 교재가 거의 3,000종에 이르고 총 인쇄 부수는 1억 권에 이른다. 1997년 전국에서 소수 민족 문자로 출판된 교재는 1,464종(이중 새로 출판된 것은 231종)인데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와 비교하면 6.4배, 1980년과 비교하면 1.8배 늘어났고 인쇄 부수는 3,403만 권에 이른다.³⁹⁾

4.3.2.3. 출판 방송 영역

중국은 중앙에 1급 조직으로 민족 어문 번역 기관을 설치하였고 자치구와 자치주에도 비교적 완전한 형태의 번역 기관을 설치하였다. 최근 중국에서 민족 문자 출판 기관은 이미 36곳에 달한다. 1997년 20여 개의 민족 문자로 출판된 도서는 3,429종에 이르러 1952년의 621종과 비교하면 4.5배가 증가하였다. 민족 문자 신문 출판도 88종으로 1952년의 20종에 비하면 3.4배가 증가하였고, 잡지는 184종으로 1952년 15종 대비 11배가 증가하였다. 중앙인민라디오방송국이 5개의 소수 민족 언어로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였는데 성,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으로 나뉘는 민족 자치 지역에서도 소수 민족 언어를 사용하는 무선 전신국과 유선 방송국을 설립하였고, 일부 자치 지역은 민족 언어 텔레비전 채널을 개설하였다. 많은 민족 자치 지역에서 영상 프로그램 민족 언어 번역 제작 기관도 설치하고 있어서 매년 민족 언어로 된 많은 수의 영상 프로그램이 상영되고 있다.⁴⁰⁾

39) 圖道多吉, 『民族教育的光輝歷程』, 載 『中國民族工作五十年』編委會, 『中國民族工作五十年(1949-1999)』, 民族出版社 1999年版: 第43頁.

4.3.2.4. 민족 어문의 규범화, 표준화, 정보처리에 대하여

중국은 몽골어, 티베트어, 위구르어, 카자흐어, 한국어에 대하여 이미 전문용어 및 문자 규범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 있다. 그 기관에서는 관련 전문가를 조직하여 전문용어 및 상용자의 통일 규범을 연구하고 제정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으며, 규범이 만들어진 후에는 어문 업무 부문에서 공포하고 집행한다. 1995년 전국 전문용어표준화기술위원회의 소수민족어특별분과위원회가 베이징에서 만들어졌다. 이어서 그 특별분과 아래에 몽골어, 티베트어, 한국어 및 신장 소수 민족어 등 4개의 전문용어업무위원회가 결성되었는데 그 기관은 각각 해당 언어의 기초적인 전문용어 표준을 제정하였다.

중국은 민족 명칭의 전사 기준과 소수 민족의 지명 로마자 표기의 표준을 이미 제정하였다. 관련 부분은 전문가를 조직하여 몽골어의 로마자모 전사 표준(국제 표준)을 연구하고 제정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몽골문자, 티베트문자, 이족문자, 위구르문자, 카자흐문자, 키르기스문자 등에 대하여 문자 코드표, 키보드, 자형의 국가 표준을 제정하였다. 90년대 초에는 잇달아 몽골족, 티베트족, 위구르족, 카자흐족, 조선족, 이족, 장족, 키르기스족, 시보족 등의 민족의 문자 처리 시스템을 출시하였고, 민족 문자의 운용 및 응용 시스템, 조판 시스템 및 사무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몽골문자와 티베트문자 등의 자동 식별 시스템과 기계 번역 시스템도 어느 정도 진전이 있어서 몽골문자, 티베트문자, 한글, 위구르문자, 이족문자 등은 인터넷 사이트나 홈페이지를 만들어 민족 어문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티베트문자와 몽골문자의 코드표 표준은 이미 국제표준화기구의 심사를 통과하여 국제 표준이 되었다.

5. 시장 경제의 초보적 수립과 『언어법』의 공포 및 시행

중국공산당 제40차 전국대표대회(1992년)이후 중국은 “계획 경제” 체제에서 “시장 경제” 체제로 바뀌었다. 21세기 초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초보적으로 수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 체제가 여전히 틀을 바꾸고 있을 때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도시화 사회가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바뀌어 가는데 (1) 모순이 많이 발생하는 불안정한 사회에서 계층 화합이 이루어진 안정적인 사회로 변화하고, (2) 조화롭지 않고 전반적인 발전이 없는 사회에서 인간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으로 조화롭게 발전하는 사회로 변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언어 부문에서는 통일적인 시장이 일치된 언어를 요구하게 되어 높은 단계의 도시화 사회는 더욱 규범적이고 더욱 통일적이고 더욱 보편적인 언어를 요구할 것이다.

40) 李晉有, 「民族文化的發展與繁榮」, 載『中國民族工作五十年』編委會, 『中國民族工作五十年』(1949-1999), 民族出版社 1999年版: 第60頁.

5.1. 주체성: 언어 입법

5.1.1. 입법 배경

21세기에 들어서서 중국은 사회, 경제의 변환기를 맞게 된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언어 장벽을 해소하였기 때문에 사회주의 시장 경제 건설을 위한 기초가 다져졌다. 국가적으로 언어 문자의 규범화, 표준화를 더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표준 중국어의 보급과 규범 한자의 시행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중국 사회의 언어생활을 보면 많은 혼란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번체자를 남용하고 간체자, 음역자를 마음대로 만들어 내며 외국어를 마구 사용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혼란으로는 사회 발전의 요구에 적응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혼란상을 효과적으로 바로잡기 위하여 전국인민대표대의회의 일부 대표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일부 위원이 제안과 의안을 제기하였는데 그것은 국가가 언어법을 제정하여 언어와 문자의 관리 업무를 법제화한 궤도에 넣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법제를 완비하여 사회주의 법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중국공산당 제15차 전국대표대회(1997년)에서 국가를 운영하는 계획과 방침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2000년 10월 31일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통용 언어 문자법』(이하 『언어법』)을 심의하여 통과시켰다.

5.1.2. 『언어법』의 주요 원칙

『언어법』은 중국 역사상 첫 번째의 언어 문자 관련 국가 법률이다. 언어법의 공포는 중국 통일, 민족 단결, 사회 진보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언어법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언어 지위: 『언어법』은 우선 표준 중국어와 규범 한자가 국가에서 통용되는 언어와 문자임을 규정하고(제2조), 표준 중국어와 규범 한자의 법률적 지위와 사용 범위를 확립하였다.
- (2) 언어 정책: 『언어법』은 국가 통용 언어 문자의 기본 정책을 규정하였다. 즉 “국가는 표준 중국어를 보급하고 규범 한자를 시행한다.”(제3조)
- (3) 언어 권리: 『언어법』은 모든 국민이 국가 통용 언어 문자를 학습하고 사용하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 (4) 총원칙: 『언어법』은 국가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와 문자 사용의 총원칙을 규정하였다. 즉, “국가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와 문자의 사용은 국가의 주권과 민족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데 이로워야 하고, 중국의 통일과 민족의 단결에 이로워야 하며, 사회주의의 물질문명 건설과 정신문명 건설에 이로워야 한다.”(제5조)
- (5) 언어 의무: 『언어법』은 당정 기관, 뉴스 매체, 교육 학습, 공공 서비스 등 4대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은 국가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와 문자를 학습하고 사용하는 의미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6) 민족 언어 권리: 헌법 규정을 거듭 천명하였다. 즉 “각 민족은 모두 자신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다.”(제8조)

5.1.3. 『언어법』의 실시

5.1.3.1. 언어법의 법규 체계

『언어법』 공포 후 각 지방은 지방의 상황에 따라 『언어법』의 시행 방법을 제정하면서 현지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는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규정을 제안하였고, 언어와 문자의 규범화, 표준화에 대한 명확한 요구를 제안하였다.

현재까지는 모두 32개 지방에서 언어의 법규와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그중 지방의 오래된 언어 법규를 수정한 곳은 티베트 자치구, 헤이룽장 성, 신장 위구르 자치구이고, 새로운 지방 언어 법규와 규정을 공포한 곳은 베이징 시, 산시(山西) 성, 쓰촨 성, 충칭 시, 산둥 성, 후베이 성, 톈진 시, 윈난 성, 랴오닝 성, 지린 성, 상하이 시, 장쑤 성, 후난 성, 푸젠 성, 광시 성, 안후이 성, 닝샤 성, 저장 성, 구이저우 성, 내몽골 자치구, 산시(陝西) 성, 허베이 성, 하이난 성 및 산터우 시, 타이위안 시, 다롄 시, 시안 시, 난창 시, 구이양 시 등 모두 29개의 성, 시, 자치구이다.⁴¹⁾ 언어 문자와 관련된 법률 법규의 체계와 골격은 이미 형성되었다.

5.1.3.2. 지방의 언어 업무 기관

『언어법』과 지방 법규 규정을 관철하고 실현시키는 것은 언어 문자 업무 기관을 설립하고 완벽하게 갖추는 일을 촉진하였다. 2010년까지 전국의 성급(자치구와 직할시) 언어문자업무위원회 부서는 모두 32개이고 전임 또는 겸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207명이다. 시급 언어문자업무위원회 부서는 모두 482개이고 근무 인원은 1,022명이다.⁴²⁾

5.1.3.3. 국가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와 문자에 대한 시험

국가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와 문자에 대한 시험은 국민의 언어 소양을 높이고 배양하기 위하여 과학적 평가 수단으로 제공될 수 있다. 이 시험의 체계는 표준 중국어 수준 측정, 한자 응용 수준 측정, 중국어 능력 측정 등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준 중국어 수준 시험은 전국적인 규모로 비교적 완벽한 업무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컴퓨터 지능화 시험 관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2009년까지 전국에 모두 1,296개의 시험장을 세우고 국가급, 성급 표준 중국어 수준 측정 인원 43,291명을

41) 魏丹, 「地方語言文字立法」, 『中國語言生活』 電子雜誌 2010年 第3期. 다음 교육부 포털에도 실려 있다.
(<http://www.moe.edu.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s4841/201011/111921.html>).

42) 王登峰, 「紀念『國家通用語言文字法』頒布10周年專欄」, 載『教育部2010年第8次新聞發布會文字實錄』, 中國教育網, 2010年1月25日, http://www.edu.cn/fa_bu_hui_xin_xi_906/20101125/t20101125_544409.shtml.

양성하여 시험 누계 인원이 연인원 3,000만 명에 달한다.⁴³⁾ 한자 응용 수준 시험과 중국어 능력 시험 시스템의 연구 개발 및 테스트 시험 업무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고, 두 시험에 참가하는 사람 수도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5.1.3.4. 도시의 언어 문자 업무 평가

『언어법』은 “당정 기관, 뉴스 매체, 교육 학습, 공공 서비스 분야”를 언어 문자 업무의 4대 중요 영역으로 지정하였다. 도시의 언어 문자 업무 평가는 “목표 관리, 계량 평가”의 원칙과 표준에 의거하여 각 급 각 부문 도시에서 언어 문자 4대 영역 내 사용의 규범화와 표준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2009년 말까지 기준에 통과한 도시 중 1류 도시(직할시, 성 행정부 소재지, 자치구 수도, 중앙 직속 중점 개발 도시)는 전국 1류 도시 총수의 89%를 점하는 32곳이었고, 2류 도시(지급시 지역, 지구 행정 기관 소재지 지역, 1류 도시 관할 지급 외곽(현) 행정부 소재 도시와 읍)는 전국 2류 도시 총수의 57%를 점하는 191곳이었으며, 3류 도시(현급시 지역, 현과 1류 2류 도시 관할 현급 외곽(현) 행정부 소재 도시와 읍)는 전국 3류 도시 총수의 11%를 점하는 240곳이었다.⁴⁴⁾ 도시의 언어 문자 사용 양상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 1998년부터 매년 9월 세 번째 주를 국무원은 ‘전국 표준 중국어 보급 선전 주간’으로 확정하여 지금까지 14회를 맞이하고 있어 표준 중국어 보급을 관철하고 실현하는 『국가적으로 통용되는 언어 문자법』의 중요한 장이 되고 있다.

5.1.3.5. 언어와 문자의 규범화, 표준화, 정보화

2000년부터 10년간 중국은 언어 문자 규범 표준을 20개 가까이 발표하였는데 이는 어문 교육 및 연구, 출판 인쇄, 사전 편찬 등의 분야와 관련된 것이다. 연구 센터를 설립하고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6년 동안 계속 『중국 언어생활 실태 보고』(2006-2011)를 공포하였다. 중국 언어 자원의 음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행 업무를 전개하여 언어 자원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개발한다. 언어 문자 응용 연구 항목 130여 개를 설정하고 소수 민족 문자의 표준화, 정보화 항목을 100여 개를 설정한다.

5.1.4. 언어 충돌: 광저우의 “광둥어 지지” 사건

전환기와 글로벌화, 포스트모던과 다원화 등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사회 환경은 중국이 원래 가지고 있던 언어 평형 상태에 영향과 충격을 주어 언어 간 모순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표준 중국어와 방언의 조화로운 발전이 현재 언어생활과 언어 문자 업무의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43) 『『國家通用語言文字法』의頒布實施十周年』, 新華網, http://news.xinhuanet.com/edu/2010-11/25/c_12815688.htm.

44) 王登峰, 「紀念『國家通用語言文字法』頒布10周年專欄」, 載『教育部2010年第8次新聞發布會文字實錄』, 中國教育網, 2010年11月25日, http://www.edu.cn/fa_bu_hui_xin_xi_906/20101125/t20101125_544409.shtml.

2010년 5월 광저우 시 정치협상회의는 인터넷 사이트에 “광저우 텔레비전 방송국의 방송 현황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건의에 기초하여 광저우 텔레비전 방송국의 표준 중국어 방송 시간과 프로그램을 늘렸는데 이것은 광저우 아시안 게임 기간 중 방문하는 국내외 손님이 아시안 게임과 지역 뉴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6월 6일 한 누리꾼이 미니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광저우 시 정치협상회의에서 감히 광저우 시 텔레비전 방송 전부를 표준 중국어로 바꾸려고 한다. 하늘의 이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글이었다. 순식간에 “광둥어가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 “광둥어를 보호하자.”는 요구가 도처에서 일어 “광둥어 존폐”의 논쟁을 이끌었다.

7월 5일, 광저우 시 정치협상회의 제안위원회 부위원장은 광저우 시에 『아시안 게임 소프트웨어 환경’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건의』라는 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광저우 텔레비전 방송국 종합 채널이 표준 중국어 프로그램 방송 시간을 늘려야 하는 것에 대한 건의”가 포함되어 있었다. 한 정치협상회의 위원이 미니블로그에 “광둥어가 위험하다!”라는 글을 올렸고 마스크의 논평은 “표준 중국어 추진, 광둥어 폐지”, “광둥어 멸망론”이라는 논제로 한 단계 상승하였으며 이어서 “광둥어 사수” 캠페인까지 나타났다.

7월 19일, 광저우 시 위원회 부서기 쑤즈자는 마스크에 “광둥어는 영남 문화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데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 “표준 중국어 추진, 광둥어 폐지” 상황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광저우 시위원회와 광저우 시는 “표준 중국어 추진, 광둥어 폐지”, “광둥어 약화”를 전혀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표명하였다.⁴⁵⁾

7월 25일, 광저우 시민 수천 명이 지하철 장난지역 에이(A) 출구에서 “광둥어 사수” 집회를 개최하였다. 7월 28일 광저우 시는 기자 회견을 열어 시에서 지금까지 어떠한 시기, 어떠한 상황에서도 “표준 중국어 추진, 광둥어 폐지”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 말은 완전히 허구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 내용이라고 다시 한 번 표명하였다.⁴⁶⁾ 8월 1일, 광저우 시에는 또 한 번 수천 명의 가두집회가 열렸고 홍콩도 광저우의 “광둥어 지지” 집회 시위에 성원을 보였다. 집회 후 마스크에서는 이 사건을 불법 집회로 규정하였다.⁴⁷⁾

8월 4일, 광둥성 위원회 서기 왕양은 “아시안 게임 개최 디(D)-100일 쉼기 동원 대회”에서 “표준 중국어 추진, 광둥어 폐지”는 허구라고 표명하였다. 왕양은 “우리가 모두 광둥어를 배우고 있는데 누가 감히 광둥어를 폐지한다 말인가?”라고 말하였고⁴⁸⁾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중국은 여전히 사회 전환 시기에 놓여 있고 사회 계층의 분화가 발생하며 사회적 관계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서 누적된 다양한 사회 문제와 사회 모순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광둥어 지지” 사건이 발생한 것은 실제로 사회적 모순의 작은 폭발이다. 이 사건은 “거짓 사실”에서 발생한 것

45) 劉海健, 「廣州市委副書記孫志佳接受記者採訪時表示——“推普廢粵”根本不存在」, 『廣州日報』 2010年7月20日 第一版.

46) 馮倩妮, 唐智奇, 「廣州市政府重申: “推普廢粵”是根本不存在的偽命題」, <http://www.dayoo.com/2010-07-28>.

47) 廣州日報訊, 「廣州警方依法處置一起非法集會事件」, 『廣州日報』 2010年8月2日 A4版.

48) 「汪洋: 我學廣東話 誰敢廢粵」, 台灣英文新聞, 2010年8月5日.

이지만 중국에 “실제 사건”으로 변화하였다. 이 사건은 언어 또는 방언이 정치적 도구로 변화할 수 있으며, 언어 문제 역시 집중팔구는 다른 사회 문제의 도화선 및 배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광둥어 지지” 사건은 결코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니라 언어 충돌 배후의 문화 충돌이고 사회 모순의 배출이다. 이 사건은 현지 문화의 외래문화에 대한 저항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고, 실제로 문화일원화와 문화다원화의 충돌이 한 나라 안의 다른 지역에서 나타난 것이다.

5.2. 다양성: 소수 민족 언어 문자의 보호와 발전

경제의 글로벌화 과정이 계속 속도를 더하고 중국의 개혁 발전 과정이 더욱 빨라짐에 따라 소수 민족 언어 문자 업무가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소수 민족의 언어 문자 응용 영역이 확장되고 있지만 새로운 문제도 출현하게 되었다. 정보 기술, 인터넷 등 현대 통신 기술의 발전은 소수 민족 언어 문자를 사용하는 데 기회와 도전 모두를 가져다주었다. 이에 시급히 강화하여야 하는 것은 “이중 언어” 교육이다.

5.2.1. 새로운 정책

국가민족사무위원회는 2010년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소수 민족 언어 문자 관리 업무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하였다. 『의견』은 모두 21조이고 내용은 소수 민족 언어 문자 관리 업무의 중요 의의, 지도 사상, 기본 원칙, 주요 임무, 정책 실시, 보장 체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의견』은 앞으로의 주요 임무를 “국가의 소수 민족 언어 문자에 대한 방침과 정책 관철, 소수 민족 언어 문자의 법제화 추진, 소수 민족 언어 문자의 규범화, 표준화, 정보 처리 업무 처리, 소수 민족 언어 문자의 번역, 출판, 교육, 뉴스,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영화, 고적 정리 사업 촉진, 소수 민족 언어 문자의 학술 연구, 협력 교류 및 인재 양성 촉진, 각 민족 상호 간 언어 문자 학습 독려”(제7조) 등이다. 『의견』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소수 민족 언어 문자가 관련 영역에서 응용되는 것을 법으로 보장”(제9조)하고, “절멸 위기에 처해 있는 소수 민족 언어를 구조하고 보호하는 업무를 강화”(제15조)하며, “‘이중 언어’ 교육을 잘 실시하게 돕는 업무에 참여”(제10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1991년 국무원의 32호 문서의 뒤를 이어서 다시 중국의 민족 언어 문자 업무를 전면적으로 지도하는 중요한 문서이다. 내몽골 자치구, 신장 위구르 자치구, 티베트 자치구 등 세 곳은 민족 언어 문자의 관련 규정 및 시행 세칙을 제정(수정)하였다.

5.2.2. 소수 민족 언어의 라디오, 텔레비전, 출판 영역 사용

현재 민족 자치 지역에서 민족 언어를 사용하는 라디오, 텔레비전 기관 154곳 및 중앙과 지방 방

중국에서는 매일 21종의 민족 언어가 방송되고 있다. 민족 출판사는 1978년 17곳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38곳으로 늘어났고 베이징 시 등 14개 성(자치구, 직할시)에 분포하고 있다. 출판된 소수 민족 문자의 종류는 5종에서 26종으로 늘어났고 2008년 현재 소수 민족의 문자로 출판된 도서는 2,261종류, 6,444만 권인데, 1978년 대비 종류로는 6.41배 늘어났고, 권수로는 6.37배 늘어났다.⁴⁹⁾

5.2.3. 절멸 위기의 소수 민족 언어의 구조 및 보호

전 세계 많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서어, 거라오어, 허저어, 어룬춘어, 어원커어, 위구어, 타타르어, 투자어, 만주어와 같은 언어들에 절멸 위기에 놓여 있다. 전문가 학자와 각급 행정 조직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절멸 위기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구조하고 보호하고 있다.

- (1) 관련 전문가가 절멸 위기 소수 민족 언어를 조사, 기록, 정리하고 관련 논저로 출판
- (2) 여러 절멸 위기 언어로 기록된 문학 예술 형식을 국가 또는 지방 각급의 『무형문화유산보호 명부』에 포함
- (3)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소수 민족 어문 업무실을 신장 위구르 자치구 시보자치현과 구어저우 성 송타오 먀오족 자치현에 설치하여 현지 행정 조직과 연합하여 공동으로 소수 민족 이중 언어 환경 조성 시범구 설치
- (4) 소수 민족 언어 음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제 시행, 중국의 여러 소수 민족 언어의 음성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앞으로 더 깊은 연구 개발 및 활용 목적

5.2.4. 소수 민족 언어 문자의 규범화, 표준화 정보화

최근 중국은 이미 몽골문자, 티베트문자, 위구르문자(카자흐문자, 키르기스문자), 한글, 이족문자, 다이족문자의 코드표, 키보드, 자형의 국가 표준을 제정하였다. 국제 표준의 최신 버전에 중국에 제출한 몽골문자, 티베트문자, 위구르문자(카자흐문자, 키르기스문자), 한글, 이족문자, 다이족문자의 코드표가 포함되었다. 여러 전자 출판 시스템과 사무 자동화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으며 소수 민족 문자로 된 사이트나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일부 소프트웨어는 이미 윈도 시스템에서 구동이 가능하다.

5.2.5. 소수 민족의 이중 언어 교육

여러 민족 간에 이해와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평등, 단결, 협조, 조화의 민족 관계를 발전시키고 각 민족의 공동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여러 해 동안 중국 정부는 민족 지역의 “이중 언어”(민족 언어 및 중국어) 교육을 전개하는 것에 힘을 써 왔고,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 2007년까지

49)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央政府門戶網站, 2009年09月27日, http://www.gov.cn/zwqk/2009-09/27/content_1427930.htm.

전국에 모두 만여 개의 학교에서 21개 민족이 29종의 문자로 “이중 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 수는 600여만 명에 이른다.⁵⁰⁾

이제부터 중국의 이중 언어 교육에는 중요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2010년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국가 중장기 교육개혁 및 발전 계획 요강(2010-2020년)』을 발행하였는데 여기에는 “이중 언어 교육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중국어 어문 과정을 전면적으로 개설하고 국가적으로 통용되는 언어 문자를 전면적으로 보급한다. 소수 민족이 민족 언어와 문자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한다. 이중 언어 유아 교육을 전면적으로 강화한다. 국가는 이중 언어 교육 교사의 훈련 양성, 교육 연구, 교재 개발 및 출판을 지원한다.”⁵¹⁾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 문헌

- 『邊地青年教育及人事行政實施綱領』[1941], 載 宋恩常, 章鹹主 編, 『中華民國教育法規選編』(1912—1949), 江蘇教育出版社 1990年版.
- 戴慶廈, 賈捷華, 「對民族文字“創, 改, 選”經驗教訓的一些認識」, 『民族研究』 1993年 第6期.
- 董雲虎, 劉武萍 編, 『世界人權約法總覽』, 四川人民出版社 1991年版.
- 費錦昌, 『中國語文現代化百年記事』(1892—1995), 語文出版社 1997年版.
- 國家民委辦公廳, 政法司, 政策研究室編, 『中華人民共和國民族政策法規選編』, 中國民航出版社 1997年版.
- 國家語言文字工作委員會政策法規室編, 『國家語言文字政策法規彙編』(1949—1995), 語文出版社 1996年版.
- 『國家中長期教育改革和發展規劃綱要(2010-2020年)』, 中央政府門戶網, 2010年07月29日, http://www.gov.cn/jrzq/2010-07/29/content_1667143.htm.
- 黃光學主編, 『當代中國的民族工作』(上), 當代中國出版社 1993年版.
- 教育部, 『第一次中國教育年鑑』乙編, 開明書店 1934年版.
- 黎錦熙, 『國語運動史綱』, 商務印書館 1934年版.
- 李晉有, 「民族文化的發展與繁榮」, 載 『中國民族工作五十年』編委會, 『中國民族工作五十年』(1949-1999), 民族出版社 1999年版.
- 李榮, 「中國的語言和方言」, 『方言』 1989年 第3期.
- 李廷貴, 範榮春, 『民族問題學說史略』, 貴州民族出版社 1990年版.
- 劉導生, 『新時期的語言文字工作』, 載 『新時期的語言文字工作——全國語言文字工作會議文件彙編』(1986年1月), 語文出版社 1987年版.
- 盧贛章, 『中國第一快切音新字』原序』, 載 倪海曙 編, 『清末文字改革文集』, 文字改革出版社 1958年版.
- 馬學良, 「為實現新時期的總任務多作貢獻」, 『民族語文』 1979年 第1期.
- 毛澤東, 『論新階段』[1938], 載 中共中央統戰部 編, 『民族問題文獻彙編』(1921年7月—1949年9月),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1年版.
- 毛澤東, 『新民主主義論』[1940], 『毛澤東選集』第2卷, 人民出版社 1952年版.
- 毛澤東, 『論聯合政府』[1945], 『毛澤東選集』第3卷, 人民出版社 1991年版.
- 滿洲帝國通信社 編, 『大滿洲帝國年鑑』, 1944年康德十一年版(創刊號).
- 民生部, 「關於國民高等學校國語教授之件」, 『滿洲教育』 1937年 第3卷 11號.
- 倪海曙, 『清末漢語拼音運動編年史』, 上海人民出版社 1959年版.
- 榮孟源 主編, 『中國國民黨曆次代表大會及中央全會資料』, 光明日報出版社 1985年版.

50)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央政府門戶網站, 2009年09月27日, http://www.gov.cn/zwgk/2009-09/27/content_1427930.htm.

51) 『國家中長期教育改革和發展規劃綱要(2010-2020年)』, 中央政府門戶網, 2010年07月29日, http://www.gov.cn/jrzq/2010-07/29/content_1667143.htm.

-
- 史筠,『民族法律法規概述』,民族出版社 1988年版.
- 宋恩常,章鹹 主編,『中華民國教育法規選編』(1912—1949),江蘇教育出版社 1990年版.
- 孫曼均,「語言生活熱點聚焦」,載 周慶生,侯敏主 編,『中國語言生活狀況報告(2011)』,商務印書館 2011年.
- 陶劍琴,「延安時代的新文字運動」,載 中國人民大學語言文字研究所 編,『語言文字研究』,中國人民大學 1980年版.
- 圖道多吉,『民族教育的光輝歷程』,載『中國民族工作五十年』編委會,『中國民族工作五十年』(1949-1999),民族出版社 1999年版.
- 『推進邊疆教育方案』[1939],載 宋恩常,章鹹 主編,『中華民國教育法規選編』(1912—1949),江蘇教育出版社 1990年版:第625頁.
- 王登峰,「紀念『國家通用語言文字法』頒布10周年專欄」,載『教育部2010年第8次新聞發布會文字實錄』,中國教育網,2010年11月25日,
http://www.edu.cn/fa_bu_hui_xin_xi_906/20101125/t20101125_544409.shtml.
- 王均 主編,『當代中國的文字改革』,當代中國出版社 1995年版.
- 王野平 主編,『東北淪陷十四年教育史』,吉林教育出版社 1989年版.
- 吳玉章,『文字改革文集』,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78年版.
- 武強 主編,『東北淪陷十四年教育史料』(第一輯),吉林教育出版社 1989年版.
- 解學詩,『偽滿洲國史新編』,人民出版社 1995年版.
- 『新疆日報』社論,「加速推行維吾爾,哈薩克新文字」,『新疆日報』1973年6月15日 1版.
- 許嘉璐,「開拓語言文字工作新局面,為把社會主義現代化建設事業全面推向21世紀服務——在全國語言文字工作會議上的報告」,
『語文建設』1998年 第2期.
- 中共中央統戰部,『民族問題文獻彙編』(1921年7月—1949年9月),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1年版.
- 中華人民共和國民族事務委員會文教司,「為正確貫徹執行黨的民族語文工作方針而奮鬥」,『民族研究』1958年 第3期.
-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中央政府門戶網站,2009年09月27日,
http://www.gov.cn/zwgk/2009-09/27/content_1427930.htm.
- 周恩來,「當前文字改革的任務」[1958],『周恩來選集』(下卷),人民出版社 1985年版.
- 周慶生,『語言與人類:中華民族社會語言透視』,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00年版.
- 周有光,「中國的漢字改革和漢字教學」[1986],載 周有光,『新語文的建設』,語文出版社 1992年版.

표 2. 민족 자치 지방 언어 문자 업무 조례 (1987-2010년)

자치 지방 조례 명칭		통과 연도	시행 연도	수정 연도
자치구	티베트 자치구 티베트 어문 학습, 사용 및 발전 규정	1987년	2002년	
	신장위구르 자치구 언어 문자 업무 조례	1993년	2002년	
	내몽골 자치구 언어 문자 업무 조례	2004년	2005년	
자치주/시	옌벤 조선족 자치주 조선어 언어 문자 업무 조례	1988년	2004년	
	하이난 티베트족 자치주 티베트 어문 업무 조례	1989년	1990년	2005년
	하이시 몽골족 티베트족 자치주 몽골족 티베트족 어문 업무 조례	1990년	1991년	2008년
	량산 이족 자치주 이족 언어 문자 업무 조례	1992년	1992년	2009년
	귀뤄 티베트족 자치주 티베트어 어문 업무 조례	1993년	1993년	2009년
	황난 티베트족 자치주 티베트어 어문 업무 조례	1993년	1994년	
	하이베이 티베트족 자치주 티베트어 어문 업무 조례	1994년	1995년	2004년
	위수 티베트족 자치주 티베트어 어문 업무 조례	1994년	1995년	2009년
	간난 티베트족 자치주 티베트어 언어 문자 업무 조례	1995년	1996년	
	간쯔 티베트족 자치주 티베트어 어문 사용 조례	1997년	1998년	
	바인귀령 몽골 자치주 언어 문자 관리 조례	2005년	2005년	
	후허하오터시 사회 시장 몽골어 중국어 2문자 겸용 관리 방법	2001년	2001년	승인
	바오터우시 사회 시장 몽골어 중국어 2문자 겸용 관리 조례	2001년	2002년	승인
자치현	푸신 몽골족 자치현 몽골 어문 업무 조례	1989년	1989년	
	두얼보터 몽골족 자치현 몽골 언어 업무 조례	1991년	1991년	2010년
	마벤 이족 자치현 이족 언어 문자 조례	1994년	1994년	
	어벤 이족 자치현 이족 언어 문자 조례	1995년	1995년	
	쑤베이 몽골족 자치현 몽골 언어 문자 업무 조례	1996년	1996년	
	첸귀얼릭쓰 몽골족 자치현 몽골 언어 문자 업무 조례	1996년	1996년	
	카라친짚이 몽골족 자치현 몽골 어문 업무 조례	1998년	1998년	
	텐주 티베트족 자치현 티베트 언어 문자 업무 조례	1999년	1999년	
	아커싸이 카자흐족 자치현 카자흐 언어 문자 업무 조례	2000년	2000년	

Subjectivity and Diversity: Development of Language Policy in China

Zhou Qingsheng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1. Introduction

China's Constitution provides: "Each nation has freedom to use and develop their own spoken and written language." (NPC, 1954), "The state promotes the nationwide use of *Putonghua*." (standard Mandarin) (NPC, 1982). These two provisions into the Constitution are often regarded as the general principles of language policy (Zhou Qingsheng, 2000: 242-3). Not only the general principles embody the ideology of linguistic and ethnic equality, and can be summarized as the principle of diversity; but also those reflect the spirit of the social and linguistic unity, and can be summed up as the principle of subjectivity. The main objectives and mainstream of language policy development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1949) are those of handling the problems of learning and use in minority languages, Chinese dialects and traditional Chinese as well as foreign languages, in the premise of playing a leading role of *Putonghua*. In other words, language policy in China is designed to deal with this relationship of unity in diversity and diversity in unity.

This paper plans to describe the development of language policy in China more than 60 years, which is divided into four periods, namely the first period is the state construc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language policy of "subjectivity and diversity"; and the second, the impacts of "left" ideological line on the language policy of "subjectivity and diversity"; and the third, the modern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language policy of “subjectivity and diversity”; and the fourth, the initial establishment of market economy and the promulg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Language Law.

1.1. Subjectivity and Diversity in the Language Use

According to the 2010 sixth national census data (NBS, 2011), the total population of 1,370,536,875, including the Han population of 1,225,932,641 accounting for 91.51%; the population of ethnic minorities 113,792,211, accounting for 8.49%.

The unity of the Chinese language use, mainly refers to the native Chinese population has more than 95% of the total population. In the top ten of Chinese dialects (see Table 1), the Mandarin dialect (also known as the northern dialect) has the distribution of the most wide, from Nanjing of Jiangsu Province to Urumqi of Xinjiang; and from Kunming of Yunnan to Harbin of Heilongjiang, thousands of kilometers away, and speakers talk to each other without much difficulty. Chinese Mandarin speakers accounted for 67.75% of the total Chinese-speaking population, accounting for 64.51% of the total population (Li Rong, 1989:161). *Putonghua* is the national and common language in the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life , a working language of the United Nations. *Putonghua* and/or Mandarin is also the main language for communication of different ethnic groups from different parts of the country. Standard Chinese characters used throughout the country. The data of Table 1 are based on Li Rong, 1989.

Table 1 the Number of Chinese Language Use

(Unit: Million)

Speakers of Chinese dialects	Number	Percentage	Speakers of Chinese Minority Languages			Number	Percentage
			Family	Group	Language		
Mandarin	66224	67,75	Altaic	Mongolic	6	339	7,34
Jin	4570	4,68		Turkic	8	703	15,21
Wu	6992	7,15		Manchu-Tungus	5	5	0,10
Hui	312	0,32	Sino-Tibetan	Zhuang - Dong	14	1600	34,63
Gan	3127	3,20		Miao -Yao	4	499	10,80
Xiang	3085	3,16		Tibeto-Burman	23	1230	26,62
Min	5507	5,63	Austro-Asiatic		3	37	0,80
Cantonese	4021	4,11	Austronesian		12	27	0,59
Ping(平话)	200	0,20	Indo-European		2	3	0,06
Hakka	3500	3,59					
Other non-partitioned	206	0,21	Uncertain		3	178	3,85
Total	97744	100,00			80	4621	100,00

The diversity of the Chinese language uses is mainly refers to those of 1) the big difference of Chinese dialects of the southeast provinces, no talking to each other; and 2) about 60 million ethnic minorities using their native language, accounted for 60% of the total population, and about 30 million people using their native writing systems (IO, 2009). In the 55 ethnic minorities, except the Hui and Manchu using the Chinese language, the other 53 people to use more than 80 languages, most of which belong to five different language families, 22 of which uses 28 minority writing systems. Multi-ethnicity, multi-language and multi-writing system are a major feature of the language situation in China.

1.2. Unified Multi-Ethnic Country with a Unified Multilingual Policy

Account for Constitute about 10 percent of the total membership.

1.2.1. Unified Multi-Ethnic Country comprise 70 percent

China is a unified multi-ethnic country.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Qin Dynasty two thousand years among the unified time have comprised about six-sevenths, and the split time about one-sevenths. Reunification is the main theme in Chinese history. Both the unified long-term process and the economic and cultural exchanges make the 56 ethnic groups closer together, forming the situation of that you have me, and I have you. The interdependence and cooperation are only suitable for all ethnic groups, and the separation from each other between ethnic groups is not suitable. The Han Chinese and ethnic minorities create and develop China's territory, Chinese history and Chinese civilization together.

1.2.2. Regional Ethnic Autonomy System: Ensuring the Autonomy of Ethnic Minorities and Upholding the Unification of the State

The regional ethnic autonomy system is an important and political system of China, and also an important foundation to make language policy for ethnic minorities of China. At present, China has five autonomous regions, 30 autonomous prefectures and 120 autonomous counties (banners). The 44 ethnic minorities among 55 ethnic minorities have implemented regional autonomy, and the autonomy areas constitute sixty four percent of the total land area, while ethnic population in the ethnic autonomy areas accounts for seventy eight percent of total ethnic minority population.

Chinese ethnic regional autonomy is the autonomy under the unified leadership of the country, and the local governments in the autonomous areas, under the leadership of the Central Government, are an integral part of the Republic. The system successfully finds an appropriate balance between the key points of "unification" and "autonomy". That will not only take into account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small and ethnic communities distributing into the large mixed one, but also to preserve and consolidate the political landscape of diversity and unity of the Chinese nation, as well as to realize

the perfect combination of autonomous and national unity.

1.2.3. Language Policy of Combining Subjectivity with Diversity

Chinese *Putonghua* is not only the common language between the different dialects of the Han people, but also the lingual franc or the communicative language between the various ethnicities. The purpose of the *Putonghua* promotion in the areas of Chinese dialects is not to destroy dialects, but to eliminate the gap between different dialect areas. While the purpose to promote *Putonghua* in ethnic minority areas is not to hinder minorities to use their own language, and not to use replace the minority language with *Putonghua* or Mandarin, but to make ethnic minorities master a common interethnic communication tool so that they can gain more space for development.

The principle not only ensures the freedom of the ethnic minorities to utilize and develop their own languages, but also facilitates the popularity of the common language.

2. State Construc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Language Policy of “Subjectivity and Diversity”

The relationship between a writing system and the society and politics is very close. In modern times, a major reform of the writing system is always accompanied by a major change of the social system in many countries. For example, after the Meiji Restoration in Japan, the Japanese written language changed from a pure Kanji (Chinese Characters of Japan) into Kanji with Kana. After the October Revolution in the Soviet Union a lot of writing systems were changed into Latin, including a new writing system of the Latin created for ethnic minorities. After the success of its bourgeois revolution in Turkey, the original writing system of Arabic is changed into a new writing system of Latin alphabet.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the national writing system was the Vietnam of Latin alphabet, and the traditional Chinese Characters and "Nan" (喃字) used for long-term were completely abolished. North Korea after independence, also completely abolished the Chinese Characters used in the traditional society for a long-term, and use Hangul, the Korean writing system today.

Chinese society is no exception, as early as before the establishment of new China, Mao Zedong has presented a vision of the language policy after new China raised, namely:

The writing system must be reformed under certain conditions, and speech must be close to the public, who is the revolutionist and infinite source (Mao Zedong, 1952 [1940]: 680).

In terms of the ethnic cultures, religions and customs, not only ethnic minorities should not be forced to learn the Chinese language, but also they should be sponsored to develop the culture and education of their own ethnic languages

(Mao Zedong, 1991 [1938]: 595).

According to the thought of Mao Zedong, the founder of the Republic, both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CPC) and the State Council after the founding of New China timely made the policies of language reform and the language development of ethnic minorities. The policy of language reform was to resolve serious differences between Chinese dialects, and the problem of that the common language and cultural education were not universal popularity. That problem in fact is the subjectivity or unity of the Chinese language. Development of minority languages was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ies of ethnic and linguistic equality in order to help ethnic minorities to improve the level of language and culture. That in fact is the diversity development of minority languages. The Chinese government did not limit the diversity development of minority languages, to solve the problem of the unity of the Chinese language, nor hinder the subjectivity or unity of the Chinese language, to develop the minority and linguistic diversity. In term of the combination of language subjectivity and language diversity, China provides a unique theory and practice.

2.1. Subjectivity: the Construction of Culture and Education and Language Reform

The republic in the early days of New China, faced with the arduous task of political and economic unity, urgently need universal education, the rapid development of economic, industrial and agricultural production, science and technology, so as to change the extremely backward situation, and to achieve the national industrialization. At that time, the common Chinese language was not universal, and eighty percent of the population was illiterate. Since Chinese characters were difficult to learn, to write, and to identify, limiting the spread of education and culture, the State Council formulated the policy of reform of the writing system (PRO, 1996:7-9), and set up a working institution. The language reform became an important part of cultural revolution and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China.

2.1.1. Working Institution

Chinese Language Reform Committee (CLRC), directly under the State Council, was set up in December 1954. Its main duty was the implementation of language reform policies across the country, including the simplification of Chinese characters, the promotion of *Putonghua*, and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Pinyin* (Chinese Phonetic Alphabet). The name of CLRC was changed into the State Language Work Committee (SLWC)

on December 16, 1985. The State Council set up a Central Committee of the Promotion of *Putonghua* in January 1956, and its working bodies were in CLRC. Only a few provinces and cities nationwide

established the local institutions of language reform or the promotion of *Putonghua*.

2.1.2. Working Principles and Tasks

2.1.2.1. *Principles of Chinese language reform*

Chinese characters must be reformed, and the direction of the reform of Chinese characters is a phonetic writing system which is used in many countries in the world. In the realization of romanization, they must simplify Chinese characters, in order to facilitate the application of the present, making active preparations for romanization. (Wu Yuzhang, 1978:129). The objective of language reform, in other words, is romanization, and the first step of language reform is to simplify the Chinese characters, and the second is the promotion of *Putonghua* and the formulation of *Pinyin*.

According to this approach, Premier Zhou Enlai in 1958, summarized the language reform into three of specific tasks: "the simplified Chinese characters, the promotion of *Putonghua*, and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Pinyin* " (Zhou Enlai, 1984 [1958]: 280).

2.1.2.2. *Simplification of Chinese Characters*

In the traditional and feudal society, the Traditional Chinese characters are often looked as the standardized form , while simplified characters were treated as the vulgar form. So as to reduce the strokes of Chinese characters and words, the State Department approved on January 28, 1956 the Scheme of the Simplified Chinese Characters drafted by CLRC. By an individual adjustment in 1986, the total number of statutory and simplified Chinese characters count of 2235. Now simplified characters are not only used across the country, but also used for the Chinese version of United Nations documents. as well as used as standard characters in the Chinese society of Singapore, Malaysia and Thailand.

2.1.2.3. *The Promotion of Putonghua*

The Instructions of the State Council on the Promotion of *Putonghua* on February 6, 1956, gives a comprehensive definition of *Putonghua* or standard Mandarin: "the sounds of Beijing are the standard pronunciation, words are the basis of the northern dialect the north, then the basis of dialect, and grammar norm is a model of the modern vernacular writings" (PRO, 1996:12). Wei Que, vice Minister of Education, in the National *Putonghua* Promotion Conference in June 1957, made the principles of promotion of *Putonghua* , namely "strongly encouraged, the emphasis on promoting, and gradually spread" (Wang Jun, 1995:279).

National *Putonghua* seminars and refresher courses were held for nine times from 1956 to 1960, training of 1666 backbone. There were National census of more than 1,800 Chinese dialect points, preparation of 320 kinds of booklets for dialect speaks learning *Putonghua* in 1957 and 1958.

2.1.2.4.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Pinyin*

Pinyin is a Chinese and statutory scheme, not a writing system to replace the Chinese characters. According to Chairman Mao Zedong and Premier Zhou Enlai's instructions on the use of Latin i, the CLRC developed a Latin form of Chinese Phonetic Alphabet (*Pinyin*) in 1955 and 1957, approved and announced by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n February 11, 1958. *Pinyin* was an international standard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n 1982, used for spelling of Chinese characters. *Pinyin* is mainly used for phonetic literacy, indexing, the spelling of personal names and place names, the development of product code, the design of the hand-flags lighting communication, the development of the deaf and Chinese finger alphabet, the drafting of alphabet paper, the creation and/or reform of writing systems for ethnic minorities in China.

2.2. Diversity: The Construction of Regional Ethnic Autonomy System and the Use and Development of Minority Language Policy

Since China adopted the system of regional ethnic autonomy, as mentioned above, the Article 3 of Constitution (1954) provides: "Each nation has freedom to use and develop their own spoken and written language" (Dong Yunhu and Liu Wuping, 1991:820). Ethnic minority languages are usually used as the tools of communication and thinking in the ethnolinguistic communities. This provision of the Constitution is an important symbol to protect the rights of minority self-government, upholding the principle of language equality of the ethnic minorities, to achieve ethnic equality.

If the text is not suitable for the exercise of the powers of another nation, which national authorities should also use the text.

2.2.1. The Use of Minority languages

There were many laws and regulations for specific provisions of the use of minority languages in the early days of New China. The Article 15 of the Implementation Outline for the Regional Ethnic Autonom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52) provides: "The autonomous organs in the each of ethnic autonomous regions should use a regional common language as the main tool for the exercise of authority. If the writing system is not suitable for the exercise of powers of other ethnic group, it shall also apply the writing system of the ethnic group "(ODPP, 1997:2-3). Article 16 provides: "The autonomous authority may adopt the language of the people themselves to develop the ethnic culture and education." In the area of political life, from 1954 The First National People's Congress has turned the simultaneous translation of ethnic minority languages. In addition, one or more of the minority languages is different degrees used for the courts, procuratorates, ethnic education, journalism, publishing, radio, television in the autonomous areas.

2.2.2. The Development of Minority Languages

In the 1950s, China organized specialists to make investigations of the spoken and written languages of ethnic minorities, and established special organizations involved in work connected with the spoken and written languages of ethnic minorities as well as institutions to research these languages, to train specialists in these languages, help minority people create, improve or reform their written languages, and promote the use of spoken and written languages of ethnic minorities in every field.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early days of New China believed that the creation of a writing system for ethnic minority would have great significance for both socialist economic construction and the cultural construction. That would be conducive to the spread of ethnic education, to effective learning of new science and technology.

2.2.2.1. *The Creation of Writing Systems*

The Item 5 of the Several Decisions of Administration Council on national Affairs on February 5, 1951 stated: "to help the ethnic group without writing system create writing system, and to help the ethnic group without a complete writing system develop its ethnic language" (Shi Jun, 1988:247). For the accomplishment of this task, the relevant departments organized specialists to make investigations of 43 ethnic languages, such as Zhuang, Buyi, Shui, Miao, Yao, Yi, Dai, Lisu, Jingpo, Hani, Wa, Mongolian, Uigur, Dong, Li, Maonan, Mulam, Tibetan, Qiang, Lahu, Naxi, Bai, Achang, Tujia, Daur, Dongxiang, Bonan, Kazakh, Kirghiz, Tatar, Uzbek, Sala, Yugur, Xibe, Hezhen, Ewenki, Oroqen, Jing, Tajik, She, and Korean.

Based on the language survey, a number of institutions of the ethnic language work and research were established. The Government,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voluntary and self-selection, created 14 kinds of writing systems in Latin alphabet, for the 10 ethnic groups of Zhuang, Bouyei, Yi, Miao, Hani, Lisu, Naxi, Dong, Wa and Li in the South China.

2.2.2.2. *The Reform and Improvement and Selection of Writing Systems*

The ethnic groups of Dai, Lahu and Jingpo in Yunnan province designed the Scheme of Language Improvement separately, and the Uigur and Kazak in Xinjiang designed the Scheme of Language Reform separately.

In the new created writing systems, Li did not adhere to the Li writing, but direct use of Chinese language. The Hani has created two writing systems, one of them, the Haya Hani writing system, is still using, and another abandoned. Because of the newly created Yi writing is not welcome, it was replaced by the old standard Yi script.

In the improvement and reform of writing systems, the Jingpo, Lahu and the Dehong Dai writing systems remained essentially their original structure, they were accepted by ethnic groups, and there were

better results of implementation. In terms of the new writing systems of Xishuangbanna Dai, Latin Uigur and Latin Kazakh, being made a large changes, after a period of use, the government of the Xinjiang Uigur Autonomous Region decided to resume using the old Uigur writing system and the old Kazakh writing system in Xinjiang in 1982, and the government of the Xishuangbann Dai Autonomous Prefecture, Yunnan province reinstated the old Xishuangbanna Dai script in 1986.

3. Impacts of "Left" Ideological Line on the Language Policy of "Subjectivity and Diversity"

3.1. Influence of "Leftist" Ideological Line on the Minority Language Policy

During the Great Leap Forward in 1958 , the "left" ideological line of the Communist Party prevail, saying that "China's socialist ethnic relations, is rapidly formation and development. Commonality between the various ethnic groups becomes more and more, differentiated less and less, and the factor of national amalgamation is gradually growing, " (Huang Guangxue, 1993:131).A rectification and opposition nationalist struggle started in ethnic minority areas , many workers in the ethnic language were implicated.

The Second Scientific Symposium on Minority Languages held in March and April 1958,criticized not only the divorcing from politics, reality and the masses in the language work, but also criticized the tendencies of "differences", differentiation and purification" in the ethnic language researches (DCE, 1958:3). A nation with two languages is not conducive to the unity of the nation.

In such a "leftist" guiding ideology, the braking phenomenon in the ethnic language planning occurred. Both the Zaiwa writing system used by the Jingpo and the Bika writing system used by the Hani were canceled, because a ethnic group with two writing systems is not conducive to the ethnic unity. After 1959, the trial promotion of the newly created writing systems in Yunnan have to stop using. The Guizhou Ethnic Publishing House was revoked in 1960. In addition, many schools for ethnic minorities in provinces and regions have begun to withdraw or merge, and it is of the decentralization of ethnic teachers , and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ethnic language courses.

3.2. Cultural Revolution and the Suspension of Language Policy of "Subjectivity and Diversity"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Lin Biao and "Gang of Four" implemented the cultural despotism, they vilified the theory of ethnic regional autonomy as engaging in "separatist", and vilified the minority language as "useless", and "restoration retrogression" things.

During ten years of chaos, the CLRC was forced to stop working, and most of local institutions of the promotion of *Putonghua* were revoked, and the teaching of *Putonghua* in schools were considered "intellectual first," which was also criticized, and the language use in society was serious confusion and the pollution of the black, lies, cliches, and bad language.

Similarly, the institutions of minority language were forced to withdraw, and the publishing and broadcasting of ethnic languages were forced to close down, as well as the work of ethnic literacy was also forced to suspend. In addition to a small part of ethnic schools in Xinjiang, Inner Mongolia, and Yanbian, almost all the ethnic language courses of the most schools in other provinces (regions) were abolished (Zhou Qingsheng, 2000:340).

3.3. A Tortuous Development of Language Policy of “Subjectivity and Diversity” in the Post-Cultural Revolution

Under the attention of Premier Zhou Enlai in 1972, the Chinese language reform and the minority language work had been restored, mainly the following aspects:

3.3.1. The Development of the Scheme of Simplified Chinese Characters (Draft)

CLRC in May 1975 proposed the Second Scheme of Simplified Chinese Characters (draft), after approval by the State Council, published in December. However the State Council approved the repeal of the draft on June 1, 1986, as for subject to many aspects of the criticism, after release of the draft.

Zhou Youguang (1992 [1986]: 219) gives an analysis of two main reasons for the failure of the draft. First, many words of the draft come from the public. After extensive use of new words, people feel completely difference between new words and old words. It is difficult for people to accept new words. Second is changes in mass psychology, when the First Scheme of Simplified Chinese Characters published in the 1950s, people's revolutionary sentiment, they wanted change; and the draft was issued after the Cultural Revolution, when people wanted stable, did not want Chinese characters continue to simplify and reform.

3.3.2. Deletion of the Languag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As mentioned earlier, the Article 3 of the Constitution in 1954 provides : "Each nation has freedom to use and develop their own spoken and written language.", however the provision of the Constitution in 1954 was changed into the Article 4 of the Constitution in 1975, namely "Each nation has freedom to use their own spoken and written language." (Dong Yunhu and Liu Wuping, 1991:826). "The word of "development" of the Constitution in 1954 was deleted in the Constitution in 1975. This means that,

in the latter of the Cultural Revolution, minority languages can be used, but no longer to be developed, which wa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the linguistic and ethnic equality that the Chinese government adheres to long-term.

3.3.3. Formation of the Ethnic Language Translation Bureau

During the latter part of the Cultural Revolution, the work of Chinese version of the writings by Marx, Lenin, and Mao Zedong translated into minority version was taken seriously. The Central Bureau of Ethnic Language Translation for Works of Marx and Lenin established in 1974, approved by Premier Zhou Enlai. On the basis of the Bureau, a Chinese Ethnic Language Translation Center (CELTC) was set up in 1978. The main task of CELTC is of translation and publication of the works of Marxism-Leninism, the monographs of the party leaders and national items, the important documents of party and state, the state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files of the National Congress of Communist Party of China,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and the 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 (CPPCC). Also the CELTC services for the major political conferences of the state to provide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n seven ethnic languages of Mongolian, Tibetan, Uigur, Kazak, Korean, Yi and Zhuang.

3.3.4. A Full Use of the New Writing Systems of Uigur and Kazak in Xinjiang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the minority language reform stopped in most regions, but the language reform of Uigur and Kazak in Xinjiang is still ongoing. The working conference on the new writing systems of Uigur and Kazak was held, in Urumqi in June 1973, by the Revolutionary Committee of Xinjiang Uigur Autonomous Region, making the decision to promote the new writing systems of Uigur and Kazak in the shortest time (XD, 1973). In August 1976, the Revolutionary Committee of Xinjiang Uigur Autonomous Region decided to fully use the new Uigur and Kazak writings, stop using the old writings of Uigur and Kazak. The Seventeenth Meeting of Standing Committee of Fifth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Xinjiang Uigur Autonomous Region adopted the Resolution of Full Use of Old Writing Systems of Uigur and Kazak in September 1982, since then, these two new writing systems are to be retained as a phonetic symbol.

4. Modern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Language Policy of “Subjectivity and Diversity”

After the Third Plenary Session of the Eleventh Central Committe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December 1978), the focus of party work have been shifted from class struggle to developing the productive forces and modernizing the country. Because the economic production, social and cultural

education and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s developing rapidly, they urgently called for strengthening the language standardization. In order to meet the need of the changing situation of social development, the state adjusted the national language policy, and provided language work principles and main tasks in a new era (after 1986) (Liu Daosheng, 1987).

4.1. Adjustment of Language Policy

The primary task of state language work is no longer language reform, but "the active promotion and popularization of *Putonghua*" (Xu Jialu, 1998:4). In order to adapt to the reform and opening up and building a socialist market economy,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the state to promote *Putonghua* and to achieve standardization of Chinese characters. The existing *Pinyin* is a phonetic tool learning Chinese characters and *Putonghua*, not a phonetic writing system instead of Chinese characters. Chinese characters as the national and statutory writing will continue to play its role in long-term.

4.2. Subjectivity: National Promotion of *Putonghua* and Standard Chinese Characters

4.2.1. Principles for Language Work in the New Era

Principles for Language Work in the New Era are that of implementation of national policy and laws on language work, to promote language normalization and standardization, continue to promote language reform, so that language play a better role in the socialist modernization drive (Liu Daosheng, 1987:23).

4.2.1.1. National Promotion of *Putonghua*

The principle of promoting *Putonghua* determined in the 1950s is that of "strong proponent, the emphasis on promoting, and gradual popularization" (Wang Jun, 1995:279). As the situation develops, the principle in the 1990s was adjusted to that of "vigorously promoting, and actively spread, gradually increase" (PRO, 1996:320).

The working principle in the 1950s compared with the 1990s, major changes were as follows: 1) The promotion of *Putonghua* in the 1950s was mainly in the southern dialect areas, but in the 1990s, it would be in the northern. 2) The work focus in the 1950s was to grasp the school promotion of *Putonghua*, while in the 1990s, not only to catch the school's promotion of *Putonghua*, but also to grasp the social promotion in order to make *Putonghua* as the instruction language, working language, promotional language, service language, and communicative language. 3) The work in the 1950s focused on language specification, while in the 1990s, both grasp the language specification, but also grasp the normative vocabulary.

4.2.1.2. *Grading Standards for Putonghua*

Putonghua in real life can be divided into three levels. The first level is a fairly standard *Putonghua* with few errors of sound, vocabulary, and grammar. The second is more standard *Putonghua* with some dialect accent and some of pronunciation, vocabulary and grammar mistakes. The third is *Putonghua* which persons from different dialect can understand.

4.2.1.3. *National Implementation of Standard Chinese Characters*

Standard Chinese Characters mainly refer to that the simplified characters included in both the Total Table of Simplified Chinese Characters, re-released in 1986, by the SLWC; but also the Table of the Common Words in Modern Chinese issued in 1988, by the SLWC and the Press and Publication Administration. Since 1992, the SLWC issued a notice in 1992 to require that standard Chinese characters should be used in government agencies, schools, mass media, public places, information process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products.

4.2.1.4. *On the Issue of Simplified Chinese characters*

The simplification of Chinese characters should be extremely careful, and keep a relative stability of Chinese glyph in a period of time. As mentioned above, As for the Second Scheme of Simplified Chinese Characters (draft) aroused a strong reaction, the State Council expressly denounced the draft in 1986.

4.2.2. Language Institution

State Language Work Committee, formerly known as Chinese Language Reform Committee (CLRC), was changed into the present name in December 1985. Its main functions are those of the development of principles and policies on the State Language; the preparation of language work and long-term planning; the development of norms and standards for Chinese and minority languages and the organizing and coordinating supervision and inspection; to guide the promotion of *Putonghua*; and to promote the language normalization and standardization. The State Language Work Committee (vice-ministerial level) was incorporated into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1998, external still maintains that "the State Language Work Committee" sign. Current director of SLWC is the Deputy Minister of Education Li Weihong concurrently .

4.3. Diversity: The Use and Development of Minority Languages

After the Third Plenary Session of the Eleventh Central Committe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December 1978), the policy of use and development of minority languages was gradually restored and implemented. There is a very famous document of 32, also called No.32 document, namely a Report

of Further Improvement of the Management of Minority Languages, reported by the State Ethnic Affairs Commission in April 1991, and approved by the State Council in June 1991 (ODPP, 1997:390-392). The No.32 document put forward comprehensive policies, tasks and measures of the language management for ethnic minorities in China.

4.3.1. Basic Principles and Main Task

4.3.1.1. *Basic Principles* of the language management for ethnic minorities in the new era,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32 documents, were 1) to adhere to the principle of language equality; and 2) protection of freedom for ethnic minorities to use and develop their own languages; and 3) seeking truth from facts, according to the different categories to make a different kind of guidance, and actively and steadily carry out the work of minority languages (ODPP, 1997:391).

4.3.1.2. *Main Task* of the language management for ethnic minorities in the new era were 1) implementation of the country's minority language policy; and 2) strengthening the linguistic and legal system; and 3) improving the standardization, normarlization and information processing of minority languages; and 4)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minority languages in translation, publishing, education, journalism, broadcasting, film and television, and publishing of ancient books; 5) encouraging ethnic groups each other to learn the language (ODPP, 1997:391).

4.3.2. The Use and Development of Minority Languages

Compared with the 1950s, minority languages since the 1980s has significantly expanded the field of use.

4.3.2.1. *Areas of Political Life*

The seven minority languages of Mongolian, Tibetan, Uigur, Kazak, Korean, Yi and Zhuang are available to serve for the document translation and simultaneous interpretation of major political conferences, such as the National Congress of Communist Party of China, and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as well as the 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 Translation is provided by courts and procuratorates for participants in the proceedings who are not familiar with the local common language. Many minority languages are used in duties of self-government authorities, and used for the documents and seals of autonomous organs, and in the seal, plaque, trademarks, advertising and ticket of people's organizations and factories, schools in autonomous areas. There is a more than 10,000 schools nationwide, located in 13 provinces, involving 21 nations, the implementation of teaching in minority languages, or

bilingual education.

4.3.2.2. *Field of Education*

By the end of twenty century, there was a more than 10,000 schools, located in 13 provinces and/or autonomous regions, involving 21 ethnic groups, to implement teaching in minority languages, and/or bilingual education, with a total of 6 million students in the schools, using more than 60 of minority languages, and 29 kinds of ethnic writing systems. There were ten provinces and/or autonomous regions to establish an appropriate agencies of translated and published the textbooks in minority languages (Tudaoduoji, 1999: 43).

4.3.2.3. *Field of Publishing and Broadcasting*

By the end of twenty century, China has established 36 publishing houses in ethnic minority languages, with 3429 species of books published in 27 kinds of minority languages in 1997, and newspapers for 88 kinds and magazines for 184 kinds. The Central People's Broadcasting Station opened five kinds of minority languages in broadcasting. In the autonomous regions, autonomous prefectures and autonomous counties, many wired broadcasting stations of radio using minority languages have been established. (Li Jinyou, 1999:60).

4.3.2.4. *On the Standardization, Normalization and Information Processing of Minority Languages*

In 1995, the Special Sub-Committee of Minority Languages of the National Technical Committee on Terminology Standardization was established in Beijing, then the Special Sub-Committee has also set up four of Terminology Committees, namely Mongolian, Tibetan, Korean, and Minority Languages in Xinjiang. The processing system of the Minority languages of

Mongolian, Tibetan, Uigur, Kazak, Korean, Yi, Zhuang, Kirgiz and Xibein were developed in the early 1990s. Also a number of operating application systems, publishing systems and office automation systems of ethnic writing systems were developed. The web site or web page of Mongolian, Tibetan, Korean, Uigur, Yi, was initially established. Both standard Tibetan character and the standard Mongolian character were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certification.

5. Initial Establishment of Market Economy and the Promulg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Language Law

Since the Fourteenth National Congres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1992), China has been in transition from a planned economy to a market economy. Till the early 2000s, a socialist market economic system has initially been established. However social transformation is still ongoing, and urbanization

of society changes from primary level to advanced level. It has two main characteristics: first transformation is from the conflict-prone society and social instability to harmonious and stable society. The second is from a inconsistent and incomplete development of society to a people-oriented, comprehensive, coordinated development of society. With regard to language, the unified market requires a common language, while advanced urban society requires the use of more standardized, more unified and more universal language.

5.1. Subjectivity: Language Legislation

5.1.1. Legislative Background

China at the later 20th century has basically eliminated the barrier, so as to laid the foundation for the construction of a socialist market economy. The State needs to accelerate the promotion of *Putonghua* and the standardized Chinese characters, but, there were a lot of confusion existing in the Chinese social life, such as the abuse of traditional Chinese characters, created chaos simplified, making random word transliteration, the abuse of foreign languages. This confusion can not adapt to the needs of social development.

In order to effectively correct these confusion, a number of representatives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and members of the 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 made proposals and motions, which required the State to develop a language law, and put the language management into the legal system. While it was the principle of administering a country to improve the socialist legal system and build a socialist country ruled by law, that was raised by the Fifteenth National Congress of Communist Party of China (1997). In such a context, the Eighteenth Meeting of the Ninth National People's Congress passed the "National Common Language Law of the PRC" (hereinafter referred to as "Language Law") on October 31, 2000.

5.1.2. Main Principles of Language Law

Language Law is China's first national law on language in the history. The main principles of the Language Law are as follows:

(1) *Language Status.*

Language Law provides *Putonghua* and standard Chinese characters is the national common language (Article II), thus establish the legal status and scope of use of *Putonghua* and standard Chinese characters.

(2) *Language Policy*

Language Law stipulates that the state's basic policy of common language is the "national promotion of *Putonghua* and standard Chinese characters" (Article III).

(3) *Language Rights*

Language Law stipulates that every citizen has rights to learn and use the national common language (Article IV).

(4) *General Principles*

Language Law stipulates that "the use of the national common language should be conducive to safeguarding national sovereignty and national dignity, and be conducive to national unity and ethnic harmony, and be conducive to the construction of socialist material civilization and spiritual civilization." (Article V).

(5) *Language Obligations.*

Language Law provides that employees in these four areas of the party and government agencies, news media, education and public service have obligations to learn and use the national common language.

(6) *Minority Language Rights.*

Language Law reiterated the provision of the Constitution namely "all ethnic groups have freedom to use and develop their own spoken and written languages." (Article VIII).

5.1.3. Implementation of the Language Law

5.1.3.1. *Language Law and Regulations*

After the promulgation of the Language Law, local authorities across the country, combined with the local conditions, develop the implementation measures of the Language Law. So far, a total of 32 local language rules and regulations have been promulgated. Among them, the local provinces and/or autonomous regions of Xizang (Tibet), Heilongjiang and Xinjiang amended their original language regulations; and a total of 29 provinces, cities and/or autonomous regions that promulgated the new language rules or regulations are those of Beijing, Shanxi, Sichuan, Chongqing, Shandong, Hubei, Tianjin, Yunnan, Liaoning, Jilin, Shanghai, Jiangsu, Hunan, Fujian, Guangxi, Anhui, Ningxia, Zhejiang, Guizhou, Inner Mongolia, Shaanxi, Hebei, Hainan and Shantou, Taiyuan, Dalian, Xi'an, Nanchang, Guiyang (Wei Dan, 2010). The framework of language legal system has been formed.

5.1.3.2. *The Local Language Institution*

As of 2010, the Language Work Committee Office at the provinces, autonomous regions and/or municipalities level is a total of 32, with a full-time or part-time staff for 207. And the municipal Language Work Committee Offices have 482, with staff for 1022 (Wang Dengfeng, 2010).

5.1.3.3. *Test of the National Common Language*

As of the end of 2009, China had set up test stations for 1296, and trained 43,291 members of *Putonghua* Proficiency Test at national and provincial level. The persons of cumulative test were over 30 million (Message, 2010b).

5.1.3.4.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Urban Language Work*

According to the Language Law, that of "government agencies, schools, news media, and public services industry" is the key areas of language work. The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urban language work is to act as quantitative criteria to assess the degree of standardization of language use in the four areas of the city. By the end of 2009, there were 463 cities reached criteria identified by the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urban language work (Wang Dengfeng, 2010). The landscape of the language use in the city has undergone a fundamental change.

Since 1998, the 3rd week of September every year has been identified by the State Council as "National Promotion of *Putonghua* Week", which has been organized 14 sessions.

5.1.3.5. *Language Standardization, Normalization and Informationization*

In the last decade, the State released the language standards for nearly 20 items related to language teaching and research, publishing and printing, compiling dictionaries and so on. Several monitoring centers to use the language have been set up. A Report on Language Situation in China (2006-2011) has been issued and published for six consecutive years. The pilot work of sound database construction of Chinese language resources has commenced. There are more than 130 projects of applied linguistic studies, and more than 100 projects of minority language standardiz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which were set by the State Language Commission.

5.1.4. Language Conflict: "Hold Cantonese" Events in Guangzhou

Complex socio-economic and cultural environment such as transition and globalization, post-modern and diversification, break the linguistic and ecological balance of China. The contradiction between *Putonghua* and dialects exposed gradually. This conflict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in the language life and language work.

Guangzhou Municipal CPPCC engaged in a survey on the network in May and June 2010, about "the situation on Guangzhou TV broadcasting." They planed to make a proposal to increase the Guangzhou TV programs in *Putonghua* broadcasting time, so that visiting domestic and foreign guests in the period of the Asian Games in Guangzhou were available to enjoy a more convenient language services. A netizen issued on June 6 a micro-blog, called that "the Guangzhou Municipal CPPCC actually want to convert all television broadcasts in *Putonghua* ah: justice lie!" For a time, voices of "Cantonese peril" and "protect the mother tongue" sounded everywhere, triggering a debate of "Cantonese abolition" and led to "defend the Cantonese" activities.

On July 19, Su Zhijia, the deputy secretary of Guangzhou Municipal Committee of the CPC, showed to the media that Cantonese is an important part of Lingnan culture, it does not exist for the individual that of "*Putonghua* promoted and Cantonese abolished," and the municipal government has never thought about "abolition of Cantonese" or "weakening the Cantonese" (Liu Haijian, 2010). On July 25, thousands of people rallied at a subway station exit in Guangzhou and indicated "to defend the Cantonese." On July 28, the Guangzhou municipal government held a press conference to reiterate that government has never at any time, any occasion said that of "promotion of *Putonghua* and abolition of Cantonese", which was a downright false proposition (Feng Qianni and Tang Zhiqi, 2010) . On August 1, there was again the street rallies for thousands of people in Guangzhou, also a campaign rally supporting the "hold Cantonese" of Guangzhou in Hong Kong. After rallies the media said this was an unlawful assembly events (GD, 2010).

Wang Yang, the Secretary of Guangdong Provincial Committee of the CPC, said on August 4 that of "promotion of *Putonghua* and abolition of Cantonese" is non-existent, and emphatically he pointed out that "I have been learning Cantonese, who would waste the Cantonese" (Message, 2010a)? The incident came to an end.

China is still in the stage of social transition. Because of the differentiation of social class and accumulated all kinds of social problems and contradictions gradually multiple. "Hold Cantonese" events are actually a small outbreak of social conflicts, it stems from a "pseudo-proposition", and finally led to a "real events." However the events are not simply a linguistic issue, but reflecting the confrontation between local culture and non native culture, and reflecting the conflict between cultural integration and cultural diversity.

5.2 Diversity: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Minority Languages

Along with the economic globalization and China's accelerating urbanization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nternet and other modern communication technology, minority languages face some new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5.2.1. A New Policy

State Ethnic Affairs Commission in 2010 issued a "Opinions by the State Ethnic Affairs Commission on the better management for Minority Languages " (hereinafter referred to as"Opinions") (SEAC, 2010). The Opinions put forward the main task henceforth, namely:

"To implement the national policy on minority languages; and promote the legal system construction of minority languages; and improve the standardization, normalization and information processing of minority languages; and facilitate the translation, publishing, education, journalism, broadcasting, film and television, collation of ancient books of minority languages; and press ahead with minority language research, collaboration, exchange and personnel training; and encourage all ethnic groups each other to learn the languag." (Article 7).

"Protecting the use of minority languages in the relevant field according to the law" (Article 9).

"Strengthening the rescue and protection of endangered minority languages" (Article 15).

"Doing the work in bilingual teaching" (Article 10).

This is the second, after the State Council approved 32 files in 1991, but also a comprehensive and important documents guiding minority language management. Table 2 is language regulations of autonomous areas in China (1987-2010).

5.2.2. Use for Radio, Television and Publishing

Currently, there are 154 of radio and television agencies using ethnic languages in the ethnic autonomous areas, and 21 kinds of ethnic languages used for broadcast in the central and local radio stations. Ethnic Publishing House develop from 17 in 1978 to the current 38, located in Beijing and other 14 provinces (autonomous regions, and municipalities directly under the central government), 5561 kinds of books for 64440000 copies, published in ethnic minority languages (IO, 2009).

5.2.3. Rescue and Protection of Endangered Minority Languages

Like many countries in the world, China also has a number of endangered languages such as She, Gelao, Hezhen, Oroqen, Ewenki, Yugur, Tatar, Tujia, Manchu, etc.. Language experts reached a consensus with all levels of government to save endangered languages actively. 1) Language experts have surveyed, recorded, collated and published a number of endangered languages; 2) As for some of endangered languages as the carrier of literature and art forms listed in the national or local non-material cultural heritage list, these languages are being rescued, organized and protected; 3) The Ethnic Language Studio

of the State Ethnic Affairs, combined with the local government, jointly established a minority bilingual environment demonstration area, respectively, in the Qapqal Xibe Autonomous County of the Xinjiang Uigur Autonomous Region and the Songtao Miao Autonomous County of Guizhou province; 4) The project of minority language sound database has started, in order to collect and preserve China's ethnic minority language audio data, for future in-depth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utilization.

5.2.4. Standardization, Normalization and Informationization of Minority Languages

Currently, the State has developed the national standards of character coded character set, keyboard and matrix for a Mongolian, Tibetan, Uyghur (Kazakh, Kirgiz), Korean, Yi and Dai and other characters. The character coded character set of Mongolian, Tibetan, Uyghur (Kazakh, Kirgiz text), Korean, Yi and Dai and others submitted by China has been received among the latest vers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5.2.5. Bilingual Education for Ethnic Minorities

The Chinese government committed to bilingual education of minority languages and Chinese in ethnic regions over the years. As of 2007, there were 10,000 schools in 29 languages of 21 ethnic groups to carry out bilingual teaching, with more than 6 million students in the school (IO, 2009).

China's future will be significant changes in the bilingual education. According to the requirement of *the National Plan Outline of Educational Reform and Development for Medium- and-Long-Term (2010-2020)*, issued in 2010 by the Central Committee of CPC and the State Council, China will "vigorously promote bilingual education, and fully open Chinese language courses as well as promote the national common language. While ethnic minority rights to accept their native language education will be respected and safeguarded. The State will overall strengthen the preschool bilingual education, and support for the teachers training, teaching and research, materials development and publishing in bilingual teaching" (CS,2010).

Table 2 Language Regulations of Autonomous Areas (1987-2010)

Autonomous Areas	Name of Regulations	By Year	Implementation of Year	Correction Year
Autonomous Regions	Rules to Learn, Use and Develop the Tibetan Language in the Tibet Autonomous Region	1987		2002
	Language Regulations of the Xinjiang Uigur Autonomous Region	1993		2002
	Language Regulations of the Inner Mongolian Autonomous Region	2004		2005

Autonomous Areas	Name of Regulations	By Year	Implementation of Year	Correction Year
Autonomous Prefectures/ Cities	Korean Language Regulations of the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1988		2004
	Tibetan Language Regulations of the Tibetan Autonomous Prefecture of Hainan	1989	1990	2005
	Mongolian-Tibetan Language Regulations of the Mongolian-Tibetan Autonomous Prefecture of Haixi	1990	1991	2008
	Yi Language Regulations of the Yi Autonomous Prefecture of Liangshan	1992	1992	2009
	Tibetan Language Regulations of the Golog Tibetan Autonomous Prefecture	1993	1993	2009
	Tibetan Language Regulations of the Huangnan Tibetan Autonomous Prefecture	1993	1994	
	Tibetan Language Regulations of the Tibetan Autonomous Prefecture of Haibei	1994	1995	2004
	Tibetan Language Regulations of the Tibetan Autonomous Prefecture of Yushu	1994	1995	2009
	Tibetan Language Regulations of the Tibetan Autonomous Prefecture of Gannan	1995	1996	
	Tibetan language Use Regulations of the Tibetan Autonomous Prefecture of Ganzi	1997	1998	
	Language Regulations of the Mongolian Autonomous Prefecture of Bayingolin	2005	2005	
	Management Measures of the Mongolian and Chinese languages Using in Public Occasions in Hohhot	2001	approved In 2001	
	Regulations of the Mongolian and Chinese languages Using in Public Occasions of Baotou	2001	approved In 2002	
	Autonomous Counties Language Regulations of the Mongolian Autonomous County of Fuxin	1989	1989	
	Language Regulations of the Mongolian Autonomous County of Duerbote	1991	1991	2010
	Yi Language Regulations of the Yi Autonomous County of Mabian	1994	1994	
	Yi Language Regulations of the Yi Autonomous County of Ebian	1995	1995	
	Mongolian Language Regulations of the Mongolian Autonomous County of Subei	1996	1996	
	Mongolian Language Regulations of the Mongolian Autonomous County of Qian Gorlos	1996	1996	

Autonomous Areas	Name of Regulations	By Year	Implementation of Year	Correction Year
	Mongolian Language Regulations of the Harqin Lef Mongolian Autonomous County	1998	1998	
	Tibetan Language Regulations of the Tibetan Autonomous County of Tianzhu	1999	1999	
	Kazakh Language Regulations of the Kazak Autonomous County of Aksay	2000	2000	

References

- CS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nd the State Council), 2010. *National Plan Outline of Educational Reform and Development for Medium and Long Term(2010-2020)*, Central People's Government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July 29, http://www.gov.cn/jrzq/2010/07/29/content_1667143.htm.
- DCE (Division of Culture and Education of the State Ethnic Affairs Committee), 1958. The correct implementation of the party's minority language policy, *Ethnic Studies* No. 3.
- Dong Yunhu and Liu Wuping (eds), 1991. *Overview about Human Rights Act*, Chengdu: Sichuan People's Publishing House.
- Fei Jinchang, 1997. *Hundred Years of Modern Chinese Language Notes (1892-1995)*, Beijing: Language Press.
- Feng Qianni and Tang Zhiqi, 2010. *Guangzhou Municipal Government reiterated: "the promotion of Putonghua, and abolishing Cantonese" is a pseudo-proposition*, July 28, <http://www.dayoo.com>.
- GD (Guangzhou Daily) news, 2010. Guangzhou Police's Handling of the event along with unlawful assembly, *Guangzhou Daily*, August 2, A4 version.
- Huang Guangxue (ed.), 1993. *Ethnic Work of Contemporary China* (Volume 1), Beijing: Contemporary China Press.
- IO (Information Office of the State Council,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9. *China's Ethnic Policy and the Common Prosperity and Development of All Ethnic Groups*,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of PRC, September 27, http://www.gov.cn/zwgk/2009-09/27/content_1427930.htm.
- Li Jinyou, 1999. Development and prosperity of ethnic culture, In "China's Ethnic Work for Fifty Years" Editorial(ed.), *China's Ethnic Work for Fifty Years (1949-1999)*. Beijing: Ethnic Publishing House.
- Li Rong, 1989. Languages and dialects in China, *Dialect* No. 3.
- Li Tinggui and Fan Rongchun, 1990. *A Brief History of the Ethnic Issue Theory*, Guiyang: Guizhou Ethnic Publishing House.
- Li Yuming, 2010a. *On the Chinese Language Planning*, Beijing: Commercial Press.
- Li Yuming, 2010b. *Continued on the Chinese Language Planning*, Beijing: Commercial Press.
- Liu Daosheng, 1987. Language work in the new era, in *Language Work in the New Era: Compilation of the National Work Conference on Language* (January 1986), Beijing: Language Press.
- Liu Haijian, 2010. Guangzhou Municipal Party Committee Sun Zhijia interview with reporters, said "the promotion of Putonghua, and abolishing Cantonese" does not exist, *Guangzhou Daily* on July 20, the first edition.
- Mao Zedong, 1991 [1938]. On the new stage, in the United Front Work Department of CPC Central Committee (ed.), *Literature Compilation of the Ethnic Issues* (July 1921 -September 1949), Beijing: Central Party School Press.
- Mao Zedong, 1952 [1940]. On a new democracy, in *Selected Works of Mao Zedong*, Volume 2, Beijing: People's Publishing House.
- Mao Zedong, 1991 [1945]. On coalition government, in *Selected Works of Mao Zedong*, Vol 3, Beijing: People's Publishing House.

-
- Message, 2010a. Wang Yang: I learned Cantonese, who dares to waste it, Taiwan News, August 5.
- Message, 2010b. *Tenth anniversary of the promulg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Common Language Law*, Xinhua, http://news.xinhuanet.com/edu/2010-11/25/c_12815688.htm.
- NBS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2011. Bulletin of the Main Data of the Sixth national census in 2010 (No. 1), China Population Information Network (China popin), 4-29: http://www.cpdrc.org.cn/tjsj/tjsj_gb_detail.asp?id=15463.
- NPC(National People's Congress), 1954. *Constitution of the PRC*, Article 3, Beijing: People's Publishing House.
- NPC(National People's Congress), 1982. *Constitution of the PRC*, Article 4, Beijing: People's Publishing House.
- ODPP (Office, Division of Politics, and Policy Research of the State Ethnic Affairs Commission) (ed.), 1997. *Selection of Ethnic Policies and Regulations of the PRC*, Beijing: China Civil Aviation Press.
- PRO (Policies and Regulations Office of the State Language Work Committee) (ed.), 1996. *Compilation of National Language Policies and Regulations (1949-1995)*, Beijing: Language Press.
- Qu Shaobing, 2011. Thinking about the "hold Cantonese" event in Guangzhou, *Yunnan Normal niversity*, 11, No.1
- SEAC (State Ethnic Affairs Commission) , 2010. *Views of State Ethnic Affairs Commission on the good management of minority languages*, China Network, 2010-06-18, http://big5.china.com.cn/policy/txt/2010-06 / 18/content_20287930.htm.
- Shi Jun, 1988. *Overview of Ethnic Laws and Regulations*, Beijing: Ethnic Publishing House.
- Sun Manjun, 2011. Analysis of features and trend of public sentiments to current language, *Journ Yunnan Normal University*, No. 1. Commemorate "National Common Language Law," tenth anniversary of the column
- Tudaoduoji, 1999. Glorious history of ethnic education, in the "China's ethnic work for fifty years" editorial, *China's Ethnic Work for Fifty Years" (1949-1999)*, Beijing: Ethnic Publishing House.
- Wang Dengfeng, 2010. A memorial column of 10th anniversary of the promulgation of the Law of National Common Language, in the *Text record of the eighth news conference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2010*, China Education Network, November 25, http://www.du.cn/fa_bu_hui_xin_xi_906/20101125/t20101125_544409.shtml.
- Wang Jun (ed.), 1995. *Contemporary reform of the Chinese language*, Beijing: Contemporary China Press.
- Wei Dan, 2010. Local language legislation, *Chinese Language Life* (E-Magazine) No. 3. Also in the Ministry of Education portal, <http://www.moe.edu.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s4841/201011/111921.html>.
- Wu Yuzhang, 1978. *Collection of language reform* , Beijing: China Renmin University Press.
- XD (Xinjiang Daily) editorial, 1973. Fast implementation of the new writing systems of Uigur and Kazak, *Xinjiang Daily*, June 15, 1edition.
- Xu Jialu, 1998. Carrying on the new prospects of language work, and as to the cause of socialist modernization services into the 21st and serving for socialistic modernization into the 21st century better—— report at the National Conference of Language Work, *Language Building* No. 2.
- Zhou Enlai, 1984 [1958]. The present task of language reform, in Selected Works of Zhou Enlai (second volume), Beijing: People's Publishing House.
- Zhou Qingsheng, 2000. "Language and the human: the Chinese socio-linguistic perspective", Beijing: Central University for Nationalities Press.
- Zhou Qingsheng, 2003. "Unity in diversity and diversity in unity: Language policy and planning in China, in Zhou Qingsheng (ed.), *Nnationa, ethnicity and language: language policy studies of individual country*, Pp.250-275. Beijing: Language Press.
- Zhou Qingsheng (ed.), 2011. *Language Situation in China (2009)*, Beijing: Commercial Press.
- Zhou Youguang, 1992 [1986]. Reform and teaching of Chinese characters, in Zhou Youguang,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language*, Beijing: Language Press.

주제 발표

Topic Address

응우옌반히에우 NGUYEN Van Hieu



- 베트남국립대학(하노이) 교수
- 국제 베트남어 교육 협회 사무총장 겸 공동 창립자
 - 전 인하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초빙 교수
 - Professor,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
- General Secretary and Co-Founder,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eaching Vietnamese
 - Former Visiting Professor, Inha University,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통일 이후 베트남어 표준화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

응우옌반히에우
베트남국립대학(하노이)

1. 개관

베트남에서 역사가 시작된 이래, 베트남어는 베트남 전 지역에서 베트남인의 공통된 의사소통 수단이었다. 베트남이 외세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기간 동안에는 베트남어의 역할이 제한되었다. 프랑스의 지배를 받던 시기에는 프랑스어가 베트남의 공식 언어로 정부 기관과 교육 기관에서 사용되었으며, 베트남어는 베트남인 공동체내의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로 사용되었으며 문학 텍스트에서 사용되었다. 1945년 이후, 베트남은 세계 지도상에서 독립적인 하나의 국가가 되었다. 베트남어는 베트남의 공식 언어로서 그 지위를 인정받았고, 지금은 모든 분야에서 베트남인들이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1945년 이후, 베트남은 각각의 정치 제도를 가진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으로 분단되었다. 정치적 장벽은 지역간의 언어 소통을 제한하였다. 이전에 두 지역에서 진행되었던 언어 통합의 흐름은 정치적인 장벽에 의하여 단절되었다. 분단되기 이전 두 지역에서 사용되었던 베트남어의 차이는 여러 지역적인 특성들에서 야기된 것들이었다. 그러나 분단되는 과정에서 각 언어는 서로 다른 언어 정책으로 인한 독자적인 발달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발달로 인하여 많은 면에서 양측 사이에 여러 차이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1975년, 분단된 지 30년 만에 베트남은 재통일되었다. 이 시기 베트남어는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다. 1975년부터 1980년 사이의 기간 동안 문화어(cultural language)의 형태로 베트남어를 표준화하고 통일화하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행해졌다. 이 논문은 주로 재통일 이후의 두 지역의 언어들을 살펴보고 베트남 정부의 정책에 의한 두 언어의 통합 과정을 검토한다.

2. 남베트남어와 북베트남어, 단일성과 이질성

여기에서는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남베트남어와 북베트남어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이 두 지역 언어간의 차이점들은 여러 역사적인 영향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점들 중 하나는 지리적인 차이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각각의 다른 지역 공간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은 각 공동체의 언어사용 습관에 따라 변화한다. 정치, 교육, 그리고 문학적 전통과 같은 사회적 요인들도 언어에 영향을 주었다. 또 이 방언들과 가까운 다른 언어들과의 접촉 역시 방언들의 모습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남과 북의 베트남어는 비교적 단일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 방언 때문에 두 지역에서의 의사소통이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높은 일치성 때문에 H. Maspero (1912)는 베트남어를 북부 방언과 중부 방언으로 나누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남부와 북부의 언어들은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베트남어와 남베트남어 사이에 많은 차이점들이 존재한다. 나중에 여러 학자들이 남부 방언을 다른 방언들, 특히 북부 방언에 대치되는 방언으로 간주하였다. 남부 방언과 북부 방언은 발음, 어휘, 문법과 같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

2.1. 발음(Phonetics)

Nguyen Kim Than(1964), Hoang Thi Chau(1989)는 발음 면에서 두 방언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구별하였다.

	북부 방언	남부 방언
성조	6개의 성조 - 강세와 리듬이 서로 반대되는 쌍(pair)인 6개의 성조	5개의 성조 - '고(high)-상승(rising)-단절(broken)' 성조와 '저(low)-하강(falling)-상승(rising)' 성조는 동일한 성조로 통합
어두 자음 체계	20개의 음소 - 철자 s, r, tr로 쓰이는 권설음 소실	23개의 자음 - 권설음 존재, /v/ 소실, /w/ 존재. /z/가 /j/로 대체되지 않음
반모음	반모음 /w/ 존재	반모음 /w/ 소실
어말 자음 체계	철자에 있는 많은 어말 자음들이 존재	북부 방언에 있는 많은 각운(rhyme)들 소실. 어말 자음 /-nh/과 /-ch/ 소실

2.2. 어휘

남부 어휘와 북부 어휘의 차이는 모든 단어 유형들에서 나타난다. 어휘의미론적인 차이는 Nguyen Kim Than(1964)에 의하여 제시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몇몇 유형들을 들 수 있다:

- 양 방언에 동의어인 두 단어들이 모두 존재하나, 각 방언에서 한 단어는 자주 사용되지만 다른 하나는 사용이 제한되며, 때때로 각 방언에서 합성어의 두 요소 중 하나만이 사용된다.

합성어: Chậm trễ (late), khám xét (search), buồn rầu (sad), thăm viếng(visit) 등

북부 방언: Chậm (late), khám (search), buồn (sad), thăm (visit) 등

남부 방언: Trễ (late), xét (search), rầu (sad), viếng (visit) 등

- 두 단어가 발음은 같지만 다른 의미를 가진다:

북부 방언: Hòm (the box containing furniture), viếng (bring offerings to a deceased person) 등

남부 방언: Hòm (coffin), viếng (visit) 등

- 양 방언에 존재하는 공통된 단어들로 형성된 두 단어들이 유사한 대상을 지시하긴 하지만 발음은 전혀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다르다:

북부 방언: Lợn lòi (boar), dưa chuột (cucumber), nước bọt (saliva), bao diêm (matchbox), kính râm (sunglasses) 등

남부 방언: Heo rừng (boar), dưa leo (cucumber), nước miếng (saliva), hộp quẹt (matchbox), kính mát (sunglasses) 등

- 동의어:

북부 방언: Sấm (thunder), thằn lằn (lizard), thừng (rope), chớp (lightning), sư (monk) 등

남부 방언: Trời gầm (thunder), rắn mối (lizard), dây buộc (rope), trời xẹt (lightning), thầy chùa (monk) 등

- 동일한 단어가 각 지역에서 다른 의미를 가진다:

북부 사람들은 "mũ / nón," (hat/cap)을 구별한다. 남부 사람들은 둘 다 "nón" (hat)로 표현한다. 북부 사람들은 "ốm / bệnh / cảm" (illness/ disease/ flu)을 구별하지만, 남부 사람들은 모두 "bệnh"로 표현한다.

- 다른 의미를 가진 동음이의어(homophone)가 있다:

발음: Bế, té, cĩ, má

북부 방언에서의 의미: biển (sea), té (splash), chừng mực(limit), cái má (cheek)
 남부 방언에서의 의미: vỡ (broken), ngã (fall), kiêng (abstinence), mẹ (mother)

어휘의 차이는 베트남어의 내부적인 발달과 다른 언어들과의 접촉에 의하여 생겨났다. 두 방언 사이에 존재하는 완전히 다른 단어들은 다른 언어적 배경에서 유래한 단어들이다. 예를 들어 남부 방언에는 캄-크메르어(Cham and Khmer)에서 들어온 단어들이 많으며 북부 방언에는 타이-타이어(Tay and Thai)에서 차용된 단어들이 많다. 또한 북부 방언에서 사용되는 중국어계-베트남(Sino-Vietnamese 한자어) 단어들이 남부 방언에서는 사용되지 않거나, 그 반대인 경우들이 나타난다.

2.3. 문법

문법에서의 두 방언 사이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주로 대명사 체계와 단어들의 몇몇 형태에서 차이점들이 나타난다.

의미대명사 및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	
북부 방언	남부방언	북부방언	남부방언
Này (this)	này (this)	Tôi (me)	Tui (me)
thế này (this)	vậy (this)	Chúng tôi (us)	tụi tui (us)
ấy (that)	Đó (that)	Mày (you)	mày (you)
thế (ấy) (that)	vậy (that)	Chúng mày (you)	tụi mày (you)
Kia (that)	Đó (that)	Ông ấy (him)	Ông (him)

두 지역 언어간의 차이는 국가가 분단되기 이전에 형성되었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중부 방언 외에 두 개의 전형적인 방언들로 나타난다. 이 방언들은 각각의 따로 분리된 언어들이 아니라 통일된 한 언어의 지역에 따른 변이형들이다. 베트남 방언들은 높은 통일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통일성은 베트남 사람들이 실제로 언어를 사용하는 모습에서 관찰된다. 베트남 안에서 베트남어를 사용하는 모든 베트남인들은 어려움 전혀 없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점이 베트남어를 표준화하는 데 유리한 점이다.

3. 재통일 이후 두 지역의 베트남어와 관련된 문제들

20년 이상 국가가 분단되어 있었던 기간 동안, 두 방언들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정치 제도 아래서 발달하였다. 이미 존재하였던 차이에 덧붙여 이 기간 동안 더 많은 차이점들이 생겨났다. 통일

(1975년) 이후 베트남어의 표준화를 위한 여러 긴급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1976년부터 1980년까지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여러 차례의 워크숍이 열렸다. Hoang Phe, Nguyen Kim Than, Hoang Tue, Luu Van Lang 등과 같은 많은 언어학자들이 베트남어의 표준화를 위해 시간을 쏟아부었다.

베트남어의 표준화를 위한 초석으로서 제기된 첫 번째 문제는 문화어(cultural Vietnamese)의 개념을 규정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화어의 개념 규정은 베트남어표준화의 해결에 시작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Hoang Phe(1976)는 "베트남 문화어의 형성과 발달"이라는 논문에서 문화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였다. 그는 문화어의 형성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였다. 문화어의 기준은 객관적인 존재성이다. 어떤 단어, 발음, 철자가 궁극적으로 선택되고 표준으로 정해진 것은 우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객관적인 요구 사항들을 충족시켰기 때문이었다. 문화어는 문법, 어휘, 발음, 철자의 기준을 포함한 표준화된 체계를 가지며, 방언들의 여러 다른 형태들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형성되었다. 문화어는 대개 다른 방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특정한 한 방언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문화어는 많은 동의적 표현의 형태들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유형의 요구들을 충족시킨다. 베트남어의 통일은 각 지역에서 비교적 통일된 언어로 베트남어를 표준화하는 데 기반이 될 문화어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의 재통일 직후 대두된 의문은 “어떤 방언이 기준인가?”, “어떤 방언이 문화어로 간주될 수 있는가?”였으며 그 대답은 베트남 문화어의 기반으로 북부 방언(전형적인 하노이 방언)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통일된 베트남어를 형성하는 기반으로 북부 방언을 결정한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이었다.

Nguyen Kim Than(1976)은 그의 논문 “국가 문화어의 형성과 발달”에서 수도인 탕롱-하노이의 중요성을 밝혔는데, 1075년 하노이가 세워진 이래 국어의 발달에 큰 영향을 준 많은 사회적, 문화적 사건들이 이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수 세기 동안 사용되었던 통일된 베트남 문화어는 홍강 분지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언어도 기본적으로 하노이 방언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수 세기 동안 대부분의 베트남 문학 유산들은 이 지역의 언어로 쓰여졌다.

Hoang Thi Chau(1989)도 어떤 방언도 하노이 방언(북부 방언을 대표)과 필적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노이는 10세기 이래로, 수도가 후에(Hue)로 이동했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베트남의 문화적 용광로(cultural melting pot)였다. 북부 방언은 다른 방언들보다 좀 더 많은 어휘들과 풍부한 의미적 뉘앙스들을 가지고 있다. 1920년대에 일어난 새로운 시와 신소설 운동들도 주로 하노이 방언을 바탕으로 발달하였다. 남부를 배경으로 한 소설에서조차도 베트남 문화어의 단어들과 구절들이 사용되었다.

Hoang Phe(1976) 또한 19세기 이래 남부와 북부에서 발행된 신문들을 검토한 그의 논문에서, 각 방언들 사이에 차이점들이 존재하지만, 북부 방언의 어휘들과 표현들, 글쓰기 유형들이 점차 나라 전역에서 인기를 얻어 문화어의 기준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베트남 문화어는 순수하게 북부 방언에 의해서만 형성된 것이 아니라 남부 방언을 포함한 다른 방언들의 좋은 특징들을 받아들이면서 형성된다. 이는 지금 베트남에서 표준화되고 있는 베트남어의 기반이 된다. 통일된 국가를 배경으로 한 베트남어의 표준화는 국가 전체에서 통용되는 표준 문화어를 만들기 위한 남부, 북부 모두의 언어 단일화를 의미한다.

언어의 표준화는 개별적인 각각의 현상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경우들의 체계적인 연관성을 고려하는 통합적인 관점을 필요로 하며, 문제의 사회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언어 그 자체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언어의 표준화에 대해서 언급할 때, 우리는 문법의 표준화, 어휘의 표준화, 철자의 표준화 그리고 발음의 표준화를 이해해야 한다. 베트남 방언들은 문법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점들을 보여주지 않는다. 따라서 베트남어의 통일은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제를 포함한다:

- a. 철자법 표준화
- b. 어휘 표준화
- c. 발음 표준화

3.1. 철자법 표준화

무엇보다도 표준 철자법은 관습화된 습관, 또는 국가 기관에 의해 결정된 쓰기 규칙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철자 기준은 대개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국민들이 사용하는 문어(written language)의 모습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철자법의 일관화는 언어 통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기본적인 기록 문자를 지닌 베트남어에서 철자법을 통일하는 것은 거꾸로 발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발음의 표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철자법의 오류는 남부 신문들과 서적들에서 자주 관찰된다. 고-상승-단절 성조와 저-하강-상승 성조, 어말자음 n, ng, t 그리고 이중모음 iêu, iu, ôi이 그러한 혼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남부 방언에는 Chính phủ(government) 또는 chánhphủ(government), thốngnhất(reunification) 또는 thốngnhứt(reunification) 등과 같은 변이형들이 있는 반면, 북부 방언에서는 x와 s의 혼용이 매우 흔하다. 양 지역에서 모두 대문자 사용법은 통일되지 않았다.

Hoang Phe(1976)는 하노이 방언을 철자법의 기준으로 고려하는 데 기초를 제공하였다. ưu 또는 iu, ươu 또는 iêu (많은 지역에서 구분)과 tr 또는 ch, s- 또는 x-, r- 또는 d- 또는 gi- (중부와 남부 방언의 발음)의 경우를 제외하면, 베트남의 철자 문제는 “d- 또는 gi-”와 “i- 또는-y”이다.

또한 베트남어에서는 음절들이 결합할 때 하나의 단어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단어의 결합으로 봐야 하는지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하이픈 없이 음절들을 분리하여 쓰는 것이 유행이다. 사적인 명칭이나, 인명 그리고 지명은 음절 모두 대문자로 시작하며 정부 기관이나 사회적 조직의 이름은 첫음절만 대문자로 시작한다. 예: Nguyen Thi Minh Khai(인명), Hanoi(지명)

외국 고유 명사의 철자법 표준화 역시 복잡한 문제이다. 분단 기간 동안 남부에서는 프랑스어와 영어 단어들, 특히 학술 용어, 인명, 지명이 원래 형태 그대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acid, cellulose, tole; Marie Curie, Taberd 등. 때때로 한자어 발음으로 전사되어 쓰이기도 하였다: Chí Lợi (칠레), Á căn đình (아르헨티나) 등. 북부에서는 단어들이 axít; xenluylo, tôn 등과 같이 쓰여졌다(기본적으로는 통일되었지만 일반적인 규칙을 따르지 않는 개별 현상들도 있다)(Nguyen Kim Than 1976).

많은 연구자들은 로마자로 된 단어들은 그대로 유지한다. 지명과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큰 나라와 도시의 많은 이름들이 그대로 사용된다. 다른 언어로 된 단어들은 로마자 체계로 전환되어 쓰인다. 몇몇 나라들과 도시 이름들은 Bắc Kinh(Beijing), Pháp(French), Nga(Russia), Đức(Germany), Hoa Kỳ(the United States) 등과 같은 한자어 발음으로 바뀐다.

철자법 기준은 베트남어 표준화 과정에서 중요한 항목으로 간주되고 있다. 하노이 발음(북부 방언)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언들의 발음들 역시 고려된다. 특히 외국의 고유명사 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남부 철자법의 장점도 받아들여진다. 지금까지 베트남은 국가 전역에서 이러한 철자법 기준에 기본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채로 진행되고 있다.

3.2. 어휘 표준화:

남부 방언과 북부 방언의 어휘 체계에는 많은 다른 요소들이 존재한다(2.2를 보기 바란다). 분단 전에 형성되었던 차이점들은 각 방언에 독특한 특성들을 만들어냈다. 또한 각 방언의 발달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되거나 보존된 어휘들과 구절(phrase)들도 있다. 방언적 차이들은 베트남어의 표준화 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분단 기간 동안 형성된 차이점들은 표준화 계획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

우선 두 지역에서의 한자어 단어들을 사용에 있어서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 북부 사람들은 베트남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데 반하여, 남부 사람들은 한자어를 많이 사용한다. 때때로 북부 사람들이 한자어를 사용하고 남부 사람들이 베트남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많은 동일한 한자어 단어들 두 지역에서 다른 의미로 이해되기도 한다.

남부 단어들	북부 단어들
Phi trường/ airport (Sino - Vietnamese)	Sân bay / airport (Vietnamese)
Hiện diện/ present (Sino - Vietnamese)	Có mặt / present (Vietnamese)
Dưỡng ngư/ raising fish (Sino - Vietnamese)	Nuôi cá/ raising fish (Vietnamese)
Thăm/ sightseeing (Vietnamese)	Tham quan/sightseeing (Sino - Vietnamese)
Trục trặc/ incident (Vietnamese)	Sự Cố/ incident (Sino - Vietnamese)

어휘의 표준화를 위한 일반적인 경향은 북부 어휘들을 기반으로 어휘들을 통합하는 것이다. 문화어 어휘에 첨가되었던 남부 방언과 다른 지역의 방언 어휘들은 몇몇 구절 또는 표현으로 그 사용이 제한되었다. 직업과 관련된 단어들, 도구와 관련된 단어들, 과일과 관련된 단어들을 포함해서 북부 방언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들은 다른 방언들로부터 받아들여질 것이다. 즉, 베트남 문화어는 국가의 어휘를 풍부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방언들로부터 들어온 단어들로 보충될 필요가 있다. 북부 방언에 기반을 둔 문화어에서 보인 자연스러운 표준화 과정은 다른 방언들로부터의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모든 어휘적 요소들을 사용하고 이용한다.

한자어를 사용하는 것과는 별개로, 두 지역에서의 과학 용어에도 통일성이 없다. 과학 용어들은 외국어에서 차용된 단어들을 포함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들이다. 지금은 과학 용어의 표준화가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언어학자들은 “용어의 불일치 상태는 많은 사회적 활동뿐만 아니라 과학, 문화 그리고 교육 연구에도 장애물이다. 나라 전체에서의 점진적인 통일과 표준화는 시급한 과제다”라고 하였다(Luu Van Lang 1977). 국가적인 용어 통일의 중요성을 인식한 과학자들은 용어 통일에 기반이 되는 많은 기준들을 만들었다. 용어 표준화를 위한 기반으로 합의된 의견들 중 하나는 정확성, 체계성과 자연성을 포함하는 세 가지 기본 기준이다. 베트남어 용어는 사용하기 쉽도록 짧아야 하며, 또한 정확성이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베트남어 전문 용어의 구성은 과학적, 민족적, 대중적 지침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지금 전문 용어의 표준화는 진행 중으로, 일반적인 베트남어의 표준화, 특히 어휘의 표준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어휘의 표준화 측면에서 우리는 구어와 문어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구어 측면에서 각 방언들은 각각 고유한 어휘들과 구절들을 가지고 있다. 때때로 몇몇 남부 단어들이 북부 사람들에 의하여 사용되고, 반대로 몇몇 북부 단어들이 남부 사람들에 의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문어에 있어서는, 특히 공식적인 문서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체계는 베트남어 문화어에 따라서 표준화된다.

3.3. 발음 표준화:

표준화의 경향을 비교할 때, 발음의 표준화가 가장 어렵다. 사이공 발음(남부 방언)을 표준 발음으로 간주한다면, 앞선 장에서 기술되었던 내용과 많은 충돌을 일으킨다. 사이공 발음에서는 ‘고-상승-단절’ 성조와 ‘저-하강-상승’ 성조 사이에 차이가 없다(ngã와 ngã가 동일한 발음). 사이공 사람들은 자음 v와 두 자음 d/g를 구별하지 않는다. 남부 지역의 어떤 변이형에서는 un/ung, in/inh, ut/uc, it/ich 등과 같은 각운들(rhyme)이 구분되지 않는다. 하노이의 발음 체계(북부 방언)에서 어떤 화자들은 r/d, s/x, ch/tr와 같은 자음들을 구별하지 않지만 각운과 성조 체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하노이 방언의 발음을 따르는 베트남어 표준 발음에는 남부와 중부 지방 사람들의 r/d, s/x, ch/tr의 발음 구별이 첨가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선생들은 오랫동안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발음 체계를 알리고 가르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학생들 역시 교실에서 그러한 발음을 하고자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실 밖에서는 지역 발음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 같은 방송에서도 표준 발음이 방송될 수 없다. 이는 발음이 통일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발음 체계는 항상 방언들에 따라 특징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베트남에서는 철자만이 표준화될 수 있으며, 나라 전체의 발음 체계를 표준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4. 결론

베트남의 국어(national Vietnamese language)는 분단되기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베트남 문화어). 분단 이전 시기 동안 베트남 문화어는 매우 빠르게 발달하였으며 이러한 문화어는 국가적인 범위에서 베트남어 전체를 통합하는 데 굳건한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나라가 분단되면서 베트남어의 통일은 점차 늦춰지게 되었고 결국 난관에 부딪혔다. 각 지역에는 각각의 정치 체도가 있었으며, 이는 곧 각 지역의 언어가 다른 언어 정책에 의하여 발달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각 지역마다 문화어에는 차이점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통일(1975년) 이후, 첫 번째 계획들 중의 하나가 바로 베트남어를 최고의 상태로 표준화하고 통일시키는 것, 그리고 이를 긴급한 비상 과제로 간주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남부 방언과 북부 방언 사이에는 발음, 어휘, 문법에서 많은 차이점들이 존재하지만, 근본적으로 두 지역의 베트남 방언은 높은 일치성을 보여준다.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베트남어를 통일하는 데 편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베트남어를 표준화하는 기준으로 문화어가 고려되었다. 거의 모든 학자들이 북부 방언, 특히 하노이 방언이 발음, 어휘, 문헌으로 기록된 문학 등에서 이점이 있다고 확신하였다. 그리고 북부 방언을 바탕으로 베트남어를 통일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문화어 형성에는 다른 방언들로부터의 긍정적인 좋은 요소들도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통일 이후의 베트남어의 표준화는 세 가지 주요한 측면을 포함한다: a) 철자의 표준화; b) 어휘의 표준화; c) 발음의 표준화. 베트남어의 표준화는 오랫동안 이루어졌으며 몇몇 성과를 이끌어냈다. 기본적으로 베트남 사람들은 국가적인 철자법에 동의한다. 문어(written language)로 된 단어의 통일성과 과학적 전문용어의 표준화가 큰 성공으로 간주되고 있다. 발음의 표준화는 오직 문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졌으며 각 지역에서는 여전히 그 지역의 발음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여러 방언들이 문화어에 의하여 점차적으로 통일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Some Issues of Vietnamese Standardization after the National Unification

Nguyen Van Hieu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

1. Overview

Since the advent of Vietnam's history, Vietnamese has been the common means of communication of the people of Vietnam all over the country. In some periods of history when Vietnam was under the foreign rule, the role of the Vietnamese language was limited. During the French domination, French was the official language of Vietnam, was used in governmental agencies and education. Vietnamese was the language of communication in the community and was used in literary texts. Since August 1945, Vietnam has become an independent nation on the world map. Vietnamese has actually confirmed its position as the official language of Vietnam. Vietnamese is used officially on all fields of Vietnamese people.

After 1945, Vietnam was divided into the North and the South with their own political institutions. It is the political barrier that restricted language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regions. The trend of language integration of two regions in the previous periods was blocked by the political barrier. Before the separation, there were differences in Vietnamese language between the two regions due to different

local characteristics. During the separation, the language of each region had its own development with different language policies. This has created a series of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ides in many aspects.

In 1975, Vietnam was reunified after 20 years of separation. Vietnamese in this period posed many problems. During this period (1975-1980), priorities were given to Vietnamese standardization and unification in the form of cultural language. In this paper, we mainly evaluate Vietnamese language of the two regions after reunification and the process of integrating the two languages by a general policy of the State of Vietnam.

2. South Vietnamese and North Vietnamese, unities and differences

We mention South Vietnamese and North Vietnamese on the linguistic view. The differences in the language between the two regions are the result of many historical influences. One of the differences was formed from the separate distribution in geography and the language of each different geographic space is changed in communication with the speaking habit of each community. The social factors such as politics, education and literary tradition ... impacted on the language. In addition, exposure to the languages close to these dialects will also impact on the appearance of the dialects.

First of all, Vietnamese language in both South and North has a relative unity. These dialects do not interfere with the communication of both regions. Because of the high consistency, H. Maspero (1912) divided Vietnamese into two kinds: Northern dialect and Central dialect. According to him, South and North languages are basically similar. In fact,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North Vietnamese language and South Vietnamese language. Later scholars set Southern dialect oppositely to other dialects, especially Northern dialec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outhern dialect and the Northern dialect are on many different aspects such as phonetics, vocabulary and grammar.

2.1. Phonetics

Author Nguyen Kim Than (1964), Hoang Thi Chau (1989) distinguished two dialects clearly in terms of phonetics as follows:

Northern dialect	Southern dialect
Tone: there are six tones with opposite pairs of pitch and rhythm,	There are five tones, the high - rising - broken tone and the low - falling - rising tone as the same one
Initial consonant system: there are 20 phonemes, without retroflex consonants written in spelling: s, r, tr	There are 23 consonants, consonants with retroflex, missing consonant / v / but with more sound / w /, no / z / sound replaced by / j /
There is prevocalic sound / w /	Prevocalic sound /w/ disappeared
Final consonant system: there are enough final consonants in spelling	Lost more rhymes than the Northern dialect, Lack of final consonants /-nh /, /-ch /

2.3. Grammar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dialects are not too large. The main differences are in pronoun systems and some forms of words.

Interrogative and demonstrative pronouns		Personal pronouns	
Northern dialect	Southern dialect	Northern dialect	Southern dialect
Này (this)	nầy (this)	Tôi (me)	Tui (me)
thế này (this)	vầy (this)	Chúng tôi (us)	tụi tui (us)
ấy (that)	Đó (that)	Mày (you)	mầy (you)
thế (ấy) (that)	vậy (that)	Chúng mày (you)	tụi mầy (you)
Kìa (that)	Đó (that)	Ông ấy (him)	ông (him)

The difference in language of the two regions had been formed before the country was divided and these are seen as two typical dialects of Vietnamese language beside the Central dialect. These dialects, are not the separate languages, are the local status of a unified language. Vietnamese dialects have a high uniformity. This consistency is expressed through the practical use of Vietnamese people. Any Vietnamese in the country, who speaks Vietnamese, can understand other Vietnamese speakers without any obstacles. This is a favor for the standardization of Vietnamese language.

3. Vietnamese issues of the two regions after reunification

During more than divided 20 years, the two dialects developed under two different political institutions. In addition to the pre-existing differences there were also differences formed during this time. After unification (1975), a series of urgent issues were given out to help the Vietnamese standardization. A series of workshops were held to revolve the issue during the period (1976-1980). Many linguists as Hoang Phe, Nguyen Kim Than, Hoang Tue, Luu Van Lang ... have spent time on researching into the Vietnamese standardization

The first issue as a basis to standardize the Vietnamese language is to define the concept of *cultural Vietnamese*. This will be the platform to offer solutions to the Vietnamese standardization. Hoang Phe (1976), in the article "Constructing and developing cultural Vietnamese ", had a clear interpretation of this concept. He said that the formation of cultural Vietnamese language is a process. The standard of cultural language is an objective existence. A word, a speech, a writing were eventually selected, determined as the standards, not by accident, but because it met some objective requirements. The cultural language has a standardized system including standards of grammar, vocabulary, pronunciation, spelling, gradually formed through the process of evaluation and selection among the different forms of language dialects. The cultural languages are often formed on the basis of a certain dialect which develops and

is relatively attractive to the other dialects. The cultural language has plenty of forms of synonymous expression and meets the requirements of all types. The Vietnamese unification means the cultural language determination which is the basis for Vietnamese standardization in the localities into a relatively uniform language.

The question immediately after the reunification of the country is “which dialect is the standard?” Which dialect can be considered as cultural Vietnamese? The answer is to choose the Northern dialect (typically Hanoi dialect) as the basis for the construction of cultural Vietnamese. The determination of the Northern dialect as the basis to construct uniform Vietnamese is totally grounded.

Nguyen Kim Than (1976) in the article “The form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cultural language” confirmed the capital of Thang Long-Hanoi since its establishment in 1075 has seen so many social and cultural events which have strong influences on the development of national language. Unified literature Vietnamese for centuries used the Red River basin language which is typically known as the Hanoi language as the basis. Most Vietnamese literature legacies in the last centuries were written in the region language.

Hoang Thi Chau (1989) also stated, on the corner of national prestige, no dialect can match well with the Hanoi dialect (representing the Northern dialect). Hanoi has been the cultural melting pot of the country since the tenth century (except for the time the capital moved to Hue). The Northern dialect has more number of words and the semantic nuances than other dialects. In 1920s, a series of new poetry and novel movements developed primarily on the basis of the Hanoi dialect. Many works were composed even in the context of the South, but used with cultural Vietnamese words and phrases.

In his article, Hoang Phe (1976) also demonstrated through the press from the nineteenth century in the South and the North, despite the existing differences between the dialects, but the words, expressions and writing of the Northern dialect have gradually gained popularity in the country and have become the standard of cultural Vietnamese language.

In fact, cultural Vietnamese is formed not due to the pure development of the Northern dialect, but is still receptive to the positive characteristics of the other dialects, including the Southern dialect. This is the foundation toward standardizing Vietnamese unity in the country. The Vietnamese standardization in the context of reunified nation means language unity of both the South and the North in order to create a standard cultural language for the whole country.

The language standardization requires a comprehensive view which does not consider each phenomenon in isolation, but considers them in the systematic connection with similar cases, pays full attention to the language as well as the social aspect of the issue. When mentioning the standardization of the language, we have to understand grammar standardization, vocabulary standardization, spelling standardization and pronunciation standardization. The Vietnamese dialects have no big differences in terms of grammar. Therefore, the Vietnamese unification of this period includes three main tasks:

-
- a. Spelling standardization
 - b. Vocabulary standardization
 - c. Phonetic standardization

3.1. Spelling standardization

First, the spelling standard is considered as the rules of writing, customary habits or determined by state agencies. So the spelling standard is often built most stably and has absolute impact on the appearance of written language of a people. Spelling consistency means the direct impact on the language unity. For Vietnamese with basic recording writing, the spelling unity can affect oppositely on pronunciation and promote the standardization of pronunciation.

Spelling errors often appears on Southern newspapers and books. The high – rising – broken tone and the low – falling – rising tone, final consonants n, ng, t and double vowels iêu, iu, ôi can cause confusion. There are variations in the Southern dialect, such as *Chính phủ* (government) or *chánh phủ* (government), *thống nhất* (reunification) or *thống nhứt* (reunification)... Meanwhile, the mixture of x and s is quite popular in the Northern dialect. The capitalization is not uniform in both regions

Hoang Phe (1976) gave out a basis to consider the Hanoi pronunciation as the spelling standard. Except *từ* or *iu*, *ừ* or *iêu* (based on the distinction in many places); *tr* or *ch*, *s* or *x*, *r* or *d* or *gi* (based on Central and Southern pronunciation), spelling problems of the country are “*d* or *gi*” and “*i* or *y*.”

In addition, in Vietnamese language, in many cases, it is very difficult to identify a combination of syllables as a word or word combination. So writing syllables separately without hyphens is quite popular. Private name, human name and geographic names will be capitalized with all the syllables, and the names of agencies and social organizations will be capitalized with the first syllable, eg: Nguyen Thi Minh Khai (personal name), Hanoi (geographical name).

The spelling standardization of foreign proper names is also a complex problem. In the period of the divided country, in the South, original French and English words were often kept in the original form, especially scientific words and human names, place names, such as acid, cellulose, tole; Marie Curie, Taberd ... sometimes transcribed into Chinese - Vietnamese sound: Chí Lợ (Chile), Á căn đĩnh (Argentina) ... In the North, words transcribed (basically uniform but there are isolated phenomena not following a general rule) such as : axít; xenluylo, tôn ... (by Nguyen Kim Than 1976)

Many researchers remain Latin words. In other languages words will transferred into Latin alphabet system. As for the geographical names, people remain a number of names of big countries and cities used for a long time. A series of country and city names are transcribed into Chinese – Vietnamese sound such as: Bắc Kinh (Beijing), Pháp (French), Nga (Russia), Đứ (Germany), Hoa Kỳ (the United

States)...

The spelling standard is considered as an important content in the process of Vietnamese standardization. Although the Hanoi pronunciation (the Northern dialect) is used as a basis, it is added with sounds of other dialects. Especially, it also accepts the advantages of the Southern spelling of principles of remaining foreign proper name system. Based on these steps, but so far, Vietnam has basically agreed on spelling standard throughout the country.

3.2. Vocabulary standardization

There are many different units in vocabulary systems of the Southern dialect and the Northern dialect (view 2.2). These differences which had been formed before the country was divided created unique characteristics of each dialect. Besides it, there are words and phrases newly formed or reserved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each dialect. The dialectal differences will not interfere with the process of Vietnamese standardization. The differences formed in the period of separation, which affect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cultural Vietnamese, need to be adjusted with plans of standardization.

First, there is no uniformity of using Sino-Vietnamese words in two regions. While Northern people often use many Vietnamese words, Southern people use many Sino-Vietnamese ones. Sometimes, Northern people use Sino - Vietnamese but Southern people use Vietnamese ones. Many Sino-Vietnamese same words are understood by different meanings in two regions.

Southern words

Phi trường/ airport (Sino - Vietnamese)

Hiện diện/ present (Sino - Vietnamese)

Dưỡng ngư/ raising fish (Sino - Vietnamese)

Thăm/ sightseeing (Vietnamese)

Trục trặc/ incident (Vietnamese)

Northern words

Sân bay / airport (Vietnamese)

Có mặt / present (Vietnamese)

Nuôi cá/ raising fish (Vietnamese)

Tham quan/sightseeing (Sino - Vietnamese)

Sự Cố/ incident (Sino - Vietnamese)

To the standardization of vocabulary, the general trend of this period is to unify vocabulary on the basis of Northern vocabulary. For words of the Southern dialect or other local dialects which are put into cultural Vietnamese vocabulary have often been narrowed or in certain phrases and expressions. Words that are not in the Northern vocabulary will be added from other dialects including words of jobs, words of tools, words of fruits ... Thus, cultural Vietnamese needs to be supplemented with words from other dialects in order to enrich national vocabulary. The processes of natural standardization showed the cultural Vietnamese language on the basis of the Northern dialect use and utilize all the vocabulary elements with more or less positive effects of other dialects.

Apart from using Sino-Vietnamese words, there is no agreement of scientific terms between the two regions. They are newly created words including borrowed foreign terms. In this period, the standardization of scientific terms is on top. The linguists have confirmed "The inconsistency status of terms is an obstacle to science, culture and education researches as well as many social activities. The gradual unity and standardization of terminology in the whole country is an urgent task." (Luu Van Lang 1977). Being aware of the importance of terminology unity in the country, scientists have made many standards as the basis for terminology unity. One of the opinions agreed as the basis for standardization of terminology in this period includes three basic criteria including the accuracy, the systematic and the native. In addition, Vietnamese terms should be short, easy to use, in which the accuracy is an indispensable requirement to the existence of the terms. The construction of Vietnamese terminology should be based on scientific, ethnic and mass guidelines.

In general, this time, the terminology standardization is on track, contributing much to the standardization of the Vietnamese language in general and the standardization of vocabulary in particular. In terms of the vocabulary standardization during this time, we must look at two aspects, spoken language and written language. For spoken language, each dialect has its own words and phrases. Sometimes, some Southern words are used by Northern people and vice versa. For written language, especially the system of terms used on official documents is standardized according to cultural Vietnamese language.

3.3. Phonetic standardization

Compared to the directions of standardization, the standardization of phonetics is the most difficult. If we consider Saigon phonetics (the Southern dialect) as a standard, there will be a series of conflicts with the script as described in the previous sections. In Saigon phonetics there is not difference between the high – rising - broken tone and the low - falling – rising tone (*ngã* and *ngả* have the same pronunciation). Saigon people do not distinguish between consonant *v* and consonants *d / gi*. A variety of Southern rhymes is not distinguished such as *un / ung*, *in / inh*, *ut / uc*, *it / ich* ... To the system of Hanoi phonetics (the Northern dialect), although people do not distinguish a few consonants such as *r / d*, *s / x*, *ch / tr*, but the rhyme and tone system is adequate. Therefore, the standard pronunciation of the Vietnamese language which should be the Hanoi pronunciation must be added with the distinguished pronunciation of *r / d*, *s / x*, *ch / tr* from Southern and Central people' s pronunciation.

With this opinion, teachers from schools for a long time have tried to propagate and teach pronunciation system of the Vietnamese language. Although, pupils have tried to pronounce in the classroom, they still have the habit of local pronunciation out of classroom. On the media, radio and television, the standard pronunciation can not be done. This shows the fact that the pronunciation can not be uniform because the phonetic system is always characterized with dialects. Therefore, the Vietnamese spelling

can only be standardized, but it is difficult to standardize the phonetics of the country.

4. Conclusion

Before the country was divided, the national Vietnamese language had been formed (cultural Vietnamese). During this period, the cultural Vietnamese had developed so quickly and had become a solid premise to unify the Vietnamese language in the national scope. However, the Vietnamese unity was slowed down and dashed when the country was divided. Each region has its own political institution, which means the language of each region will be developed in different language policies. Therefore,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cultural Vietnamese between regions. After the unification (1975), one of the first plans was to set the standardization and unity of the Vietnamese language on top and to consider it as the emergency task during this time.

In fact, there are many differences in phonetics, vocabulary and grammar between the Southern dialect and the Northern dialect. Basically, the Vietnamese dialects in the two regions have a high consistency. This is a convenient feature to unify the Vietnamese language on a national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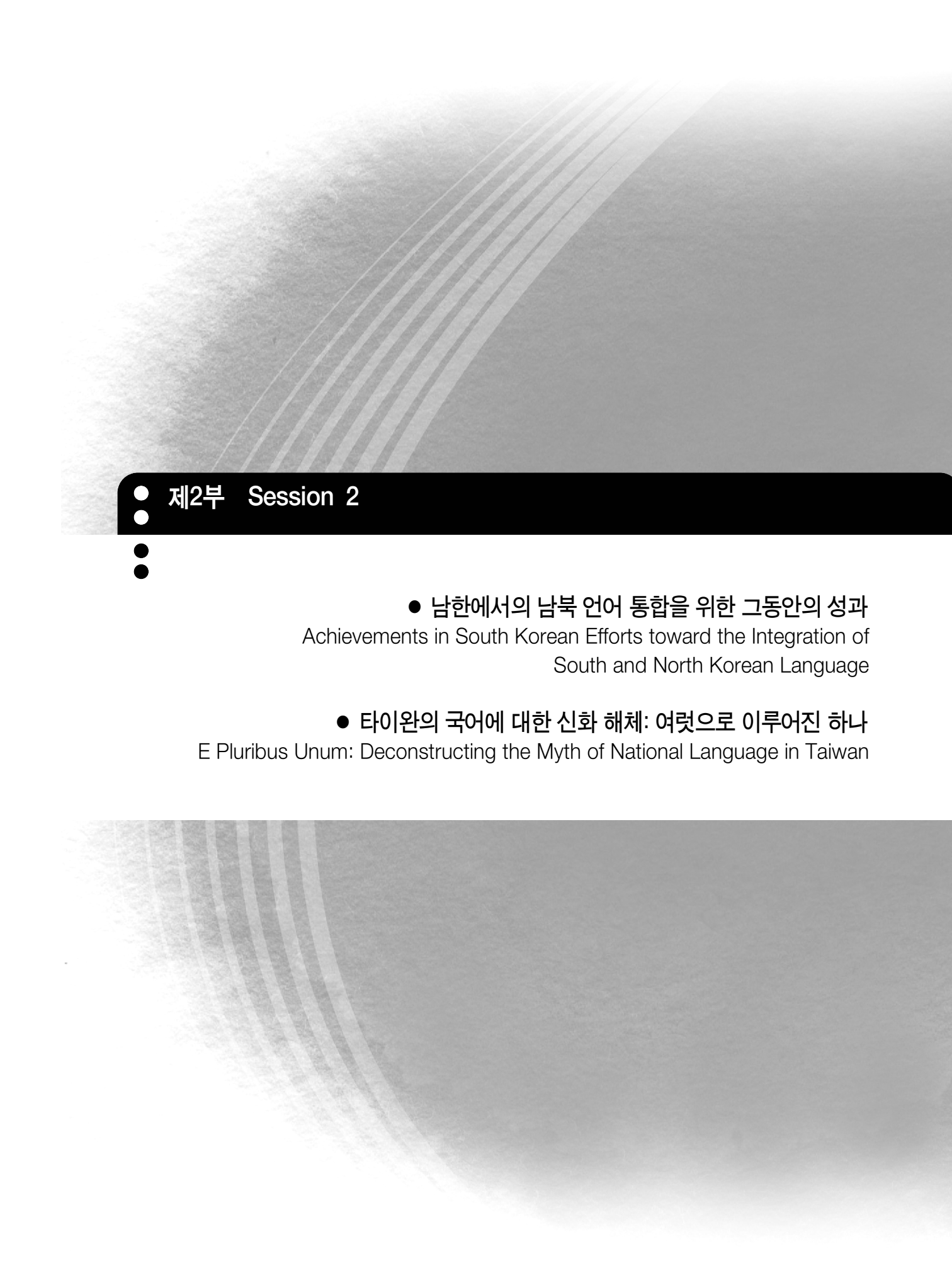
Considering the cultural Vietnamese as the basis for the standardization of the Vietnamese language was also given out during this time. Almost scientists confirmed that the Northern dialect, especially Hanoi one has the advantages of phonetics, vocabulary and literature written in the script. In this time, people are towards the Vietnamese unity on the basis of the Northern dialect but taking advantages of positive elements from other dialects to form the so-called cultural Vietnamese.

After the unification, the standardization of the Vietnamese language includes three major aspects: a / spelling standardization; b / vocabulary standardization; and c / phonetic standardization. The Vietnamese standardization has been made for a long time and has made some achievements. Basically, Vietnamese people agreed in the national spelling. The written vocabulary unity and the scientific terminology standardization in this time are considered as a great success. The phonetic standardization is only made by the script and each region still remains its own pronunciation. The dialects being gradually unified by the cultural Vietnamese will be an inevitable trend in the future.

References

1. Hoang Thi Chau (1989), "The Vietnamese language in regions of the country". Social Sciences Publishing House.
2. Hoang Van Hanh (1977), "On the systematic of the Vietnamese vocabulary". The Language Magazine No 2.

-
3. Hoang Van Hanh (1983), "On the formation and the development of Vietnamese terms". The Nation No. 4.
 4. Maspéro.H (1912), *Études sur la phonétique historique de la langue Annamite*, BEFEO, T.XII No1.
 5. Luu Van Lang (1977), "The agreement of the standards of scientific terms". The Language Magazine No 1.
 6. Ho Le (1973), "On the issue of language standards". The Language Magazine No 4
 7. Hoang Phe (1963), "The basis of the spelling standardization". The Literature Magazine No 1.
 8. Hoang Phe (1963), "Some comments on the unification and the standardization of the Vietnamese language". The Magazine of Literature Studies No 3.
 9. Hoang Phe (1976a), "Some principles to standardize the spelling". The Language Magazine No 2.
 10. Hoang Phe (1976b), "The form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cultural language". The Language Magazine No 4.
 11. Hoang Phe (1979), "The improvement and the standardization of the spelling". The Language Magazine No 3.
 12. Hoang Phe (1980), "The standardization of the Vietnamese vocabulary". The Language Magazine No 1.
 13. Nguyen Kim Than (1964), "Comments on some features of the Southern dialect", The Literature Magazine No 8.
 14. Nguyen Kim Than (1976), "'Vietnamese, a uniform language", re-printed in "Nguyen Kim Than Collection of works" Social Sciences Publishing House (2003).



● 제2부 Session 2



- 남한에서의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그동안의 성과
Achievements in South Korean Efforts toward the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Language
- 타이완의 국어에 대한 신화 해체: 여럿으로 이루어진 하나
E Pluribus Unum: Deconstructing the Myth of National Language in Taiwan

주제 발표

Topic Address

조남호 CHO Namho



-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장
- 전 국립국어원 사전편찬실장
- Manager, Language Research Department,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 Former Manager, Compilation of a Dictionary Department,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남한에서의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그동안의 성과

조남호
국립국어원

1.

남북은 1948년 각각 다른 체제의 정부가 세워질 무렵에는 공통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다. 각 지역별로 방언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20세기 전반기에 언어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활발하여 공통으로 사용해야 하는 언어와 문자에 대한 합의가 대체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런데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남북은 단절되었다. 개인의 자유로운 접촉이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언론 매체나 출판물도 보기 매우 어려웠다. 최근에 들어 남북 관계가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유로운 접촉은 어렵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언어적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언어 사용에서 차이가 생겼을 것임은 그리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남한과 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해 왔고 그 체제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른 경험을 했으니 이러한 차이가 언어에도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남한과 북한에서 사용하는 말에는 이러한 차이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 그렇지만 그 차이는 대체로 단어 차원에 그친다.

남북한 사이에는 이처럼 언어적 단절로 인해 생긴 자연스러운 차이뿐만 아니라 남한과 북한에서 언어 정책이 다르게 추진되면서 말과 글에 차이가 생기기도 하였다. 남북의 언어 정책을 비교하면 추진 방향이나 방법에 있어서는 비슷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

는데 그 결과로 남북의 언어는 서로 다른 모습을 띠게 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언어 사용에 대한 규범이다. 남한과 북한 모두 언어 사용에 대한 성문화된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언어 사용을 관리하고 있다. 이 규정의 뿌리는 1933년에 발표된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다. 이때 만들어진 규정은 남북에서 모두 받아들임으로써 정부 수립 초기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그렇지만 이후 남한과 북한에서 이 규정을 각각 독립적으로 수정을 하게 된다. 북한에서는 1954년과 1966년, 그리고 1987년에 규정을 수정한다.¹⁾ 남한에서도 1988년에 한 차례 수정이 이루어진다. 독자적으로 규정을 손질한 결과 남북의 말과 글에 눈에 띄는 정도의 차이가 생겼다. 대표적인 사례가 두음법칙이다. 한국어는 어두에 ㄹ, ㄴ 등의 발음이 오면 ㄴ, ㅇ(음 탈락) 등으로 바뀌는 현상이 있는데 이를 두음법칙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남녀’할 때는 ‘녀’로 적고 말하는 글자가, ‘여자’에서는 ‘여’로 적고 말하는 것으로 바뀐다. 두음법칙 현상은 한국어 특질 중의 하나로 꼽히는 것인데, 북한에서는 두음법칙을 따르지 않고 본음대로 ‘남녀, 녀자’로 적고 말하는 것으로 정했다. 그 결과 두음법칙을 지키는 남한과 지키지 않는 북한으로 갈라졌다. 이처럼 남북이 두음법칙의 적용 여부에 따라 말이 다르다는 것은 남북 언어의 대표적인 차이로 남북의 주민에게까지 널리 알려져 있다.

표준적인 말에 대한 개념도 바뀌었다. 1933년에 조선어학회에서 맞춤법을 정할 때 서울말을 중심으로 하는 ‘표준어’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었다. 남한에서는 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되 1988년에 정의를 일부 손질한 데에 비해 북한에서는 1960년대에 북한의 수도인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어’라는 말로 대체하였다. 단지 용어가 바뀌고 기준이 되는 지역이 변경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다. 『조선말대사전』의 풀이에 따르면 노동 계급의 지향과 생활 감정에 맞게 혁명적으로 세련되고 아름답게 가꾸어진 언어라 하여 사회 이념이 반영된 명칭 변경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에서 표준어에는 없는 말을 대폭 문화어로 수용하게 됨으로써 남북에서 사용하는 말이 더욱 차이를 보이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남북의 중요한 언어 정책 중의 하나인 언어 순화도 남북의 언어가 차이를 보이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언어 순화, 혹은 북한의 용어로 말다듬기 사업은 남북에서 중요하게 추진되어 온 일이다. 한국어에는 많은 한자어들이 예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는 일본어로부터 많은 단어가 들어왔다. 또한 영어를 비롯하여 서구의 언어로부터 들어온 외래어도 많았다. 광복 이후 이들 한자어와 일본어 및 서구어에서 온 말을 순수 고유어 등 쉬운 말로 바꾸는 언어 순화가 꾸준히 추진되었다. 이 점에서는 남북의 태도가 비슷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남북이 독자적으로 언어 순화를 추진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제시되는 순화어가 남북이 일치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²⁾ 순화 대

1) 1948년 1월에 ‘조선어 신철자법’이 제정 공포되었지만 실용화되지는 못했다(이경희, 1997:99).

2) 예를 들어 남북의 최근 사전에 수록된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스푼(spoon)’은 ‘숟가락, 양숟가락(남)/오목숟갈(북)’로, ‘임차(賃借)’는 ‘세남(남)/세내기(북)’로 남북에서 각각 순화되었다.(구본관, 2002 참조) 단, 언중들이 실제로 순화된 말만 쓰고 순화 대상어는 쓰지 않는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순화한 말이 실제로 쓰이지 않은 사례가 남북에 많이 있기 때문이다. 남한의 경우 여전히 ‘스푼, 임차’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다.

상어의 선정에서도 차이가 있다. 어느 한 쪽에서 택한 순화 대상어가 다른 쪽에서는 순화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기도 한다. 모든 순화어가 그대로 사회에 수용되어 쓰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순화어가 사용되면서 남북의 언어 차이는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³⁾

이처럼 60년 넘게 교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언어 정책도 달리 추진되면서 말투로 쉽게 상대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남북의 언어에는 차이가 있다. 남한에서는 흔히 ‘남북 언어 이질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남북의 언어 차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동질성 회복’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다.⁴⁾

2.

남한에서 북한어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다.⁵⁾ 그 이전에도 북한어에 대한 조사 연구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자료의 제약 때문에 제한적이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북한에서 간행된 비정치적인 서적에 대한 통제가 완화되면서 학계에서 북한에서 나온 언어학 관련 서적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자 북한어에 대한 연구가 붐몰을 이루게 된다. 북한어에 관한 연구 성과가 쏟아져 나오고 북한어를 주제로 한 학술회의가 여러 곳에서 개최되기도 하였다. 차재은(2009:5)에서 정리한 바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2000년까지 나온 북한어 관련 논저는 760여 편이고 이중 단행본만 해도 84권이 나 된다고 한다. 전체적인 경향으로 보면 북한어에 관한 연구는 90년대에 많이 이루어졌고 웬만큼 주제가 소진된 최근에는 오히려 북한어에 대한 관심이 다소 떨어진 상태이다.

그동안 북한어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를 보기 위해서 북한어와 관련된 주요 출판물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3) 일반적으로 언어 순화는 북한이 더 강하게 추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남한에서는 외국과의 교류가 늘면서 서구어, 특히 영어에서 온 말이 급격히 늘고 있다. 이를 위한 순화 작업도 꾸준히 추진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영어에서 온 말의 사용이 많이 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영어에서 온 말의 비중이 높지 않다. 접촉 자체도 드물지만 언어 순화에 대한 의식이 강한 것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영어에서 온 말이 많아 남한의 말을 알아듣기 힘들다고 흔히 지적한다.
- 4) 때로 남북 언어의 이질화가 심각하다고 지적되기도 하지만 과장된 면이 없지 않다.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 약간 조심만 하면 웬만한 대화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 5) 최근의 자료는 없지만 국립국어원(2001)에 제시된 연도순 연구 논저 목록을 연도별로 헤아려 본 결과가 아래의 표이다. 1989년과 1991년에 100여 편에 가까운 논저가 발표되어 다른 해보다 월등히 많은 논저 개수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단행본과 정부 부처가 발간한 보고서도 포함되어 있다.

연도	'87년 이전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논저 개수	68	27	93	43	92	51	61	49	49	40	49	26	48	23

연도	저자	서명
1989	북한언어연구회	북한의 어학혁명-민족어의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1989	전수태·최호철	남북한 언어비교-분단시대의 민족어 통일을 위하여
1989	고영근 외 편	북한의 말과 글
1990	국어국문학회	북한의 국어국문학 연구
1991	김민수 편	북한의 조선어 연구사 1~4
1992	이은정	남북한 어문 규범 어떻게 다른가
1992	김영배 편	남북한의 방언 연구-그 현황과 과제
1993	하지근	남북한 문법 비교 연구
1994	고영근	통일시대의 어문 문제
1995	조재수	남북한말 비교 사전-중국, 옛 소련 지역 동포들의 우리말을 포함한 비교 어휘론
1997	김민수 편	김정일 시대의 북한언어
1997	임홍빈	북한의 문법론 연구
1999	김응모·최호철	통일대비 남북한어 이해
2000	조재수	남북한말 사전
2002	김민수 편저	남북의 언어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2002	김상준	남북한 보도 방송 언어 연구
2003	부경생	남북한 농업용어 비교집
2003	최용기	남북한 국어정책 변천사 연구
2004	김광수	남북한 전문용어 비교 연구
2006	권재일	남북 언어의 문법 표준화
2007	통일문제연구협의회	남북학술전문용어 비교사전
2007	전수태	세계화 시대의 남북 언어

위에 제시된 주요 출판물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그동안 학계에서 이루어진 북한어 연구는 남북의 언어 정책뿐만 아니라 국어학의 여러 영역에 대한 연구까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그동안 학계에서 이루어진 북한어에 대한 연구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⁶⁾ 첫째는 북한어 자체에 대한 분석이다. 수십 년 동안 단절된 상태였다가 비로소 북한에서 간행된 출판물을 접하게 되면서 단절이 된 시기 동안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관심을 두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북한의 언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언어 정책과 그 뿌리가 되는 언어학의 연구 성과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졌다. 하나의 예로 북한어에 대한 연구 초창기에 간행된 『북한의 말과 글』에서는 ‘북한의 언어 정책, 북한의 맞춤법, 북한의 문화어, 북한의 외래어 표기법, 북한의 로마자 표기법, <조선문화어문법규범>을 통해 본 북한의 문법, 북한의 국어사전 평설, 북한의 한자한문 교육, 북한의 화법, 북한의 언어 예절, 북한의 속담, 북한 언어의 실제 분석’ 등 북한어에 관해 폭넓게 다루고 있다(고영근 편, 1989).

둘째는 남북 언어에 대한 비교 연구이다. 남북의 언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는 것이다.

6) 논저마다 확연히 방향이 구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논저에서 둘 이상의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여기서도 역시 언어에 대한 비교뿐만 아니라 언어학 이론에 대한 비교까지 그 범위가 넓다. 전문용어에 대한 비교도 이루어졌다. 언어 순화는 전문용어에도 크게 영향을 끼쳐 남북은 전문용어에서도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많다. 위에 제시된 논저에서도 남북의 전문용어를 비교한 것이 소개되어 있지만 위에 제시된 것 외에도 남북의 전문용어를 비교하려는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셋째는 남북의 언어 차이에 대한 이해가 심화된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남북 언어 통합 방안에 대한 제언이다.⁷⁾ 특히 어문 규범에서의 차이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차재은(2009:7)에서는 세부 주제를 다룬 연구 중에서 ‘맞춤법’과 ‘표준어’ 문제를 다룬 연구가 전체 52편 중에서 17편이라고 하였다.⁸⁾ 남북의 언어 차이를 가져 온 주요한 원인이면서 남북이 똑같이 성문화된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컸다고 할 수 있다.

3.

북한어에 대한 조사 연구는 학계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한국인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언어라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남북의 언어가 이질화되었다는 것은 큰 관심거리였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남북 언어 문제가 지속적인 관심사였다. 그 하나의 예로 한글날 기념사에 남북 언어 통합이 자주 거론된 것을 들 수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어를 적기 위한 문자인 한글이 만들어진 것을 기념하여 매년 10월 9일 한글날 기념식을 거행한다. 이 자리에 국무총리가 참석하여 기념사를 하는데 필자가 확인한 바로 1990년 이후 최소한 7회 이상 기념사에서 남북 언어 문제가 언급되었다.⁹⁾ 국무총리가 계속 바뀌었는데도 지속적으로 남북의 언어 문제가 기념사에서 언급이 되어 온 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관심이 크다는 뜻이다.

그래서 언어 정책을 조사 연구하는 국립국어원은 1991년에 개원할 때부터 북한어 조사 연구와 남북한 언어 통일 방안 연구를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여 왔다. 그런 만큼 개원 이래 꾸준히 남북 언어에 관한 정책적 조사 연구가 거의 매년 이어져 왔다.

국립국어원에서 그동안 진행하였던 연구 성과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7) 남북 언어 통합 방안 연구 현황을 분석한 차재은(2009:7)에 따르면 2008년까지 남북 언어 통합 방안에 대해 연구한 논저만 52편이다.

8) 제일 많은 것은 ‘총론’으로 분류된 것인데 27편이다.

9) 미디어 가온(kinds.or.kr)에서 1990년부터 현재까지의 기사를 검색해서 확인하였다. 1990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7년, 2001년 기념사에서 남북 언어 문제가 언급된 것을 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제 목	연도
북한의 국어 사전 분석 (I)	1992
북한의 언어 정책	1992
북한의 국어 사전 분석 (II)	1993
북한의 한자어·외래어 사용 실태 조사	1993
북한의 국어 사전 분석 (III)	1994
북한의 한자어 외래어 사용 실태 조사	1994
남북한 외래어의 비교 연구	1995
남북한 친족 호칭·지칭어 비교 분석	1995
북한의 국어 사전 분석 (IV)	1995
북한의 국어 사전 분석 (V)	1996
북한 문학 작품의 어휘	1998
남북한 한자어 어떻게 다른가	1999
북한 주민이 모르는 남한 외래어 조사	1999
북한 주민이 모르는 남한 어휘	2000
북한 시나리오 어휘 조사 연구	2001
북한 영화 어휘 조사 연구	2001
북한어 연구 논저 해제집	2001
남북 언어 순화 자료집	2002
북한 방송 용어 조사 연구	2002
북한 신문 용어 조사 연구	2002
북한의 <조선말사전(학생용)> 분석	2002
북남 대역 사전을 위한 기초 연구	2003
북한 사전 미등재어 조사 연구	2003
북한의 우리말 의미 연구 자료집	2003
남북 문자코드 변환 시스템 개발	2004
남북한 어문 규범 비교 연구	2004
북한의 국어 연구 자료 구축 1 [1946~2000] (시디롬)	2004
남북한 어문 규범 연구사 [2005]	2005
북한 국어 연구 논저 목록 2[1946~2004](시디롬)	2005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2007
남북 체육용어 통일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결과보고서	2007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2	2008
남북한 무역용어 비교 연구	2008
2009년 남북 언어 학술대회 논문집	2009

위에 제시된 목록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국립국어원에서는 주로 북한어에 대한 조사 연구와 남북 언어 비교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00년대 들어 서적 중심의 연구를 벗어나기 위해 북한 방송, 영화, 신문 등을 조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북한 주민이 모르는 남한 외래어 조사』(1999년) 등 북한어를 써 오던 북한 이탈 주민¹⁰⁾을 중심으로 북한 주민이 모르는 남한의 말에 대한

조사 결과도 보고서로 낸 바 있다.

국립국어원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 위의 표에 나오지 않았지만 특별히 언급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국립국어원에서 1999년에 『표준국어대사전』을 간행하였는데 이 사전에는 7만여 개 정도의 북한어가 수록되어 있다. 1992년에 편찬에 착수할 당시에 사회적으로 남북 언어 이질화에 관심이 큰 시기이어서 남북의 말을 아우르기 위하여 북한어를 수록 대상으로 삼았다. 그 당시는 남북의 직접 접촉이 어려웠기 때문에 1992년 북한에서 간행한 『조선말대사전』을 검토하여 이 사전에 있는 단어 중에서 남한에서 쓰이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표제어들을 선별하여 북한어로 올렸다.

또한 1998년부터 10년간 정부 차원에서 한국어의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21세기 세종계획」이 추진되었는데 이 계획의 하나로 북한어와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중의 하나가 북한어 말뭉치(corpus)를 구축하는 일이었다. 다만, 구축 가능한 자료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정도로 구축하지는 못했다. 또한 남북 언어 비교 작업도 하였다. 1998년부터 3년에 걸쳐 이루어진 남북 언어 비교 사전 편찬 사업은 남북에서 자주 쓰이는 10,000개의 단어를 선정하여 이들 단어가 남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비교 조사하여 정리한 것이다. 역시 북한 학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기에 남북에서 간행된 언어 사전을 비교하는 방법을 택하여 표기, 발음, 문법, 의미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앞서 언급한 『표준국어대사전』은 남한의 관점에서 북한어를 수록한 것인데 이 사업에서는 남북의 어휘를 각각 대비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2001년에는 추가로 남한에서는 쓰이지 않고 북한에서만 자주 쓰이는 북한의 어휘를 대상으로 이질화된 단어 3,000개를 조사하였다. 어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도움을 받았다.¹¹⁾

4.

이처럼 북한의 자료를 접하게 되면서 남북의 언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최근의 연구, 특히 1990년대의 연구에서는 중대한 문제점이 하나 있었다. 연구자들도 알고 있었던 문제점으로, 북한에서 나온 논저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북한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말을 조사하여 연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북한에서 간행된 서적이 많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모두 알려진 것은 아니고 북한의 언어 현장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제약 때문에 생긴 어쩔 수 없는 문제점이었다. 이에 따라 활자화된 논저를 통해 얻은 정보로 실제 북한에서 사용하지 않는 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가 뒤늦게 오해를 깨닫거나 북한 사람을 만나서야 비로소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에는 제한적이거나 이러한 제약을 벗어날 수 있는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북한 이탈 주

10) '북한 이탈 주민'은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으로 온 사람을 말한다. 최근에 들어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으로 와 정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들을 최근에는 '새터민'이라 하는데 공모를 통해 선정한 용어이다.

11) 자세한 사항은 국어원 누리집(korean.go.kr) 자료실에 공개되어 있는 한민족 언어 정보화 분과의 연도별 결과보고서 참고. 이 사업의 결과물인 남북 언어 비교 사전은 국어원 누리집에 '남북한 언어사전'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되어 있다.

민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이미 나온 성과 중에도 북한 이탈 주민이 직접 연구에 참여한 것도 있고, 연구자가 북한 이탈 주민에게 북한어의 실상을 확인한 것도 있다.

2000년대 들어 북한에서 이탈하여 남한으로 오는 주민이 크게 늘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의 수가 2만 명을 넘어섰다.¹²⁾ 남북 주민의 자유로운 교류가 여전히 제한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것은 북한어 연구에 큰 변화가 온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구분	~1998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4.	합계
남(명)	829	563	506	469	626	423	509	570	612	666	578	242	6,593
여(명)	118	480	632	812	1,268	960	1,509	1,974	2,197	2,261	1,798	589	14,598
합계	947	1,04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2,927	2,376	831	21,191

그렇지만 이러한 접근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북한 이탈 주민 중에 언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충분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의 언어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이탈 주민 수가 증가하면서 북한어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과제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은 남한에 살려 온 사람들이므로 남한 사회에 정착해야 하는데 남북의 언어 차이로 인한 문제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언어의 차이, 영어나 외국어투 표현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제한되고 남한 사람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신명선, 2010:7).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조사 연구,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연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들에게 남한어를 교육하는 문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남북의 언어 차이에 대한 이해도 더욱 심화되는 효과도 없지 않으며 이는 이후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해서도 귀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논저를 통해 접근하는 데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언어학자가 만나야 한다. 그래서 북한의 언어학자와의 만남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지만 남북 언어학자의 만남은 남북의 정치적 상황에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많은 굴곡이 있었다. 남북이 만나려는 시도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직접 남북이 연락할 방법은 없었다. 다행히 남북 양쪽과 모두 왕래가 가능한 재중 동포들이 있어 이들이 주선하여 만남의 기회를 가지기 시작하였다. 중국에는 일제 강점기 이전부터 여러 사정으로 한국에서 건너간 재외 동포들이 주로 중국 동북 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다. 한중 수교 이전에는 이들은 북한과만 교류할 수 있었지만 한중 수교 이후 남북 양쪽과 모두 왕래하기

12) 통일부 누리집의 '통계 자료'에서 인용한 것이다.
<http://www.unikorea.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365>

시작하였다. 재중 동포 언어학자와 한국인 학자들의 교류가 늘면서 재중 동포 언어학자들이 남북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학자들이 노력하여 민간 차원에서 남북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 학술회의가 1994년 이후 여러 차례 중국에서 개최되었다(홍윤표, 2005). 주로 남북과 재중 동포 언어학자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국립국어원에서도 북한과의 만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990년대부터 꾸준히 남북 접촉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금까지 7차례 학술회의에 참여할 수 있었다. 남북의 언어학자들이 함께 학술회의에 참여하여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북한어에 대한 정보가 많이 쌓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남북의 학자들이 만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 매년 학술회의 개최를 추진하지만 안정적으로 학술회의가 성립되지 못하고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개최하지 못하는 일도 잦다. 아래에 그동안 있었던 국립국어원이 참여하였던 국제 학술회의를 간략하게 표로 제시한다.

회의	일시	회의 내용
1차	'96. 8.	남북 언어에 관한 발표 16건
2차	'01. 12.	민족 고유어의 통일적 발전과 방언 조사 연구
3차	'03. 11.	민족어 유산의 수집 정리와 고유어 체계의 발전
4차	'04. 6.	민족어 유산의 수집 정리와 고유어 체계의 발전 풍부화
5차	'04. 12.	민족 방언의 조사, 연구 및 코퍼스에 관한 국제 학술 모임
6차	'05. 12.	민족어 어휘구성의 변화와 통일적 발전
7차	'07. 11.	민족어 발전의 현실태와 전망

5.

남북 언어 통합과 관련하여 최근에 주목할 만한 일이 추진되고 있다. 거래말큰사전 편찬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는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편찬위원회를 꾸려 함께 남한과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을 아우르는 사전을 편찬하고 있다. 그동안 남북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이 여러 연구들이 추진되어 온 것과 달리 이 사업은 남북의 학자가 만나서 협의하면서 방침을 정하고 분담하여 사전을 만들고 있다.

2005년 2월 남북공동편찬위원회가 구성되어 결성식 및 1차 편찬 회의를 개최한 이래 연 4회 남북공동회의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20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남북공동회의는 올림말 분과, 새어휘 분과, 정보화 분과, 집필 분과, 단일어문규범 분과¹³⁾로 나뉘어 전체 회의 후에 분과별 회의를 통해 사전 편찬의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사전 편찬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검토한다. 이와 별도로 남한과 북한에 각각 편찬 조직이 있어 편찬 사업을 반씩 나누어 맡아 진행하고 있다. 회의가 진행될수록 지침을 마련하는 일은 줄어들고 실제로 원고를 집필하고 검토하는 일의 규모가 커져 17차 회의부터는 남북공동회의에 이어서 곧바로 집필회의를 진행한다. 집필회의에서는 남북에서 각각 나누어

13) 5개 분과 중에서 새어휘 분과는 기존의 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새로운 단어들을 발굴하고 풀이하는 일을 담당하며, 정보화 분과는 컴퓨터를 이용한 사전 편찬 환경에 맞춰 원고 관리 등 컴퓨터로 사전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정보화 업무를 담당한다.

집필하고 검토하였던 원고를 함께 협의하면서 원고에 대한 합의안을 결정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 사전 편찬의 효율성을 고려하면 같은 공간에 모여 함께 작업하면서 편찬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사전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편찬 작업을 나누어 하면서 정기적으로 만나 협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는 올림말 선정 등 편찬에 필요한 준비가 많이 진척되어 원고 집필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30만 단어를 수록할 것을 목표로 하여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원래의 계획은 2013년에 사전을 발간한다는 것이나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여러 분과 중에서 단일어문규범 분과에 대해서만 약간의 설명을 덧붙인다.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사전을 편찬할 때 언어 규범의 상이가 편찬의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남북은 심지어 자모의 사전 배열 순서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남북의 어문 규범의 차이를 검토할 별도의 조직으로 단일 언어 규범 협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언어 규범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각종 문제를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2005년 4차 회의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자모의 배열 순서, 띄어쓰기, 문법 용어, 문장 부호, 외래어 표기, 두음법칙, 사이시옷 등 사전 편찬에서 제기되는 각종 어문 규범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데 합의가 된 것도 있지만 두음법칙 등 합의가 쉽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남북에서 사용하는 현행 어문 규범에 대하여 어떠한 구속력도 가지지 않으며 겨레말큰사전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남북 정부 당국이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남북 언어 통합 방안에 관해 많은 연구자들이 제안을 했지만 대부분 남북의 학자들이 함께 모여 의논한 결과물은 아니며 연구자 개인의 제안일 뿐이었다. 그런데 사전을 편찬하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남북의 어문 규범을 상세하게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 비록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공식적인 결과물은 아니지만 향후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때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데서 알 수 있듯이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은 여러 가지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화된다. 무엇보다도 연 4회 안정적으로 남북의 학자들이 만나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그리고 사업의 대상이 사전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사전은 성격상 언어의 모든 것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 기존의 학술회의 등과는 비교가 될 수 없게 남북의 언어 차이를 속속들이 비교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6.

1980년대 후반 북한어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제한된 지면에서 필자가 상세하게 다루기에는 힘들 정도로 북한어에 관한 많은 연구 성과가 쌓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어에 대한 이해의 폭도 깊어졌고 남북 언어 통합 방안에 대한 제안도 많이 나왔다. 그런데 성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한어의 실상에 대한 파악이 충분치 되었는가는 의문이다. 연구 주제에 따라 자

유롭게 자료를 조사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북 관계가 그런 정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남한에서는 어느 정도 북한어에 대한 연구 성과가 쌓였다 할 수 있지만 이 주제에 관한 북한에서의 성과는 별로 알려져 있지도 않다. 그런 만큼 상당 부분은 아직 일방적인 접근인 면이 없지 않다. 남북이 60년의 세월 동안 이룩해 놓은 성과 중에서 좋은 점을 잘 계승하면서 남북 언어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조사 연구와 남북 학자의 상호 협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북의 언어 상황에 대한 관련 분야에서의 성과가 많이 쌓이기는 했지만 남북의 언어 상황에 별다른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의 남북 주민은 별다른 언어적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다. 자유로운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이다. 개성공단 등에서 남북 주민 간의 언어적 접촉이 있기는 하지만 제한적이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남북 언어의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남북 언어 통합에 대해 절실한 필요를 느끼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재중 동포들이다. 재중 동포들은 이미 남북의 언어 차이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재중 동포 사회는 북한의 규범에 기반한 독자적인 언어 규범을 정하여 사용하여 왔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남한에서 간행된 출판물 등이 재중 동포 사회에 보급되면서 남한의 규범에 따른 언어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중 동포들은 현재의 규범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남한의 규범을 수용할 것인지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2009), 겨레말큰사전 보고회-겨레의 꿈을 가득 담겠습니다.
고영근 편(1989), 북한의 말과 글, 을유문화사.
구분관(2002), 남북한어의 공동 순화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김민수 편(1997), 김정일 시대의 북한언어, 태학사.
김민수 편(2002), 남북의 언어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국학자료원.
김선철(2009), 2009년 남북 언어 학술대회 논문집, 국립국어원 보고서
김영수(2009), 남북 언어 규범의 차이와 중국 조선어 규범 문제, 김선철(2009)에 수록.
김응모·최효철(2000), 통일대비 남북한어 이해(수정증보판), 세종출판사.
신명선(2010), 새터민 어휘 학습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양명희(2001), 북한어 연구 논저 해제집, 국립국어연구원 보고서.
이경희(1997), 현행 북한의 맞춤법 규정에 대하여, 김민수 편(1997)에 수록.
전수태(2007), 세계화 시대의 남북 언어, 대한교육문화신문출판부.
차재은(2009), 남북언어 통합방안 연구의 현황, 한국사회언어학회·국립국어원 2009년 공동 학술대회 자료집.
홍윤표(2005), 민족어 발전을 위한 남과 북의 학술적 교류 성과와 과제,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5.
홍중선(2002), 남북 표준어의 통일화, 김민수 편(2002)에 수록.
홍중선(2009), 남과 북의 통합 국어 사전 편찬과 민족어의 통일, 한국사회언어학회·국립국어원 2009년 공동 학술대회 자료집.
홍중선(2011), 겨레말큰사전 미리 보기, 565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 대회 자료집.

Achievements in South Korean Efforts toward the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Language

Cho Namho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1.

At the time South and North Korea formed their separate governments in 1948, they were using a common language and writing system. Dialect differences did exist among the various regions, but active efforts toward language standardization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resulted in something of a consensus as to what language and writing system should be commonly used. With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however, South and North became separated from one another. Not only was it impossible for people to contact one another freely, but it was also extremely difficult to access news or publications from the other side. Inter-Korean relations have improved greatly in recent years, but free interaction remains an impossibility.

It is not difficult to imagine how much difference would arise in language usage when two populations are out of linguistic contact for 60 years. Also, because South and North Korea have maintained different political systems, and the people under them have had different life experiences, there is a strong chance of those differences also being reflected in the language. Indeed, the varieties of Korean used in South and North Korea show quite a number of what could be characterized as these sorts of differences, although they are generally confined to the level of vocabulary.

In addition to these free variations that arose between South and North because of linguistic separation, we also find differences in spoken and written language that arose as the two countries pursued differing language policies. A comparison of South and North Korean language policies might show similar aims and methodologies, but there have been quite a number of differences in the details, with the result that the two countries' languages have taken on rather different aspects.

One example of this has to do with standards for language use. Both sides have codified rules on language use, which serve as a basis for language management. The roots of these can be traced back to the Proposal for "Unified *Hangeul* Orthography", promulgated by the *Joseon* Language Institute in 1933. The rules formulated at that time were accepted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 so there was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languages in the early period after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were formed. Subsequent years, however, would see both countries making their own independent modifications. North Korea revised its language rules three times, in 1954, 1966, and 1987.¹⁾ South Korea also undertook modifications in 1988. The result of these independent modifications of the rules were some marked differences between the spoken and written languages of South and North Korea. Most representative among these is the initial sound rule. In South Korean, a /l/ (ㄹ) or /n/ sound at the beginning of a word is dropped. For instance, the Sino-Korean root meaning "female" is written and pronounced as *nyeo* when it appears in the word *namnyeo* ("man and woman"), but becomes *yeo* when it appears at the beginning of a word, as in *yeoja* ("woman"). This is one of the most salient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language, but the rule is not followed in North Korea: there, the basic form *nyeo* is to be written and pronounced in both cases, giving both *namnyeo* and *nyeoja*. The result of this is a divide between South Korea, which observes the rule, and North Korea, which does not. The difference in language resulting from observance or nonobservance of this rule is widely recognized among residents of both South and North Korea as a representative difference between their variants of Korean.

The concept of standard language has also undergone changes. When the *Joseon* Language Institute decided on an orthography system in 1933, the idea of a *Pyojuneo*, or "Standard Language," centering around the Seoul variant of Korean became firmly entrenched. This term was applied in South Korea, albeit with some modifications to the definition in 1988. North Korea, in contrast, substituted it in the 1960s with the *Munhwaeo*, or "Cultured Language," centering around the variant spoken in the capital city of *Pyeongyang*. This was not merely a change in terminology and regional standard. To go by the account given in the *Joseonmaldaesajeon* (Great Dictionary of Korean), it could be characterized as a change in nomenclature indicative of the society's ideas, as it is described as being a language with revolutionary sophistication and beautiful cultivation to suit the aspirations and life sentiments of the working class. Also, the incorporation into North Korea's *Munhwaeo* of many words not present in the *Pyojuneo* has

1) "The New Korean Orthography" was enacted and promulgated in January 1948 but never put into practice. (Lee Gyeong-hui, 1997:99)

been a major factor in additional differences emerging between the languages used in South and North Korea.

Language purification, an important language policy in both Koreas, has had a great impact on differenti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variants of Korean. This policy---referred to in North Korean terminology as the "language shaping project"---has been a major effort on both sides. The Korean language includes many words of Chinese origin that have long been in use. Also, numerous words from Japanese entered the language over the course of the Japanese occupation, and a large number of loanwords has been incorporated from English and other Western languages. Since Korea achieved independence, there has been a steady push to purify the language by changing these Sino-Korean, Japanese, and Western words into easier, purely Korean terms. In this regard, South and North Korea have adopted similar approaches. The problem is that their independent efforts have resulted in a lack of correspondence in the resulting purified terms.²⁾ Differences have also been seen in the words selected for purification: the target words for one side are not purified by the other, which simply employs the regular term. While not all purified terms have been adopted and put to use in society at large, it could be argued that the application of many of them has exacerbated language differenc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³⁾

In this way, more than sixty years of different language policies without free interchange between the two sides have led to such salient difference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n languages that one can easily distinguish an interlocutor's place of origin from his or her speech. South Korea has seen increased interest in what has often been described as the "differenti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with many efforts over the years to reclaim a homogeneous Korean language.⁴⁾

2) For example, recent dictionary entries show the English loanword *seupun* ("spoon") to have been purified as *sutgarak* and *yangsutgarak* in South Korean and *omoksutkal* in North Korean, while *imcha*, a Sino-Korean word meaning "rental," has been rendered as *senaein* in South Korea and *senaeji* in North Korea (see Koo Bon-Kwan, 2002). Whether the populations actually use the purified term exclusively while declining to use the target word will require separate confirmation, as there are many instances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 where the purified terms are not actually used. In South Korea, the terms *seupun* and *imcha* are still widely employed.

3) Generally, language purification is thought to have been pushed more vigorously in North Korea. Moreover, increasing interaction with foreign countries in South Korea has led to a large influx of vocabulary derived from Western languages, especially English. Purification efforts have been consistently undertaken to address this, but the use of words from English has increased greatly among the South Korean community. North Korea, in contrast, does not have a significant percentage of vocabulary words from English. Interaction is of course rare, but a strong perception of the need for language purification also appears to have had an influence on this. As a result, it is often noted that North Koreans have difficulty understanding the speech of South Koreans, which contains many borrowings from English.

4) The differenti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has often been remarked, but there is some degree of exaggeration. As long as they apply a small measure of care, two conversational partners will have little difficulty communicating.

2.

It was in the late 1980s that South Koreans really began to show an interest in the North Korean language.⁵⁾ Some research on North Korean had taken place before then, but it had been constrained by restrictions on materials for study. In the 1980s, restrictions on non-political documents published in North Korea were relaxed, and academics gained easy access to linguistics-related materials from North Korea. This proved a watershed in studies on the North Korean language, as it was followed by an outpouring of findings and numerous academic conferences on the subject. According to an overview by Cha Jae-eun (2009:5), some 760 scholarly texts on North Korean were released between the 1970s and 2000---fully 84 of them book-length treatments. In terms of overall trends, many of the studies were conducted in the 1990s, and attention to North Korean has diminished somewhat in recent years, with most of the potential research focuses already exhausted.

As an indication of interest in North Korean over the years, the following is a list of major related publications:

Year	Author(s)	Title
1989	Association for North Korean Language Research	North Korea's Language Revolution: Overcoming the Differentiation of the Korean Language
1989	Jeon Soo-tae & Choe Ho-chol	South and North Korean in Comparison: Toward Unification of the Korean Language in an Age of Division
1989	Ko Yong-gun (ed.)	North Korean Speech and Writing
1990	Society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 Study of North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1991	Kim Min-su (ed.)	History of Korean Studies of North Korea, Pts. 1---4
1992	Lee Eun-jeong	How Do South and North Korean Language Standards Differ?
1992	Kim Yeong-bae (ed.)	South and North Korean Dialect Studies: Current Situation and Future Tasks
1993	Ha Chi-geun	Comparative Study of South and North Korean Grammar
1994	Ko Yong-gun	Language Issues in the Reunification Era
1995	Cho Jae-soo	Comparative Dictionary of South and North Korean: A Comparative Lexicon Including the Language as Spoken by Ethnic Koreans in the Former Soviet Union

5) While no recent figures are available, the following table lists the findings from a year-by-year examination of scholarly texts presented to Yang Myung-hee (2001). The years 1989 and 1991 each saw nearly 100 such texts, a markedly higher number than in other years. The list includes books as well as reports published by government agencies.

Year	Through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No. of Texts	68	27	93	43	92	51	61	49	49	40	49	26	48	23

Year	Author(s)	Title
1997	Kim Min-su (ed.)	North Korean Language in the Kim Jeong-il Era
1997	Im Hong-pin	Study of North Korean Grammar
1999	Kim Eung-mo & Choe Ho-chol	Understanding South and North Korean in 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2000	Cho Jae-soo	Dictionary of South and North Korean
2002	Kim Min-su (ed.)	How Are South and North Korean to Be Unified?
2002	Kim Sang-joon	Study of Language in South and North Korean Television News
2003	Boo Kyung-saeng	Comparative Glossary of South and North Korean Agricultural Terminology
2003	Choi Yong-gi	A Study on the History of the Language Policy in South and North Korean
2004	Kim Kwang-soo	Comparative Study of Professional Terminology in South and North Korea
2006	Kwon Jaeil	Grammar Standardization in South and North Korean
2007	Research Studies on Unification Affairs	Comparative Dictionary of South and North Korean Academic and Professional Terminology
2007	Jeon Soo-tae	South and North Korean in the Globalization Era

As the major publications described above show, academic research into North Korean over the years has focused on a range of subjects including not only the respective language policies of South and North Korea but also various areas of Korean linguistics.

Three main avenues of research can be identified in academic studies of North Korean over the years.⁶⁾ First, there are analyses of the language itself. It stands to reason that scholars encountering North Korean publications for the first time after decades of separation would focus on th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the intervening years. Examinations have focused not only on matters of the North Korean variant itself but also language policy and the linguistics research findings upon which it is based. As an example, the book "North Korean Speech and Writing", one of the earlier research efforts on North Korean language, deals with a broad range of topics related to North Korean, including "North Korean language policy, North Korean orthographic rules, North Korea's Cultured Language, "Orthography of foreign borrowings" and "Romanization of Korean" of North Korea, North Korean grammar as seen through the 'Grammatical Standards for the Korean Cultured Language,' critical commentaries on North Korean dictionaries, North Korean education in Chinese characters and writing, North Korean speech, North Korean language etiquette, North Korean proverbs, and actual analyses of North Korean language" (Ko Yong-gun (ed.), 1989).

Second, there are comparative studies of South and North Korean. This involves comparing the languages of the two Koreas to see what differences exist between them. These studies are likewise broad in scope, including comparisons not only of language but also of linguistic theory. One area of

6) The approaches of the different academic publications are not clearly distinct, and in some cases a single publication might include discussions within two or more approaches.

comparison has been professional terminology. Often, language purification has a major impact on the terminology, resulting in the use of different terms in South and North Korea. Some of the scholarly texts cited above also compare professional terminology in the two countries, but additional efforts at comparison have been undertaken in a variety of other areas as well.

Third, there have been suggestions regarding future integration of the languages based on the deeper level of understanding achieved on differenc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⁷⁾ In particular, much attention has been directed at differences in language standards. Cha Jae-eun (2009:7) found that 17 of the 52 studies on specialized topics were focused on "orthography" and "standard language."⁸⁾ It could be argued that interest is greater because both South and North possess codified rules, and these have been a major factor behind linguistic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3.

Studies of North Korean have not been confined to academia. Koreans have a strong sense of being a single people with a single language, so the differenti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has been a major area of interest among the general public. For this reason, South and North Korean language issues have been a subject of continued interest at the government level. An example of this is the frequent mention of language integration in commemorative addresses for *Hangeul* Day. In South Korea, a ceremony is held every October 9 to honor the creation of *Hangeul*, a system specifically devised for the writing of Korean. The Prime Minister delivers a commemorative address at the event, and the issue of South and North Korean variants of Korea was found to have been mentioned in at least seven such addresses since 1990.⁹⁾ The fact that the issue has been consistently addressed in these speeches despite continued changes in Prime Ministers indicates the strong level of societal interest.

For this reason,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an organization tasked with researching language policy, has regarded studies of North Korean and the examination of measures for language unification as one of its most important missions since its foundation in 1991. Accordingly, policy studies of the South and North Korean languages have been conducted nearly every year since the institute's establishment.

The institute's research efforts over the years are listed in the following table.

7) Cha Jae-eun, who analyzed the state of research on South and North Korean language integration measures (2009:7), gives a total of 52 research publications focused on such measures through 2008.

8) The most frequent topic was "overview," which accounted for 27 instances.

9) Confirmed through a search of articles published since 1990 at MediaGAON (kinds.or.kr). The articles showed mention of the South and North Korean language issue in the 1990, 1992, 1993, 1994, 1995, 1997, and 2001 addresses.

Title	Year
Analysis of North Korean Dictionaries (I)	1992
North Korean Language Policy	1992
Analysis of North Korean Dictionaries (II)	1993
Study of the Use of Sino-Korean and Foreign Borrowings in North Korea	1993
Analysis of North Korean Dictionaries (III)	1994
Study of the Use of Sino-Korean and Foreign Borrowings in North Korea	1994
Comparative Study of South and North Korean Foreign Loanwords	1995
Comparative Analysis of South and North Korean Kinship Terminology	1995
Analysis of North Korean Dictionaries (IV)	1995
Analysis of North Korean Dictionaries (V)	1996
Vocabulary in North Korean Literature	1998
How Do Sino-Korean Words Differ in South and North Korean?	1999
Study of South Korean Loanwords Unknown to North Koreans	1999
South Korean Vocabulary Unknown to North Koreans	2000
Study of North Korean Screenwriting Vocabulary	2001
Study of North Korean Cinematic Vocabulary	2001
Annotated Bibliography of North Korean Research Texts	2001
Source Book on South and North Korean Language Purification	2002
Study of North Korean Broadcasting Terminology	2002
Study of North Korean Print Media Terminology	2002
Analysis of North Korea's Student Dictionary of Korean	2002
Basic Research for Bilingual South and North Korean Dictionary	2003
Study of Words Not Listed in North Korean Dictionary	2003
Source Book on North Korean Research on Meaning in Korean	2003
Development of System for Inter-Korean Text Code Conversion	2004
Comparative Study of South and North Korean Linguistic Standards	2004
Construction of North Korean Language Study Materials 1 [1946—2000] (CD-ROM)	2004
Research into history of South and North Korean Language Standards [2005]	2005
List of North Korean Language Research Publications [1946—2004] (CD-ROM)	2005
Comparative Study of South and North Korean Textbook Terminology	2007
Report from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for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Athletic Terminology	2007
Comparative Study of South and North Korean Textbook Terminology 2	2008
Comparative Study of South and North Korean Trading Terminology	2008
2009 Collection of Academic Conferences' Theses on South and North Korean Language	2009

As can be surmised from this list, the primary focus of the institute's efforts has been on investigations of North Korean and comparisons of South and North Korean. In an effort to shift the focus away from document-based research, studies have been conducted since the 2000s on North Korean television, film, and print media texts. Additionally, reports have been published on investigations of South Korean vocabulary words that are not recognized by North Koreans; these studies have focused on Bukhan ital jumin who previously used the North Korean variant.¹⁰⁾ This includes the 1999 "Study of South Korean Loanwords Unknown to North Koreans".

Two of the institute's efforts are not listed in the table above but deserve special mention. First, it published the 1999 *Pyojunggeodaesajeon*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which included around 70,000 North Korean words. When it started compilation work in 1992, there was a great deal of interest in South Korea about the differenti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so North Korean was selected for listing in an effort to combine the vocabularies of South and North. Since direct contact between South and North was not possible at the time, a copy of the *Joseonmaldaesajeon* published by North Korea in 1992 was examined: those words that were deemed as not in use in South Korea were selected for listing as North Korean variants.

The other effort is the "21th Century *Sejong* Project", a ten-year government effort launched in 1998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the informatization of Korean. Part of this plan had to do with North Korean,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North Korean corpus. But limits on the data that could be used for the project prevented the establishment of an adequate body of corpus. Another effort was a comparison of South and North Korean. Conducted over a three-year period starting in 1998, this comparative dictionary compilation effort involved selecting 10,000 frequently used words in South and North Korea, examining differences in their usage in the two Koreas, and organizing the results. Since it was impossible to enlist the assistance of North Korean scholars, a method was selected that involved comparing dictionaries printed in South and North Korea and organizing the entries according to spelling, pronunciation, grammar, and meaning. Whereas the aforementioned *Pyojunggeodaesajeon* had included North Korean terms as viewed from a South Korean standpoint, this effort saw South and North Korean terms indicated and compared side by side. Additionally, an investigation was conducted in 2001 into 3,000 differentiated terms that are used frequently in North Korea and not used in South Korea. The assistant of North Korean defectors was enlisted in the vocabulary selection process.¹¹⁾

10) The term *Bukhan ital jumin* ("North Korean defector") is used to refer to people who have left North Korea for the South. Recent years have seen a marked increase in the number of people leaving North Korea to settle in South Korea. The term *saeteomin* ("People who prepare a new nest") has recently been used to refer to them; this term was selected out of various submissions.

11) See report on yearly Korean language informatization department findings in the archives of the NIKL website (korean.go.kr). The comparative dictionary published through this project is available on the NIKL web page under the title of *Nambukhan Eoneosajeon (South and North Korean Language Dictionary)*.

4.

Over the course of these encounters with North Korean materials, various studies were conducted on South and North Korean, but a major problem plagued recent research, especially in the 1990s. It was something the researchers themselves were well aware of: the fact that the studies were based around scholarly materials published in North Korea and did not investigate the spoken language actually used there. Many documents from North Korea were learned about, but by no means all of them, and the problem resisted solution because of restrictions on access to North Korea, the place where the language was actually used. Accordingly, the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printed materials gave rise to misunderstandings: people came to believe certain language was used in North Korean when this was not actually the case. It was only when researchers belatedly realized their misunderstanding or met actual North Koreans that they realized the truth.

Recent years have seen an environment taking shape in which it may be possible to move beyond these constraints, albeit to a limited degree. The reason is the growing number of North Korean residents in South Korea. As mentioned before, North Korean defectors took part in some of the studies conducted to date, and researchers have used them to examine the reality of North Korean language use.

In the 2000s, a growing number of people left North Korea for the South. As the table below indicates, there are now more than 20,000 North Koreans living in South Korea.¹²⁾ Given continued constraints on free interac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s, this may be characterized as a significant change for studies of the North Korean language.

	Through 1998	1999—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Apr. 2011	Cumulative
Male	829	563	506	469	626	423	509	570	612	666	578	242	6,593
Female	118	480	632	812	1,268	960	1,509	1,974	2,197	2,261	1,798	589	14,598
Total	947	1,04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2,927	2,376	831	21,191

But this approach did have a limitation, as scarcely any of the North Koreans had developed sufficient insights in the language through specialized research. For this reason, such studies are still inadequate to the task of producing any comprehensive determinations about the South and North Korean variants.

Nevertheless, the growing numbers of North Koreans in South Korea have permitted easier access to a greater variety of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n. Today, a new task has surfaced. Since North Koreans come to South Korea to live, they are obligated to establish themselves in South Korean society.

12) Figures taken from "Statistical Data" section of Ministry of Unification home page (<http://www.unikorea.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365>).

In the process, they are exposed to all the issues that come with linguistic differences between the Koreans. The amount of information they can use is restricted by such differences and the use of expressions adapted from English or foreign languages, and they face difficulties owing to their inability to communicate smoothly with South Koreans (Sin Myeong-seon, 2010:7). In line with the growing need for studies and education efforts to assist them in settling,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related research. Over the course of efforts to address the issue of providing these individuals with education in South Korean, we have gained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language differences, which will serve as an invaluable experience in future integration of the two language varieties.

Meeting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linguists are essential as a means of overcoming the limitations to approaching language difference through academic texts. Continued efforts have been made to organize meetings with North Korean linguists, but the process has been a tortuous one, since any encounter between linguists from the two Koreas cannot avoid being strongly influenced by the inter-Korean political situation. Attempts at meetings between South and North began in the 1990s, but no means existed for the two sides to contact each other directly. Fortunately, ethnic Koreans in China, who are capable of interacting with both sides, were available to act as intermediaries, and opportunities for encounters began to be arranged with their assistance. For various reasons, many ethnic Koreans relocated to China from the time before the Japanese occupation and having been living there ever since, primarily in the country's northeast.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they could only interact with North Korea, but once those relations were established they began having interactions with South and North Korea both. With the increase in exchanges among Korean-Chinese linguists and Korean scholars, the former were able to arrange for inter-Korean meetings.

Through the efforts of scholars, various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s with participation from South and North Korea were organized at the private level beginning in 1994 (Hong Yun-pyo, 2005). Most of the participants were South and North Korean and Korean-Chinese linguists. Perceiving the need for encounters with North Korea,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also began organizing regular inter-Korean meetings in the 1990s. As a result, it was able to participate in seven academic conferences to date. As South and North Korean linguists had the opportunity for dialogue through their participation in these conferences, a wealth of information on North Korean was obtained, but many difficulties still plague meeting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scholars. Conferences are organized each year, but none has established itself as a regular event, and the conferences often cannot be held because of the political circumstances. The following table provides a brief list of international conferences where the NIKL has participated over the years:

Meeting	Date	Focus
1st	Aug. 1996	Sixteen Presentations on South and North Korean
2nd	Dec. 2001	Studies of Unified Development of Korean and Dialectal Variants
3rd	Nov. 2003	Integrating Collections of Korean Linguistic Heritage and Developing an Indigenous Language System
4th	June 2004	Integrating Collections of Korean Linguistic Heritage and Enriching the Development of an Indigenous Language System
5th	Dec. 2004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on Korean Dialect Research and Corpus Studies
6th	Dec. 2005	Change and Unified Development of Korean Vocabulary Composition
7th	Nov. 2007	Current Situation and Prospects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5.

One noteworthy undertaking related to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has begun in recent years. This is the compilation of *Gyeoremalkeunsajeon*. For this project, South and North Korea each organized a compilation committee, and the two sides are working together on a dictionary including words used in South and North Korea. In contrast with previous studies over the years that saw no direct contact between South and North, this effort involves the creation of a dictionary through guidelines and a division of labor established through meetings and discussions among South and North Korean scholars.

Since the formation of the joint compilation committee in February 2005, with an establishment ceremony and inaugural compilation meeting, four inter-Korean meetings have taken place each year, for a total of twenty to date. The meetings are divided into sections on entries, new words, informatization, writing, and unified language standards¹³⁾; following a general meeting, the sections convene to establish specific preliminary compilation guidelines and examine issues raised during the preliminary compilation process. There are also separate compilation organizations in South and North Korea, each of which is responsible for half of the compilation effort. With each successive meeting, there has been less guideline formulation and more actual draft writing and check; starting with the 17th meeting, the general session has been immediately followed by a writing meeting. There, discussions are held on the drafts written and reviewed by South and North Korea, and a draft agreement is decided upon. Efficient compilation would dictate that the compilation take place through the two sides working together in the same

13) Among the five sections, the new vocabulary section discovers and explains new words that are not recorded in current dictionaries, while the informatization section handles various informatization duties necessary for the computerized dictionary compilation process (e.g., draft administration) in keeping with a dictionary compilation environment that makes use of computing technology.

environment. Since circumstances do not permit this, the current method involves dividing the compilation labor up and meeting regularly for discussions. Already, much progress has been made in the necessary preparations for compilation, including the selection of entries, and a great deal of effort is being put into draft writing and review. The project is proceeding according to a target of 300,000 entries, and while the original plan was to publish the dictionary in 2013,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t will take somewhat longer.

Some explanation appears to be in order for the unified language standard section. When South and North Korea are working together to compile a dictionary, differences in language norms inevitably present a major obstacle for the process. Indeed, the two sides even differ in the alphabetic order that they use to list words. Accordingly, a specialized committee was established to discuss unified language norms. This is a separate organization that examines differences in South and North Korean writing standards and engages in discussions and decision-making on the various issues raised in connection with them. Since it began work with the fourth meeting in 2005, it has examined various issues raised during the preliminary compilation process in connection with writing norms, including alphabetical order, spacing, grammatical terms, punctuation, spelling of loanwords, the initial sound rule, and the insertion of the consonant "s" in compounds. Some consensus has been reached, but continued examination efforts are under way on certain areas where agreement has been difficult to reach, including the initial consonant rule. The agreement that has been reached, however, is not binding with regard to the writing norms currently operating in South and North Korea; it only applies to *Gyeoremalkeunsajeon*. This is because the matter has not been officially discussed by South and North Korean governmental authorities.

As noted above, many researchers have offered suggestions for integration of the South and North Korean variants, but most of these have been made by individual researchers, rather than being the product of discussions by South and North Korean scholars meeting together. During the dictionary compilation process, however, an opportunity unavoidably arose for detailed examination of the language standards applied in South and North Korea. While this was not an official finding toward the integration of the two language variants, it appears to offer possibilities as an important underpinning for more specific discussions on integration at some future time.

As can be understood from the above discussion, the compilation of *Gyeoremalkeunsajeon* is distinct from previous studies in various respects. Most notably, it has the major advantage of allowing South and North Korean scholars to meet and engage in continued discussions four times a year. The fact that the aim is to produce a dictionary is also significant. By its nature, a dictionary is a vessel for containing all things related to language. As such, the project has enabled detailed comparison and examination of linguistic differenc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at are incomparably deeper than what has occurred at previous academic conferences.

6.

In the time since the North Korean language became a major focus of interest in the late 1980s, such a vast array of related research findings has been amassed that it was difficult for me to give them a detailed treatment in a limited space. We have also seen the broadening of our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over time, as well as many suggestions for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Despite all this, however, question remains as to whether we yet have a sufficient grasp on the reality of the North Korean language. It is essential that we be able to freely examine related materials for research topics, but inter-Korean relations have not yet reached the point where this would be possible. South Korea has amassed a substantial store of research on North Korean, but little is known about North Korean findings on the topic. As a result, a substantial portion of the research is not without a certain lopsidedness in approach. In order to achieve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while carrying forward the best of the achievements realized by the two countries over the past sixty years, there will need to be--and, indeed, will be--more studies and more collabo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scholars in the future.

Although much has been achieved in areas related to the linguistic situations of South and North Korea, this has not had much impact on the actual situations themselves. Most residents of South and North Korea encounter little in the way of linguistic difficulties in their lives. Since they have not engaged in free interaction, they have not had any real impact on one another. Language contac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s has taken place in locations like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but only to a limited extent. As more and more North Koreans defector take up residence in the South, language difference is arguably becoming a real issue.

The group that is truly sensing the need for linguistic integration and consistently raising issues in connection with it is the Korean-Chinese, ethnic Koreans in China. Members of that population have encountered many difficulties as a result of this language difference. Their community had previously established and applied its own language standards based on those of North Korea. Since the 1990s, however, the dissemination of South Korean publications and other materials among Koreans in China has led to an increased use of language based on the South Korean standards. Consequently, this population is facing real confusion as to whether to maintain its current standards or incorporate those of South Korea. This issue will also require sufficient examination in the days ahead.

References

- Cha Jae-eun (2009) 'The Current State of Research on South and North Korean Language Integration Measures. Collection from 2009 conference jointly organized by the Sociolinguistic Society of Korea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 Ko Yong-gun (ed.) (1989) North Korean Speech and Writing. Eulyoo Publishing.
- Koo Bon-Kwan (2002) Study of North and Korean Joint Purification Measures.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 Hong Jong-seon (2002) "Unification of Standard South and North Korean" in Kim Min-su (ed.) (2002).
- Hong Jong-seon (2009) Compilation of an Integrated South and North Korean Dictionary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Language. Collection from 2009 conference jointly organized by the Sociolinguistic Society of Korea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 Hong Jong-seon (2011) An Advance Look at Gyeoremal-keunsajeon. Collection for national Korean studies conference to commemorate the 565th anniversary of Hangeul.
- Hong Yun-pyo (2005) Achievements and Tasks of South and North Korean Academic Interchange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Language. Fifth collection of papers for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in Seoul.
- Jeon Soo-tae (2007) South and North Korean in the Globalization Era. Korean Education & Culture Newspaper Publishing.
- Joint Board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for the Compilation of Gyeoremalkeunsajeon (2009) Briefing on Gyeoremalkeunsajeon: Capturing the Dreams of the People.
- Kim Eung-mo & Choe Ho-chol (2000) Understanding South and North Korean in 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Revised Edition). Sejong Books.
- Kim Min-su (ed.) (1997) North Korean Language in the Kim Jeong-il Era. Thaeaksa.
- Kim Min-su (ed.) (2002) How Are South and North Korean to Be Unified? Gukhakjaryowon.
- Kim Seon-cheol (2009) 2009 Collection of Academic Conferences' Theses on South and North Korean Languag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report.
- Kim Yeong-su (2009) "Differences in South and North Korean Language Standards and the Issue of Chinese Korean Standards" in Kim Seon-cheol (2009).
- Lee Kyung-hee (1997) "On Current North Korean Rules of Orthography" in Kim Min-su (ed.) (1997).
- Sin Myeong-seon (2010) Basic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Vocabulary Instruction Materials for North Korean Defectors.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 Yang Myung-hee (2001) Annotated Bibliography of North Korean Research Texts.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report.

주제 발표

Topic Address

장상관 CHANG Shang-Kuan



- 타이완 국립정치대학 교수
- 타이완 국립정치대학 중국어센터장
- 타이완 국립정치대학 외국어·문학대학 번역센터장
 - Professor,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 Director, Chinese Language Center,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 Director, Translation Center, College of Foreign Languages and Literatures,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타이완의 국어에 대한 신화 해체: 여럿으로 이루어진 하나

장상관
타이완 국립정치대학

1. 서문

국가 이미지 측면에서 겉으로 보기에 통합되어 있는 타이완은 사실 많은 분야에서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는 나라이다. 타이완에 거주하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한족의 후예들, 다시 말해 생물학적으로 중국 인종인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경시되거나 잊혀 온 다른 인종들, 즉 1천 년 이상 타이완에서 살아온 다양한 원주민 집단들 역시 존재한다. 최근에 점점 더 많은 외국인들이 결혼, 직업과 다른 통로를 통해서 타이완 사회에 융합되거나 통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타이완은 실제로 특별히 매우 다양화된 공동체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 때문에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특히 국어 확립(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language)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게다가, 세계화의 파괴적인 영향력은 언어 문제의 복잡성을 더욱 심화하고 있다. 수년 동안, 언어라는 고통스러운 문제 때문에 타이완 정부는 모든 소수 민족이 따를 수 있는 실용적인 국어 정책을 수립하는 것과 그것을 실행하는 데에 대한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다. 이것은 보기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타이완과 중국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적인 불화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두 정치 체제 사이의 경쟁적 관계는 문화적 정통성에 관한 경쟁으로 변형되었다. 이 경쟁은 중국 정부에 의한 유교주의 전 세계화 운동과 타이완 정부에 의한 정체자(正體字) 사용 장려 정책으로 각각

구체화되었다. 정체자(正體字)는 일반적으로 번체자(繁體字)라고 불리는데 타이완 정부가 간체자(簡體字)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로고마키아(logomachia)’, 즉 중국과 타이완 사이의 ‘글자 전쟁’은 타이완 내의 복잡한 언어 문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한데, 그 이유는 언어 전쟁이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언어적 선호나 편견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고 고민해야 할 보다 중요한 무엇인가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에서 이 논문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과거 타이완에 존재했던 언어 문제를 역사적으로 짧게 되돌아보며 비판하는 것이고, 둘째는 해체주의적 시각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2. 타이완의 언어적 다양성에 관한 역사적 고찰

우선 약 150년 전의 타이완의 역사적 배경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1895년 갑오전쟁이 발발하기 전, 타이완은 법률상 청 왕조의 정치적 권력 아래에 있었지만 일본이 승자로 등극했던 전쟁으로 인해 타이완은 일본에 합병이 되었고, 타이완에 대한 일본의 정치적 주권 행사는 1945년 일본이 무조건적으로 동맹국에 항복했을 때가 돼서야 종결되었다.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내전은 1949년 국민당 정부가 타이완으로 망명하는 것으로 결말이 났고, 이로 인해서 타이완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복잡한 언어적 상황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생성되었다. 그 이유는 정치적 망명이 동시에 언어적 이주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서로 다른 중국 방언을 사용하는 약 2백만 명의 중국 본토인들이 타이완으로 이주했다. 현재, 타이완은 국민당의 지배하에 있지만, 정치적으로 최대의 라이벌인 민주진보당이 각각 2000년과 2004년에 총선거에서 승리했다. 대통령 선거의 새로운 장이 2012년 1월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타이완의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를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그리고 중국이 점차적으로 세계의 정치, 경제 그리고 군사 분야에서 또 다른 초강대국(superpower)으로 그 입지를 굳혀 가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정통성에 대한 투쟁은 이전보다 더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부터는 타이완의 정치적 현실과 관련된 언어 문제를 살펴보자. 청 왕조 시대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타이완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주로 푸젠 지방과 광둥 지방에서 이주해 온 한족(정확하게는 민난(Minnan) 사람들과 하카(Hakka) 사람들과 오스트로네시아의 후손들로 추측되는 원주민들이었다. 청 왕조의 행정가들은 다양한 언어 배경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당시 청 왕실 법원의 ‘공식’ 언어였던 만다린어/중국어(중국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머지 타이완 주민들은 공식 언어에 ‘능통’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이 극히 낮았고 사실상 청 정부가 의 무적으로 내세운 국어 정책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역설적으로 청 왕조 당시 현실적으로 부재했던 국어 정책이 언어의 피난처를 조성한 셈이 되었다. 즉 이때의 언어는 행정가들이 문화적 정체성과 국민의 정치적 충성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 정치적 기제가 아니라 단순히 의사소통 수단이었던

것이다. 달리 말해, 당시 안정적이었던 정치적 상황은 후에 일본이나 국민당 정부 같은 식민주의자나 지배자들이 추구했던 통합된 국어에 대한 긴박한 필요성과는 거의 상관이 없었다.

청 정부에 의해 창조된 이 ‘언어의 천국’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지만 불행하게도 갑오전쟁의 결과로 타이완이 일본에 합병된 이후 언어의 지옥으로 강등되었다. 일본 정부는 통치권을 지키고 합병을 가속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단계적으로 식민 통치를 받는 타이완 사람들이 공식 석상에서 민난 방언이나 하카 방언 또는 다른 원주민 언어와 같은 그들의 고유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 결과는 흥미진진한 역설로 가득 찬 언어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 타이완에 정착한 일본인은 대부분 도쿄 지역 대신에 규슈 지방에서 왔는데, 이들은 사실상 소위 표준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처럼 방언을 구사했던 교사들 때문에 식민 지배를 받던 타이완 사람들이 올바른 강세를 가진 표준 일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항상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일본 교육의 영향을 조사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던 교육자 야마자키 무츠오(Yamazaki Muzuo)는 타이완 사람들이 말하는 이상한 일본어를 들었을 때 불평하면서 그들을 언어적으로 열등하다고 무시했지만 실상 그는 ‘번지수를 잘못 짚었던 것’이었다. 겉보기에는 통합된 것으로 보이는 일본어에 이미 내재되어 있던 다양성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그리고 그 차이는 정치적 또는 비자연적인 요인들로 인해 위계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또한 언어 학습은 종종 민족적 배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즉 그 언어를 배우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하는 외국인보다 모어 화자가 자신들의 언어를 ‘당연하게’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식민 통치 시절, 룡잉쥡(Long Yingzong)과 황펑쯔(Huang Fengzi) 같은 타이완 원주민들이 저명한 문학상을 수상하거나 뛰어난 일본어 작품을 통해 일본인의 합당한 존경을 받으며 탁월한 언어적 재능을 보인 사례들도 많다. 그리고 통계상으로도 일본어 구사 능력에 관해서 타이완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일본 본국의 아이들보다 뛰어났다. 확실히 사람의 언어 능력이 반드시 인종적 배경과 직결된 것은 아니다. 가장 흥미로운 역설 중 한 가지는 타이완의 언어(들)이 일본어에 역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점인데, 이는 일본 식민 정치인들이 제거하거나 되돌리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부분이었다. 타이완 사람들이 사용하는 ‘피진 일본어’는, 본토 일본어 화자들에게 상당히 어색하게 들리지만 식민지 타이완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었고,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비)표준 일본어로 스며들어 갔다. 이것은 일본어 순수주의자조차도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사실이었다. 두 언어가 어떤 식으로든 교환될 때, 보다 ‘강력한 언어’가 더 ‘약한 언어’에 대해 일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간단히 말해서 어떤 언어도 다른 언어와 접촉을 하고 있는 한 순수성을 유지하며 고스란히 남아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타이완 식민 통치 기간 동안 일본의 언어 정책은 일본 정부가 예상했던 만큼 성공적이지 않았다. 비록 일부 타이완 사람이 훌륭한 일본어를 배우기는 했지만, 대다수의 타이완 사람들은 일본인에게 말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모든 경우에 여전히 모어를 고수하였다.

역사는 가끔 반성을 위한 거울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도 있다. 국민당이 1949년 타이완으로 후퇴했을 때, 교육 행정가들은 일본인 정부의 끔찍한 경험에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했다. 국민당 정부 시절, 특히 1950년대 초반, 교육부는 ‘만다린어/중국어 말하기 캠페인’을 열성적으로 시작했는데 이것은 모든 학생들이 공공장소에서 타이완 언어를 피하도록 강요하는 정치적-언어적 운동이었다. 위반자들은 벌금을 물어야 했고 그 결과로 무시를 받아야 했다. 예상된 대로 캠페인의 제한적인 성공은 그저 ‘일시적인 성공’일 뿐이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타이완 사람들이 요즘에는 만다린어/중국어를 말할 수 있다고 해도, 언어 통합을 통해 정치적 통합을 꿈꾸었던 국민당 정부의 생각은 결코 실현되지 못했다. 국어 제정을 목표로 삼았던 캠페인의 실패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만다린어/중국어는 실제로는 중국 북부 지방의 방언이기 때문에 남부 주민들이나 중국의 다른 지방 출신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일종의 고유한 강세를 가지고 만다린어/중국어를 말하고 있다. 타이완 사람이 타이완 방언을 말한 것으로 인해 벌금을 냈던 반면, 다른 지방 방언을 사용하는 본토 사람들은 불공평하게 벌금을 물지 않았다. 이러한 불공평한 현실은 많은 타이완 사람들에게 위장된 차별로 여겨졌고, 만다린어/중국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은밀한 불만은 이후에 모여 사용 권리를 요구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둘째, 나라가 처음 세워졌을 때 공화국의 국어로 만다린어/중국어를 선택한 것은 정치적인 결정이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어떠한 중국 방언이라도 의회 내에서 그 방언을 사용하는 의원들이 타 지방 언어 사용자들보다 정치적인 힘이 세다면 국어로 선택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오늘날 타이완의 독립 운동이 여세를 몰아가고 있고 점점 더 많은 타이완 사람들이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함에 따라, 만다린어/중국어의 특권적 지위가 점점 더 도전을 받고 있다. 셋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언어적으로 다양화된 중국인들을 통합하는 것은 구어보다는 중국어 표기/문자(즉 한자)이다. 모든 중국 한자는 화자의 방언에 맞춰서 발음될 수 있고, 이론적으로 중국어 표기 체계는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가 그의 해체주의 프로그램에서 경고했던 음성중심주의의 위험에 대해 면역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만다린어/중국어에 국어라는 특권을 준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암시하며, 또한 언어가 동등한 관계에서 다뤄지지 않는 이유는 전적으로 정치 때문이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현재, 타이완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언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으며, 세계화라는 압도적인 흐름에 의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세계화는 또 다른 예상치 못했던 딜레마도 초래하고 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일본의 식민주의자들과 국민당 정부는 일본어든지 만다린어/중국어든지 국어 장려 운동을 통해서 민족적 차별성과 언어적 차별성을 제거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나 ‘하나의 국가, 하나의 언어’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균질적인 집단으로 통합하겠다는 꿈은 여전히 많은 정치적 이상주의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만약 이미 ‘많은’ 언어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꿈의 모순이다. ‘하나의 국가’라는 말은 이미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공존을 항상 가정하는 것이고, ‘하나의 언어’라는 말은 다른 언어들

이 무시되거나 억압받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전제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유일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차이점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그러나 차이점의 본질이 유일성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지 않을까? 유일성이라는 것은 본질상 그 자신 외에 다른 것과는 공유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국가’든지 ‘하나의 언어’든지, 유일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의 종류’가 되기 위해서는 차이점을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모순적으로 보인다. ‘하나의 국가’를 세우고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통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력이나 폭력에 의지해야 할 것이다. 통합이 차이점의 근절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가능하다. 만약 이 주장의 근거가 합리적이라면, 2000년에서 2008년까지 민난 방언을 장려하기 위해 민주진보당 정부가 했던 것은 이미 진부한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선행자들, 다시 말해, 식민지 기간의 일본 정부와 1950년대 국민당 정부처럼, 민주진보당 정부는 국가 정체성과 정치적으로 올바른 권력을 가진 정부를 확고히 하기 위해 국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 그 결과로 민난 방언은 국가 기제의 지속적인 선전을 통해 ‘타이유(Taiyu, 臺語)’와 동일 단어가 되었는데, 이 용어는 타이완에서 사용되는 모든 언어들에 지칭하는 것이고, 이러한 언어적 권리 침해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타이완의 다른 소수 민족들의 기분을 의심의 여지 없이 상하게 했다. 민주진보당 정부가 매달리고 있는 신화는 타이완을 독립된 하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의 통합된 언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당이 2008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을 때, 민주진보당 정부는 언어 정책 실행 부분에서 좌절을 겪었다. 그리고 꽤 흥미롭게도 국민당은 권력을 잡은 후부터 또 다른 언어 전쟁에 개입하고 있다. 이번의 전쟁은 본토 중국을 포함하고 있으며, 분쟁의 초점은 문화적 정통성에 있다.

만약 타이완의 식민지 시대에 있었던 일본어와 모든 타이완 언어들 사이의 언어 주권 투쟁이 문화 간에 있었던 것이라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타이완과 중국 간의 문화적 정통성에 관한 투쟁은 오히려 문화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 문화의 유일한 대표 지위를 얻기 위한 공개적 또는 비공개적 전쟁이, 이미 언급한 것처럼, 타이완의 정체자(또는 번체자) 확산 운동에 맞서기 위해 중국 공산당 정부가 강화하고 있는 유교주의 원리 수립으로 표현되고 있다. 중국 문화 혁명 동안에는 인습타파주의자들의 중요 대상이었던 유교주의가, 새삼 경의의 대상이 된 현상의 모순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가치가 있지만, 이 논문의 제한된 길이 때문에 잠시 미뤄 뒤야 할 문제이다. 이 논문의 주제와 관련해서, 더 흥미로운 것은 타이완과 중국이 정체자 또는 간체자 사용을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있는 현상이다. 초기에 언급했던 것처럼 언어적으로 분화된 중국인을 통합하는 것은 구어 중국어가 아니라 중국어 한자이다. 그런 점에서 만약 타이완과 정치적으로 재통합하는 것을 중국이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면 중국이 간체자 사용에 대해 강성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데, 이는 간체자가 거의 모든 과거의 기록이 정체자로 쓰인 중국의 전통에 대해 명백하게 반하여 새롭게 발명된 표기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타이완이 문화적 정통성의 이미지를 장려하기 위해 정체자 사용을 주장한다 해도 이러한 문화적인 움직임은 명백하게 정치적인 동기를 갖고

있다. 다수당 국민당 정부가 커다란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국민당이 본토 중국과 재통합을 은밀하게 계획하고 있다는 민주진보당 정부의 비난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데 그 이유가 있다. 정체를 장려하면서 국민당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이 문화적 정통성 전쟁에서 중국과 경쟁할 때 우세를 점할 수 있는 이점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국민당 정부가 정치적인 성향에도 불구하고 타이완 사람들의 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타이완은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분리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 국민당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궁극적으로 재통합을 원하는 사람들을,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애초 희망에 반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다.

정체자나 간체자 둘 중 하나를 지지하는 모습은 사실 보기보다 훨씬 심각하다. 우선 이 모습은 언어의 소리가 시간이 흐르면 변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보기에는 안정적인 표기법도 그 자체로 지속적으로 변형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른 언어들과의 접촉도 확실히 변화를 야기하고, 또한 외부에서의 영향이 없어도 언어는 여전히 화자들의 다양한 사용 습관을 통해 여러 가지 변화를 보여 줄 수 있다. 요약하자면, 문어든 구어든 어떤 언어도 영원히 처음의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고, 영원히 자기 변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국어를 제안하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언어적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모든 시대에 실패 없이 기능할 수 있는 불후의 본보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하더라도 어려워 보인다. 우리가 정체자와 간체자의 분화 사례에서 본 것처럼, 어떠한 표기법을 고수한다고 하더라도, 한자-중국 역사에서 증명된 것처럼 다양한 형태와 양식을 만들어 내는 중국어 문자-의 완전성은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다. 더 나쁜 것은 정체자나 간체자 중 하나만을 사용하기로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사람들에게서 쓰기와 읽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이것은 언론의 자유에 기초한 근대 민주주의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3. 국어라는 신화에 대한 고찰

타이완의 복잡한 언어 문제를 깊이 다루는 것은 상당히 장시간의 연구가 될 것이다. 타이완 사람들의 실생활 언어 사용에는 과거 식민주의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 간결하게 하기 위해, 자크 데리다가 그의 해체주의 프로그램에서 제안한 세 가지 전문 용어, 음성중심주의, 로고스중심주의(문자언어보다 음성 언어를 중시하는 태도) 그리고 남성중심주의로 그 문제들을 접근해 보고자 한다.

우선 우리는 식민주의자들이 국어 정책을 실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식민주의자들의 횡포를 상쇄하기 위해 식민 통치를 받는 국민의 저항은 더욱 거세졌다는 것을 타이완의 역사에서 간파할 수 있다. 그리고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힘과 저항 간의 관계에 대해 말했던 것을 어렵듯이 확신

할 수 있다. 청 정부는 중국을 정복했던 외부 세력이었지만, 언어적으로는 ‘방입 정책’을 실행했고 이것은 뜻밖에 정치적으로 옳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왕립 재판소에서 사용되는 공식 언어가 만다린어/중국어였지만,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다양한 방언들은 그 영향을 받지 않았다. 모든 방언은, 사용자가 일상생활에서 그 방언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한, 충분히 사용될 수가 있었다. 그 결과로 모든 방언들이 어느 정도는 널리 보급되었다. 이전에 설명한 대로, 청 정부가 추구했던 정치 문화적 통일성은 한자의 통합 능력에 있는데, 이 한자는 다음의 독점에 대항하는 ‘조용한’ 표기법이다. 달리 말해 한자가 다양한 발음으로 표현될 수 있다면 중국 방언들의 차이점은 위계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적인 것이다. 만다린어/중국어는 지정학적 이유로 공식 언어로 채택되었는데, 수많은 왕조의 수도였던 멋진 북동부 도시인 베이징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이다. 물론, 만다린어/중국어의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가 데리다가 경계했던 음성중심주의라는 문제로 연결되기는 하지만, 이것은 특별한 집단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정부 요원이 되고자 하는 중국 엘리트들을 위한 언어이기도 하고, 또한 이 언어 자체가 나머지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거의 주지 않기 때문에, 음성중심주의 문제는 주로 지식인들의 문제로 남아 있다. 데리다는 서구 사회가 쓰기보다는 말하기를 선호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사람의 사고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소리와는 반대로 쓰기는 파생적이고 이차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이것은 플라톤과 다른 서구 철학자들이 강하게 주장했던 ‘기호의 기호’라는 것이다.(Derrida 1976) 쓰기보다 말하기에 집착하는 것은 아마도 엄격한 국어 정책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같은 나라에서 다른 언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되었다. 순수언어주의자는 오염의 염려가 없는 순수한 동질의 언어를 상상하곤 하는데, 우리는 이것이 어리석은 환상이란 것을 알고 있다. 그 이유는 모든 언어가 인간이 한 부분으로 속해 있는 물질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는 월터 벤자민(Walter Benjamin)이 지적한 것처럼 친족 관계와 관련되는데, 관계란 그 용어 자체가 암시하는 것처럼 위계보다는 관련성과 상대성을 내포한다. 어떤 사람이 세계에 존재하는 한 실체를 지칭하기 위해서 apple, pome d'amour, pinguo(蘋果), lingo(りんご) 등으로 말할 수 있다. 이때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내포를 지닌 각 단어가 지닌 소리는, 어느 소리도 소리 가치의 기준으로 볼 때 다른 소리보다 좋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해체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언의 공존을 허용했던 청 정부의 그다지 엄격하지 않은 언어 정책이 보다 성공적인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성공은 아무도 ‘공식’ 언어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한다고 해서 처벌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정치가로서의 야망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 정치학의 언어, 이 경우 만다린어/중국어가 실제로는 일반인들의 생활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에도 이 성공이 기반하고 있다. 국어 확립 문제에 대해서 일본식민주의자들, 국민당과 민주진보당 정부가 과거에 했던 것과 비교할 때, 우리가 언어 통합과 정치 통합 간의 관계를 연구할 경우 ‘여러 개의 국어’라는 개념을 옹호한 것처럼 보이는 청 정부의 느슨한 언어 정책은 우리의 특별한 관심을 받을 만한 대상이다.

만약 본고에서 논의된 일본어나 만다린어/중국어 또는 민난 방언 같은 특정한 구어에 특권을 주

는 음성중심주의가 타이완의 국어 확립 실패에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면, 언어 기호의 의미를 절대적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단어중심주의는 그 점에서 공범자이다. 우리는 ‘실재물(realia, Vlahov & Florin 1970)’의 관점에서 각 언어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특별하다는 점 때문에 모든 언어들이 동등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언어들이 구별되는 차이점을 갖추고 있다고 가정한다 해서, 그것이 언어가 전적으로 고립된 것이고 다른 언어들과의 잠재적인 접촉에서 면제된 것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모든 언어들은 반드시 번역의 대상이 되고 그 결과 의미 교환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언어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내용 속에 어떠한 외부 요인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데리다는 모든 언어 기호가 인용 기호 안에 놓일 수 있고, 인용되거나 무한정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용성’ 혹은 ‘상호 작용성’은 데리다가 피하는 것으로, 의미의 차이를 야기한다. 여러 가지 비슷한 점을 볼 때, 모든 언어가 국어가 되었던 아니었던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상태, 다시 말해, 언제나 외부와 접촉하고 변형되고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언어 기호에 대해 완전하게 결정된 의미가 있다는 것은 의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달리 말해 어떤 언어도 그 의미가 영원히 고정되어서 변하지 않는 ‘초월적인 기표(signifier)’로 기능할 수 없다. 일본어, 만다린어/중국어 그리고 민난 방언의 경우를 통해 본 것처럼, 각각의 언어는 소위 표준 발음과 엄격한 의미 해석에 집착하게 될 때 음성중심주의뿐만 아니라 단어중심주의에 간혀 버린다. 결국 단 하나의 언어만 살아남게 되고 공존하는 다른 언어의 생명이나 생존은 희생되어야 한다. 문제는 어떤 이유로든 정부에 의해 국어가 정해졌다고 한다면, 그 언어 자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는 없는데, 이는 사람들이 그 언어를 말할 때 성조, 강세, 음조, 속도, 내용 등이 때때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언어 자체가 내부적 변화와 외부 영향의 결과로 인해 항상 ‘순수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 이제 우리는 한어를 국어로 정하는 것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우리는 공존하는 다른 언어들을 희생시키지 않고 한 언어를 국어로 정할 수 있을까? 또는 보다 긍정적으로 표현할 경우, 우리는 한 언어를 국어로 정하고 동시에 다른 언어들도 장려할 수 있을까? 나는 결론에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데리다에 따르면, 남성우월주의란 의미를 부여할 때 남성이나 부계에 특권을 주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개는 사람의 제일 친한 친구이다(Dogs are men's best friend).”라는 잘 알려진 문장을 보자. 이 문장에서 성별이 구별된 단어 ‘men's’는 실제로 남자와 여자를 모두 가리키지만 남성형만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남성우월주의적 언어 습관으로 인해 차이점들이 제거되고, 그것이 전달하기로 되어 있는 대로 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번 연구와 관련해서, 일본 같은 식민 통치자가 타이완의 다양한 원주민어를 열등하거나 야만적인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그에 따라 언어 침해를 강행하게 될 때, 남성우월주의적 폭력이 실행된다. ‘모국’으로서의 일본은 타이완 원주민들에게서 출생 이후로 배워왔던 모어를 박탈했다. 비록 한 사람의 모어가 인생 전체

에서 지배적인 언어가 아니더라도 그 모어는 그 사람의 사회 문화적 정체성에 깊고도 심오한 영향을 행사하는데, 이는 모어가 그 사람의 지적 발달에 필수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 밝혀져 왔다. 그런 이유로 모어를 강탈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기표현에 관한 생득권과 그가 특별한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전에 주장한 바와 같이 언어들 간의 차이점은 우리가 속한 세계를 보다 완전하고 폭넓게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언어의 죽음은 인간 지식을 보여주는 퍼즐에서 중요한 조각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 모든 언어는 우리 인간들이 서로 연결된 것처럼 보존되어야 하고 우리들의 지식은 통합되어야 한다. 일본이 타이완 사람들에게 자행했던 것과 같은, 모국 그리고 ‘아버지 언어(father language)’라는 이름으로 부과되었던 남성우월주의적 폭력은, 타이완 언어들 속에 반영되어 있는 문화적 다양성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유사하게 국민당 정부나 민주진보당 정부도 마찬가지로 남성우월주의적 정책을 실행했는데, 이들은 모두 어떤 언어라도, 만다린어/중국어 또는 민난 방언이든지 간에, 타이완의 국어가 되기 위해서는 미화되어야 하고 발전되어야 한다는 모순을 알지 못했다. 전체 가족에 대해서 아버지가 힘을 행사하는 것처럼, 다른 언어를 지배하는 공식 언어가 원래는 한 민족 집단의 아주 쇠약한 모어였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세밀하게 따지자면, 아버지 언어(father language)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남자들이 여주들에 의해 태어나는 것과 똑같이, 스스로 아버지 언어라고 주장하는 언어들도 위장된 모어이다. 같은 논리로 볼 때, 어떠한 가부장적 언어도 한 나라의 ‘그’ 언어가 될 수 있는 언어적 특권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는다고 우리는 주장할 수 있다. 타이완의 모든 언어들, 만다린어/중국어, 민난 방언, 하카 방언, 원주민 언어들, 그리고 미래에 타이완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일부 외국어들까지 언어적 생득권의 차원에서 모두가 동등하며,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가족 내에서 태어난 형제들처럼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

4. 결론

타이완이 갖고 있는 국어에 관한 신화를 깨기 위한 음성중심주의, 단어중심주의, 그리고 남성우월주의는 하나로 축소될 수 있다. 언어 그 자체가 본래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별개로 하고, 언어는 항상 정치적 조작의 대상이 되는데, 이 조작을 통해 이 언어가 공존하는 다른 언어에 대해 특권을 누리게 된다. 나무에서만 자라고 나무에만 속해 있는 과일과 달리, 인간의 언어는 특정한 사람이나 민족의 상품도 아니고, 그들이 만들거나 그들을 위한 상품도 아니다. 인간 언어는 각 언어가 나름대로 독특하지만 공유되어야 한다. 또한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물인 언어는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다. 달리 말해 자연 언어가 계속해서 성장하거나 일종의 ‘사후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언어 자신이 자연이 준 유한한 물질세계를 넘어서는 초역사적인 언어로 반드시 변형되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서 모든 언어는 역사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

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성의 완전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데, 각 언어가 인간의 표현에 관한 아주 귀중한 증거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간섭이 언어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결정된 정치적 사안은 잠재적으로 한 언어의 생사를 주관할 수 있다. 타이완의 과거 언어사는 마치 몸에 그림자가 붙어 있듯이 언어로 만들어진 시론이 언어 정치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사실상 언어의 활동을 지배하는 것은 많은 경우 정치 조직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논문이 결론을 내기 전에 아직 답을 하지 못한 질문이 두 개 남아 있다. 우리가 공존하는 다른 언어를 희생하지 않고 국어를 확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국어를 확립함과 동시에 다른 언어를 장려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다. 나의 답은, 이래도 저래도, “그렇다.”와 “그렇다.”일 것인데, 그 이유는 단순히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질문에 답을 하려는 경향이 나의 본성에 깊숙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의 답에 긍정적인 성향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나의 답을 대신할 방법을 잘 알지 못한다고 말해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역사를 통해 많은 국어들이 이미 확립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국어를 가질 수 있는지(없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공존 언어들이 희생되고 기억에서 지워졌는데도 우리가 국어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없을까)? 나는 역사가 국어 확립에 관한 첨예한 모순점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모든 언어가 인간의 필요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각각의 모든 의견이 도리에 맞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국어를 소유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이미 우리의 선택의 자유에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국어를 정하는 것을 지지할 수 없는 것처럼, 그것에 반대할 수도 없다. 이것은 진정한 딜레마이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어를 가질 수 있는가보다는 우리가 국어를 원하는지,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이 일으킬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국어 제정 문제에 관해서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왜 인간의 신중한 판단이 늘 필요한지를 설명해 준다. 이 딜레마에 응하여,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우리는 언어의 차이점 보존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인간 지식의 완전함이라는 것이 결국 언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차이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틴어구 *E pluribus unum* 은 전통적으로 ‘많은 것 중에 단 하나’ 또는 ‘많은 것을 하나로 만들기’로 번역되어 왔다.(www.greatseal.com/mottoes/unum.html)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합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하나’라는 단어에만 시선을 두는데, 나는 ‘하나’라는 단어가 ‘많은 것’의 참여나 조직 없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종종 의아해하고 있다. 만약 군인들이 없다면 군대는 존재할 수 없는 게 사실이 아닐까? 같은 방식으로, 예를 들어, 여러 개의 언어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강요받는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국가는 단지 의미 없는 무언가에 불과하다는 게 사실이 아닐까? 우리는 ‘하나’를 소유하면서 동시에 ‘많은 것’을 지킬 수 있을까(없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한 것으로 단 한 가지 확실해 보이는 게 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Benjamin, Walter. "The Task of the Translator." *Illuminations: Essays and Reflections*: Hannah Arendt, ed. Trans. Harry Zohn. New York: Schocken Books, 1969.
- Derrida, Jacques. *Of Grammatology*. Trans. Gayatri Spivak.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P, 1976.
- _____. "Signature Event Context." *Margins of Philosophy*. Trans. Alan Bass. Chicago: The U of Chicago Press, 1982.
- Foucault, Michel. *The History of Sexuality*. New York: Vantage Books, 1980.
- Rand, Richard, ed. *Logomachia: The Conflict of the Faculties*. Lincoln & London: The U of Nebraska P, 1992.
- Vlakhov, Sergei & Sider Florin. "Neperovodimoe v period: realii." *Masterstro Pererod* 1969. Moscow: Sevetskii pisatel, 1970.
- <<<http://www.greatsela.com/mottoes/unum.html>>>
- 周婉窈, 海行兮的年代: 日本殖民統治末期臺灣史論集, 臺北: 允晨。2003.

E Pluribus Unum: Deconstructing the Myth of National Language in Taiwan

Chang Shang-Kuan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1. Preface

Despite her seeming unification in terms of national image, Taiwan is *de facto* a place of diversity in many respects. Granted, that the majority of the residents in Taiwan are of Han descent (漢人)—i.e., biologically speaking, of the Chinese ethnicity, there are other racial components that have been neglected or even forgotten, namely, the various groups of aboriginals (原住民) who have lived in Taiwan for more than a thousand years. Given the fact that in recent years more and more foreigners have been assimilated and integrated into the Taiwan society through marriage, employment, and other channels, Taiwan has virtually become par excellence a highly diversified community. With this diversity, of course, come many unexpected problems, especially in making a policy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language, and the devastating impact of globalization has also compounded the complexity of the language problem. Through the years, the thorny problem of language has put the Taiwan government under tremendous pressure not only in making a viable policy of national language that every ethnic group can comply with but also in implementing the policy, which poses more challenges than it apparently does. More interestingly, as the political rift between Taiwan and mainland China remains unsolved, the rivalry between these two political entities has transformed into the competition for cultural orthodoxy,

exemplified, respectively, by the establishment of Confucius Institute worldwide by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promotion of the “Zhengtizi”(正體字)—i.e., “Fantizi”(繁體字) as it was normally called—in opposition to the “Jiantizi”(簡體字) by the Taiwan government. The “logomachia” (Rand 1992), i.e., “the war of words,” between China and Taiwan, as well as the complicated linguistic problems in Taiwan, merits our attention because what language war reflects is not merely our linguistic preference and/or prejudice but something more significant that we must face and reflect on. The purpose of this paper, therefore, is roughly two-fold: first, to provide a brief historical review/critique of the language problem in Taiwan in the past and second, to attempt to address the problem from a deconstructive perspective.

2. Brief History of Linguistic Diversity in Taiwan

Let me first give a brief introduction of the historical backdrop of Taiwan in the past one and a half century or so. Before the Jiawu (甲午) War in 1895, Taiwan was *de jure* under the political control of the Qing Dynasty, yet the war, in which Japan emerged as the victor, led to the annexation of Taiwan by Japan, whose 50-year political sovereignty in Taiwan did not end until 1945 when Japan surrendered unconditionally to the Allies. The Chinese Civil War between the Nationalist Party and the Communist Party, which resulted in the exile of the Nationalist government in Taiwan in 1949, created a crucial factor that turned out to exert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already complicated linguistic situation in Taiwan, the reason being that the political exodus was at the same time a linguistic diaspora. It was estimated that about two million mainlanders speaking different Chinese dialects came to reside in Taiwan. Although Taiwan currently is ruled by the Nationalist Party (Guomindang 國民黨, aka KMT), its political archrival, the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Minjindang 民進黨, aka DPP), won the general election twice in 2000 and 2004, respectively. As the new round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is scheduled for January 2012, it is interesting to see what political direction Taiwan will be heading. And as China has gradually gained the status as another superpower,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militarily, in the world, the struggle for the cultural orthodoxy will expectedly become keener than ever.

Now, let's move on to the linguistic problems in relation to the political reality in Taiwan. During the rule of the Qing Dynasty, there were roughly two kinds of peoples living in Taiwan: the Han people who consist of people mainly from Fujian and Guangdong Provinces (to be exact, the Minnan 閩南 and Hakka 客家 people) and the local aboriginals who supposedly are of Austronesian descent. The Qing administrators, despite their various language backgrounds, were all capable of speaking Mandarin/Chinese—then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Qing royal court. The rest of the Taiwanese people, however, were not “required” to master the official language because literacy rate was extremely low and there

was virtually no national language policy mandated by the Qing government. Ironically, the apparent absence of a national language policy during the Qing rule fostered a linguistic haven in which language was only a means of communication rather than a political apparatus for the administrators to check upon the cultural identity and political loyalty of their subjects. In other words, the political stability at that time had little or nothing to do with the urgent need for a unified national language that later colonizers or rulers such as Japan and the Nationalist government pursued.

This “lingua paradiso” created by the Qing government lasted for a considerable time period but unfortunately it went down to be a language inferno after Taiwan was annexed by Japan as a result of the Jiawu War. To safeguard their sovereignty and perhaps also to speed up assimilation, the Japanese government, step by step and by all measures available, prohibited the colonized Taiwanese to speak their own languages in public, whether it was the Minnan dialect, Hakka, or any aboriginal language. The result reflected a linguistic history replete with intriguing ironies. As the Japanese colonizers who settled in Taiwan were in large number from Kyushyu (九州) instead of, say, Tokyo (東京) area (周 2003), those Japanese actually did not speak the so-called standard Japanese. Thus, it was clear that the colonized Taiwanese did not always have the chance to learn how to speak the standard Japanese with pure accent mainly because of their dialect-speaking teachers. So when Yamazaki Muzuo (山崎睦雄), an educator assigned to Taiwan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education of/in Japanese, complained that he heard cacophonous Japanese spoken by the Taiwanese and looked down upon them as linguistically incompetent, he was actually “barking at the wrong tree.” The irony is that there are always already differences imbedded in the seemingly unified Japanese language, and the differences are being placed in hierarchy for political or/and other “non-natural” reasons. In addition, the study of language is often thought to be closely related to one’s ethnic background; a native speaker is “naturally” better at his/her own native language than a foreigner who has to take great pains to learn it. During the Japanese colonization, however, there were many cases in which a Taiwanese native, e.g., Long Yingzong (龍瑛宗) and Huang Fengzi (黃鳳姿), showed superb linguistic talent by winning prestigious literary awards or winning the due respect of the Japanese colonizers with their excellent works written in Japanese. And statistics showed that in terms of Japanese competency the Taiwanese pupils were, on average, better than their counterparts in Japan. Clearly, one’s linguistic competence is not necessarily tethered to one’s ethnic originality. One of the most intriguing ironies is the reverse influence on the Japanese language by the Taiwanese language(s) that the Japanese colonizers desperately tried to repress or replace. The “pidgin Japanese” by the Taiwanese, no matter how awkward it may sound to a native speaker of Japanese, was popular among the colonized Taiwanese and imperceptibly infiltrated into the (non)standard Japanese—a fact that even a Japanese purist would find quite shocking. Apparently, when two languages are engaged in exchange of whatever sort, the “stronger” language cannot assume a role that only imposes one-way influence on the “weaker” language. Simply speaking, no language can maintain its purity and

be kept intact while it has some contact with other languages. In a nutshell, the language policy of Japan during the colonial period of Taiwan did not succeed as the Japanese government had expected. Although some Taiwanese did learn to speak decent Japanese, the majority would still cling to their native tongues which they used every day and on every occasion except when they had to speak to a native speaker of Japanese.

History sometimes fails to serve as a mirror for reflection. When the Nationalist Party retreated to Taiwan in 1949, its administrators of education never learned the lesson from the catastrophic experience of the Japanese predecessors. During the rule of the Nationalist Party, especially during the early 1950s, the Ministry of Education vehemently launched the “Speak Mandarin /Chinese Campaign” (國語運動)—a politico-linguistic movement which forced every pupil to eschew speaking Taiwanese languages in public. Violators would be fined and consequently suffered humiliation. As expected, the limited success of the campaign was only “a flash in the pan,” and despite the fact that most of the Taiwanese nowadays can speak Mandarin/Chinese, the idea of the political unification through the linguistic unification that the Nationalist government dreamed of has never been realized. Several reasons contribute to the failure of the campaign that aimed to establish a national language. First, as Mandarin/Chinese is in fact a northern dialect of China, the Southerners and people from other parts of China inevitably speak the language with some indigenous accent. Therefore, while a Taiwanese was punished for speaking Taiwanese dialects, the mainlanders who speak other provincial dialects were unfairly spared. This unfairness was deemed as discrimination in disguise for many Taiwanese, and that secret grudge against speaking Mandarin/Chinese would pave the way for a call for speaking one’s mother tongue in the years that followed. Second, it was a political decision on Mandarin/Chinese as the national language of the Republic of China when the nation was first founded. So, logically, any Chinese dialect could have been selected as the national language as long as the representatives of the speakers of the dialect in the parliament had political clout over others. These days, as the Taiwan Independence Movement gains momentum and more and more Taiwanese start to question their identity, the privileged status of Mandarin/Chinese is thus gradually challenged. Third, contrary to what most people think, it is the Chinese writing/character (i.e., Hanzì 漢字) rather than the Chinese (spoken) language that unites the linguistically-diversified Chinese people. All Chinese characters can be pronounced in accordance with the speaker’s dialect, and that means the Chinese writing system, theoretically, might be immune from the danger of phonocentrism which Jacques Derrida has warned against in his deconstructive program (Derrida 1976). From this it can be inferred that to privilege Mandarin/Chinese as the national language is merely a political act, and that it is precisely due to politics that languages are not treated on an equal footing.

Currently, the old problems of language remain unsolved in Taiwan, only to be compounded by the overwhelming trend of globalization that gives rise to some other unexpected dilemmas. As we have seen, both the Japanese colonizers and the Nationalist government failed to erase ethnic and linguistic difference through the promotion of a national language, be it Japanese or Mandarin/Chinese. Yet the dream of “one nation, one language,” through which various peoples may be united as a homogeneous whole, still attracts many a political idealist. The paradox, however, is that if “many” already exists, then reducing it to “one” is impossible. “One nation” always already presupposes the coexistence of people with different backgrounds, and “one language” is actually premised on the fact that there are other languages being neglected and/or repressed. Simply put, in order to have that unique “one,” differences must be erased. Yet is it not true that the essence of difference is its uniqueness, which by nature cannot be shared by any other than itself? “One nation” or “one language,” it seems, is contradictory because in order to be unique, to be “one of its kind,” it cannot contain differences. To establish “one nation” and to speak “one language,” we will have to resort to the use of force or violence to serve the purpose of unification. Unity, it is plausible to say, can only be achieved through the eradication of difference. If this argument stands to reason, what the DDP government did during 2000-2008 to promote the Minnan dialect is nothing but *déjà vu*. Like its predecessors, namely, the Japanese government in the colonial period and the Nationalist government during the 1950s, the DDP government has been obsessed with the need for a national language to consolidate the national identity it pursue as well as the politically-correct authority of government. As a result, the Minnan dialect, through the never-ending propaganda of the national machine, became synonymous with “Taiyu”(臺語), a term supposed to refer to all languages used in Taiwan, and such linguistic usurpation undoubtedly irritated other ethnic groups in Taiwan who could not but feel being discriminated against. The myth the DDP clings to, again, is that to establish Taiwan as one independent nation, one unifying/unified language is a must. When the Nationalist Party won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2008, the DDP clearly suffered a setback in terms of implementing its language policy, and yet the Nationalist Party, interestingly enough, has been engaged in another language war ever since it took power. This time, the war involves mainland China and the focus of conflict is on cultural orthodoxy.

If the struggle for the dominion of language between Japanese and all Taiwanese languages during the colonial period of Taiwan is of the intercultural nature, then the recent struggle for cultural orthodoxy between Taiwan and China may be considered more of the intracultural nature. The open or/and covert war to win the status as the one and only representative of Chinese culture is manifested in, as mentioned previously, the increasing establishment of Confucius Institute by the PRC against the promotion of the Zhengtizi by the ROC (Taiwan). The irony of the rekindled enthusiasm in paying homage to Confucius, the main target of iconoclast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in China, is worth spilling more inks, but

it is a topic I must put aside due to the restrained length of this paper. In relation to the topic of this paper, what interests me more is the apparently stubborn insistence on either the Zhengtizi or the Jiantizi by Taiwan and China. As I have mentioned at the outset, it is the Chinese (written) character instead of the Chinese (spoken) language that unites the linguistically-diversified Chinese people. Thus, if political reunification with Taiwan is the ultimate goal of China, it seems contradictory for China to assume a hard-line attitude toward the use of the Jiantizi, an invented writing system that obviously runs counter to the Chinese tradition whose past records are almost all written in the Zhengtizi. In contrast, although Taiwan insists on using the Zhengtizi to promote the image of cultural orthodoxy, this cultural move is clearly politically motivated because the ruling Nationalist government is under tremendous pressure and is eager to free itself of the accusation from the DDP that the Nationalist government has a secret agenda for reunification with mainland China. In promoting the Zhengtizi, the Nationalist government hopes that the move can be beneficial to obtaining an edge in competing with China in the cultural war of orthodoxy, and that it can help the government win the general votes of the Taiwanese people regardless of their political inclination. However, in so doing, Taiwan actually runs the risk of breaking away farther from China, both politically and culturally, and for those who favor ultimate reunification this politico-cultural move by the Nationalist government may lead to a direction against their original wish in the long run.

The paradox in favoring either the Zhengtizi or the Jiantizi is in fact more significant than it seems. For one thing, the paradox proves that not only linguistic sounds change in the course of time, but the seemingly stable writing transforms itself constantly. The contact with other languages can, for sure, bring about the change, and yet it is possible that even without influence from the outside a language can still display difference through the various practical uses by its speakers. In a nutshell, no language, be it spoken or written, can remain in a virgin state for good and is forever free from self-transforming. If so, to propose a national language and expect it to be an everlasting paragon that serves the linguistic needs of all people and functions without fault in all times would seem difficult, if not impossible. As we have seen in the case of the division of the Zhengtizi and the Jiantizi, no matter which writing system one clings to, the wholeness or holisticity of Hanzi—the Chinese writing/character which, as proven in the Chinese history, allows for different forms and styles—is in serious jeopardy. What is worse is that any political decision on/against the sole use of either Zhengtizi or Jiantizi deprives people of their right to speak and write freely. This, in my opinion, runs counter to the spirit of modern democracy that lays its foundation on freedom of speech.

3. Reflections on the Myth of National Language

It will take a much lengthy study to thoroughly deal with the complicated linguistic problems in Taiwan, where past colonialism still leaves its traces in the daily language use of the Taiwanese people. For the sake of brevity, let me address the problems in terms of three jargons proffered by Jacques Derrida in his deconstructive program, namely, phonocentrism, logocentrism, and phallogocentrism.

To begin with, we notice in the history of Taiwan that the more a colonial party was eager to implement a policy of national language, the stronger was the resistance of its colonized subjects to counterbalance the colonial violence, and that, in a subtle way, confirms what Michel Foucault has said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force and resistance (Foucault 1980). The Qing government, despite being a foreign power that conquered China, conducted a linguistic “laissez-faire” which unexpectedly turned out to be politically correct. Although the “official” language at the royal court was Mandarin/Chinese, the various dialects used by ordinary people in their everyday life were not affected. All dialects were given a fair chance to be practiced as long as the daily practical need of the users is met, and as a result the dialects all prevailed to certain extent. As mentioned previously, the political and cultural unity which the Qing government pursues lies in the unifying power of the Hanzi, a “silent” writing system that defies the monopoly of monophony. In other words, as the Hanzi is open to different pronunciations, the difference among the many dialects in China is not hierarchical but rather relative. Mandarin/Chinese is chosen as the official language for geopolitical reason—it is the living language in Beijing, a magnificent northern city that has been the capital of many dynasties. The relatively high status of Mandarin/Chinese, of course, does lead to the problem of phonocentrism that Derrida has anathematized, but as it is a political language of/for a special group of people, namely, the Chinese elite who aspires to be a government official, and also as the language itself exerts little or no influence on the rest of the ordinary Chinese people, the problem of phonocentrism remains a problem mainly for the intellectuals. Derrida contents that the West is characterized by the preference of speaking to writing because in contrast to voice that directly reflects one’s thought, writing is considered derivative and secondary—a “sign of sign,” so to speak, as Plato and other Western philosophers have forcefully argued (Derrida 1976). The obsession with speaking over writing, it is argued, may translate into a rigid policy of national language that makes no room for the growth of other languages in the same nation. A linguistic purist often imagines a pure, homogeneous language free of contamination, but we know this is a sheer illusion because all languages are rooted in the material world of which human beings are a part. Languages, as Walter Benjamin has pointed out, are related in kinship (Benjamin 1969), and the relationship, as the term itself suggests, connotes relation and relativity rather than hierarchy. One can choose to say, among others, apple, pome d’amour, pinguo (蘋果), lingo (りんご), etc. in order to designate the real thing in the

world. Yet the sound attached to each word which might have different cultural connotation is only relative since no sound is better than the other in terms of sound value. In the light of this deconstructive view, therefore, it is plausible to say that the not-so-rigid language policy of the Qing government that allows the coexistence of different dialects of different people seems to be a more successful one. The success lies in the fact that no one is punished for being unable to speak the “official” language correctly, and that unless one has ambition to pursue a career in politics, the language of politics, Mandarin/Chinese in this case, is virtually out of one’s common life. In comparison with what the Japanese, the KMT, and the DDP governments have done in the past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language, the Qing government’s loose language policy that seems to champion the idea of “polyglossia” merits our special attention if we are to conduct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fication of language and the unification of politics.

If phonocentrism that privileges a particular spoken language, such as Japanese or Mandarin/Chinese or the Minnan dialect discussed in our present study, contributes to the failure of establishing a national language in Taiwan, logocentrism that pursues the absolute determinacy of meaning of a linguistic sign is an accomplice in that matter. We have argued that all languages are equal because in terms of the “realia” (Vlakhov & Florin 1970) it represents each language is unique in its own way. However, when we suggest that all languages are distinctly different, that should not be construed as maintaining that a language is totally isolated and is immune from potential contact with other languages, the reason being that all languages are supposedly subject to translation and thus are engaged in the exchange of meaning. It is inconceivable that any language may come into existence *sui generis* and does not contain any foreign element in its content that constantly grows and changes. Derrida contends that all linguistic signs can be placed in quotation marks and therefore can be cited, or better yet, iterated infinitely, and this “citationality” or “interability,” Derrida avers, brings about difference in meaning (Derrida 1982). By parity of reason, since all languages, whether they are national or non-national, are constantly “in flux,” i.e., always in the process of contact, translation, and change, a fully determined meaning of any linguistic sign is questionable. No language, in other words, can function as a kind of “transcendental signifier” whose significance is permanently fixed and unchanged. As we have seen in the case of Japanese, Mandarin/Chinese, and the Minnan dialect, each language, with its obsession with the so-called standard pronunciation and strict and rigid interpretation of meaning, is caught up not only in phonocentrism but also in logocentrism. As a result, only one language can prevail and the life or survival of other coexistent languages is sacrificed. The irony is that even if there is a national language established by a government for whatever reason, the language per se cannot remain the same for when people speak the language, their tone, accent, pitch, tempo, context etc. vary from time to time, not to mention that the language itself is always “not pure” as a result of internal change as well as foreign influence. This

leads us to the ultimate dilemma of establishing a national language: Can we establish a national language without doing it at the cost of other coexistent languages? Or to rephrase it more positively, can we establish a national language and promote other coexistent languages at the same time? I will attempt to answer these questions in my concluding remarks.

Phallogocentrism, according to Derrida, refers to the privileging of the masculine or the patriarchy in the construction of meaning. Take a well-known statement “Dogs are men’s best friends” for example. The gendered word “men’s” in the sentence actually refers to both men and women, but only the masculine is being used with bias. Such phallogocentric practice in language results in the erasure of difference and leads to a generalization that does not reflect the truth as it promises to deliver. In relation to our study, when a colonialist like Japan denounces the various native languages in Taiwan as inferior or even savage and consequently forces a linguistic usurpation, the phallogocentric violence is put into practice. Japan, as the “fatherland,” deprives the native Taiwanese of their mother tongues that they have learned to speak since birth. Various studies have suggested that although one’s mother tongue may not be the dominant language in one’s entire life, one’s mother language has deep and profound influence on one’s social and cultural identity because it is indispensable for one’s intellectual development. Therefore, to deprive a person of his/her mother language is tantamount to the denial of his/her birthright of self-expression and understanding of the world in a distinct way. As we have argued previously, the differences among languages are important to our more holistic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world of which we are a part. The demise of any language is analogous to missing an essential piece in a puzzle that displays human knowledge. In order to complete the puzzle, all languages must be preserved for we humans are all related to each other and our knowledge must be integrated. The phallogocentric violence imposed on the colonized people in the names of the fatherland and, shall we say, the “father language,” such as what Japan did to the native Taiwanese, symbolizes a lost opportunity to learn from the cultural differences as reflected in the Taiwanese languages. Similarly, the KMT or the DDP government also practices phallogocentrism so much so that each party is blind to the paradox that any language, be it Mandarin/Chinese or the Minnan dialect, that is glorified and elevated to become the national language of Taiwan, as the official language that rules over the other languages like a father over the whole family, is originally down and out the mother language of an ethnic group. Hence, in a very subtle sense, there is no father language. Just like all men are born by women, all self-claimed father languages are mother languages in disguise, and by parity of reason we may argue that no patriarchal language is born to have the kind of linguistic privilege that may sublimate a patriarchal language and turn it into “the” language of a nation. All languages in Taiwan: Mandarin/Chinese, the Minnan dialect, the Hakka dialect, the aboriginal languages, and even some foreign languages that may strike root in Taiwan in the future, are all equal in terms of their linguistic birthright and thus should be treated fairly

like siblings who are born into the same family.

4. Concluding Rema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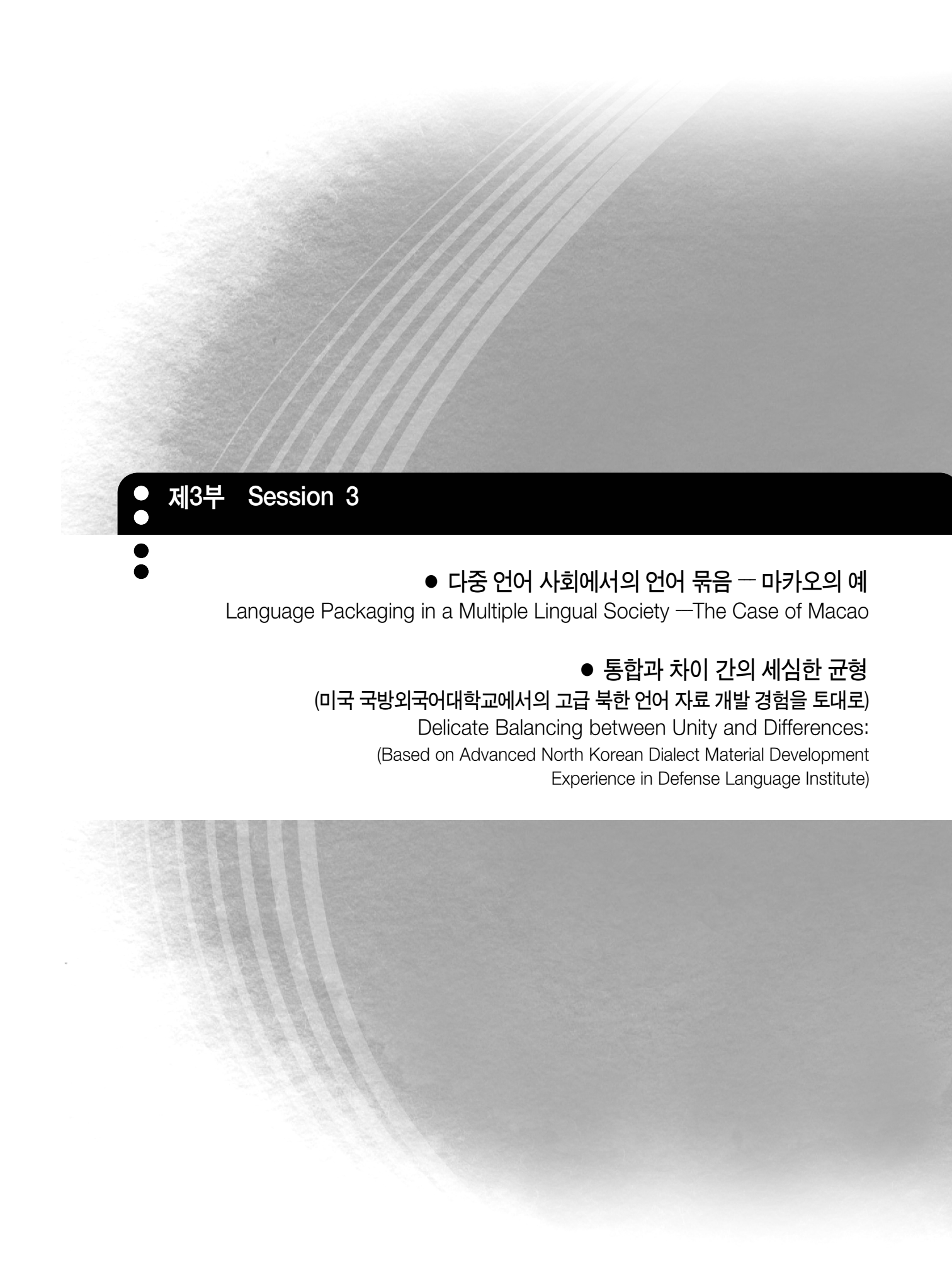
Phonocentrism, logocentrism, and phallogocentrism by which to deconstruct the myth of national language in Taiwan cluster around one thing: a language, far from having some naturally positive term in the language per se, is always subjugated to the political manipulation that crowns the language with the privilege over the other coexistent languages. Unlike fruit that grows in and thus only belongs to the tree that begets it, a human language is never the product of, by, and for a particular person or people. Human languages are there to be shared even though each language is unique in its own way. In addition, as the production of human beings who are finite, no language can have eternal life. In other words, in order for a natural language to continue to grow or even to have a certain “afterlife” (Benjamin 1969), it is imperative that the language transform itself into a (trans)historical language that goes beyond the limited material life that nature bestows. For that purpose, all languages should be given a fair opportunity to be able to revolve historically. This is important to our understanding of the totality of historicity as each language bears invaluable testimony of human experiences. And that is why political intervention plays a crucial role in this language affair: Any political decision made can potentially determine the life and death of a language. The past linguistic history of Taiwan has proven that language poetics is closely related to language politics like a shadow to a body. In fact, it is often the political body that dictates the play of language

As I have promised to do, there remain two questions yet to be answered before my paper draws to an end: Can we establish a national language without doing it at the cost of other coexistent languages and can we establish a national language and promote other coexistent languages at the same time? My answer, *hic et nunc*, would be “Yes” and “Yes” because the tendency to make an effort to answer rather than to simply raise questions is rooted deeply in my nature. And yet despite the positive tendency embedded in my response, I confess I don’t really know how to substantiate my answer. Nonetheless, how, I wonder, can we (NOT) have a national language when many a national language has already been established throughout the human history? And how can we (NOT) have a national language while/ (even if) so many coexistent languages have been sacrificed and lost in oblivion? I think it fair to say that history has witnessed the sharp contradiction of opinions as regards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language, and it seems to me that each and every opinion makes sense because it all originates from the need of human beings. To put it differently, to have or to have not a national language always already involves our freedom of choice; we can’t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language any more than we can’t object to it. This is a true dilemma. What really matters, however, is not so much

whether or not we can have a national language as *why* we want it, *how* we implement it, and *what* consequence it might bring about. And that explains why human discretion is always required in making such a difficult decision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language. In response to this dilemma, we can only take responsibility for what we choose, and no matter what we choose, we must take the preservation of difference in/of language into consideration because the totality of human knowledge consists of every possible difference manifested in language. The Latin phrase *E pluribus unum* is conventionally translated as “out of many, one” or “many uniting into one” (www.greatseal.com/mottoes/unum.html). Most people only pay attention to the word “one” that serves as the symbol of unification, but I often wonder how the “one” can exist at all without the constitution/participation of the “many”? Is it not true that an army does not exist at all if there are no soldiers? By the same token, is it not true that a nation is merely a thing devoid of meaning if it does not consist of different people(s) who, for instance, happen to speak, insist on speaking, or are even forced to speak different languages? Can we (NOT) have the “one” and keep the “many”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find out the answer(s), there is only one thing that seems certain: We must continue wondering....

Works Cited

- Benjamin, Walter. “The Task of the Translator.” *Illuminations: Essays and Reflections*. Hannah Arendt, ed. Trans. Harry Zohn. New York: Schocken Books, 1969.
- Derrida, Jacques. *Of Grammatology*. Trans. Gayatri Spivak.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P, 1976.
- . “Signature Event Context.” *Margins of Philosophy*. Trans. Alan Bass. Chicago: The U of Chicago Press, 1982.
- Foucault, Michel. *The History of Sexuality*. New York: Vantage Books, 1980.
- Rand, Richard, ed. *Logomachia: The Conflict of the Faculties*. Lincoln & London: The U of Nebraska P, 1992.
- Vlakhov, Sergei & Sider Florin. “Neperovodimoe v period: realii.” *Masterstro Perevod 1969*. Moscow: Sovetskii pisatel, 1970.
- <<<http://www.greatseal.com/mottoes/unum.html>>>
- 周婉窈 《海行兮的年代：日本殖民統治末期臺灣史論集》。臺北：允晨 2003。



● 제3부 Session 3

● 다중 언어 사회에서의 언어 묶음 — 마카오의 예
Language Packaging in a Multiple Lingual Society —The Case of Macao

● 통합과 차이 간의 세심한 균형
(미국 국방외국어대학교에서의 고급 북한 언어 자료 개발 경험을 토대로)
Delicate Balancing between Unity and Differences:
(Based on Advanced North Korean Dialect Material Development
Experience in Defense Language Institute)

주제 발표

Topic Address

쉬제 XU Jie



- 마카오대학 교수
- 전 국립싱가포르대학 중국어 강사
- Professor, The University of Macau
- Former Lecturer, Chinese Language and Linguistic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다중 언어 사회에서의 언어 묶음 — 마카오의 예

취제
마카오대학

1. 다중 언어 사회로서의 마카오: 몇 가지 기본 특징

중화인민공화국의 두 특별행정구¹⁾ 중의 하나이자 과거 오랜 기간 포르투갈의 식민지²⁾였던 마카오는 작지만 깊은 역사를 지닌 곳이다.

중국으로 반환된 첫 해인 2001년의 인구 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마카오 전체 인구는 435,235명이고 이 중 424,203명이 3세 또는 그 이상이다.

출생지에 따라 마카오 거주민들을 다음과 같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출생지	인구	비율
중국 본토	206,384	47.4%
마카오	191,139	43.9%
홍콩	14,436	3.3%
포르투갈	1,616	0.4%
기타	21,660	5.0%

1) 중국의 또 다른 특별행정구는 홍콩이다.

2) 마카오는 1999년 12월 20일 중국 본토에 공식적으로 재통합되기까지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다.

일상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사용되는 언어에 따라 마카오 거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범주로 분류된다.

중국어	총합	411,482	97%
	광둥어	372,697	87.9%
	만다린어	6,660	1.6%
	호키어	18,868	4.4%
	기타	13,257	3.1%
포르투갈어		2,813	0.7%
영어		2,792	0.7%
필리핀어		3,450	0.8%
기타		3,666	0.8%

또한 마카오 거주민들은 언어 능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모어 외에) 한 가지 제2 언어 화자	총합	129,793
	광둥어	12,755
	만다린어	58,625
	호키어	5,771
	기타 중국 방언	19,446
	포르투갈어	3,418
	영어	25,390
	기타	4,388
(모어 외에) 두 가지 제2 언어 화자	총합	50,017
	만다린어와 영어	16,926
	광둥어와 만다린어	10,436
	만다린어와 기타	7,691
	만다린어와 호키어	4,025
	포르투갈어와 영어	2,793
	두 가지 기타 언어	7,876
(모어 외에) 세 가지 제2 언어 화자	총합	7,577
	만다린어, 영어와 포르투갈어	2,120
	만다린어, 영어와 기타어	1,100
	세 가지 기타 언어	4,357
단일어 화자		236,816

2. 중국어: 만다린어인가 광둥어인가?

기본법 제9조에는 “중국어에 더하여 포르투갈어는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행정적, 입법적, 사법적 지역 안에서 같이 사용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이 법령문으로부터 우리는 마카오가 중국어와 포르투갈어를 둘 다 공용어로 사용하는 합법적 이중 언어 사회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서 중국어는 제1 공용어, 포르투갈어는 제2 공용어이다.

이 법령문에서 다소 명백하지 않은 것은 ‘중국어’를 언급한 부분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중국어는 굉장히 많은 방언 변이형들을 가지고 있는 언어(혹은 어족)이다. 적어도 일곱 가지의 주요 중국어 방언들이 존재하고(만다린어, 광둥어, 상하이어, 후난어, 장시 방언, 하카 방언, 그리고 민 방언), 이들은 상호 이해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여기서 ‘중국어’는 광둥어 혹은 만다린어, 또는 그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할 수 있고 이것은 중요한 논쟁인 ‘만다린어-광둥어 논쟁’으로 오랫동안 계속되어 오고 있다(Liang 2010).

마카오 기본법에 명시된 공용어 ‘중국어’는 몇몇 학자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만다린어를 가리켜야 한다. 그 이유는 만다린어가 표준어로서 공식적으로 장려되고 있고, 전체 중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국제 연합의 여섯 가지 공식어 중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으로의 반환 이후 마카오는 중국의 한 부분이다. 마카오 기본법이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을 기초로 하여 다져진 것이라면 그 둘 사이는 일종의 모녀 관계와 같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9조 5항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만다린어를 공식적으로 장려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러므로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는 만다린어를 교육상 장려할 책임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 나라 두 체제’ 정책 아래 ‘한 나라 정신’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Tian 2010). 특별행정구 공무원들 역시 격식을 차려야 하는 공식적인 경우에 더더욱 만다린어를 사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Yin 2010, Wu 2010).

그러나 또한 마카오의 사회적 환경에서 ‘중국어’는 광둥어를 지칭한다고 주장할 합당한 이유들이 있다. 우선 마카오 기본법 조항 11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31에 의거하여 사회 경제적 법규, 거주민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법규, 그리고 행정·입법·사법에 대한 법규와 그와 관련된 정책들을 포함하는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법규와 정책은 모두 이 기본법에 명시된 법규에 기초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명백히 표준어 장려 문제는 국가 주권이나 외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회 문화적 사안이다. 다시 말해서 법적 관점으로 본다면, 마카오는 만다린어를 장려하는 중국의 다른 지역들을 따를 필요가 없다(Liang 2010). 두 번째로, 마카오는 광둥어가 매우 최근까지 역사적으로 유일하게 사람들의 일상적 의사소통에 주된 언어로 사용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광둥어는 건재하다. 만약 ‘중국어’가 만다린어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리고 광둥어가 아닌 만다린어가 특별행정구의 공용어가 된다면, 마카오 거주민들은 그것에 집단적으로 격하게 저항하고 어떤 식으로든 심각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만다린어 사용 옹호론자들의 바람과 정반대로 작용하여 마카오에서의 만다린어 확산에 도움이 아닌 해가 될 것이다.

3. 사회 층위에서의 언어 묶음

공무원, 교육자, 학생, 학부모에게 마카오와 같은 다중 언어 사회에서 어떻게 언어 계획을 할 것이냐는 오랜 도전 과제이다. 필자는 마카오 언어 계획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언어 묶음’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자 한다. ‘언어 묶음’에 의해 한 무리의 언어들이 바꾸니에서 선택되고 그 언어들은

다양한 목적과 적용을 위하여 선정된다.

언어 묶음은 사회 층위와 개인 층위로 시행될 것이다. 사회 층위에서의 언어 묶음은 흔히 말하는 ‘san wen si yu’ 방식으로 작용하는데, 문자 그대로 세 가지 문어와 네 가지 구어를 의미하고 여기서 세 가지 문어는 중국어·포르투갈어·영어, 그리고 네 가지 구어는 광둥어·만다린어·포르투갈어·영어를 뜻한다.

3.1 광둥어와 만다린어: 쓰기를 위한 한 언어와 말하기를 위한 두 언어

종종 비언어학적인 이유로 광둥어와 만다린어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언어라기보다 한 언어의 두 방언이라고 주장된다. 그러나 그 둘은 서로 이해 불가능한 언어들이며 그러므로 두 개의 자매로서 언어 계획에서 별도로 취급되어야 한다. 두 언어는 서로 다른 기능을 위해 공존하는데, 광둥어는 제1 언어이자 가장 중요한 지역어로서, 만다린어는 만다린어를 사용하는 세계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국제어로서 그 기능을 한다.

마카오에서의 광둥어

광둥어는 압도적 다수의 마카오 거주민들이 사용하는 모국어로 사회 깊숙이 뿌리를 박고 있으며 매우 경쟁력 있는 중국 방언 중의 하나로 고려되고는 있으나 예측 가능한 미래에 그것의 강력한 위상은 도전받게 될 것이다. 광둥어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마카오 거주민들은 광둥어를 자랑스럽게 쓰고 있다. 또한 광둥어는 광둥 성, 광시 성, 홍콩의 인접 지역과 심지어 동남아시아에서도 유럽, 미국 대부분의 차이나타운에서도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다. 마카오로 새로 이민을 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제1 언어를 버리지 않고 지역 주민들과 동질감을 갖기 위한 수단으로서 광둥어를 배우고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마카오에서의 만다린어

마카오에서 만다린어는 그 위치가 공적인 것이었으나 의심의 여지없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오늘날 마카오는 특별행정구이고 만다린어를 사용하는 중국 본토와 마카오와의 유대 관계는 크게 강화되어 가고 있다. 많은 본토인들이 마카오에서 일하거나 공부하고 있으며 그들 대부분은 만다린어만 말할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마카오에서의 만다린어 확산을 조성할 수 있다. 더욱이 광둥어를 하는 마카오 거주민들은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의사소통 순응 이론에 따라 마카오에서의 건전한 만다린어 확산과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Giles, Coupland, Coupland 1991).

3.2 포르투갈어, 동시대적 중요성을 지닌 정치적, 역사적 선택

마카오의 제2 공용어로서 포르투갈어의 위상은 필수적이라기보다는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것이며

중국 정부가 현 체제를 변화 없이 유지할 것을 약속한 2049년까지는 특별행정구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믿음이 지배적이다(Huang 2010). 이는 포르투갈어가 마카오에서 태어난 포르투갈 사람들과 같은 제한된 집단의 화자들 사이에서 몇몇 한정된 경우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이다. 2006년 인구 총조사에 나타난 것처럼,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단지 3,036명, 즉 마카오 전체 인구의 약 0.6%이며 여기에 일상생활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포르투갈어를 할 줄 아는 마카오 거주민 7,149명을 더해도 전체 마카오 인구의 1.5%뿐이다. 더욱이 영어나 프랑스어와 같은 경쟁력 있는 언어들과는 달리 포르투갈어는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언어가 아니다.

그러나 포르투갈어가 마카오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믿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포르투갈어는 정치적 상징이고 마카오에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사회가 존재하며, 이뿐만 아니라 마카오는 중국,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와 함께 급성장하고 있는 신흥 경제국(BRICS) 중의 하나인 브라질 같은 포르투갈어 사용 나라들과 중국 사이의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교류와 협력을 위한 교두보로서 점점 더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마카오가 전략적으로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돕는 것은 하나의 국가 정책이고 이러한 마카오의 역할은 포르투갈의 이전 식민지였던 이 작은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든 포르투갈어의 상황을 도와줄 더 많은 자원을 발생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3.3 영어, 마카오의 사회적 상황에서의 세계 공용어(Lingua Franca)

법적으로 말하면 영어는 마카오 행정특별구에서 어떠한 정치적, 공식적인 위치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영어는 오늘날 국제 공용어이고 마카오는 매우 국제화된 도시이다.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마카오는 미국 라스베이거스로부터 엄청난 투자액을 기록했다. 이뿐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마카오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영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마카오나 인접 도시인 홍콩의 영어 사용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고 있다. 영어는 마카오대학과 몇몇 다른 고등 교육 기관의 교육용 언어이다. 마카오에서 영어의 미래는 분명 밝다.

4. 개인 층위에서의 언어 묶음

개인 층위에서의 언어 묶음은 다른 이야기이다. 마카오가 전체 사회로서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네 가지 언어 모두를 유지하고자 할지라도 모든 마카오 일반 거주민들이 네 언어 모두를 할 필요는 없으며 이것은 실현 가능하지도 않다. 사람들은 그들의 능력이나 여러 자원에서 한계를 가지므로 그 모든 언어들에 다 습득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배우고자 하고 배울 수 있는 언어에 대한 선택을 해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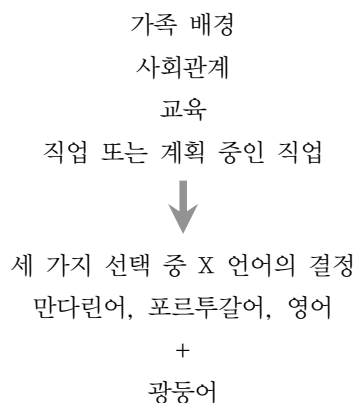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마카오 거주민들이 판단 기준으로 취할 언어 묶음 공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위에서 보았듯이 광둥어는 마카오 사회의 주 언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언어를 선택할 때 광둥

어는 필수 선택 언어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나머지 세 언어, 즉 만다린어, 포르투갈어, 영어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언어를 배울 필요가 있다. 그 선택은 대개 가족, 사회관계, 교육, 직업, 계획 중인 직업과 같은 요인들에 근거한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모든 마카오 사람들이 적어도 두 가지 언어를 할 수 있어야 함을 제안한다: 광둥어와 X 언어, 여기서 X 언어는 만다린어, 포르투갈어, 혹은 영어이다.

5. 결론

마카오처럼 작지만 매우 국제화된 사회에서의 언어 계획은 정부, 교육자, 학생, 학부모와 같은 의사 결정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오래되고 중요한 도전 과제이다. 필자는 광둥어, 만다린어, 포르투갈어, 영어, 이 네 가지 언어 모두 각각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특정 의사소통 기능을 하면서 공존 가능하고 또한 공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위의 관점에서 그 언어들의 순위를 정할 필요조차 없다.

‘언어 묶음’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제안되었다. 이것은 사회나 개인을 위하여 언어들을 무리 짓는 것을 말하고 언어 묶음은 사회 층위와 개인 층위에서 시행될 수 있다. 마카오에서 네 언어는 모두 장려되어야 하며, 이는 사회의 요구와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다. 그러나 모든 일반 마카오 거주민들이 네 언어를 모두 말할 줄 아는 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마카오 거주민들은 두 가지 언어를 유창하게 하는 이중 언어 화자여야 하고, 두 언어는 가족 배경, 사회관계, 교육, 직업, 계획 중인 직업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공동으로 결정되는 것으로서 두 언어 중 하나는 광둥어(항수)이며 나머지 X 언어(변수)는 만다린어나 포르투갈어, 혹은 영어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마카오의 일반적인 언어 환경과 사회 발전 단계에서 꼭 필요하고 실현 가능하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 문헌

- Giles, H, N. Coupland, and J. Coupland, 1991, Accommodation Theory: Communication, Context and Consequences, in H. Giles, N. Coupland, and J. Coupland (eds.), *Contexts of Accommodation: Developments in Applied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68.
- Huang, Kunyao, 2010, Language Issues in Macao SAR, paper presented at the 2010 Symposium on Language Planning and Language Policy in Macao, Macao, 24 - 24 November 2010.
- Liang, Shuwen, 2010, On the Language Development in Macao under 'the One Country and Two Systems' Policy, paper presented at the 2010 Symposium on Language Planning and Language Policy in Macao, Macao, 24 - 24 November 2010.
- Tian, Xiaolin, 2010, The Spirit of 'One Country Two Systems' and the Study of Language Policy in Hong Kong, paper presented at the 2010 Symposium on Language Planning and Language Policy in Macao, Macao, 24 - 24 November 2010.
- Wu, Weiping, 2010, Language Life in Harmonious Society, A Socio-linguistic Perspective, paper presented at the 2010 Symposium on Language Planning and Language Policy in Macao, Macao, 24 - 24 November 2010.
- Yin, Guoguang, 2010, Some Remarks on Language Policy in a Multiple Cultural Environment, paper presented at the 2010 Symposium on Language Planning and Language Policy in Macao, Macao, 24 - 24 November 2010.

Language Packaging in a Multiple Lingual Society

— The Case of Macao

Xu Jie
The University of Macau

1. Macao as a Multiple Lingual Community: Some Basic Figures

As one of the two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s (SA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and a former long-term colony of Portugal, ¹⁾²⁾ Macao is small yet history-rich place.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2001 census, the first one since its return to China, the whole population of Macao is 435,235, among whom 424,203 are 3 years or above old.

By birthplace, Macao residents can b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categories.

Birthplace	Population	Percentage
Mainland China	206,384	47.4%
Macao	191,139	43.9%
Hong Kong	14,436	3.3%
Portugal	1,616	0.4%
Others	21,660	5.0%

1) Another SAR in the country of China is Hong Kong.

2) Macao was under the colonial ruling of Portugal to December 20, 1999 when it is re-unified with the mainland China officially.

By the language they use for daily communication, Macao residents can b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categories.

Chinese		411,482	97%
	Cantonese	372,697	87.9%
	Mandarin	6,660	1.6%
	Hokkie	18,868	4.4%
	Others	13,257	3.1%
Portuguese		2,813	0.7%
English		2,792	0.7%
Philiphino		3,450	0.8%
Others		3,666	0.8%

By their language proficiency, Macao residents are also varying.

Speakers of one additional language		129,793
	Cantonese	12,755
	Mandarin	58,625
	Hokkie	5,771
	Other Chinese dialects	19,446
	Portuguese	3,418
	English	25,390
Others	4,388	
Speakers of two additional languages		50,017
	Mandarin and English	16,926
	Cantonese and Mandarin	10,436
	Mandarin and Other	7,691
	Mandarin and Hokkie	4,025
	Portuguese and English	2,793
Other two languages	7,876	
Speakers of three additional languages		7,577
	Mandarin, English and Portuguese	2,120
	Mandarin, English, and other language	1,100
Other three languages	4,357	
Mono-lingual speakers		236,816

2. The Chinese Language: Mandarin or Cantonese?

It is specified clearly in the Basic Law, Article 9 that ‘in addition to Chinese, Portuguese may also be used in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bodies of the Macao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It can be seen from this statement that Macao is legally a bilingual society where Chinese and Portuguese are both official languages with Chinese being the first and Portuguese second official language.

What is much less obvious in the legal statement is what ‘Chinese’ refers to. As is well known, Chinese is a language (or a language family) with dramatic dialectal variations. It is believed that there are at least 7 major Chinese dialects which are not mutually intelligible: Mandarin, Cantonese, Shanghaiese, Hunanese, Jiangxi dialect, Hakka, and Min dialect. ‘Chinese’ here may refer to either Cantonese, Mandarin or both, which has long been a point controversy, i.e., ‘Mandarin-Cantonese Controversy’ (Liang 2010).

The official language ‘Chinese’ as specified in the Macao Basic Law, as argued by some scholars, must refer to Mandarin since it is officially promoted as a standard dialect and widely spoken in most regions across the whole country, and it is also recognized as one of the six UN working languages. After its return to China, Macao is a part of China. It is noted that given the Macao Basic Law is based on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re is a kind of mother-to-daughter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t is specified clearly in the Article 19.5 of the PRC Constitution that ‘The commonly spoken Mandarin is promoted officially’, thus it is a responsibility of the Macao SAR government to promote Mandarin in education, so that the ‘one country spirit’ under the ‘one country two systems’ policy can be preserved (Tian 2010). It is also proposed that the SAR officials are supposed to use Mandarin especially in formal or official occasions (Yin 2010, and Wu 2010).

There are also good reasons to claim that ‘Chinese’ here refers to Cantonese in the social setting of Macao. First of all, it is stated in the Macao Basic Law, article 11, that ‘By the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rticle 31, regulations and policies in Macao SAR including social and economic regulations, regulations that are to protect the basic rights and freedom of residents, regulations concerning executive administration, legislation, and judicature and related policies are all based on the regulations specified in this basic law.’ Obviously, the issue of promotion of standard language is a social and cultural issue which has nothing to do with national sovereignty and foreign affairs. In other words, from a legal perspective, Macao does not have to follow other areas of the country to promote Mandarin (Liang 2010). Second, Macao is located in an area where Cantonese was the only spoken historically until very recently and where Cantonese is the major language in people’s daily communication. As illustrated above, Cantonese is still. If ‘Chinese’ were to be interpreted as referring to Mandarin, and Mandarin but not Cantonese is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SAR, Macao residents will be expected to resist it emotionally and collectively, causing serious social unrest in one or another. That will hurt, not help, the spread of Mandarin in Macao, working exactly against the wish of Mandarin-speaking advocates.

3. Language Packaging at the Community Level

For government officials, educators, students and their parents, it has long been a challenge as how to do language planning in such a multiple-lingual society as Macao.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conception of 'language packaging' to tackle the problem of language planning in Macao, by which a group of languages are selected in basket, and they are selected for various purposes and for different applications.

Language Packaging shall be conducted at community and individual levels. Language Packaging at the community level works in the way that is commonly so-called 'san wen si yu' which literally means 'three written and four spoken languages' with the three written language being Chinese, Portuguese, and English, and four spoken languages being Cantonese, Mandarin, Portuguese and English.

3.1. Cantonese and Mandarin: One Language for Writing, Two Languages for Speaking

Although it is often officially claimed that, for non-linguistic reasons, Cantonese and Mandarin are two dialects under one language rather than two different languages, they are not mutually intelligible thus must be treated differently in language planning as two sister languages. They co-exist for different functions with Cantonese being the first and most prominent local language, and Mandarin being a lingua franca for communication with Mandarin-speaking world.

Cantonese in Macao

Given that Cantonese is a native language for overwhelming majority of Macao residents, and that Cantonese is considered as one of highly competitive Chinese dialects, the language is deeply rooted in society and its strong status will be challenged in a foreseeable future. The language is widely used in social, commercial, and cultural sectors. Macao residents are speaking the language proudly. Also, Cantonese is still widely spoken in the neighboring provinces of Guangdong and Guangxi, and the Hong Kong, and even in southeast Asia, and in most Chinatowns in Europe and America. It is noted that many new immigrants to Macao have been learning and using Cantonese as a means to identify with local people without giving up their first language.

Mandarin in Macao

Undoubtedly, Mandarin is getting more and more important in Macao no matter how the language is placed officially. Nowadays, Macao is a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its tie with the Mandarin-speaking

mainland China have been enhanced greatly. Many mainlanders are working, studying in Macao, and most of them can speak Mandarin only, fostering the spread of the language. Furthermore, Cantonese-speaking Macao residents are very positive in terms of attitude. This helps the healthy spread and development of Mandarin in Macao, according to the communication accommodation theory (Giles, Coupland, and Coupland, 1991).

3.2. Portuguese, A Political and Historical Choice with Contemporary Significance

As the second official language in Macao, it is widely believed the status of Portuguese is more historical and symbolic than essential (Huang, 2010), and it may disappear from the SAR by 2049, the last year when the Chinese authority has promised to keep the current system unchanged.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language is used only in some limited occasions by a limited group of speakers, i.e., local-born Portuguese people. As illustrated in the 2006 census, there are only 3,036 speakers who speak Portuguese in their daily communication, which is about 0.6% of the whole population in Macao, added up by 7,149 Macao residents, 1.5% of the total Macao population, who may speak Portuguese although they don't use the language in their daily life. Furthermore, Unlike competitive languages such as English and French, Portuguese is not widely spoken in the world.

However, we have reasons to believe that Portuguese will live on Macao not only because it is a political symbol and there is a Portuguese-speaking community in Macao, but also because Macao is playing a more and more prominent role as a platform for economic, cultural and political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the Portuguese-speaking countries among which Brazil is one of the fast-growing BRICS countries together with China, Russia, India, and South Africa. It is a national policy for the Chinese government to help Macao play this strategic and crucial role, which help result in more resources that will help the status of Portuguese in this tiny former colony of Portugal in one way or another.

3.3. English, The World Lingua Franca in the Social Setting of Macao

Legally speaking, English does not have any political or official standing in the Macao SAR. However, English is nowadays an international lingua franca, and Macao is nowadays a highly internationalized city. Since its return to China, Macao has recorded tremendous American investments from Las Vegas. Furthermore, more and more Macao parents have realized the importance of English for the future of their children, sending them to English-speaking schools in Macao and its neighboring city Hong Kong. English is the instruction language for the University of Macau and some other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English undoubtedly has a bright future in Macao.

4. Language Packaging at the Individual Level

Language Packaging at the individual level is a different story. Although as a whole society, Macao may and should keep all four spoken languages for different functions, it is neither necessary nor feasible for all ordinary Macao residents to be speak all the four languages. People are limited in their energy and other resources, thus cannot grasp all those languages. They have to make their choices with regards to which language or languages that they are willing and able to learn.

In this regard, we would like to propose a language packaging formula for Macao residents to take as a reference point. As noted above, Cantonese is the most language in the social setting of Macao, thus it is a must to choose when people have to choose their languages, but most of them perhaps just need to learn one more from the rest three, either Mandarin, Portuguese or English. The choice is largely based such factors as family, social connection, education, and career or career in planning. In short, we are proposing that all Macao residents should at least be able to speak two languages: Cantonese and an X language, with the X language being either Mandarin, Portuguese or English.

5. Conclusion

In a tiny and yet highly internationalized society like Macao, language planning is a crucial and long-term challenge facing decision makers in the government, educators, students and their parents. It is argued in this article that all the four spoken languages, Cantonese, Mandarin, Portuguese, and English may and should co-exist, with each of them serving one or more specific communication functions. We even don't have to order them in terms of prominence.

A new conception has been proposed as 'Language Packaging', which refers to grouping of languages for a community and for an individual person, thus language packaging can be conducted at both community and individual levels. For Macao, all the four languages should be promoted and this is in accordance with the needs of the society as a whole. However, it is neither necessary nor feasible for all ordinary Macao residents to speak all four languages. It is argued that Macao residents should all be bilingual speakers, speaking two languages fluently, with one being Cantonese (a constant) and an X language (a variable) which could be either Mandarin, Portuguese or English as to be determined jointly by such factors as family background, social connections, education, and career or career in planning. This is both necessary and feasible given the general language environment and stage of social development of Macao. The essential may be illustrated as follows.

Family Background
Social Connections
Education
Career or Career in Planning



The determination of the X Language among the 3 choices:
Mandarin, Portuguese and English
+
Cantonese

References

- Giles, H., N. Coupland, and J. Coupland, 1991, Accommodation Theory: Communication, Context and Consequences, in H. Giles, N. Coupland, and J. Coupland (eds.), *Contexts of Accommodation: Developments in Applied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68.
- Huang, Kunyao, 2010, Language Issues in Macao SAR, paper presented at *the 2010 Symposium on Language Planning and Language Policy in Macao*, Macao, 24 - 24 November 2010.
- Liang, Shuwen, 2010, On the Language Development in Macao under 'the One Country and Two Systems' Policy, paper presented at *the 2010 Symposium on Language Planning and Language Policy in Macao*, Macao, 24 - 24 November 2010.
- Tian, Xiaolin, 2010, The Spirit of 'One Country Two Systems' and the Study of Language Policy in Hong Kong, paper presented at *the 2010 Symposium on Language Planning and Language Policy in Macao*, Macao, 24 - 24 November 2010.
- Wu, Weiping, 2010, Language Life in Harmonious Society, A Socio-linguistic Perspective, paper presented at *the 2010 Symposium on Language Planning and Language Policy in Macao*, Macao, 24 - 24 November 2010.
- Yin, Guoguang, 2010, Some Remarks on Language Policy in a Multiple Cultural Environment, paper presented at *the 2010 Symposium on Language Planning and Language Policy in Macao*, Macao, 24 - 24 November 2010.

주제 발표

Topic Address

강사희 KANG Sahie



- 미국 국방외국어대학교 교수
- 현 이화여자대학교 국어학 초빙 교수
- 몬터레이국제연구학교 응용언어학과 겸임 교수
 - Professor, Defense Language Institute
- Visiting Professor, Korean Linguistics, Ewha Womans University
- Adjunct Professor, Applied linguistics department,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통합과 차이 간의 세심한 균형

(미국 국방외국어대학교에서의 고급 북한 언어 자료 개발 경험을 토대로)

강사희
미국 국방외국어대학교

1. 서론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국방부 언어정상회의에서 “9/11 이후의 군사 작전은 국방부가 신형 언어들과 방언들에 대한 보다 향상된 유기적 능력, 즉 더 뛰어난 언어 능력과 지역적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신병 모집 시장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언어를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대학까지 계속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그것은 또한 미국을 강하게 만들고, 곧 국가 안보를 공고히 한다.”라고 언급되었다.(Weaver 2011)

언급된 바와 같이, 세계 언어들의 방언 변이형을 연구하고 학습하는 것에 관한 미 연방 정부의 관심은 주로 국가 안보 언어 계획(National Security Language Initiative)에 기인한다. 2006년 미 대학 총장 간 국제교육회의 연설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은 국가 안보 언어 계획을 발표했고, 이 계획은 국가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언어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에 4백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그것은 미국 정부가 한국어를 포함하여 ‘결정적 필요(critical-need)’ 언어들로 분류한 언어들을 완전히 습득한 미국인의 수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것은 “그 나라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하나의 방법이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 안보 언어 계획은 더 많은 미국 시민들에게 다언어 사용 능력을 개발

하도록 제안하는 국가 언어 정책의 일부이다. 그러나 그 정책은 영어 공용어법에 반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표준 영어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우도록 제안하기 때문이다. 언어 교육, 학생들의 문식성 향상 훈련, 시민 행동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도록 정책이 세워져야 한다면, 영어학자들은 그 정책을 그들의 연구 분야 지도 위에 놓고, 외국어 전공 학자들과 협력하여 각 분야의 교육적, 정치적 책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그것에 반응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는 북한어를 잘 아는 한국 언어학자들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어 학습자들이 북한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과정 역시 필요하다. 국방외국어대학교(Defense Language Institute Foreign Language Center)의 평생교육부(Directorate of Continuing Education)는 2009년 8월 고급 북한 언어 자료 개발 프로젝트(Advanced North Korean Dialect Materials)를 시작하여 2010년 10월 완성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더 높은 단계의 능력-3단계나 그 이상-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 또한 언어교육자들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반세기가 넘는 남북 분단의 시기 동안 발생한 언어학적 차이가 오늘날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참고 자료들과 함께 이 자료에서 제공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이런 보다 심층적인 이해는 개인 학습자들이나 언어학자들, 그리고 분석가들이 수년간의 연구 경험을 통해 습득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고급 북한 언어 자료 프로젝트는 더 제한된 시간 안에 더 큰 집단의 사람들에게 같은 정도 또는 더 많은 체계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실제적으로 다른 언어 변이형들뿐만 아니라 북한 언어 대 남한 표준어에 대한 미국정부의 접근 방식과 태도를 나타낸다. 물론 미국 정부가 여러 언어와 방언을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는 목적은 한국 정부가 북한 언어 변이형에 관심을 갖는 목적과 같지 않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모어인 영어를 포함한 다언어 사용 접근 방식은 한국의 체제 통합과 언어 통합의 노력에 기인하는 언어 쟁점들의 현 위치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줄 것이다. 본고는 우선 고급 북한 언어 자료 개발 프로젝트의 기본 자료 관리 과정과 교육학적 원리에 대해 논의하고, 그 다음 한국의 언어 통합 노력에 있어서 이 프로젝트가 갖는 함축적 의미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2. 국방외국어대학교의 고급 북한 언어 자료 프로젝트(ANKDM)

고급 북한 언어 자료 프로젝트는 목표어의 주요 방언 변이형을 배우는 것이 언어 능력을 높여 준다는 믿음하에 중급과 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이 표준어가 아닌 언어 변이형을 효과적으로 습득함으로써 훨씬 더 높은 표준 한국어 능력을 얻도록 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국방외국어대학교의 중급과 고급 언어 학습자들은 이미 2 또는 2⁺단계의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목표는 3단계나 그 이상을 성취하고 유지하는 것이다.¹⁾ 자연스럽게 학습 활동은 암기, 이해, 적용 기술과 같은 구식의 방법

1) 미국 정부의 관계 부처 간 언어 회의(Interagency Language Roundtable) 단계 기술은 외국어 학습자들이 단계적으로 도달하게

보다는 고차원적 사고 능력(Higher Order Thinking Skills), 즉 분석, 합성, 평가 기술을 포함하도록 신중히 고안되었다. 동시에 이 자료에 사용된 본문들은 주관적(projective)이고 가치 판단이 필요한(evaluative) 지문 형식과 비표준 언어학적 특징, 그리고 높은 수준의 문화적, 사회언어학적 참조를 나타내도록 신중히 선택되었다.

관계 부처 간 언어 회의(ILR) 단계 기술에 따르면 3단계의 외국인 능통자들은 표준어로 된 모든 담화를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정의되고 3⁺단계나 그 이상은 비표준어를 사용하여 빠른 속도로 말하는 모어 화자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3단계와 그 이상 단계의 표준 한국어 학습자는 비표준어인 북한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ILR 언어 단계 기술은 실제로 주요 6단계를 설정하고 여기서 5단계는 교육받은 모어 화자가 유지하는 가장 높은 단계이다. 이는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 주요 방언인 북한어 변이형²⁾에 대한 최소한의 수용적 언어 능력이 있다고 예상함을 의미한다.

고급 북한 언어 자료는 42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우선 ILR 2단계부터 4단계까지로 분류된다. 또한 이 자료는 열 가지 최종 학습 목표(Final Learning Objectives) 주제들로 분류된다: 문화와 사회, 경제와 정치, 지리와 환경, 군사와 안보, 과학과 기술. 이 단원들은 쌍방향적인 온라인 내용 기반 교육용 자료로 구성되어 있고, 학생들/학습자들에게 최종 학습 목표의 여러 주제들을 통하여 북한과 관련한 문화적, 지역적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 자료는 학생들에게 북한과 관련한 다양한 소재들을 배우는 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동시에 다양한 언어학적 활동들은 북한어와 표준 한국어 간의 어휘적, 문법적, 철자법적, 음운론적, 의미론적, 사회언어학적 차이를 이해하고 습득하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북한어’는 남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 표준어와 대조를 이루는 북한 표준어를 나타냄을 의미한다. 북한 사람들은 그들의 표준어를 ‘문화어’라 칭하는데 이는 주로 북한의 수도인 평양의 지역 방언이다. 북한 소식통은 남한 표준어를 영어와 일본어 차용어에 의해 변질되고 비음 섞인 억양으로 가득 차 있는 “교태적”이고 “퇴폐적”인 언어라고 비난한다. 북한 독재자였던 김일성은 문화어와 관련하여 두 가지 문서, 혹은 “지침서”를 썼는데, 1964년 공포된 “한국어의 발전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들”과 1966년 출간된 “국가 언어 발전에 대하여: 언어학자들과의 대화”가 그것이다. 이 문서들은 문화어와 관련한 기본 국가 정책을 정의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이 문화어에 약 4000개의 지역 방언 어휘들을 추가했다. 북한의 공식 표준어를 문화어라고 칭한 이후

되는 언어 능력 등급의 기준이며 1986년 발표되었다. 이것은 또한 미국 외국어교사협회에 의해 학계에 맞도록 조정되었고 대부분의 미국 내 고등 교육 기관과 K-12 학교에서 교과 과정과 외국어 교육 평가 기준의 하나로써 그 등급을 사용한다.

2) ILR 언어능력 단계 기술은 5단계를 “기능적으로 모어 화자와 같은 능력”으로 정의하고, 이와 함께 “말하기 능력은 언어를 잘 구사하는 교육받은 모어 화자의 능력과 기능적으로 같고, 그 언어를 모어로 쓰는 나라의 문화적 표준(규범)을 반영한다. 개인은 완벽한 융통성과 직관력을 가지고 그 언어를 사용하며 그 결과 모든 단계의 담화는 폭넓은 어휘와 숙어, 구어적 표현, 적절한 문화적 인용을 포함하는 모든 특징을 담아 잘 교육받은 모어 화자에 의해서 완전히 받아들여진다.”(http://www.govtilr.org/skills/ILRscale2.htm)

에도 북한은 일관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불필요한 차용어와 몇몇 한자어까지 제거하면서 남한 언어와 자신들의 언어를 구분 지었다. 그러므로 한국어에 있어서 모어 화자에 가까운 언어 능력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도의 반쪽에서 사용되고 있는 북한 언어의 이러한 언어학적 특징들을 습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간주된다. 이 프로젝트에는 주로 북한 매체에 나온 문화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 화자들의 일상 언어 예를 보이기 위하여 세 명의 제보자들로부터 두 지역 방언, 즉 서북 방언과 동북 방언을 제공받아 포함시켰다.³⁾

3. 고급 북한 언어 자료에 반영된 교육학적 원리와 예

언어 습득은 듣기와 읽기 같은 수용 능력 영역부터 시작하고, 인증받은 시험에서 제공된 입력에 기초한 중요 과제의 결과로서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난다는 원리를 기본으로 각 학습 단원이 구성되었다. 또한 성인 학습 원리의 기본 가정은 다음의 교육학적 고려 사항들을 토대로 한 것이다.⁴⁾

1. 내용에 기반을 둔 교육: 고급 북한 언어 자료는 학생들이 북한 사회의 다양한 면을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여러 가지 주제들에 초점을 맞춘 내용에 기반을 둔 교육 형태이다. 프로젝트 팀은 위에 언급된 주요 주제 영역의 여러 하위 범주로 나누어진 상이하지만 관련성 있는 42개의 주제들을 구성에 집어넣었다. 교육심리학자에 의하면, 언어를 배우는 유일한 방법은 학생들이 열의를 갖는 주제를 통해서이다. 이것은 성인 학습자와 높은 단계 언어 학습자들에게 특히 맞는 이야기이다. 고급 북한 언어 자료는 이처럼 단순히 수업에서 문법, 읽기, 듣기, 이해 기술들을 제공한다고보다는 학생들에게 교실 밖 그들의 직업 분야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주제들을 제공한다. 내용 기반 교육의 최적 형태에서의 언어 수업은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과 통합된다는 데에 일반적으로 의견이 일치된다. 학생들은 언어 학습 과정 그 자체보다 주제에 더 초점을 맞춘다. 학생들은 도전적이고 유익한 활동에 참여하여 복잡한 기술들을 성공적으로 학습한다. 학생들은 그들이 배우고 있는 자료에 몰두하고 자극받을 때 현실 상황과 더 큰 관계를 맺고 학습은 재미있고 쉬운 활동이 되며 정보는 더 긴 시간 유지된다.

2. 과제 기반, 프로젝트 기반 교육: 고급 북한 언어 자료는 또한 실제 언어를 사용하고, 학생들이

3)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한국 영사관이 소개한, 캘리포니아 남부에 거주하는 세 명의 북한 이탈 주민과 계약하고 함께 작업했다. 이 세 명의 제보자는 탈북 이후 약 3-5년을 미국에서 지냈으며 그들의 나이 대는 40대, 50대, 60대이다. 그들은 모두 대학 졸업자이고 북한에서 정부 관련 직업, 군 관련 직업, 그리고 요리사와 같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남한과 미국 사회에 흡수되려는 노력으로 인해 그들은 표준 한국어를 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로부터 자연스럽고 정확한 북한 언어 발화를 수집하기 위해서 대본 없는 역할 놀이, 주어진 화제를 기본으로 한 그들 간의 논의, 특정 주제에 대한 인터뷰와 같은 자료를 수집하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다. 그들의 모든 담화는 인증된 언어 자료로서 기록되고 사용되었다. 또한 그들은 북한 웹 사이트에서 내려 받은 북한 언어 표본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검토했다.

4) Boylan, P. and Kang, S.(1995), pp.4-5

목표어를 사용하여 중요한 과제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과제 기반 교육 설계로 구성되어 있다. 더욱이, 자료를 개발함에 있어 프로젝트 팀은 종종 기초 단계 언어 자료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일상 과제를 넘어서는 프로젝트 기반 교육에 관한 설계를 포함시켰다. 프로젝트 기반 교육은 도전 과제들 또는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 결정 능력, 조사 능력, 반영된 생각과 관련된 문제들을 토대로 복잡한 과제들을 제공한다. 그것은 학생들이 무리 지어 혹은 혼자서 연구하도록 하며 아이디어와 실제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격려한다. 학생들은 이러한 문제들과 해결책들을 가져다 실제 생활 환경에 프로젝트와 함께 적용한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이런 수업 경험을 통하여 실제 생활에 적용을 하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킨다. 학생들은 현실 세계의 문제들에 대한 독창적인 해결책을 고안해 내는 창조적 사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3. 고차원적 사고 기술: 내용 기반, 과제 기반, 프로젝트 기반 교육 계획과 더불어 고급 북한 언어 자료에서의 학습 활동은 블룸(Bloom)의 분류 체계에서 정의된 분석, 합성, 평가와 같은 그러한 고차원적 사고 기술을 구성하도록 고안되었다. 저자들이 이런 학습 자료에서 강조해 온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학생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북한 언어 자료를 읽고 듣는 것이다. 북한 정부는 대부분의 자료를 선전용으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런 교육용 단원의 저자들은 그러한 이념적 주장과 민주주의 국가의 견해와 관점을 제공하는 남한과 미국 매체로부터의 기사와 정보에 나타난 사고 방식의 균형을 잡아 주고 차이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4. 고급 지문: 고급 북한 언어 자료에 사용된 지문들은 주관적이고 가치 판단적인 형식의 자문과 함께 학생들이 고난도의 언어 기술을 사용하도록 선택되었다.⁵⁾ 듣기와 읽기 지문의 주요 출처는 '로동신문'(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의 기관지)이다. 이 신문의 사설과 시사 해설은 제임스 차일드(James Child)에 의해 정의된 '가치 판단적 형식 그리고/또는 주관적 형식'의 특성에 가장 잘 부합된다:

[지문은] 사실 전달을 강조하여 특성화되고, 견해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실이 선택되고 이용되는 관점으로 그와 같이 이동된다.(Child 1999)

이 개념은 북한 정권의 과거 시행된 정책들을 옹호하기 위해 이용되어 온 출처의 자료들과 특별히 관련성을 가진다.⁶⁾

5. 문화적 읽고 쓰기 능력과 사회언어학적 암시에 대한 교재: 높은 수준의 문화적 참고 자료는 고

5) 앞부분에서 소개되었듯이, 이 프로젝트에서 다루는 언어 능력 단계는 이미 2단계 또는 그 이상의 언어 능력을 가진 중급, 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2-4단계이다.

6) 예: 조선 중앙 통신사(북한 정당에 의한 공동성명) 방송. 이 성명에서 저자는 고급 지문의 특성인 높은 수준의 추상적 개념과 뉘앙스가 간간히 섞여 있는 분명한 어조로 그들의 분석과 평가를 포함한다.

급 북한 언어 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

왜냐하면 두 개의 한국은 서로 다른 이념에 의해 거의 60년 동안 분단되었고 북한어 지문에서 발견되는 많은 문화적 내용들은 남한 언어 모어 화자에게조차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없다. 고급 북한 언어 자료에서는 그러한 높은 수준의 문화적 참고 자료들을 소개하고 *도움말*과 *참고장*에서 설명한다.

높은 수준의 문화 참고의 예

- **선군정치**(군사우선정책)는 국사에서 조선인민군을 우선시하고 국가자원을 군대에 우선적으로 할당한다. 이 정책은 특히 정치 체계 역할을 하는 “군사우선정책”과 경제 체계 역할을 하는 “군사우선경제구조”, 그리고 북한의 새로운 본이 되는 이념인 “군사우선사상”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

6. 비표준 언어학적 특징: 남한과 북한 사이의 다양한 언어학적 차이는 고급 북한 언어 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 학생들이 더 높은 수준의 언어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표준 언어학적 요소들뿐만 아니라 표준이 아닌 방언적 특징을 가진 형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념 선전에서 만들어진 많은 속어 표현들은 풍부한 사회언어학적 특징들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다른 뉘앙스를 이해하고 속뜻을 읽어 내기 위한 중요한 전략을 제공한다.

단어장은 교과 과정에 포함된 실제 구절을 통해 얻어진 약 1500개의 어휘를 모음집이다. 단어들은 철자 순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어휘를 단독으로 가르치는 대신 문맥 안에서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 모두 구절이나 문장에서 사용된 실제 예뿐만 아니라 “조선말대사전”⁷⁾의 정의와 남한 표준어와 영어의 등가어도 함께 주석으로 달았다. 문법 관련 정보는 “조희성의 조선어 연구실”⁸⁾에 기반을 두고 제공된다. 이 문법 정보 또한 단독 문법 양식으로 소개되기보다는 실제 구절로 소개된 문법적 특징들의 모음집이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은 남한 표준어와 비교하여 북한어의 다른 문법 양식의 실제 사용을 실질적으로 알게 된다. 많은 언어학적 활동은 학습자가 언어학적 차이를 파악하여 북한 어휘와 문법을 남한 어휘와 문법으로 “해석”할 것을 요구한다.

표준이 아닌 언어학적 특징에 초점을 맞춘 활동의 예

- 주어진 예문의 문맥에서 문맥상의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라. 밑줄친 단어들은 남한이 아닌 북한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다.

1) 손전화기에 건반자물쇠를 걸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 사막같은 황무지에 기적의 도시를 일떠세운 영웅적군인건설자들.

7)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

8) 조희성의 조선어 연구실, <http://www.tufs.ac.jp/ts/personal/choes/Smain.html>

7. **북한어 수용(이해) 기술에 초점을 맞춘 기술 통합:** 이 웹 사이트에서의 학습 활동은 주로 읽기와 듣기 기술인 수용 기술 습득에 집중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실제 생활에서 북한어로 말하고 쓸 필요가 없을지라도 산출(표현) 기술인 말하기와 쓰기로 북한어의 철자법, 발음, 문법 양식, 어휘를 사용하도록 종종 요구받는다. 우리는 언어 학습이 네 언어 기술 모두가 통합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기술 통합은 학습 활동의 중심 체계이다.

8. **각 학습 단원의 최종 평가:** 어떠한 교과 과정에서도 학습이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비록 막대한 양의 주제들에 대한 학습 결과물을 측정하는 평가 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프로젝트 팀은 42개 학습 단원 각각에 대한 최소한의 간단한 질문을 제공했다. 각 단원 질문은 학생들이 주요 내용과 언어학적 요소들을 이해하고 유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4. 각 단원의 구조

각 학습 단원은 브레인스토밍, 선행 활동, 주 활동, 정리 활동의 네 가지 주요 절차 단계로 구성되고 단원 질문으로 끝나는 구조이다. 물론 이런 단계를 갖는 이유는 습득이 듣기와 읽기의 수용 기술 영역으로 시작하여 지문에서 제공된 입력에 기초한 중요 과제의 결과로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난다는 원리에 근거를 두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습자들은 그 과정에서 나중에 다른 산출(표현) 기술들과 통합된다고 배운다. 동시에 학습자들은 이미 아는 것을 예상되는 새로운 정보와 연관 짓기 위한 개요 세우기부터 시작하여 각 단계를 거쳐서 더 높은 단계를 향해 올라갈 기회를 부여받는다.

각 페이지의 여러 버튼은 학생을 몇 가지 학습 자료로 이끌 것이다:



단어장: 단원에 소개된 북한 단어 어휘집; **문법장:** 표준 한국어와 다른 북한 언어의 독특한 문법 양식에 대한 문법적 설명; **참고장:** 문화적, 지역적 참고; **내공책:** 전체 단원의 프린트용 MS Word 버전; **첫페이지:** 전체 자료의 첫 페이지; **목록:** 언어 능력 단계와 주제들로 색인을 만든 42개 단원들의 목록; **도움말:**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는 암시, 몇몇 활동의 기본 해답, 다른 교육적 제안들; **듣기:** 오디오 자료를 위한 버튼; **읽기:** 읽기 자료를 위한 버튼; **지문:** 오디오나 비디오 자료를 위한 지문; **동영상:** 듣기 활동을 위한 비디오 자료; 기타.

5. 한국 언어 정책의 함축적 의미

대략적으로 살펴본 것처럼 국방외국어대학교의 북한 언어 자료 프로젝트는 한국어 화자들에게 북한의 언어, 문화, 사회를 교육하기 위해 시행되었고 어떠한 규범적(prescriptive) 접근 없이 가공되지 않은 실제 자료들을 접하게 했다. 동시에 이 자료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북한의 언어, 문화, 사회를 스스로 관찰하고 분석하도록 이끌어준다. 자료의 최종 산물은 국방부 통신 체계⁹⁾의 일부인 국방외국어대학교의 웹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음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언어 정책 전문가나 정부가 아닌, 한국어 화자가 북한 언어, 문화, 사회를 학습하여 미래에 북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겪는 혼란을 잘 처리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부는 차이와 유사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화자에게 열린 환경과 지침을 제공한다.

물론, 남한과 북한의 언어 변이형들 간 멀어지는 거리에 대한 인식은 한반도에서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미래 통일 국가에서 언어 사용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두 변이형을 통합하고 어느 정도 표준화하려는 노력과 논의는 등한시킬 수 없다. 즉, 많은 개인 학자들과 기관들이 지난 2,30년 동안 두 언어 변이형의 차이를 연구했고 국립국어원은 북한의 한국어 학자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나 많은 논의들이 언어학적 차이 연구와 통합된 남북한 사전, 표준화한 철자법에 중점을 두고 그러한 연구나 정책의 결과물의 실제 이해 관계자인 일반 화자들을 포함하고 교육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6. 전체 언어 사회의 일반 화자에 대한 교육

미래의 통일된 사회를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언어 변이형을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한국어 학자들 간의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제안을 했다: 1. 언어 통합을 위해 일할 남북한 간 기관 설립; 2. 언어 통합의 필요성 인식 증가; 3. 서로 간 매체 공개; 4. 시민 및 비정부 활동 독려; 5. 양쪽 관련 분야 학자들의 교류 증가; 6. 통합 사전 출판; 7. 두 변이형간의 표준어 결정; 8. 일반적 교육 목표 조정 필요.(김민수 1992, 박갑수 1993, 고영근 1994, 박갑수 1994, 김진우 김철양 편1995, 이주행 1996, 김민수 1998, Lev Kontsevich 1998)

본고는 이 제안들이 매우 완전한 통합 방법이고 즉시 시행되어야 할 중요한 것임에 동의한다. 그러나 아마도 통일된 한국 이전에 만들어지는 언어 정책은 언어 공동체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그 이유는 언어 변화와 통합은 종종 언어 공동체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끌어지고 언어 정책은 그

9) 몇몇 웹 사이트는 국방부 통신망에 의해 차단되어 있지만, 북한이 운영하는 대부분의 웹 사이트들은 미국에서 공유 부문이며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국방부에서 자료를 게시하는 데 있어 유일한 걱정은 안보 문제라기보다는 저작권 문제이다. 북한 정부는 비상업적 사용을 위한 대부분의 공익 자료 저작권을 승인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운영하는 여러 방송국은 이들의 견해를 담은 실제 자료를 위한 중요 자원이라는 것이다.

러한 변화에 제한된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미래의 통일 정부는 실제 통일이 된 후 지향적 변화를 겪을지도 모른다. 본고는 두 한국에서의 전체 한국어 공동체가 언어 정책이 만들어지기 전 혹은 만들어지는 동안 두 언어 변이형 간의 사회언어학적, 문화적 차이뿐만 아니라 언어학적 차이 또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가장 좋은, 유일한 방법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연령대의 교육자부터 학습자까지 국민을 교육하는 것이다. 만약 북한 사람들이 이 과정에 포함되기 힘들다면 남한은 북한 언어와 그 사용의 차이를 일반 화자가 더 많이 인식하도록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현 미국 정부의 노력처럼 공교육 체계에서 한국어 화자에게 북한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것은 지나친 생각이 아니다. 훨씬 적은 수의 진정한 한국어 화자가 있는 미국과 달리 남한에서 한국어 화자는 국가 전체이다.¹⁰⁾

7. 언어학적 차이를 넘어서는 연구의 필요성

국방외국어대학교의 북한 언어교육자료가 언어, 그리고 언어학적 차이 그 이상의 것을 가르치고 있으므로, 여러 내용 영역에서 본문 내의 언어학적 요소들의 내용과 “문화적 미묘한 차이”를 가르치는 것은 오해를 줄이는 데에 더 유용할 것이다. 다시 말해, 남북한 언어 변이형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언어학적 연구를 넘어서 사회언어학적, 사회문화적 차이에 더 많이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발화 행위 연구, 담화구조 차이, 양식적 차이, 속어 차이, 미묘한 뉘앙스, 행간 의미 등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학자들은 많은 형태적, 문법적, 어휘적 차이를 발견했고 그 차이는 잘 기록되어 출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와 논의들은 순수 언어학적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문맥상, 사회언어학적 의미상의 실제 사용을 간과했다.

예를 들어, 북한 이탈 주민 언어 사용에 관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그들은 종종 “술 한잔해요.”, “전화할게요.”와 같은 남한 사람들의 예의 표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나중에 그것이 단지 인사일 뿐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알고 속은 느낌을 받았다. 동시에 남한 사람들은 북한 이탈 주민들로부터 감사나 칭찬의 말을 좀처럼 듣지 못하고 그들이 예의가 없다고 생각한다.¹¹⁾ 그러한 사회언어학적 차이가 오해의 주된 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소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언어는 화자가 속한 문화, 사회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학적 변이형뿐만 아니라 사회언어학적이거나 사회문화적인 면, 가치 체계, 사고방식에 대하여 더 많이 인지해야 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0) 내 생각에 “통합 교육”은 한국의 초등 교육과 중등 교육의 일부이다. 아마도 언어와 문화 변이형에 더 많이 중점을 두도록 교과 과정을 확대해야 할 시기이다.

11) 새터민 언어실태조사 연구, 문금현 외, 국립국어원, 2007

8. 다언어 사용 교육 접근 방식

언어와 문화 차이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언어 공동체를 교육하는 것은 사실상 최근 몇몇 사회학자들이 한국 통일을 위한 준비에 있어 추천한 “다문화 교육 접근 방식”과 같은 선상에 있다.¹²⁾ 한국은 단일 민족 국가에서 다문화 사회로 빠른 변화를 겪고 있어서 다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은 학교에서의 통합 교육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학교에서의 통합 교육에 대한 다문화적 교육 접근 방식은 타당하다고 주장되고 제안되고 있다. 예를 들어, 남북한 이질성에 관한 관점의 변화, 차이에 대한 긍정적 이해, 통일에 대한 과정 중심의 생각, 동화와 같은 교육 방법은 교과 과정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많은 다문화적 접근 방식 중에서 일치와 다양성 사이의 상대적 관용과 미묘한 균형을 언어사회와 교육자들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관적 견해를 지닌 채 오랜 기간 서로 이념 차이에 의해 거리가 멀어진 생활양식과 문화적인 면에서의 차이를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일 독일과 예멘이 경험했던 부정적 결과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정적인 접근 방식을 피하면서 상호 이해 속에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열린 마음, 서로 다른 문화적인 면과 언어 사용에 대한 세심함, 교육과 정책을 만드는 데에 관련한 항목들의 객관적 처리는 언어 공동체에 균형 잡힌 통일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한 다문화 접근 방식에 유념하며 또한 약 20,000명의 북한 이탈 주민들을 실제 북한 언어와 그 사회에 대한 자원으로 그리고 그런 접근 방식을 실행하는 목표 대상으로서 재평가할 때이다.

9. 마무리하며

국방외국어대학교의 고급 북한 언어 프로젝트는 두 한국어 변이형 사이에 존재하는 틈을 다루는 정책이나 지침이 아니라, 표준 한국어를 사용하는 화자들이 남북한의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인식하도록 가르치는 것에서 시작한다. 미국 정부는 북한어 변이형을 한국 표준어에 통합시켜야 할 그 어떤 필요도 없으며 북한어 변이형을 그 자체로 받아들인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 정부는 미래의 통일된 한국을 위해 두 나라 간 언어 사용의 연결을 위한 기준을 정해야 하는 큰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몇몇 학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현재 표준화를 위하여 많은 다른 언어학적, 철자법 규칙들의 일치를 이끌어 내는 것은 꽤 힘든 일이거나 아예 불가능한 일일 수 있다. 이런 현 상황에서 남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일반 남한 국민들에게 북한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대중들에게 북한의 웹 사이트나 다른 인쇄 자료들을 공개하고, 학교에서 북한 언어와 문화를 교육하도록 교과 과정을 구성하여 시행하고, 매체를 통해 교육을 계속하며 북한어와 문화에 대한 정기적 공개 포럼을 열고, 북한어와 문화를 잘 알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언어 능력을 재평가하는 등의 그러한 많은 새로운 정책을 필요로 할 것이다. 정부가 불건전 이념 자료를 대중이 접하는

12) 오기성(2008)

것에 신경 쓰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사회가 보다 더 평가하는 자세를 가지고 공개 자료를 보도록 유도하기 위해 학교와 매체에 언어 차이에 관한 더 많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이유가 된다. 남북이 가까운 미래에 통일이 되면 적어도 남한 정부와 국민들은 북한을 그들의 상대로서 자신감을 갖고 편히 포용할 준비가 될 것이다. 그러면 통일된 정부는 더 잘 일치하여 언어 계획과 정책을 세울 수 있다.¹³⁾ 가능하다면 북한 정부 역시 국민들이 남한의 언어와 문화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장려해야 한다. 그리하여 통일이 된다면 두 한국은 훨씬 더 순조롭고 덜 혼란스럽게 서로 통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민수(1992), 민족통일과 남북의 언어 격차, 도산학술논총 제2집, 도산아카데미연구원.
 박갑수(1993), 남북한의 언어차이와 그 극복, 자유공론 제319호, 자유총연맹
 고영근(1994), 통일에 대비한 어문정책, 통일시대의 語文問題, 길벗.
 박갑수(1994), 남북 맞춤법의 차이와 그 통일 문제, 어문연구 81-82, 한국어문연구회.
 김진우 김철양 편(1995), 통일을 지향하는 언어와 철학, 국제고려학회.
 이주행(1996), 남북 언어의 동질성 회복 방안, KBS 한국어연구논문 제44집, 한국방송공사.
 김민수(1998), 민족어의 통일문제, 개교5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남북한언어 통일의 과제와 전망, 강남대학교.
 Lev Kontsevich(1998), 현대 남북 국어발전 이질화의 경향과 극복 방법에 대하여, 개교5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남북한 언어 통일의 과제와 전망, 강남대학교.
 오기성 (2008), 학교 통일교육의 다문화교육적 접근
 이범웅 (2007), 남북한 주민간의 가치통합 교육방안
 Bloom, B.S, (Ed.), Engelhart M.D., Furst E.J., Hill, W.H., and Krathwohl (1956),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Handbook I: Cognitive Domain, New York, McKay.
 Boylan, P. and Kang, S (1995), "Syllabus Design for the Less Commonly Taught Languages," Korean Language in America, Vol 1, AATK
 Child, J. R. (1999) Textual Levels & Translation Practices. Paper given at MIIS 25th Anniversary Conference on Translation and on the Web from Monterey, CA;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MIIS).
 Hunston, S. & Thompson, G. (2001). Evaluation in text: authorial stance and the construction of discourse. (Ed). Oxford University Press
 Interagency Language Roundtable (2010), Language Skill Level Descriptions, <http://www.govtllr.org/>
 Kang, S. (2006). Differences between Standard Languages of South and of North Korea, Korean Linguistics Anthology, Taehaksa.
 Thomas, A. and Thorne G. (2010). Centre for Development and Learning: Thinking out aloud retrieved from www.cdl.org/resource-library/articles/highorderthinking.php
 Weil, D.K, Kincheloe J.L. (2004). Critical thinking and learning: an encyclopedia for parents and teachers. Santa Barbara: Greenwood Publishing Group

13) 여러 사회언어학자들이 지적했듯이 언어 계획과 정책은 그 언어와 정치적 결정에 대한 “규범적 접근 방식”이다. 언어학자들은 언어 변화는 자연히 발생하며 언어 사용에 대한 정부의 조정은 역사 속 많은 경우에서 실패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언어학자들은 언어 변화를 허용하고 균형을 맞추는 약한 규범주의가 일반 화자 언어 사용에 접근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Mesthrie, Swann, Deumert and Leap 2000)

Delicate Balancing between Unity and Differences:

(Based on Advanced North Korean Dialect Material Development Experience in Defense Language Institute)

Sahie Kang
Defense Language Institute

1. INTRODUCTION

During the recent Department of Defense Language Summit in Washington D.C., it was stated that “Post 9/11 military operations reinforce the reality that the Department of Defense needs a significantly improved organic capability in emerging *languages and dialects*, a greater competence and regional area skills in those *languages and dialects*... There’s a desire for language to be taught pre-kindergarten all the way through college so that we can enrich our recruiting market...also it strengthens America, which strengthens national security.” (Weaver 2011)

As stated, United States Federal government’s interest in studying and learning dialectal variations of world languages largely stems from National Security Language Initiative. Speaking before the 2006 U.S. University Presidents’ Summit on International Education, President George W. Bush unveiled the National Security Language Initiative (NSLI), which put 4 million toward efforts to improve language education as a means to secure the nation. This initiative aims to expand the number of Americans mastering what the authorities have labeled “critical-need” languages including Korean. The Initiative emphasizes that learning the languages and cultures of other countries can be a way “to reach out to the people there” and let that people “know that we are interested in not only how they talk but how

they live.” National Security Language Initiative is one piece of a national language policy that proposes to develop multilingualism in more U.S. citizens. In one way, the policy challenges Official English legislation, because it proposes that students learn to communicate in multiple languages rather than in Standard English alone. Given that the policy stands to influence language arts education, students’ literacy practices, and their conceptions of civic action, scholars in the English language arts need to situate it on their disciplinary map and, working in concert with their colleagues in foreign languages, respond to it in ways that reflect the field’s pedagogical and political commitments.

Consequently, the demand for Korean linguists who understand the North Korean dialect has risen in US government, and so has the need for a curriculum that would help the learners of the Korean language further enhance their understanding of the North Korean dialect. The Directorate of Continuing Education, Defense Language Institute Foreign Language Center (DLIFLC) launched the Advanced North Korean Dialect Materials (ANKDM) development project in August 2009 and completed it in October 2010. The purposes of developing these ANKDM are to provide optimal learning environments in which students can achieve higher levels of proficiency - level 3 and above - in the Korean Language, and to challenge language educators. Featured in these materials are linguistic differences that have developed for over half a century during the divis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long with historical and socio-cultural references being used in today’s North Korea. Traditionally, these deeper layers of understanding were something that individual learners, linguists, and analysts acquired through years of work experience, but ANKDM has the potential to provide that same or more systematic understanding to a larger group of people in a more limited amount of time.

This project actually represents the approach and attitudes of Department of Defense in the United States to North Korean dialect/language versus South Korean Standard language as well as other language variations. Of course, US government’s purposes to teach and learn different languages and dialects are not the same as Korean government’s interest in North Korean language variation. However, the approach of US government toward multilingualism including their own mother tongue, English, might shed lights on Korea’s current position on language issues due to regime integration and language integration efforts. This paper will first discuss the basic logistical processes and pedagogical principles of ANKDM project, and then discuss the implications of it in the Korea’s effort of language Integration.

2. ADVANCED NORTH KOREAN DIALECT MATERIALS (ANKDM) PROJECT IN DLI

The above mentioned Advanced North Korean Dialect Project was launched in order for Intermediate and Advanced Korean learners to effectively acquire the non-standard language variation and to gain even higher proficiency skills of the Standard Korean language, in the belief of that learning another

major dialectal variation of the target language enrich the language skills. DLI's Intermediate and Advanced language learners already have level 2 or 2+ language proficiency skills and their goals are to achieve and maintain level 3 and beyond.¹⁾ Naturally the learning activities are carefully designed to incorporate Higher Order Thinking Skills, i.e. Analysis, Synthesis, and Evaluation skills, rather than the outdated methods of Memorization, Comprehension and Application skills. At the same time, the texts used in these materials are also carefully selected to represent projective and evaluative text modes, non-standard linguistic features, and a high level of cultural and sociolinguistic references.

According to Interagency language roundtable ILR level description, Level 3 linguists are characterized by 'having effective understanding of ALL speech in a standard dialect and Level 3+ and above can "understand native speakers talking quickly, using nonstandard dialect.' Thus, level 3 and above Standard Korean learners should be able to understand the non-standard dialect, North Korean Dialect. The ILR language level descriptions actually sets six major levels where level 5 is the highest level that educated native speakers hold. This implies that Korean native speakers are expected to have at least receptive language skills of the major dialect, North Korean variation.²⁾

ANKDM materials are composed of 42 Units, which are sorted first by ILR levels from 2 to 4. They are also sorted by ten FLO (Final Learning Objectives) topics: Culture and Society; Economy and Politics; Geography and Environment; Military and Security; Science and Technology. These units are comprised of interactive, online content-based instructional materials, which provide students/learners with cultural and regional information concerning North Korea, through different topics in the Final Learning Objectives. These materials will guide students in learning a variety of subject matters regarding North Korea. At the same time, a variety of linguistic activities will lead to understanding and acquiring the lexical, grammatical, orthographical, phonological, semantic, and sociolinguistic differences between the Dialect and the Standard Korean language.

It is meant that "North Korean Dialect" refers to North Korea's Standard Language in contrast to the Standard Korean Language being used in South Korea. North Koreans refer to their Standard Language as the "Cultured Language" (*Munhwa-eo*), which is mainly the regional dialect of *Pyeongyang*, the capital

1) US government's Interagency Language Roundtable (ILR) level descriptions are the standards for proficiency scales that foreign language learners would reach gradually, and were published in 1986. They were also adapted to Academia by American Council on Teachers of Foreign Languages (ACTFL) and most of institutes of Higher Education and K-12 schools in the States use the scales as one of the standards for their curriculum and assessment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2) ILR language proficiency skill level descriptions define Level 5 as "Functionally Native Proficiency" with which "Speaking proficiency is functionally equivalent to that of a highly articulate well-educated native speaker and reflects the cultural standards of the country where the language is natively spoken. The individual uses the language with complete flexibility and intuition, so that speech on all levels is fully accepted by well-educated native speakers in all of its features, including breadth of vocabulary and idiom, colloquialisms and pertinent cultural references..." (<http://www.govtilr.org/skills/ILRscale2.htm>)

city of North Korea. North Korean sources vilify the Standard Language of South Korea as "coquettish" and "decadent," corrupted by English and Japanese loanwords, and full of nasal twangs. The late North Korean dictator, Kim Il Sung, wrote two documents, or "instructions," regarding *Munbwaŋo*, including *Some Problem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Language*, promulgated in 1964, and *On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Language: Conversations with Linguists*, published in 1966, and these documents were meant to define basic national policy concerning the Cultured Language. According to research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added roughly 4,000 vocabulary items of regional dialects into this Cultured Language. Even after *Munbwaŋo* was pronounced as North Korea's official standard language, the country has consistently and intentionally differentiated the dialect from its South Korean counterpart, purging unnecessary loanwords and even some Sino-Korean words. Therefore, in order to achieve near-native proficiency in the Korean language, it is deemed imperative to acquire those linguistic features of the North Korean dialect being used in half of the peninsula. In this project, mainly the *Munbwaŋo* from North Korean Media is included, but the three informants have provided two regional dialects, North-Western dialect and Northeastern dialect, for everyday common speakers' language examples.³⁾

3. Pedagogical Principles Reflected in ANKDM and Examples

Each learning unit is constructed on the principle that acquisition begins with the receptive skill domains of listening and reading and happens most effectively as a result of meaningful tasks based on the input provided in authentic texts. In addition, the basic assumptions of adult learning principles are the foundation of the following pedagogical considerations.⁴⁾

1. Content Based Instruction: ANKDM is essentially a content-based instructional module, which focuses on a variety of subjects that teach students to understand various aspects of North Korean society. The project team incorporated 42 different but relevant subjects that fall into different sub-

3) We have contracted and worked with three North Korean defectors residing in Southern California whom Korean Consulate in San Francisco introduced to us. These three informants have stayed in the States about 3-5 years after their defect and their age groups are at their 40's, 50's and 60's. They are all college graduates, and had a variety of jobs in North Korea, a governmental position, a military position, and a cook. Due to their efforts to immersing in South Korea and American society, they tend to speak Standard Korean language. In order to collect natural and authentic North Korean language utterances from them, the project team had used different methods of collecting data, such as role plays without any scripts, discussions among themselves based on a given topic, and interviews on specific topics. All of their speeches were recorded and used as authentic language materials. They also have verified and reviewed the validity of North Korean language samples which the project team have downloaded from North Korean Websites.

4) Boylan, P. and Kang, S. (1995), pp. 4-5

categories of the major topical areas mentioned above. According to educational psychologists, the only way to learn a language is through topics that students are passionate about. This is especially true for adult learners and for higher-level language learners. Hence, rather than simply offering grammar, reading, listening and comprehension skills in the classroom, ANKDM offers students topical subject matters that are closely related with their job in the field or their real lives outside the classroom. It is commonly agreed that in the best form of Content Based Instruction, language lessons are integrated with stimulating content. The students focus more on the subject matter rather than the language learning process itself. Students successfully learn complex skills by engaging them in challenging and informative activities. When students are engaged and motivated in the materials they are learning, they make greater connections to life situations, learning becomes a fun and easy activity, and information is retained for a greater period of time.

2. Task-Based, Project Based Instruction: ANKDM also incorporates task-based instructional design by focusing on the use of authentic language and on asking students to do meaningful tasks using the target language. Furthermore, in developing ANKDM, the project team extended the design to Project Based Instruction beyond common daily tasks that are often found in basic level language materials. Project Based Instruction provides complex tasks based on challenging questions or problems that involve students' problem solving, decision making, investigative skills, and reflections. It allows students to work in groups or by themselves and encourages them to come up with ideas and realistic solutions. Students take these problems and solutions and apply them to real life situations with these projects. Project-based learning prepares students for real-life applications, through these classroom experiences. Students are able to develop their creative-thinking skills in designing original solutions to these real world problems.

3. Higher Order Thinking Skills: With Content Based, Task Based, and Project Based Instructional design, the learning activities in ANKDM are naturally designed to incorporate Higher Order Thinking Skills such as analysis, synthesis, and evaluation skills as defined in Bloom's Taxonomy. One of the most critical elements the authors have tried to stress in these learning materials is for students to read and listen to North Korean materials with critical mind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produced most materials for propaganda purposes, and so the authors of these instructional units found it necessary to counterbalance and contrast those ideological claims and attitudes with articles and information from South Korean and American media sources, which provide the viewpoints and perspective of democratic nations.

4. High Level Texts: The texts used in ANKDM are carefully selected to incorporate students' use of higher level language skills, as well as projective and evaluative text modes.⁵⁾ The major sources for

listening and reading texts in ANKDM are *Rodong Shinmoon* (Newspaper of the Workers, the official newspaper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North Korea) and *Chosun Choongang Thonshin* (Korean Central News Agency, the state news agency of North Korea). The editorials and news commentaries from these sources best fit the characteristics of 'Evaluative and/or Projective modes' as defined by James Child:

[The texts are] characterized by the emphasis on the transmission of facts, and as such [are] shifted to a perspective in which facts are selected and pressed into service in order to develop points of view. (Child 1999)

This idea is particularly relevant to these source materials as they have been "pressed into service" to defend past or projected policies of the North Korean regime.⁶⁾

5. Resources for Cultural Literacy and Sociolinguistic Cues: High level cultural references are featured in the ANKDM materials.

Because the two Koreas have been divided almost 60 years by different ideologies, many cultural references found in North Korean texts are not automatically comprehensible even to South Korean native speakers. In ANKDM, such high level cultural references are introduced, and explained in *Dovummal* (Teacher's Guide) and *Chamgojang* (References).⁷⁾

Examples of High Level Cultural Reference

– 선군정치('Songun' or Military-First Policy) prioritizes the Korean People's Army in the affairs of state and allocates national resources to the army first. This policy has played many roles, especially in "Military First Politics," serving as a political system, in "a line of Military First Economic Construction," acting as an economic system, and "Military First Ideology," making it the new guiding ideology of North Korea.

5) As introduced early, the proficiency levels covered in this project are level 2-4 targeting Intermediate and Advanced Korean language learners who already has proficiency level 2 and above.

6) Example: A broadcast from *Korean Central News Agency*, (Joint Statement by DPRK Political Parties). In this statement, the author includes their own analysis and evaluation in an evincing tone sprinkled with a high level of abstractions and nuances, which are characteristic of higher level texts.

7) Example: 선군정치('Songun' or Military-First Policy) prioritizes the Korean People's Army in the affairs of state and allocates national resources to the army first. This policy has played many roles, especially in "Military First Politics," serving as a political system, in "a line of Military First Economic Construction," acting as an economic system, and "Military First Ideology," making it the new guiding ideology of North Korea.

6. Nonstandard Linguistics Features: A variety of linguistic differences between South and the North Korea are featured in ANKDM. In order for students to gain higher-level proficiency, it is imperative to gain further accuracy in forms not only in standard linguistic elements but also in non-standard, dialectal, and linguistic features. Many idiomatic expressions that originated from within the ideological propaganda provide abundant sociolinguistic features of the dialect and provide students with critical strategies towards comprehending the different nuances and reading “between and beyond the lines”.

The glossary of lexical items is the collection of about 1500 vocabulary items taken from the authentic passages that are included in the curriculum. Instead of teaching isolated vocabulary items, they were introduced within the context and also listed alphabetically in the glossary. And all of them are annotated with the definition by *Choseonmaldaesajeon*⁸⁾ and with South Korean Standard language and English equivalents as well as actual examples used in a phrase or sentence. And the grammar notes are provided based on *ChoUiSung's Joseoneo Yeongsil*.⁹⁾ These grammar notes are also collections of grammatical features introduced in the authentic passages rather than introducing them as isolated grammar patterns. So the learners actually see the actual usage of the different grammatical patterns of North Korean in comparison with South Korean standard dialect. Many linguistic activities ask learners to “translate” North Korean vocabulary and grammar into South Korean counterparts to grasp the linguistic differences.

Examples of Activities Focused on Non-Standard Linguistic Features

- Infer the meaning of the words from the context and also in the context of the given example sentences. The underlined words are the expression commonly used in North Korea, but not in South Korea.

- 1) 손전화기에 건반자물쇠를 걸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What should I do to **lock the key pad** in the **cell phone**?)
- 2) 사막같은 황무지위에 기적의 도시를 일떠세운 영웅적군인건설자들. (Those heroic military engineers who miraculously **built a city/made (a city) stand up** out of the desert-like wilderness.)

7. Skills Integration with Focus on Receptive Skills in North Korean Dialect: The learning activities on this website mainly focus on acquisition of Receptive Skills that are Reading and Listening Skills. However, students are asked occasionally to use North Korean orthography, pronunciation, grammar patterns, and lexical items in their productive skills, Speaking and Writing, although they may not actually need to speak or write in North Korean in real life. Four skill integrations are the major framework

8)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9) 조의성의 조선어 연구실, <http://www.tufs.ac.jp/ts/personal/choes/Smain.html>

of learning activities because we believe language learning takes place most effectively when all four language skills are integrated.

8. Final Assessment for Each Learning Unit: In any curriculum, it is essential to check if learning has taken place. Although it is a challenge to develop an assessment tool to measure the learning outcome with a vast amount of subject matters, the project team has provided at least a simple quiz for each of the 42 learning units. Each unit quiz checks if students have understood and retained the main content and linguistic elements.

4. Structure of each unit

Each learning unit has a structure consisting of 4 major procedural phases of Brainstorming, Pre Activity, Main Activity, and Wrap-up Activity, ending with a unit quiz. The rationale for having these phases is, of course, based on the principle that acquisition begins with the receptive skill domains of listening and reading and happens most effectively as a result of meaningful tasks based on the input provided in authentic texts. And learners are guided to integrate other productive skills later in the process. At the same time, learners are given chances to begin with schemata-building to associate the known with the expected new information, and gradually move toward the higher levels by going through each phase.

There are different buttons on each page that will direct the student to a few learning resources: 단어장 (glossary): Glossary of the North Korean words introduced in the unit;



문법장 (grammar note): Grammatical explanations of unique grammatical patterns of North Korean Dialect, different from those in Standard Korean Language; 참고장 (culture note): Notes from cultural and area references; 내공책 (my note): Printer-friendly MS Word versions of entire lesson units; 첫페이지 (the front page in “North Korean word”): The first page of the entire materials; 목록 (list): Directory of the 42 units indexing proficiency levels and topics; 도움말 (hints): Helpful hints for instructions, key answers to some activities, and other instructional suggestions; 듣기 (listening): Button for audio materials; 읽기(reading): Button for reading materials; 지문 (script): Script for audio or video materials; 동영상 (video): Video materials for listening activities; etc.

5. Implications in Korea's language policy

As overviewed, DLI's North Korean Material Project was conducted to educate North Korean language, culture and society to the speakers of Korean, and exposed them with the raw authentic materials without any prescriptive approach. At the same time, these materials are supposed to challenge the students and their teachers to observe and analyze North Korean language, culture and society on their own. It is worth to mention that the final product of these materials is posted in DLI's website, which is part of US Department of Defense network system.¹⁰⁾ These approaches imply that the speakers of Korean, not the language policy experts and authorities, are basically the one who need to learn North Korean language, culture and society and to deal with the confusions when facing North Koreans in the future. And authorities provide the open environment and guidance to the speakers to raise their awareness of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Of course, the awareness of the increased distance between the language variations of South and North Korea has become widespread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efforts and discussions to integrate or somewhat standardize the two variations in order to minimize the confusions of the language use in the future unified nation have not been neglected. That is, many individual scholars and institutions have studied the differences between two language variations for the last two to three decades, and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has had a long communication with North Korea's Korean language scholars. Yet, many of the discussions focus on the study of the linguistic differences and on publishing consolidated South and North Korean dictionary and standardized orthography rules, and have not paid much attention to inclusion or education of common speakers who are the actual stakeholders of the outcome of such studies and policies. Thus, the following ideas c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6. Inclusion or Education of Common Speakers in the Entire Language Community

There have been plenty of discussions among Korean scholars on how to integrate South and North Korean language variations for the future unified society. And many scholars made significant proposals such as: 1. Establish an organiz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o work on the language integration; 2. Raise the awareness of the necessity of language Integration; 3. Open media to each other; 4. Encourage

10) Most websites run by North Korea are in the public domain and easily accessible in the States although some of them are blocked in DOD's network. The only concern to post the materials in DOD's system was copyright issues rather than security issues. North Korean government grants copyright of most public materials for non-commercial use though. One more thing to note here is that several media stations run by North Korean defectors were the great resources for the authentic materials with defectors' viewpoints.

civil or non-governmental interactions; 5. Increase the contact of field scholars in both sides; 6. Publish a unified or integrated dictionary; 7. Decide on the Standard Language between two variations; 8. Need to adjust the objectives of general education. (김민수 1992, 박갑수 1993, 고영근 1994, 박갑수 1994, 김진우 김철양 편 1995, 이주행 1996, 김민수 1998, Lev Kontsevich 1998)

This paper agrees that they are the list of quite thorough methods of integration and very significant ones to be implemented immediately. Yet, the language policy making before unified Korea probably needs to give its way to the education of language community first because language change and integration are often lead by the speech community naturally and language policy has limited influence to such change. Also the future unified government might undergo directional changes after the actual unification happens. This paper wants to emphasize that the entire Korean language community in both Koreas should have increased awareness of linguistic as well as sociolinguistic and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two language variations before or while language policy is being made. In order to raise the awareness, the best and only way is to educate the nation from children to adults and from the educators to learners in all age groups. If North Koreans are hard to be included in this process, South Korea should start the effort of increasing common speakers' awareness of the differences of North Korean language and its use. Like current US government's efforts, it is not an unreasonable idea to teach North Korean language and its culture to the speakers of Korean in the formal educational system. Unlike America which has much smaller number of serious Korean speakers, the speakers of Korean in South Korea are the entire nation, of course.¹¹⁾

7. Need of Studies beyond Linguistic Differences

Also, as DLI's North Korean instructional materials are teaching something beyond the language and linguistic differences, teaching the content and "cultural nuances" of the linguistic elements within the context of the different content areas would be more useful for minimizing the misunderstanding. In other words, the study of the differences between South and North language variations need to move beyond linguistic researches and touch more on sociolinguistic and socio-cultural differences: research on Speech Acts, Discourse Structure differences, stylistic differences, idiomatic differences, subtle nuances and meanings between the lines, etc. are needed. So far, the scholars found plenty of morphological, grammatical and lexical differences, and they are well recorded and published. However, these researches and discussions focus on purely linguistic items and ignored the actual use of them in the context and socio-linguistic meanings.

For example, according to the recent research on North Korean defectors' language use, they often

11) I believe "unification education" has been part of Korea's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Maybe it is time to expand its curriculum to focus more on language and culture variations.

interpret South Koreans' courtesy expressions such as “술 한잔해요”. “전화 할게요.” (*Let's drink together later. I will call you.*) literally, and later found they are nothing but greetings and felt deceived. At the same time, South Koreans seldom hear appreciation and complement from North Korean defectors and consider them not courteous.¹²⁾ Although such sociolinguistic differences are main causes of misunderstandings, researches on these elements were seldom. Since language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speakers' culture and society, we also need to consider not only the understanding of linguistic variations but also raising awareness of sociolinguistic and sociocultural aspects, value systems, and ways of thinking.

8. Multilingualism Education approach

Educating the language community to raise the awareness of language and cultural differences is in fact in the same line with the “multicultural education approach” that some sociologists recommended recently in preparation for Korea's Unification.¹³⁾ As Korea is undergoing a rapid change from a rather homogeneous society to a more multicultural one, there are growing concern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Especially, concern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have influence on unification education at school. Therefore, the validity of multicultural education approach to unification education at school are claimed and proposed. For example, a change of viewpoint of heterogeneity in South and North Korea, an affirmative understanding of difference, a process-centered view about unification and instructional method such as assimilator can be part of the curriculum. Among many of the multicultural approach, relative tolerance and delicate balance between unity and diversity are the ones that speech community and educators take into consideration seriously. There is a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differences in life styles and cultural aspects, which have been distanced from each other due to many years' of ideological differences, with objective viewpoint. And it is necessary to accept the differences with mutual understandings avoiding emotional approach in order to minimize any negative outcomes that unified Germany and Yemen have experiences. Openness, sensitivity toward different cultural aspects and language use, objective treatment of any related items in education and policy making will lead into the balanced unity in language community. With such multicultural approach in mind, it is also time to revalue about 20,000 North Korean defectors as resources for the authentic North Korean language and its community and as the target to exercise such approach.

12) 새터민 언어실태조사 연구, 문금현 외, 국립국어원, 2007

13) 오기성 2008

9. Concluding remarks

DLI's Advanced North Korean Dialect project is not a policy or guideline to handle the gap between two Korean language variations, and it starts with "educating" the speakers of Standard Korean language to raise their awareness of the difference of North Korean language and culture from South Korean's. US government does not have any need to integrate the North Korean language variation into South Korean Standard language and accepts North Korean variation as is. On the other hand, Korean government has strong obligation of setting standards for streaming the language use across two countries for the future unified Korea. As some scholars pointed out, however, it could be quite challenging or even an impossible job to draw agreements in many different linguistic and orthographical rules for Standardization at present time, because of the huge ideological gap between two countries that have influenced such rules over 60 years and none of each can overpower the other side. The best option for South Korean government to choose at this current time is to raise the awareness of North Korean language and its culture among common speakers of South Korean citizens. This will require a lot of new policy such as opening North Korean websites and other printed materials and resources to the public, designing and implementing the curriculum for educating North Korean language and culture in schools and as continuing education through media, holding regular open forum on North Korean language and culture, revaluing North Korean defectors' language skills which are the rich sources of the North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tc. It is understandable for the government to have concerns with the public access to un-sanitized ideological materials. That is why more systematic educational programs of the language differences in the schools and media are needed to guide the community to view open materials with more evaluative attitudes. Once South and North Korea become united or integrated in a near future, at least South Korean government and its people would be ready to embrace North Korean counterparts easily and confidently. Then the unified or integrated government can set the language plan and policy with the better agreement.¹⁴⁾ If possible, North Korean government also should be encouraged to educate their people to raise their awareness of South Korean language and its culture, then both Koreas would embrace and integrate with each other much more smoothly with less confusions once unified.

14) Language planning and language policy are "prescriptive approach" to the language and very political decision as many Sociolinguists pointed out. Linguists understand that language change happens naturally and government's control over language use failed in many cases in the history. Most Sociolinguists agree that weak prescriptivism, which balances controlling and allowing language change, should be the way to approach common speakers' language use. (Mesthrie, Swann, Deumert and Leap 2000)

References

- 김민수(1992), 민족통일과 남북의 언어 격차, 도산학술논총 제2집, 도산아카데미연구원.
- 박갑수(1993), 남북한의 언어차이와 그 극복, 자유공론 제319호, 자유총연맹
- 고영근(1994), 통일에 대비한 어문정책, 통일시대의 語文問題, 길벗.
- 박갑수(1994), 남북 맞춤법의 차이와 그 통일 문제, 어문연구 81-82, 한국어문연구회.
- 김진우 김철양 편(1995), 통일을 지향하는 언어와 철학, 국제고려학회.
- 이주행(1996), 남북 언어의 동질성 회복 방안, KBS 한국어연구논문 제44집, 한국방송공사.
- 김민수(1998), 민족어의 통일문제, 개교5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남북한언어 통일의 과제와 전망, 강남대학교.
- Lev Kontsevich(1998), 현대 남북 국어발전 이질화의 경향과 극복 방법에 대하여, 개교5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남북한 언어 통일의 과제와 전망, 강남대학교.
- 오기성 (2008), 학교 통일교육의 다문화교육적 접근
- 이범웅 (2007), 남북한 주민간의 가치통합 교육방안
- Bloom, B.S, (Ed.), Engelhart M.D, Furst E.J., Hill, W.H., and Krathwohl (1956),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Handbook I: Cognitive Domain*, New York, McKay.
- Boylan, P. and Kang, S (1995), "Syllabus Design for the Less Commonly Taught Languages," *Korean Language in America*, Vol 1, AATK
- Child, J. R. (1999) *Textual Levels & Translation Practices*. Paper given at MIIS 25th Anniversary Conference on Translation and on the Web from Monterey, CA;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MIIS).
- Hunston, S. & Thompson, G. (2001). *Evaluation in text: authorial stance and the construction of discourse*. (Ed.). Oxford University Press
- Interagency Language Roundtable (2010), Language Skill Level Descriptions, <http://www.govtllr.org/>
- Kang, S. (2006). Differences between Standard Languages of South and of North Korea, *Korean Linguistics Anthology*, Taehaksa.
- Thomas, A. and Thorne G. (2010). *Centre for Development and Learning: Thinking out aloud* retrieved from www.cdl.org/resource-library/articles/highorderthinking.php
- Weil, D.K, Kincheloe J.L. (2004). *Critical thinking and learning: an encyclopedia for parents and teachers*. Santa Barbara: Greenwood Publishing Group

● **체제 통합과 언어 문제 국제 학술 대회**

발행인: 권재일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인쇄일: 2011. 11. 18.

발행일: 2011. 11. 22.

제 작: 크리홍보주식회사